

국립국어원 2006-1-08 전북(2)

2006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소강춘
- ◆ 연구 보조원 : 주경미
- ◆ 조 사 지 역 : 전라북도 무주군 서면

국 립 국 어 원

2
0
0
6
년

전
북
지
역
어
조
사
보
고
서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소강춘

목 차

1. 조사 과정	3
2. 전사 원칙	7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1
제 2 편 어 휘	181
제 3 편 음 운	234
제 4 편 문 법	279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전북지역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는 무주군의 북서쪽에 자리 잡은 곳으로 서면으로도 불린다. 무주읍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충남 금산군과 연결해 있으나 물과 산으로 막혀 금산군과의 왕래는 예전부터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무주읍에 속하기는 하나 마을이 산과 물에 둘러싸여 다른 곳으로 출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무주읍을 거쳐야 한다.

무주군 전체가 산악 지대인 것처럼 이곳도 산이 많고 평야 지대는 좁다. 그러나 마을 앞으로 덕유산에서 발원하는 물길과 장수에서 발원하는 물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큰물을 이루고 있어 농사를 짓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농토도 비옥하고 지대도 낮아 무상기간이 길어 농사지으며 살기에 좋은 곳이다. 그러나 250호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마을의 주된 생계 수단이 농업이다. 1970년대 이후로는 배추 농사가 크게 유행하여 마을 전체가 큰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한다. 주제보자인 이종성 씨는 대차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차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의 통혼은 주로 대차리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무주읍에서 시집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다. 조사지점인 대차리에는 국민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으며, 지금은 무주읍으로 초등학교를 다닌다. 무주읍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여 왕래하는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1.2 조사 기간

2006년 7월 14일-2006년 9월 30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이름	이
성별	남
나이	76

출생지	무주
거주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선대거주지	상동
직업	농업
경력	
학력	무학
병역	육군(6.25 참전용사)
제보자 소개 과정	무주군 문화원장 소개
제보자의 특기 사항	무학이지만 개인 노력으로 언해 가능
제보자의 음성 특징	영리하고 발음도 매우 양호함

(2) 보조제보자

이름	김
성별	여
나이	79
출생지	충북 영동(14살에 로 시집옴)
거주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선대거주지	충북 영동
직업	농업
경력	
학력	무학
병역	
제보자 소개 과정	현지에서 섭외
제보자의 특기 사항	한학자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무학
제보자의 음성 특징	충기 있고 발음도 양호함

1.4 조사자

- (1) 이름 : 소강춘(전주대학교 교수)/주경미(전주대학교 교수)
- (2) 조사 일시 : 2006년 7월 14일-2006년 9월 30일
-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의 집
- (4) 조사내용
 - 2006년 7월 14일 : 어휘
 - 2006년 7월 15일 : 어휘
 - 2006년 7월 21일 : 어휘

2006년 7월 22일 : 구술발화
 2006년 7월 28일 : 어휘, 구술발화
 2006년 7월 31일 : 구술발화
 2006년 8월 4일 : 어휘
 2006년 8월 25일 : 음운, 구술발화
 2006년 8월 26일 : 구술발화
 2006년 9월 5일 : 구술발화
 2006년 9월 15일 : 음운
 2006년 9월 18일 : 문법
 2006년 9월 22일 : 문법, 구술발화
 2006년 9월 23일 : 추가조사
 2006년 9월 30일 : 추가, 확인조사

tape	과 일 명	녹음시간	조사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SJB_MJ_01	1:06:45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14
2	SJB_MJ_02	1:15:30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14
3	SJB_MJ_03	2:02:50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14
4	SJB_MJ_04	1:44:16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15
5	SJB_MJ_05	2:01:04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15
6	SJB_MJ_06	2:03:35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7.22
7	SJB_MJ_07	2:03:25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7.22
8	SJB_MJ_08	2:02:50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7.28
9	SJB_MJ_09	2:03:35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7.28
10	SJB_MJ_10	2:02:40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7.31
11	SJB_MJ_11	2:02:48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7.31
12	SJB_MJ_12	1:38:51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8.25
13	SJB_MJ_13	2:02:46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8.26
14	SJB_MJ_14	2:03:42	음운	이**	소강춘	2006. 9.15
15	SJB_MJ_15	2:05:05	음운	이**	소강춘	2006. 9.15
16	SJB_MJ_16	2:04:25	음운	이**	소강춘	2006. 9.15
17	SJB_MJ_17	1:57:20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28
18	SJB_MJ_18	2:00:20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28
19	SJB_MJ_19	0:44:40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7.28
20	SJB_MJ_20	1:57:40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8.4
21	SJB_MJ_21	1:47:45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8.4
22	SJB_MJ_22	1:59:58	구술발화	이**	소강춘	2006. 9.5
23	SJB_MJ_23	0:44:30	음운	이**	소강춘/주경미	2006. 8.25
24	SJB_MJ_24	2:01:15	문법	이**	소강춘/주경미	2006. 9.18
25	SJB_MJ_25	2:01:35	문법	이**	소강춘/주경미	2006. 9.18
26	SJB_MJ_26	0:41:25	문법	이**	소강춘/주경미	2006. 9.22
27	SJB_MJ_27	2:02:10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8.4
28	SJB_MJ_28	0:51:62	어휘	김**	소강춘/주경미	2006. 9.30
합계		51시간				

1.5 전사

(1) 1차 전사(2006년 9월)

구술발화 : 소강춘

어휘 : 주경미

음운 : 주경미

문법 : 주경미

(2) 1차 점검(2006년 10월)

구술발화 : 소강춘

어휘 : 주경미

음운 : 주경미

문법 : 주경미

(3) 2차 점검(2006년 11월)

구술발화 : 소강춘

어휘 : 소강춘

음운 : 소강춘

문법 : 소강춘


(4) 3차 점검(2006년 12월)

구술발화 : 소강춘

어휘 : 소강춘

음운 : 소강춘

문법 : 소강춘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06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2. 의례 생활

1.2.1. 태생과 성장

<가족 사항>

10201 @ 그러면요. 그 큰아드님, 인자 그 아들 둘에 딸 셋 그러게되세요? {그러면요, 그 큰아드님, 이제 그 아들 둘에 딸 셋 그렇게 되세요?}

10201 # 큰아덜이요? {큰아들이요?}

10201 @ 아니 어르시니 어르신 자제부니? {아니, 어르신이 어르신 자제분이?}

10201 # 아:. {아.}

10201 # 아덜 서이. {아들 셋이.}

10201 @ 아들 서이? {아들 셋이?}

10201 # 예, 딸 둘. {예, 딸 둘.}

10201 @ 딸 둘? 맨: 위애가 아드리요? 따리요? {딸 둘? 맨 위가 아들이요? 딸이요?}

10201 @ 맨: 위애가 아드리요 따리요? {매 위가 아들이요? 딸이요?}

10201 # 따리요. {딸이요.}

10201 # 장나미 따리요. {장남이 딸이요.}

10201 @ 그 따니몬 어디게세요? {그 따님은 어디게세요?}

10201 # 인치니요. {인천이요.}

10201 @ 인치네. {인천에.}

10201 # 예. {예.}

10201 @ 둘째 지금 그 크나드니몬 그몬 딸, 그다메 아드리 큰아드리예요? {둘째 지금 그 큰아드님은 그러면 딸, 그 다음에 아들이 큰아들이예요?}

10201 # 응, 아덜. {응, 아들.}

10201 # 그 아덜은 저 처난. {그 아들은 저 천안.}

10201 @ 처나안? {천안?}

10201 # 잉. {응.}

10201 @ 어느 대학에 계세요? {어느 대학에 계세요?}

10201 # 남서울대학개요. {남서울대학에요.}

10201 @ 남서울대학개:. {남서울대학에.}

10201 @ 그먼 그러케 키워노셴는데 가:끔 지베 자주 모도시쥬? 바빠가꼬? {그러면 그렇게 키워놓으셨는데 가끔 집에 자주 못 오시쥬? 바빠가지고?}

10201 # 예, 자주 모와요. {예, 자주 못 와요.}

10201 @ 저도 그래 ... {저도 그래요.}

10201 # 그 뭐가 그러케 바쁘대요:~ {그 뭐가 그렇게 바쁘대요?}

10201 @ 그래요 요즘. {그래요 요즘.}

10201 # 그러제 나네요, 인제 이게 방학때, 인자 학생덜 방하가고 나면 쫘 저 저 지비서 놀고 그랄제 아라도, 항상 머르항거에 학교를 가서 머 이라고 바:쁘대요. 만날. {그러지 나는데요, 이제 이게 방학 때, 이제 학생들 방학하고 나면 조금 저 집에서 놀고, 그럴지 알아도,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학교를 가서, 뭐 일하고 바쁘대요. 매일.}

10201 @ 바~악 때가 더 바빠요. {방학 때가 더 바빠요.}

10201 # 예: 그래요. {예, 그래요.}

10201 @ 교수들허고 중고등학교 선생들허고 달라요. {교수들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들하고 달라요.}

10201 # 예:. {예.}

10201 @ 학생드른 방학때 쉬는데. {학생들은 방학 때 쉬는데.}

10201 # 예. {예.}

10201 # 그닝갑뜨마뇨. {그러는 것 같드만요.}

10201 # 그냥 머:허고 사고 어터가고, 만날 학교 나가고 머 바쁘대요. 바빠. {그냥 뭐하고 살고, 어떻게 하고, 맨날 학교 나가고 뭐 바쁘대요. 바빠.}

10201 # 놀썻각뜰 안허는갑드만뇨. 벼랑. {놀 생각들 안하는 가보드만요. 별로.}

10201 @ 그렇게 가르치면, 쫘 머 그럴꺼튼데, 또 가르치면 보닌드리 바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면, 쫘 뭐 그럴 것 같은데, 또 가르치면 본인들이 바쁘니까.}

10201 # 기 나는 그러들들해요. {그것이 나는 그렇다고들 해요.}

10201 # 교수니른 시방 어느 학교? {교수님은 지금 어느 학교?}

10201 @ 전주대하계 이썬요. {전주대학에 있어요.}

10201 # 아! 전주대핵교. {아! 전주대학교.}

10201 # 더러 나 근 소리 해요. {더러 나는 그런 소리를 해요.}

10201 # 야이, 저 두 피고나다고 생강말구 사라른 항상 절물때 바빠야 된다. {야, 저도 피곤하다고 생각 말고, 사람은 항상 젊을 때 바빠야 된다.}

10201 # 바빠야 사람이 머 생전 너꼬 사라야 바빠야지 볼꺼시 인찌:, 안바쁘고 정하른 볼꺼시 읍따. {바빠야 사람이 뭐 생전 넓고 살아야 바빠야지 볼 것이 있지, 안 바쁘고 정하면 볼 것이 없다.}

10201 # 그랑께, 바쁜걸 머 구차나다 머 거시기하다 생강말고 그걸 고마께 생가가고 게 열씨미 이케 그러케 생가글 해야지. {그러니까, 바쁜 것을 뭐 귀찮하다 뭐 거시기하다 생각 말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열심히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10201 # 머 내가 이런 소리 아내도 저 저덜 그러케 생각할테지마는, 하이고 내가 바빠서 대견해서 모다거따. {뭐 내가 이런 소리 안 해도, 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테지마는, 아이고 내가 바빠서 대견해서 못 하겠다.}

10201 # 뭐 머시든지 사람이래능게 마리오, 소:하라께 생가게야 쉬랑게제, 대그나케 생가가른 항상 대그내요. {뭐 무엇이든지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요, 수월하게 생각해야 수월한 것이지, 대간하게 생각하면 항상 대간해요.}

10201 # 뭐 대그냥거또 하이고 대그냐 모대 대그냐. {뭐 대간한 것도 아이고 대간해서 못 해 대간해.}

10201 # 이케 생각허면 머다능기여 할 만하다 쫘 쉬랍따.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하는 것이

야. 할 만하다 좀 수월하다.}

10201 # 이케 마멸 너무다니 마멸 머그머 드라고, 그 내가 더러 그란디. {이렇게 맘을 넓다랗게 맘을 먹으면 덜하고, 그 내가 더러 그렇게 말하는데.}

10201 # 머 내가 이런 소리 하나, 하나 아나나 저두 그러케 생각할테지마는. 뭇. {뭐 내가 이런 소리 하나, 하나 안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테지마는. 뭇.}

10201 @ 그먼 천따님은 대하글 안보내셴, 안보내세꼬? {그러면 첫 따님은 대학을 안 보내셨, 안 보내셨고?}

10201 # 안보냈찌요. {안 보냈지요.}

10201 @ 초네서 방아칸했찌만 저히도 마찬가지로 ... {촌에서 방앗간 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였 ...}

10201 @ 그 아드니미 딱 대하게 드러가셔쥬 때 어떤 기부니시등가요? {그 아드님이 딱 대학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기분이지등가요?}

10201 # 아 기부니야 머 조쵸, 마랄수업썩. {아, 기분이야 뭇 좋지요, 말할 수 없이}

10201 @ 아드니미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오셔썩요? {아드님은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오셨어요?}

10201 # 무주서 나와썩요. {무주에서 나왔어요.}

10201 @ 무주서 ... {무주에서 ...}

10201 # 예, 중고등학교를 다 무주서 나와썩. {예, 중고등학교를 다 무주에서 나왔어.}

10201 @ 아따 그러고 대학가면 공부 자랜네 무주서. {아따 그러고 대학가면 공부 잘했네, 무주에서.}

10201 # 예. {예.}

10201 # 게렛때 무주: 기 인재, 공부라는거시 시기스는 게 안되드만요. 시기서는. {그랬지 무주, 그 이제, 공부라는 것이 시켜서는 그 안되드만요. 시켜서는.}

10201 # 지가 할라고 해야지, 지그먼 철대 안되요, 그냥. {지가 할려고 해야지, 지금은 절대 안돼요. 그냥.}

10201 # 국민학교 땡길때부터 초등학교 초등학교 땡길때부터 가는 지베 오면 나가덜아내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는 집에 오면 나가들 안해요.}

10201 # 하:양상 책만 보고 그라고 머 먼만 보고 그라지, 생:전 머 이 여 부디고 친구들하고 머, 고다테 막 어우러디고, 막 먼 그라건 아냐. {항상 책만 보고 그리고 뭇 뭇만 보고 그러지, 생전 뭇 이 여 친구들하고 뭇, 고살에 막 어울리고, 막 뭇 그런 것은 안해.}

10201 # 하:양상 생화리 중학교 땡길때보다, 초등학교 땡길때부터 상얼 머 먼언 상 먼 상머 상을 탄싼트만요. {항상 생활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상을 뭇 뭇 상 뭇 상을 탸앗드만요.}

10201 # 게 나 그때 인재 무주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망년때 땡길찌기, {그래 나 그때 이제 무주 고등학교, 고등학교 삼학년 때 다닐 적에.}

10201 # 예 가 다님선생니미 저: 이리 이리 거그 고향이 거그라고 그라더만. {예, 가 담임 선생님이 저 이리 이리 거기가 고향이 거기라고 그러드만.}

10201 # 그래서 인재, 함번 우리 지비를 차자완썩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10201 # 그레 인재, 난 인재 거 중고등학교 땡기면, 엔 엔나레 인재, 솥 저 갈: 보무로 소

풍뎡기고 그러카자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 옛날에 이제, 소 저 가을, 봄으로 소풍 다니고 그랬잖아요?}

10201 # 허구 땡기른 내가 미안해서, 우리 아덜보구 야 너 선생님 저 ... {하고 다니면 내가 미안해서, 우리 아들 보고 야 너 선생님 저 ...}

10201 # 그저니는 머 별거업써 머 그 담배 가튼거 인제 머 그런거 뭐 이제. {그 전에는 뭐 별 것 없어, 뭐 그 담배 같은 것 이제 뭐 그런 것 뭐 이제.}

10201 # 담배나 존놈 한짝 사다 주라 사자 그먼. {담배나 좋은 것 한 짝 사다 줘라 사자 그러면.}

10201 # 아 냅:뒤요, 머하러 사요. {아 내비뒤요, 뭐하러 사요.}

10201 # 해:년 아 인자 아들 저 세슬 저 먼저 중고등학교 다 이르게. {매년 아 이제 아들 저 셋을 저 먼저 중고등학교 다 이르게.}

10201 # 센 네:옐뚜 우리 딸꺼지 네슬 다 인제 중고등학교는 무준따 마치쥬. {셋 넷도 우리 딸까지 넷을 다 이제 중고등학교는 무주에서 마쳤지요.}

10201 # ***도 선생 `마:대`주거. {***도 선생 마다고 해 죽어.}

10201 # 가따 그림 마대 거 선생님 저. {갔따 그림 마다고 해 그 선생님 저.}

10201 # 참 이거 내가 인저 너무나 선생니만테 잘 모당긴데. {참 이것 내가 이제 너무나 선생님한테 잘 못 한 것인데.}

10201 # 근데 허허허, 하 근데 제가 마다그면 어떡키야. 내가 날치기로, 누가 마대요. {그런데 하하하, 하 그런데 저희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날치기로, 누가 맞다고 해요.}

10201 # 그래가꾸선 인제 이레 선생님 지비로 완뜨만, 거참.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리 선생님이 집으로 왔더만, 그 참.}

10201 # 금방두 애기해찌마는, 내가 참 저 선생니를 차자베야 되는데, {금방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참 저 선생님을 찾아뵈어야 되는데,}

10201 # 선생님 내와서 마 하시년 말쓰미, {선생님 내려와서 마 하시는 말씀이.}

10201 # 이행호가 잉 공부를 자란다고 장래 머 거시기 하건는다. {이행호가 이 공부를 잘 한다고 장래 뭐 거시기 하겠는데.}

10201 # 대해글 보낼라나 안보내나 그걸 나한테 한번 내 으겨늘 드려볼려고 완뜨만요. {대학을 보내려나 안 보내나, 그것을 나한테 한번 내 의견을 들어보려고 왔드만요.}

10201 # 아 지가 머 인제 내 도는 읍찌마는 지가 한다고 그서 대해표 머 합격만 한다면 워터케라두 갈치야쥬. {아 제가 뭐 이제 내 돈은 없지만은 지가 한다고 해서 대학교 뭐 합격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야쥬.}

10201 # 갈치야지요. {가르쳐야지요.}

10201 # 그름 어느 대해표를 보내냐, 아 그거꺼진 내가 알쭈가 인능가요. 거까진 안쓰고 인제. {그러면 어느 대학교를 보내야, 아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가 있는가요.}

10201 # 지가 인제 땡긴테 지 아랑이루 인제 지가 머 어떡카지 내 그꺼지는 나 인제, 뭐 생각 몬허건따고 내 그런디. {지가 이제 다니는 데, 지 아랑으로 이제 지가 뭐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까지는 나 이제, 뭐 생각 못 하겠다고 내 그런데.}

10201 # 그러구서 점, 저 저러케 열씨미 해구서나 서울 저 거시기 대학 나와쥬요. 첨머니는. {그렇게 하고서 저 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서울 저 거시기 대학 나왔어요. 처음에는.}

10201 # 멀 그케 생각할라면 생가기 안나, 대하귀는 거시기 저 또 이러케 생가기 안나네,
 {뭘 그렇게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나, 대학원은 거시기 저 또 이렇게 생각이 안나네.}

10201 @ 서울써 학교를 다나와썬요? 대하글? {서울에서 학교를 다 나왔어요? 대학을?}

10201 # 예. {예.}

10201 # 대하귀는 거시기 거시기 대하권 나오고. {대학원은 거시기 거시기 대학원 나오
 고.}

10201 @ 대전써 나와썬요? {대전에서 나왔어요?}

10201 # 아니 서울. {아니 서울.}

10201 # 참 뭘 해따가도 글케 생각 생가글 하면 잘 안나요. {참 뭘 했다가고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면 잘 안나요.}

10201 # 거 인재. {그 이제.}

10201 # 박싸하귀는 전북때, 전북때에서나 나오고, 전주여서 조금 인썬썬요. {박사학위는
 전북대, 전북대에서 나오고, 전주에서 조금 있었어요.}

10201 # 바로 이제 대학 대학 대하권 다 조립하고, 여 다 마치고, 조립하기 저네 대전 연
 구소, 대전 연구소로 발령이 나드만요. {바로 이제 대학 대학 대학원 다 졸업하고, 다
 마치고, 졸업하기 전에 대전 연구소, 대전 연구소로 발령이 나드만요.}

10201 # 대전 연구소서나: 머 한: 솔차니 인썬썬요. 함때, 고그서 일따가 인재, {대전 연구
 소에서 뭐 한 상당히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10201 # 대학 교수로 인재, 초메는 전주 전주 가서나 하 한 이삼년 이썬능가. {대학 교수
 로 이제, 처음에는 전주 전주 가서 한 이삼년 있었는가.}

10201 # 그래가꾸서 인재, 저 처난 저 거기 저 거또 시허물 저 거시기 교수를 뽑는다고 ...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 천안 저 거기 저 거 또 시험을 저 거시기 교수를 뽑는다고
 ...}

10201 @ 저 때무네 그냥 아버님허고 이야기도 묻허싱가바요. {저 때문에 그냥 아버님하고
 이야기도 못 하시는가 바요.}

10201 # 그래가꾸서나 인재 거가서 인재 시험 바가꼬, 시험 바가꼬 인자 거이때 처난으로
 가썬요. {그래가지고서나 이에 거기 가서 이제 시험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 때
 천안으로 갔어요.}

10201 # 그래가지 ... {그래가지고 ...}

10201 # 저: 나넌 머 워디 머 노푼 낭반덜 머 아넌 사램두 업꾸 뺄꾸 업꾸 그냥 머, 그렇
 거 거시간다고해두 머 무신 머 워디서 뭐 머 ... {저, 나는 뭐 어디 뭐 높은 양반들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뺄도 없고, 그냥 뭐 그런것 거시기한다고 해도 뭐 무슨 뭐 어
 디서 뭐 머 ...}

10201 # 선사하고 뭐하고 그런거 돈 참: 그렇건 가 하두 안하고, 그렇거 업씨 그냥 순전
 그냥 지가 그냥 제 노력기로 노력글 해가꼬서 그냥, 그르케 해씨유. {선사하고 뭐하
 고 그런것 돈 참 그런 것 가 하도 안하고, 그런것 없이 그냥 순전히 그냥 지가 그냥
 제 노력으로 노력을 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10201 @ 아 부모니미 그러케 성실하게 서썬는디 얼마나 또 성실허게 사랴겄썬요. {아 부
 모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썬는데 얼마나 또 성실하게 살았썬어요.}

10201 # 예 성시래요. 성실허기는. {예, 성실해요. 성실허기는.}

10201 @ 그래도 그래도 인재 ... {그래도 그래도 인재 ...}

10201 @ 그래도 자제부를 키우실때 보면 ... {그래도 자제분들 키우실 때 보면 ...}

10201 @ 나가따 오신다고. {나갔따 오신다고.}

10201 # 아파트를. {아파트를.}

10201 @ 근데 자제부를 키우실때 일 안코 그래도 공부하는 애가 이빠요? {그런데 자제분을 키우실 때 일 안고, 그래도 공부하는 애가 예빠요?}

10201 @ 일 도와주는 애가 이빠요? 공부하는 애가 이빠요? {일 도와주는 애가 예빠요? 공부하는 애가 예빠요?}

10201 # 나는 아치메 그래찌만, 게 내가 못 배워서 하두 공부가 위니되서나, {나는 아침에 그랬지만, 그 내가 못 배워서 하도 공부가 원이 되어서.}

10201 # 뭐 일거튼거 그런거, 애 그러케 양거시개써, 공부하라구랜찌. {뭐 일같은 것 그런 것, 예 그렇게 안 그랬어, 공부하라고 그랬지.}

10201 # 우리 시:채 머스마도 인제, 가는 저 대전 대 대즌 그 명가 암만 마늘 대즌 저 저 대학글 나와꺼등요. {우리 셋째 머시마도 인제, 가는 저 대전 대전 그 뭔가 아무리해 다 매일 대전 저 저 대학을 나왔거든요.}

10201 # 예 고곧또, 거 중핵교때 중핵교때부텨 엔나래는 인제, 이 집 지키 저네 이제, 거시기 이썬는데, 자방트리라고요. {예 그것도, 그 중학교때 중학교때부터 옛날에는 인제, 이 집 짓기 전에 이제 거시기 있었는데, 재봉틀이라고요.}

10201 # 자방틀 인자 방에다 움모게다 이케 만날 노쿠서 인자 자방틀, 저 으자라고, 똥고로만 나무 요마:낭걸 인자 으자 자방틀 안자서 거 일항거 고그그서. {재봉틀 인제 방에다 윗목에가 이렇게 매일 놓고서 인제 재봉틀, 저 의자라고, 똥고롭한 나무 이만한 것을 인제 의자 재봉틀 앉아서 그 일하는 것 거기서.}

10201 # 끄그인 머 책 그때는 머 책쌍인썬, 아들 공부하라고 뭐 책상얼 내가 사쥬썬 뭇해썬, 나. {그까짓것 뭐 책 그때는 뭐 책상있어, 아들 공부하라고 뭐 책상을 사주었어 무엇을 했어, 나.}

10201 # 그래 자다보면 그때 인제 혼채, 그 켓 저 틀 자방틀 자방틀 그먼 인제, 책쌍 사마쓰능기라. {그래 자다보면 그때 이제 혼자, 그 저 틀 재봉틀 그러면 이제, 책상 삼아쓰는 것이라.}

10201 # 으자를 제 켓 자방틀 으자. {의자를 제 재봉틀 의자.}

10201 # 거그서 그러케 이자, 아휴 그냥 자다보면, 그냥 다: 그 쯔까능거시 공부한다고 그러고 안잔꼬: 안잔꼬 그러문 내가. {거기서 그렇게, 아유 그냥 자다 보면, 그냥 다 그 조그만한 것이 공부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고 앉아 있고 그러면 내가.}

10201 # 야 이 잠온디 자라 자라 그라문 그래 그때 그때 시저를 그르:케 오래 공부를 해도 무란모금도 안쥬썬. {야, 잠 온데 자라, 자라, 그러면 그때 그때 그때 시절은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해도 물 한 모금도 안 쥬어.}

10201 # 머 아무겔또 바메 머, 야 이 너 저 배고푸면 인자 야시기 애이면 머라도 아무겔또 안쥬썬. {뭐 아무것도 밤에 뭐, 야 이 너 저 배고프면 인제 야식이 아니면 뭐라도 아무 것도 안 쥬어요.}

10201 # 그개, 그러케 거지깁싸테요. {그렇게 그렇게 그랬았테요.}

10201 # 그러다가 인제 ... {그라다가 인제 ...}

10201 # 인제 처문지 저: 나중이 내가 그저니 살리믄 해따가 또 사리믄 한번 쯔, 내가 쯔마니 쯔 주러 줄때가 이썬. {인제 처음에 저 나중에 내가 그전에 살림을 했다가 또

살림을 한번 좀, 내가 좀 많이 줄어 줄 때가 있어요.}

10201 # 그러카자 살리미 줄자, 우리 크나덜이 인제 대핵교 가지, 야 인자 고등핵교 가지, 또 인제 저 시챔머스마 중핵교 가지. {그렇게 하자 살림이 줄자, 우리 큰아들이 인제 대학교 가지, 야 이제 고등학교 가지, 또 인제 저 셋째 머스마 중학교 가지.}

10201 # 또 인제 우리 저 뭐 그때는 머 국민핵교야 별거지만, 그때는 다 인자 중고등핵교 다 올 거시기 쥐썸썸썸. {또 인제 우리 저 뭐 그때는 뭐 국민학교야 별 것이 아니지만, 그때는 다 이제 중고등학교는 다 올 거시기 쫘었어.}

10201 # 수업요 수업요를 다 쥐꺼덩. {수업료 수업료를 다 주었거든.}

10201 # 그러다봉게 인제, 대그나데요. 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간하데요. 줌.}

10201 # 대그내서나 우리 두채아는 공부를 게 열씨미 아네 인자 야 공부를 아내 영. {대간 해서나 우리 둘째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인자 야, 공부를 안 해 영.}

10201 # 그럼 자는 핵 핵교 가따오면 마리어, 책보를 가따 혹 지버 내쏘고 혹 지버 내쏘고, 써서 놀로 나가빠리는거야. {그럼 자는 학교 갔다오면 말이야, 책보를 갔다 획 집어 내버리고 획 내버리고, 놀러 나가버리는 거야.}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게 내가, 야이, 너는 저 선생님 저거 숙제 안내주냐? {그래 내가 , 야, 너는 저 선생님 저 숙제 안 내주냐?}

10201 # 그럼 안내줘요. {그럼 안 내줘요.}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기러면 구마니여. {그러면 그만이야.}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그란데 우리 세첸노미 세첸놈도 공부를 잘했썸썸. 인제. {그런데 우리 셋째 놈이 셋째놈도 공부를 잘 했어요. 이제.}

10201 # 저 거시기 때 초등핵교서부터 중핵교서도 자리고, 그래 고등핵교릴 저 구미 그모 공고라고, 예 그저니 저 박정희:씨가 그 저 시서를 해썸썸썸. {저 거시기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서도 잘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저 구미 금호공고라고, 예 그전에 저 박정희씨가 그 저 시절을 했었거든.}

10201 # 게 인제 그 그가 공곤데, 공고래두 인제 그 학교서나 학교서 인자, 중 예 우수한 아드릴 게 그때는 보냈썸. 보아내고저퍼도 못보냈썸. {그 인제 그 그것이 공고인데, 공고라도 인제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인제, 중 예 우수한 아들을 그 그때는 보냈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어요.}

10201 @ 그때는 우수한 애가. {그때는 우수한 애가.}

10201 # 그래 거기서 인제, 학교릴 인제 나오무 으무저그로 인제 또 이 저 ... {그래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이제 나오면 의무적으로 이제 또 이 저 ...}

10201 @ 취지글 햐썸썸야 뽕썸썸? {취직을 했었어야 뽕썸썸.}

10201 # 아니 군대릴 오년가늘 사라야되야. {아니 군대를 오년간을 살아야 돼.}

10201 # 저 거그서 인제 고등핵교릴 나완는데 아무썸도 주들안햐. {저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주지를 안 해.}

10201 # 머 우리가 저, 머 인자 책값가통거 이런거나 거 거시기가까 머 인제 무신 뽕. {뭐 우리가 저, 뭐 인제 책값같은 것 이런 것이나 그 거시기할까 뭐 이제 무슨 뽕.}

10201 # 수업료를 주들 안햐썸썸. 그래 인제. {수업료를 주들 안했어요. 그래 인제.}

10201 # 정부서 갈쳐쎄그든요. {정부에서 가르쳐야 했거든요.}

10201 # 게 으무저그로 인제, 군대생활을 오년가늘 하느디, 게 거기서 인자 오년간 할찌게 인제. {그래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오년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년간 할 적에 이제.}

10201 # 거그서 또 인제 그모공대라고 일썌쎄요. {거기서 또 이제 금호공대라고 있었어요.}

10201 # 예:. {예.}

10201 # 그모공고, 고여폐가 그모공대. {금호공고, 그 옆에가 금호공대.}

10201 @ 게 내가 인자 싹채머스마 하고 ... {그 내가 인이 셋째 머스마 하고 ...}

10201 # 야 이너 그 그모공대를 가면 어찌냐, 그모공대로 가면, 인자. {야 너 그 금호공대를 가면 어찌냐, 금호공대를 가면, 이제.}

10201 # 그 학교 사라른 소~이로 대부분 인과니 되드만요. {그 학교 사람은 소위로 대부분 임관이 되드만요.}

10201 # 소이로 소이로 임관되서, 게그 학교를 나오머는 소이로 임관되고, 도시 군데는 가야되고. {소위로 소위로 임관돼서. 그 학교를 나오면 소위로 임관되고, 도시 군대는 가야되고.}

10201 # 그렇게나 그리 가문 어터커느냐 그렇게나. {그러니까 그리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10201 # 그런디: 그모:공대를 가므는, 군대럴 으무저그로 인제, 장교는 장콘데 ... {그런데 금호공대를 가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이제, 장교는 장교인데 ...}

10201 # 멘너를 하드라 머? {몇 년을 하더라 뭐?}

10201 # 사후 십너닌가 얼마 하여튼 거 오래 해야되야. 그럼. {사오 십년인가 얼마 하여튼 그 오래 해야돼. 그럼.}

10201 # 으무저그로 해야대요, 나올떠도 몬나오고.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나올 때도 못나오고.}

10201 # 그냥 내가 시깁개 마다데:. {그냥 내가 시키니까 맞다고 하데.}

10201 # 나 마다고. {나 맞다고.}

10201 # 거그서부텀 어터게던지 대해글 갈라고 맘먹드만. {거기서부터 어떻게든지 대학을 갈라고 맘 먹드만.}

10201 # 그래 그래가꼬선 인제.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10201 # 군대를 가서, 인자 군대를 가서 오년가늘 그랜썩개 게그비 인제 상사급. 상사급 똥게 인자.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를 가서 오년간을 그랬으니까 계급이 이제 상사급, 상사급 되니까 이제.}

10201 # 나와서 외출와서 자고 그라능갑떼. {나와서 외출 와서 자고 그러는가보데.}

10201 # 나와서 순전 공부하고 그라는 갑드만, 가마:이 보니까. {나와서 순전히 공부하고 그러는 가보드만, 가만히 보니까.}

10201 # 그라고 그때 월급또 인제 상사꼬빈개 월급또 좀 받꼬. {그리고 그때 월급도 인제 상사급이니까 월급도 조금 받고.}

10201 # 게 제 학교 다 마치고 나올찌그, 도늘 오백만원인가 얼마를 군대 마치고 나오 가지고 나오드만. {그 제 학교 다 마치고 나올 적에, 돈을 오백만원인가 얼마를 군대 마치고 나와 가지고 나오드만.}

10201 # 그래가꾸서 나오고 바로 인재 대준가서 하권, {그래가지고서 나오고 바로 이제 대전 가서 학원.}

10201 # 저 오백만원 가지구 간, 가진 그놈으로 그니므로 인재, 지가 하귀를 땡기드만요. {저 오백만원 가지고 간, 가진 그놈으로 이제, 지가 학원을 다니드만요.}

10201 @ 아:. {아.}

10201 # 그래 인재 가가 인재 시험볼라니께, 임문계를 인재 땡기야 대학시험 볼라든 거시기 한데. {그래 이제 가가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인문계를 인재 다녀야 대학 시험 보려면 거시기 한데.}

10201 # 공고럴 보니께 섬볼라니까 아주 그냥 틀리대야. {공고를 보니까 시험보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틀리대.}

10201 # 뭐 통모지라이야. {뭐 통 모자라드래.}

10201 # 그래가꾸서 인재, 하귀를 땡기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학원을 다녀서.}

10201 # 그래가꾸신 인재 대전. {그래가지고서 이제 대전.}

10201 # 한판.. 그 무신 대하기냐? {한판.. 그 무슨 대학이냐?}

10201 @ 충남대하교요, 한남대하교요? {충남대학교요, 한남대학교요?}

10201 # 아니. {아니.}

10201 # 한남대. {한남대.}

10201 # 한남대하교 나와썬요. 한남대하교. {한남대학교 나왔어요. 한남대학교.}

10201 # 한남대하교 나오고 그래구서나. {한남대학교 나오고 그러고서나.}

10201 # 그 인재 나도 그카고, 이게 그저네 내 우리 저 크나들 저: 대하꼬 땡길때 내 그라 거든. {그 이제 나도 그렇게 하고, 이것이 그 전에 내 우리 저 큰아들 저 대학교 다닐 때 내 그랬거든.}

10201 # 그냐 공무원어니 어떠냐 공무원어니? {그냥 공무원이 어찌냐 공무원이?}

10201 # 공개 우리 크나들 그러, 공무원 하야 월급 돈 얼마 안되요. 그라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그래, 공무원 해야 월급 돈 얼마 안돼요. 그러네.}

10201 # 게 내가 그래꺼덩, 예 회사라는 거슨 일판 이거시 사업:까자나 이기 회사는 사업. {그래 내가 그랬거든. 예 회사라는 것은 일단 이것이 사업가잖아. 이것이 회사는 사업.}

10201 # 게 장사라는게 이거뚜 인재, 뭐 회사도 인자 잘만 거시가면 거시간디. {그 장사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뭐 회사도 이제 잘만 거시기하면 거시기한데.}

10201 # 잘못 고시가면 그 회사가 잘되면 거시간디, 잘못떠든 혹시 거시기 하든 그 질구다 닙께, {잘못 거시기하면 그 회사가 잘되면 거시기한데, 잘못 되면 혹시 거시기하면 **다니니까.}

10201 # 공무원 그치 그러케 튼트나지 야무들 모다지 안냐, 공개나. {공무원 같이 그렇게 튼튼하게 야물지 못 하지 안냐, 그러니까.}

10201 # 그래서 인재, 자그나 보고 내가 그렇게나 공무원 가마:이 봉께, 대하꼬 땡김서 순 공무원 시허를 보드만요. {그래서 인재, 작은애 보고 내가 그러니까 공무원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순 공무원 시험을 보드만요.}

10201 # 그래 인재, 공무원 시험을 바가꼬, 시험 바가꼬 대버니 칠급, 칠그브로 땡썬요. {그래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대번에 칠급, 칠급으로 땡어요.}

10201 @ 검찰직 진급대서? {검찰직 진급됐어?}

10201 # 아니 검찰. 이 거지گی요, 인제 저 전자계산 전자: 거 ... {아니 검찰, 이 거지گی요. 인제 저 전자계산 전자 그 ...}

10201 @ 아:. {아.}

10201 # 그 그 파털 말탄, 그 파를 배웠쎄요, 우리 세채 머스마가. {그 그 파를 말아. 그 파를 배웠어요. 우리 셋째 머스마가.}

10201 # 그래서 인제 공무어네 합격되야 가꼬, 인천 검찰청으로 검찰청에 인제 그리 발령 이 나가꼬. {그래서 이제 공무원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인천 검찰청에 이제 그리 발령이 나가지고.}

10201 # 그래 인제. {그래 이제.}

10201 @ 조케 팬찬쵸. {조금 팬창지요.}

10201 @ 지그먼 속 페너건네? {지금은 속 편하겠네?}

10201 # 응 그래, 제시꾸도 공무어니고 저도 공무어니고. {응 그래, 제 식구도 공무원이고 저도 공무원이고.}

10201 @ 그렇게. {그러니까.}

10201 @ 이히려 쥬 속 페널꺼 가테. {오히려 제일 속 편할 것 같애.}

10201 # 예 예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10201 # 뭐 공무언해서나 큰 돈 머, 큰도는 못빠러도, 자기 먹꼬살기는 머 그냥 걱정안해도 되잔 걱정아나자나요. {뭐 공무원해서나 큰 돈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자기 먹고 살기는 뭐 걱정 안해도 되잖 걱정 안하잖아요.}

10201 # 아 그람 뵈찌 머. {아 그러면 뵈지 뭐.}

10201 # 나는 장남, 항상 그래 그리 머, 도니 마느면 조치마는 너:무다 마늘꺼 읍꼬, 자기 그냥 몸 건강하니, 식꾸 뵈 머꼬살고 아들 공부시킬 시기고 지비라도 그냥 쓸만항거 가지고, 그르케 지내면 그 질 뵈쪽 페너다. 머 그케 크게 욕심낼꺼 업따. 난 그래요. {나는 장남, 항상 그래 그래 뭐, 돈이 많으면 좋지만 너무나 많을 것 없고, 자기 그냥 몸 건강하니, 식구 넷 먹고 살고 아들 공부시킬 시기고 집이라고 그냥 쓸만한 것 가지고, 그렇게 지내면 그 제일 뵈속 편하다. 뭐 그렇게 크게 욕심낼 것 없다. 나는 그래요.}

10201 # 그란디 머 시방 제벌가 말여 그: 돈 그르케 마는 사람도 그래도 돈을 막 더 벌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드리 머머 정부돈도 막 그냥 여 머 거시기 이: 거시기 도늘 막 먹꾸 이래 이러자나요. {그런데 뭐 지금 재벌가 말이며, 그 돈 그렇게 많은 사람도 그래도 돈을 막 더 벌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뭐 정부돈도 막 그냥 여 뭐 거시기 이 거시기 돈을 막 먹고 이래 이러잖아요.}

10201 # 사라미랑기 참 다 욕씨미랑기 하니 업쎄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다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어요.}

1.2.6. 회갑 잔치

<회갑 잔치>

10218 @ 사람이 욕썩, 만 욕썩썩이 되며는 아까 일련 되면 도리라고 그러면 돌잔치하는 거처럼 사라미 욕썩썩이 되면 하는 잔치를 머라 그래요? {사람이 욕썩, 만 욕썩썩이

되면 아가 일년 되면 돌이라고 그러면 돌잔치하는 것처럼 사람이 육십세가 되면 하는 잔치를 뭐라 그래요?}

10218 # 육십세? 환갑잔치라고 하지요. {육십세? 환갑잔치라고 하지요.}

10218 @ 그러죠잉? {그렇지요?}

10218 # 예. {예.}

10201 @ 그 잔치할때 여기년 어떠케 하셔요? {그 잔치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10218 # 여기는 ... {여기는 ...}

10218 @ 어르신때는 어떠케 하셧쎄요? {어르신 때는 어떻게 하셧어요?}

10218 # 어: 엔나레? {어, 옛날에?}

10218 # 그저니 엔나레는 인자 머 대지가통거 잡꼬, 인자 술 머 이렇거 다 모데 이제. {그 전 옛날에는 이제 뭐 돼지같은 것 잡고, 인제 술 뭐 이런 것 다 못 해 이제.}

10218 # 이제 경사 나 경사나 마찬가지로. {이제 경사나 경사나 마찬가지로.}

10218 # 다 음식장만해가고 인제 동네 사람 인제, 오래가고 다 인제 한차례 메기요 인제, 술하고. {다 음식 장만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 이제, 오라고 해서 한차례 먹여요. 이제 술 하고.}

10218 # 그래가꼬서나 그저니 엔나레년 인제: 친구지가니 치나게 지내라던가 동구가니라던가, 이런 사람더런 인제 머 신발거통거 향커리라도 사다준다던가, 무시 머 저 반찬꺼리, 짐:이라 엔나레는 인제 지:미이라도 한통사고 뭐 조구라도 머 한 뎀마리 사다준다던가. {그래가지고서나 그 전에 옛날에는 이제 친구지간에 친하게 지내든가 동기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신발같은 것 한 켤레라도 사다 준다고 하던가, 무슨 뭐 저 반찬거리, 김이라 옛날에는 이제 김이라고 한 톳 사고 뭐 조기라도 뭐 한 뎀마리 사다 준다든가.}

10218 # 향갑때 그러케 해쎄요. 엔:나레 그저네. {환갑때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전에.}

10218 # 그저네는 그러케 헐는데, 그러다 인제 중년니, 이제 다: 가정이 좀 이제 나사짐서, 나사짐서 인제, 향:갑하는 사람두 인제 부주를 바단쎄요. 돈늘.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이제 중년에, 이제 다 가정이 좀 인제 나아지면서, 나아지면서 이제, 환갑하는 사람도 이제 부조를 받았어요. 돈을.}

10218 # 부주를 받따가, 시방은 시방은 인제 향갑잔치 잘 아내요. {부조를 받다가, 지금은 지금은 이제 환갑잔치 잘 안해요.}

10218 @ 그쵸? {그러지요?}

10218 # 애, 아내요, 시방 요즈믄 아내요. {예, 안해요. 지금 요즈믄 안해요.}

10218 @ 요즈믄 칠수늘 하쵸잉? {요즈믄 칠순을 하지요?}

10218 # 예, 아내요, 시방은 향갑잔치 하는 사라미 베랑 업쎄요. {예, 안해요. 지금은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218 # 요세는 아내요. {요즈믄 안해요.}

10218 # 그때 나 인제 향갑지낼때 그때만해도 ... {그때 나 인제 환갑지낼 때 그때만 해도 ...}

10218 @ 다 치루셧쎄? {다 치루셧지요?}

10218 # 예, 그러케 헐쎄요. {예, 그렇게 했어요.}

10218 # 거이 시방은 향갑잔치 아나 아내데요. 시방은. {그 이 지금은 환갑잔치 안해 안하데요. 지금은.}

10218 @ 그동안 향갑 요즘 다: 향갑 누구나 다 오니까. {그동안 환갑 요즘 다 환갑 누구나 다 오니까.}

10218 # 애. {애.}

<결혼식>

10205 @ 그러면 엔나레 계론식할때요, 어르신 거론식할때 ... {그러면 옛날에 결혼식할 때요, 어르신 결혼식할 때 ...}

10205 @ 그때 동네 사람드리 부조를 가꼬영거요? 그때도? {그때 동네 사람들이 부조를 가지고 온 것이요? 그때도?}

10205 # 애, 가꼬오쥬. {예, 가지고 오지요.}

10205 @ 주로 그때는 머 가꼬왓썬? {주로 그때는 뭐 가지고 왔어?}

10205 # '도니지요, 머. {돈이지요 뭐.}

10205 @ 어르신 계론 하실때도? {어르신 결혼하실 때도?}

10205 # 애, 도니요. {예, 돈이요.}

10205 @ 지금부터 한 사십년전 그때도? {지금부터 한 사십년전 그때도?}

10205 # 아, 도니요. {아, 돈이요.}

10205 @ 아니 엔나레 ... {아니 옛날에 ...}

10205 # 우리 인제 나 계론할 고 저네, 고 저네 우리 형님 인제 계론한다덩가 고 저네는, 동고가네는 머 쌀도 함말 가져오고 뭐 콩더통건또 함말 가져오고 이르게, 곡씨기로 가져온 사라미 인썬요. {우리 이제 나 결혼할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형님 인제 결혼한다든가 그 전에, 동기간에는 뭐 쌀도 한 말 가져오고 뭐 콩같은 것도 한 말 가져오고 이렇게, 곡식으로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10205 # 인자 그건, {이제 그건.}

10205 # 친동고가니라 그래 가땀썬요. 친동가니라 친동가니라 가따주고. {친동기간이라 그렇게 갖다썬어요. 친동기간이라 친동기간이라 갖다주고.}

10205 # 그외에는 점부 인자 도느로, 도년 인제 다: 얼마씩 얼마씩 도는 그러케 하구요. {그 외에는 전부 인제 돈으로, 돈은 인제 다 얼마씩 얼마씩 돈은 그렇게 하고요.}

<회갑 음식상>

10219 @ 향갑쌍은 대게 그때 잘 차릴때 어떠케 차렷썬요? 음식가통거? {환갑상은 대게 그때 잘 차릴 때 어떻게 차렸어요? 음식같은 것?}

10219 # 음시킨 인제 내 뭐 참 지비서나 나 향갑 때 헐는디요. {음식은 인제 내 뭐 참 집에서 나 환갑 때 했는데요.}

10219 @ 지베서 허썬썬요? {집에서 했었어요?}

10219 # 지비서 해썬요. 우리 집. {집에서 했어요. 우리 집.}

10219 @ 그때 어떠케 준비해썬나, 예기썬 해썬 보썬요. {그때 어떻게 준비했었나, 이야기썬 해썬 보썬요.}

10219 # 그때요? 돼지 잡꼬, 떡 뭐 떡거튼거 이제 이렇거 머 다: 하고, 적꺼통거또 마니 다 꾸코. {그때요? 돼지 잡고, 떡 뭐 떡같은 것 이제 이런 것 뭐 다 하고, 적같은 것도

많이 다 굶고.}

10219 # 술도 그때 인제 지비서 헐쎄요. {술도 그때 인제 집에서 했어요.}

10219 # 거시기 쌀, 예 우리 농사진 쌀로 여기서 맨드런쎄요. {거시기 쌀, 예 우리 농사진 쌀로 여기서 만들었어요.}

10219 # 그때 잘: 맨 술이 잘 되쎄요. 맨드러 가꼬. {그때 잘 맨 술이 잘됐어요. 만들어 가지고.}

10219 # 술도 그때 인제 지비서 맨들고, 인제 향갑잔치 '상도' 헐쎄요. {술도 그때 인제 집에서 만들고, 인제 환갑잔치 상도 했었어요.}

10219 # 상도 상도하고 인제, 그리고 동네 동네 양반들 전부 인제 다 소리해가지구 인제 다 인제 술 머 인제 오시는 양반들 그때 떡꾸글 해똥가 어쨌든가 그 그러케 해야 해서 다 대접하고 그래쎄요. {상도 상도하고 인제, 그리고 동네 동네 양반들 전부 인제 다 소리해가지고 인제 다 인제 술 머 인제 오시는 양반들 이때 떡국을 했던가 어쨌든가 그렇게 해서 다 대접하고 그랬어요.}

10516 @ 그른 그때 수른 얼마나 하쎄쎄요? {그러면 그대 술은 얼마나 하셨어요?}

10516 # 수리요? 우리 동네 수른 마:니 해야 돼요. {술이요? 우리 동네 술은 많이 해야 돼요.}

10516 # 우리 부라기 만, 부라기 커놔서나. {우리 부락이 만, 부락이 커서.}

10516 # 그때 나 향갑때만 해도 그라고, 음시기 시방거치 이케 술거통기고 모든 음시기 시방가치 현하덜 모델쎄요. 그때마네도 그때마내도 근데. {그때 나 환갑때만 해도 그리고, 음식이 지금같이 이렇게 술같은 것이고 모든 음식이 지금같이 흔하지 못했어요. 그때만해도 그때만해도 그런데.}

10516 # 그때만해도 저저 막걸 소주가 드라고 막걸리쎄요. 여지가니. {그때만해도 저 막걸리 소주가 덜하고 막걸리 쎄어요. 어지간하게.}

10516 # 쌀로 비즌 막걸리. {쌀로 빚은 막걸리.}

10516 # 인제 그때 또 시냥힐 때는 쌀도 안주고, 도개서나 그 밭 밀까루 또 한참하고 그랜 썬거던 그란디 이제. {인제 그때 또 식량할 때는 쌀도 안주고, 도가에서 그 밀가루 또 한참하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인제.}

10516 # 난 지비서나 인제, 저: 나바도 저 저 고지로 이르게 떠워서 하는 사람, {나는 집에서 이제, 저 나마도 저 저 고지로 이렇게 띄워서 하는 사람.}

10516 # 누룩, 누룩 고노멸, 꼬드바벌 인자 바벌 꼬드바벌 찌가지고, 찌가지고 인제 누룩하고 이노물, 막 버머려 이케, 버무리가고 그노물 인제 그 무신 저 고지 약 떠우능기라고 약떠우능기 인쎄요. 고노멸 질러가꼬서 인제. {누룩, 누룩 그놈을, 꼬드밥을 인제 밥을 꼬드밥을 찌가지고, 찌가지고 인제 누룩하고 이놈을, 막 버물려 이렇게, 버무리가지고 그 놈을 인제 그 무슨 저 고지약 떠우는 것이라고 약 떠우는 것이 있어요. 그 놈을 뿌려가지고 인제.}

10516 # 그 아 선생니른 잘 모를끼여 아마, 고지때우는거 그런걸. {그 아 선생님은 잘 모를 거요, 아마, 고지 떠우는 것 그런 것을.}

10516 @ 고지떠운담 마른 잘 모르젠는데요. {고지 떠운다는 말을 잘 모르겠는데요.}

10516 # 고지떠우능기 인제, {고지 떠우는 것이 인제.}

10516 # 양너쿠서 인제 그 싸를 인제 떠우닝기요. 떠우능기. 공개. {약 넣고서 인제 그 쌀을 인제 띄우는 것이요.}

10516 @ 애:. {예.}

10516 # 요 요 요로케 요만:치 이르케 이르케 인제, 나무로 이르케 짱게 인썸썸요. 이르케. {이 이 이렇게 이만치 이렇게 이렇게 인제, 나무로 이렇게 짱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10516 # 짱게 인는디 여기다가 조~이를 깔고 꼬드바벌, 바벌 ... {짜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종이를 깔고 꼬드밥을, 밥을 ...}

10516 # 꼬드바비리고 바벌 되게하는게 인제, 꼬드바븐 인제 바벌 되게하는게 꼬드배비라고 하거덩, 되게 해가지구선 누루글 인제 누룩하고만 막 버무리자나요. {꼬드밥이라고 밥을 되게 하는 것 이제, 꼬드밥은 이제 밥으 되게하는 것이 꼬드밥이라고 하거든, 되게 해가지고서 누룩을 이제 누룩하고만 막 버무리잖아요.}

10516 # 막 버무리가꼬서 인제 거그다가 거 술 잘되는 약 야기라고 인제 거그다 살짝 질러가꾸설랑은, 게 이게 칭게칭게 이렇게 쟁어요, 이러케. {막 버무리가지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술 잘 되는 약 약이라고 이제 거기에다 살짝 뿌려가지고서는, 그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쟁어요. 이렇게.}

10516 # 칭게칭게 인제 방이다가 쟁이는, 그러니까 쟁이요 이르케 쟁이 쟁이 쟁이노쿠서 인제. {층층이 이제 방에다가 쟁이는, 그러니까 쟁어요. 이렇게 쟁여 쟁여 쟁여 놓고서 이제.}

10516 # 온도기, 도쭈를 이제 거기다 노면 그때, 도쭈가 사십 사십오도가 너머가면 이 재가 너머 수리 잘 안되요. 사십오도 미마느로. {온도기, 도수를 이제 거기에다 놓으면 그때, 도수가 사십 사십오도가 넘어가면 이 재가 넘어서 술이 잘 안돼요. 사십오도 미만으로.}

10516 # 게 고곤 띠울찌게는 자멸 묻짜요. {그 그것 띠울 적에는 잠을 못 자요.}

10516 # 미트로 간눔 우로 노코, 우로 간눔 미트로 노코 이르케 해가꾸서나 해. {밑으로 간눔 위로 놓고, 위로 간눔 밑으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

10516 # 고곤 그 인제 뜨면 노소로:하게 인제 게 잘뜨거든요. {그것은 그 이제 뜨면 누르스름하게 이제 잘 뜨거든요.}

10516 # 잘 뜨가구서 인제 그래가꾸서 인제. {잘 떠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10516 # 그 뜬노멸 저 큰: 독아지 웅기독아지 웅기로 인제 거기다 그노물 너코서, 인제 물, 무를 막 거기다 인자 붙꾸서 인제 뜨신디다 이케 폭: 싸, 폭 싸노머는. {그 뜬눔을 저 큰 도가지, 웅기도가지 웅기로 이제 거기에다 그눔을 넣고서, 이제 물, 물을 막 거기에다 이제 붓고서 이제 따뜻한 데다 이렇게 폭 쌓아, 폭 쌓아 놓으면.}

10516 # 에 이십사시 사십 사십팔 한 육십시간 한 육십시간에서 한 칠십시간이면 어지가 니 돼요. {에 이십사시 사십 사십팔 한 육십시간 한 육십시간에서 한 칠십시간이면 어지간히 돼요.}

10516 @ 그면 한 사밀이나 사일 이쓰면 되건네요? {그러면 한 삼일이나 사일 있으면 되겠네요?}

10516 # 애. {예.}

10516 # 월리 다 되거는 한 근 오일 오일잉게나, 여 오일께레도 한 만 마누로는 한 사일 간, 사일가니면 다 돼요. 사일간. {원래 다 되는 것은 한 근 오일 오일이니까, 오일께라도 한 만 만으로 한 사일간, 사일간이면 다 돼요. 사일간.}

10516 # 내가: 하는 그런 엔날 그 야글 안느코, 이제 누루가고 꼬드바버고 비비가꼬서 그

냥 물너가꼬서 하는노른, 인제 저 거시기다가요. {내가 하는 그런 옛날 그 약을 안 넣고, 이제 누룩하고 꼬드밥하고 비벼가지고 그냥 물 넣어가지고서 하는 놈은, 이제 저 거시기에다가요.}

10516 # 체를 이러케 노코 얼기미 이케 무털 이케 부어감서 이케 이케 소느로 이케 막 짜가지고 막걸리 이케 걸르자나요. {체를 이렇게 놓고 얼게미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짜가지고 막걸리 이렇게 거르잖아요.}

10516 # 그케 인제 막걸리요 인재, 막걸린다. {그것이 이제 막걸리에요 이제, 막걸리인데.}

10516 # 내가 한 수런 인제 요버네 그러케 꼬드밥 찌가꼬 이러케 고지다 띄워서 띄워서 해나 해나서나 그러케 짜들 안 하고. {내가 한 술은 이제 이번에 그렇게 꼬드밥 찌가지고 이렇게 고지에다 띄워서 띄워서 해봐 해 놓아서 그렇게 짜지 않고.}

10516 # 인제 용수라고. {이제 용수라고.}

10516 @ 예 용수. {예 용수.}

10516 # 이르게 쿡 찢르면 우때꺼슨 맬:간 술 맬간술 이케 떠내요. {이렇게 쿡 찢르면 윗것은 맑은 술 맑은 술 이렇게 떠내요.}

10516 # 그러케 해가꾸서나 항갑잔치 해썬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환갑잔치 했어요.}

10516 # 그때 싸를 한 섬. {그때 쌀을 한 섬.}

10516 @ 한 섬? {한 섬?}

10516 # 애. {예.}

10516 # 말로 이르게 시무말잉께나 그 시방 구십킬로로 두 시방 구십킬로로 두 두가마이지. {말로 이렇게 스무말이니까 그 지금 구십킬로로 두 지금 구십킬로로 두 가마니지.}

10516 # 두어말. {두어말.}

10516 @ 그러면 그 용수를 바가서 인자 그 싸를, 그러케 수를 떠내면 그 찌꺼기는 머혜요? {그러면 그 용수를 박아서 이제 그 쌀을, 그렇게 술을 떠내면 그 찌꺼기는 뭐 해요?}

10516 # 찌꺼기요? {찌꺼기요?}

10516 # 찌꺼기 인제, 찌꺼기는 또 인제 모리미라고요. {찌꺼기 이제, 찌꺼기는 또 이제 모리미라고요.}

10516 # 인제 고느를 꼭 짜든 모림 이제 툽:트반 모리미라고 인썬요. {이제 그것을 꼭 짜면 모리미 이제 툽툽한 모리미라고 있어요.}

10516 # 모리미라고. {모리미라고.}

10516 # 그 마슨또 켜찬야 그기 인제 보매 텃터바니 그러치 모리미라고 인썬, 궁께. {그 맛은 켜찬야, 그것이 이제 봄에는 툽툽하니 그렇지 모리미라고 있어. 그러니까.}

10516 # 모리미는 또 먹꼬, 찌꺼기는 인제 또 소나 돼지나 인제 징강달. {모리미는 또 먹고, 찌꺼기는 이제 또 소나 돼지나 이제 징강달.}

1.2.7. 장례 절차

<전통 상례>

10220 @ 그: 마을마다나 또 지반마다 돌아가셔썬때 그 장례: 썸 절차가 다를 다른수도 이

찌요? {그 마을마다나 또 집안마다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조금 절차가 다를 수도 있지요?}

10220 @ 으: 여기 혹시 여기서 전통저그로 엔날부터 지내던 장례는, 요즈문 머 다르지만 엔나레 어르신 절물때부터 이러케 쪽: 이케 짐 장례가 마:니 문화가 바 바뀔짜나요. {으, 여기 혹시 여기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지내던 장례는, 요즘은 뭐 다르지만 옛날에 어르신 젊을 때부터 이렇게 쪽 이렇게 지금 장례가 많이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10220 # 배뀔찌요. {바뀌었어요.}

10220 @ 엔날 엔나레 이 동네에서 했던걸 하고, 그다메 요즘하고 이러케 쏘 한번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옛날 옛날에 이 동네에서 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220 @ 엔나레는 어터케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0220 # 엔나렌 인제 상을 당하자나요. {옛날엔 이제 상을 당하잖아요.}

10220 @ 이십때나 머 십때, 먼저 십때 요때 정도. {이십대나 뭐 십대, 먼저 십대 이때 정도.}

10220 # 엔나레 인자 상얼 당해면요. {옛날에 이제 상을 당해면요.}

10220 # 상얼 당해머년 동네 뿐드리 엔나레는 도:널 그때 이제 도니 귀한때라 하긴 그러. {상을 당하면 동네분들이 옛날에는 돈을 그때 이제 돈이 귀한 때라 하기는 그래.}

10220 # 도늘 부주로 안하고, 막걸리. {돈을 부조로 안하고, 막걸리.}

10220 # 상얼 당허든 요 요저니년 도늘 부주하고, 그저네 인자 그저네 ... {상을 당하면 이 이전에는 돈을 부조하고, 그전에 이제 그전에 ...}

10220 @ 그저네? {그전에?}

10220 # 예 그저네. {예, 그전에.}

10220 # 우리:가 나 한 시물대쌀 여기 머글찌기두 그러케해써요. {우리가 나 한 스물댓살 여기 먹을 적에도 그렇게 했어요.}

10220 # 인제 막걸리를 인제 도게 가서 ... {이제 막걸리를 이제 도가에 가서 ...}

10220 # 그저네는 소주가 업썬써요. 전:순 막걸리 막걸리제. {그전에는 소주가 없었어요. 전 순전히 막걸리 막걸리지.}

10220 # 동네 술집인짜나요. {동네 술집있잖아요.}

10220 @ 예. {예.} {예.}

10220 # 동네 술찌비 가서 수릴 한되 바다가꼬, 상제 상지비다가 가따 주고 상제한테 인사 하고. {동네 술집에 가서 술을 한 되 받아가지고, 상주 상집에다 가져다주고, 상주에게 인사하고.}

10220 # 그러고선 인제, 어! 게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게라고요.}

10220 # 상두게라고 내가 아치메 애기해짜나요. 상두게가 일꺼덩요. {상두게라고 내가 아침에 이야기 했잖아요. 상두게가 있거든요.}

10220 # 아니면, 그저네 십사명아따두 인제 시비명와따테구. {아니면, 그전에 십사명 정도도 이제 십이명 정도도 되고.}

10220 # 계꾼드리 와서 인제, 계꾼드라고 인제 그 머 친구들 상제 친구드리나 인제 또 ... {계꾼들이 와서 이제, 계꾼들이 이제 그 뭐 친구들 친구들이 이제 또 ...}

10220 # 예: 지반 지반 으른 이제 지방간드리나 가간양반드리 와서 인제. {예, 집안 집안 어른 이제 집안간들이나 가까운 양반들이 와서 이제.}

10220 # 바메 인제 가도 아너고 인자 마당에다가 부럴 이케 나무럴 막 차량나무라고요.
 {방에 이제 가지도 안하고 이제 마당에다 불을 이렇게 나무를 막 철야나무라고요.}

10220 # 상 이케 상당허며는 그냥 저 사니 가서 막 쟁나무럴요. {상 이렇게 상당하면 그냥
 저 산에 가서 막 쟁나무를요.}

10220 # 소나무를 막 비완썰썰요. 막. {소나무를 막 베왔었어요. 막.}

10220 @ 그 누가 머라고 안해요? {그 누가 뭐라고 안해요?}

10220 # 아이 판때는 너무라지 그거는. {아 다른 때는 나무라지 그것은.}

10220 # 머 암 암머라고하지요. {뭐 안 안 나무라지요.}

10220 # 버브서두 그렇건 애기 안하고. {범에서도 그런것은 애기 안하고.}

10220 @ 자기 산 아닌 아니라도? {자기 산 아니 아니라도?}

10220 # 아 인제 보통으로 부락사니 만차나요? {아 이제 보통으로 부락산이 많잖아요?}

10220 # 넘산이 아니라 부락사니 인제 부락사니 가서 게헨썰요. {남의 산이 아니라 부락산
 이 인제 부락산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10220 # 그러케 하다 인제 나무다목 चु니께 인제 चु니께 부를 해노코 인제. {그렇게 해다
 이제 나무 다복이 चु우니까 이제 चु우니까 불을 해놓고 이제.}

10220 # 밤세:더락 거기서 인제 처량이라고, 인자 거기서 ...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철야
 라고, 이제 거기서 ...}

10220 @ 그 부를 무슨 부리라고 한다고요, 아까? {그 불을 무슨 불이라고 한다고요, 아
 까?}

10220 # 으? {으?}

10220 # 처량. {철야.}

10220 # 처량 처량한다고. {철야, 철야한다고.}

10220 @ 아니 처량하는데 그 그 피우는 부를 머라고 해요? {아니 철야하는데 그 그 피우
 는 불을 뭐라고 해요?}

10220 # 처량뿌리라고 구레 처량불이라고. {철야불이라고 그래, 철야불이라고.}

10220 @ 처량뿌리라고? {철야불이라고?}

10220 # 이, 처량뿌리라고. {응, 철야불이라고.}

10220 # 그 처량 느 그 나무를 비로 갈째게 처량나무허리로 간다고 그라거든요. {그 철야
 그 나무를 베로 갈 적에 철야나무하러 간다고 그러거든요.}

10220 # 처량나무. {철야나무.}

10220 # 바미 때기로 처량나무를 비로 간다고. {밤에 때려고 철야나무를 베로 간다고.}

10220 # 게 인제 상두군드리 또 인제, 마~이 비와요. 상두군드리 마~이 비오고. {그 이제
 상두꾼들이 또 이제, 많이 베어 와요.}

10220 # 인자 가깐 인제, 친구지가니라던가 또 동고가니라던가 이런 사람드리 베포구. {이
 제 가까운 이제, 친구지간이라든가 또 동기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베어 오고.}

10220 # 그래구서 인제, 이거다 부를 해노코, 공개: 사밀 출상인께나 이틀저녀글 거그서 인
 제 세우자나요. 이틀 바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불을 해놓고, 그러니까 삼일 출상
 이니까 이틀 저녁을 거기서 이제 세우잖아요.}

10220 # 게 인제 거그서나, 처량하면서 인제 '술 머꼬 머 또 '화투거통거 엔날엔 화투. {그
 이제 거기서, 철야하면서 이제 술 먹고 또 화투같은 것 옛날엔 화투.}

10220 # 시방은 화투 드라지만, 화투 시방도 화투 그래도 마~이하지? {지금은 화투 덜하

지만, 화투 지금도 화투 그래도 많이 하지?
 10220 @ 응:. {응.}
 10220 # 이. {응.}
 10220 # 화투거통거 하고. {화투같은 것 하고.}
 10220 @ 윤노리도?), {웃놀이도?}
 10220 # 예 윤노리, 윤노리는 아내요. 우리 동네. {예, 웃놀이, 웃놀이는 안해요. 우리 동네.}
 10220 # 우리 동네 윤노리는 아내요. {우리 동네는 웃놀이는 안해요.}
 10220 @ 저히 나뉘은 윤노리를 마니하거든요. {저희 남원은 웃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10220 # 예:. {예.}
 10220 # 워디 판데 가니깨는 저 참 이기 저 상당했는디 저 윤노는디를 봐썬요. {어디 판데 가니까 저 참 여기 참 상당한 데 저 웃 노는 데를 봤어요.}
 10220 # 그 용포리 용포리도 가니깨 유설 놀지 암'매: 요. 용포리도. {그 용포리 용포리도 가니까 웃을 놀지 아마 이 용포리도.}
 10220 # 근디 여그는 유설 안노랴요. {그런데 여기는 웃을 안 놀아요.}
 10220 # 그래가꾸 인제 사뭇 사뭇되머는. {그래가지고 이제 삼일 삼일되머는.}
 10220 @ 사라미 맨처메 주그면 ... {사람이 맨 처음 죽으면 ...}
 10220 # 예:. {예.}
 10220 @ 주그머는 어떠케해요? {죽으머는 어떻게 해요?}
 10220 # 주그면? {죽으면?}
 10220 @ 예. {예.}
 10220 # 철뻔 인제 주그머는 초여미라고 초여미라고 인제. {첫번에 죽으면 초염이라고 초염이라고 이제.}
 10220 # 손하고 발하고 딱 빼체노코 소는 위으로 이러케 해가꼬 임시로 인제. {손하고 발하고 딱 뺏쳐놓고 손은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로 이제.}
 10220 # 이게 인제 초여를 안해노믄 인제 나중이 가믄 뻗빠다게 굳자나요. {이것이 이제 초염을 안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가면 뻗뻗하게 굳잖아요.}
 10220 # 뻗빠다게 구드믄 이게 오무리들 모다자냐 오무리덜 몽항개 초여미라고, 인제. {뻗뻗하게 굳으면 이렇게 오무리지들 못하잖아. 오무리지를 못하니까 초염이라고 이제.}
 10220 # 다리하고 팔하고 인제, 임시 이르케 깍 이르케 무껴놔요. 이르케. {다리하고 팔하고 이제, 임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놔요.}
 10220 # 에 배에다 이르케 소늘 무껴노코, 다리는 쪽: 빼쳐가꼬 인제 인제 무껴노코. {에 배에다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다리는 쪽 뺏쳐가지고 이제 묶어놓고.}
 10220 # 그라고 인제, 인제 온또 인제 그저니 입던 온 인제 싹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그러케 해노코 인제. {그리고 이제, 이제 웃도 이제 그전에 입던 웃 이제 싹 가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10220 # 그라고 이제, '호니부리나 멀로 폭: 더퍼노체. {그리고 이제 홀이불이나 무엇으로 폭 덮어놓지.}
 10220 # 그라고 이따가 인자 철뻗니는 그러케 하고, 인자 고 이튼나라고 인자 '대여미라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첫번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튿날에 이제 대염이라고.}
 10220 # 대여미라고 인제. {대염이라고 이제.}

10220 # 삼. {삼.}

10220 # 옛날 그 베나는 삼. {옛날 그 베 나는 삼.}

10220 @ 예:. {예.}

10220 # 베나는 사미로 인자, 일곱매릴 일곱맬릴 묵짜나요. {베 나는 삼으로 이제 일곱 매듭을 일곱 매듭을 묵잖아요.}

10220 @ 사무로 무꺼요? 삼 어떤 거 형거브로 무꺼요? {삼으로 묵어요? 삼 어떤 그 형겁으로 묵어요?}

10220 # 엔나리는 사미로 무껀썌요. {옛날에는 삼으로 묵었어요.}

10220 # 엔나리는 사미로 무껀넌데, 시방은 인자 사미 업자냐, 사미 업썌개, 삼베, 삼베 그냥 그걸로 인자 시방 그리요. {옛날에는 삼으로 묵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이 없잖아. 삼이 없으니까, 삼베, 삼베 삼베 그냥 그것으로 이제 지금은 그래요.}

10220 # 형거비로 무꺼요. {형겅으로 묵어요.}

10220 @ 사무로 ... {삼으로 ...}

10220 # 예 그저네는 다 사미로 무껀썌요. 그래서. {예 그전에는 다 삼으로 묵었어요. 그래서.}

10220 # 엔나레는 인제, 나이 마는 만으신 으런덜 인넌 지번, 고 혹시나 인자 어트개서 인제. {옛날에는 이제, 나이 많은 많으신 어른들 있는 집은, 그 혹시나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10220 # 그런데 그과게 상이나 당할까 어치까해서, 사멸 미리 줌비를 해놔썌썌요. 모도. {그런데 급하게 상이나 당할까 어떨까 해서, 삼을 미리 준비를 해놔있어요. 모두.}

10220 # 지비다가 줌비릴. {집에다가 준비를.}

10220 # 그래서 인제 삼이 일곱매 묵꼬, 그라고 인제. {그래서 이제 삼으로 일곱 매듭 묵고, 그리고 이제.}

10220 # 인제 거시기 그 온 저 ... {이제 거시기 그 옷 저 ...}

10220 # 오딘짜나 왜 ... {옷 있잖아 왜 ...}

10220 @ 수이. {수의.}

10220 # 수이 수이. {수의 수의.}

10220 # 수이를 인제 대염할찌기 사미르 일곱매를 묵꼬, 수이 수이를 입히가꼬, 그리고 인자 과간에다가. {수의를 이제 대염할 적에 사람이 일곱 매듭을 묵고, 수의 수의를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10220 @ 그러면 코가튼데 이룬데 이러케 이러케 그 이룬데 다 막쥬 잉? {그러면 코같은데 이룬데 이렇게 이렇게 그 이룬데 다 막지요 잉?}

10220 # 예. {예.}

10220 @ 그럼 그거슨 초염때마가요 대염때 마가요? {그러면 그것은 초염때 막아요 대염때 막아요?}

10220 # 코? {코?}

10220 @ 예. {예.}

10220 # 초염때 막쥬. {초염때 막지요.}

10220 @ 초염때 이런거슨? {초염때 이런 것은?}

10220 # 초염때. {초염때.}

10220 @ 그때, 그때 그 이베다가 동전가튼거 엽전가튼건또 너 쫌지요 잉? {그때, 그때 그

입에다가 동전같은 것 엽전같은 것도 넣어주었지요?)

10220 # 예, 대염할찌기 인제. {예, 대염할 적에 이제.}

10220 @ 대염할때 녀요, 그거슨? {대염할 때 녀어요, 그것은?}

10220 # 예 대염할찌기 녀테요. {예 대염할 적에 녀테요.}

10220 # 동전 동전도 느코, 쌀, 쌀도 이비다가 머 천서기요 늌서 천서기요 이천서기요 삼 천서기요 하고. {동전, 동전도 넣고, 쌀 쌀도 입에다가 뭐 천석이요 넣으면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하고.}

10220 # 그라고 인제 동저넌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 그러믄서 인제 도늘 느코. {그리고 이제 동전은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넣고.}

10220 # 그래 인제, 인제 부모가 돌아가셨찌마는 게 인제 도나고 멍는 싱냥하고 그게 인제 우리 생가기 그리요. 게 인제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 이제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돈하고 먹는 먹는 식량하고 그것 이제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 이제 가지고 가시라고.}

10220 # 게 느는상발라요. 그러캬쎄요. {그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10220 # 게 그에 늘찌기, 그개 머 싸른 인제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 그러카고. {그렇게 넣을 적에, 그렇게 뭐 쌀은 이제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 그렇게 하고.}

10220 # 도넌 ... {돈은 ...}

10220 # 아 참 저 천서기요 천서기요 이천서기요 그러카고, 도넌 인자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 그러케 인제 도넌 그러케. {아 참 저 천석이요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그렇게 하고, 돈은 이제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 그렇게 이제 돈은 그렇게.}

10220 @ 여물 허는 사라미. {염을 하는 사람이?}

10220 # 애애. {예예.}

10220 # 염하는 사라미 그러케 하구 그랜쎄요. {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10220 @ 그런데 맨 처음메요, 그 그 사라미 인자 주그면 그 오슬 받아서 옛날 지붕에다 던져찌요? {그런데 맨 처음메요,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옷을 벗어서 옛날 지붕에다 던졌지요?}

10220 # 예. {예.}

10220 @ 그거슨 어떤 오슬 갑따 던 던 던지면서 머라고 하면서 던졌쎄요? {그것은 어떤 옷을 갖다 던 던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던졌어요?}

10220 # 그게 인제 그 저 돌아가신 맹인 오설 던짐서나 ... {그것이 이제 그 저 돌아가신 망인 옷을 던지면서나 ...}

10220 # 머라구더라 그기. {뭐라고 하드라 그것이.}

10220 @ 엔나레 그걸 해노코 헨쥬? {옛날에 그걸 해놓고 했지요?}

10220 # 이. {응.}

10220 # 헨쎄요. {했어요.}

10220 @ 요즈믄 안치요? {요즘은 않지요?}

10220 @ 요즈믄 해요? {요즘도 해요?}

10220 # 시방 사람들도 하는 사라믄 할끼요 아매. 그런 사람들. {지금 사람들도 하는 사람은 할거예요 아매, 그런 사람들.}

10220 @ 이 동네는? {이 동네는?}

10220 # 생가기 안나네 ... {생각이 안나네 ...}

10220 @ 저 그러믄 인자 대 대염미 끝나면, 그다메 인자 그다메는 어떠케 해요? {저 그러면 이제 대 대염미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0220 @ 그믄 대염미라고 하는 마른, 온 같아이피고. {그러면 대염이라고 하는 말은, 옷 같아입히고.}

10220 # 예. {예.}

10220 # 게 인제 초여믄, 아까도 애기핸드끼, 대강 실쩍실쩍 실쩍 제 이 숨 바로 떠러지고 나면, 떠러지고 나면 그 인제. {그 이제 초염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강 슬쩍슬쩍 슬쩍 숨 바로 떨어지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그 이제.}

10220 # 예 자식더리 상제가 상제가 인제 손 이케 이케 저 배워다 이러케해서 인제, 우선 임시로 인자 이케. {예 자식들이 상주가 상주가 이제 손 이렇게 이렇게 배 위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임시로 이제 이렇게.}

10220 # 요리조리 요동모다게 궁게 인제 해노코. {이리저리 요동 못하게 이제 해놓고.}

10220 # 대:여미라는 거슨 인제, 고 이튼날 고 이튼날 인제. {대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튼날 그 이튼날 이제.}

10220 # 그 인제 자기 가족 인제 가족들 거시간다면 대염 저 그 상주는 직접 안하고, 고 고 인자 염. {그 이제 자가 가족 이제 가족들 거시기한다면 대염 저 그 상주는 적접 안하고, 그 이제 염.}

10220 # 그걸뚜 인제 아무나 못해, 거 저 해본 사라미 거 머 고 해본 사라미제. {그것도 이제 아무나 못해, 그 저 해본 사람이 그 뭐 해본 사람이지.}

10220 # 고 사람 고 사람드리 와서 인제 대염미라고 이르케, 일곱매를 매 묵꼬, 그 인제 수이를 인제 찜:부 이피고 거기 대.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대염이라고 이렇게, 일곱 매듭을 매 묵고, 그 이제 수의를 이제 전부 입히고 거기에 대.}

10220 # 그래가꾸서 인제, 다 묵꺼노쿠 인제, 꺾: 늘 과 과가네다 인자 모시지. {그래가지 고서 이제, 다 묶어놓고 관 관에다가 이제 모시지.}

10220 # 꺾아네다?. {관 안에다?}

10220 # 그냥 느따가 인제. {그냥 넣었다가 이제.}

10220 # 하룻밤 자:고, 고 이튼날 인제. {하룻밤 자고, 그 이튼날 이제.}

10220 @ 그며는 그때 그때 그 그(10220 # 장네) 느레다 늘때요. {그러며는 그때 그때 그 (10220 # 장례) 널에다 넣을 때요.}

10220 # 애. {예.}

10220 @ 대염 끝나믄 묻지 묻찌를 해요? {대염 끝나면 못질 못질을 해요?}

10220 # 해요. {해요.}

10220 @ 대염 끝나고나면요잉? {대염 끝나고 나면요?}

10220 # 으: 묻찔하고 묻찔질해요. {응, 못질하고 못질해요.}

10220 @ 과네다가요? {관에다가요?}

10220 # 예 그라고서나. {예 그리고서.}

10220 # 인제:. {이제.}

10220 # 거시기 인제 {거시기 이제.}

10220 # 그 나중에 인제 행상이다가, 행상이다 인자 이 과늘 올려노차나요? {그 나중에 이제 행상에다가, 행상에다 이제 이 관을 올려놓잖아요?}

10220 # 과닐 올려노면, 과늘 요동 요리질 못하게, 그 줄로, 줄로 인제 전:부 또 과글 무꺼

요, 이리캐. {관을 올려놓으면, 관을 요동 요동질을 못하게, 그 줄로, 줄로 이제 전부
또 관을 묶어요. 이렇게.}

10220 @ 예예. {예예.}

10220 # 줄로. {줄로.}

10220 # 동애쭈리라고 그저니 인제 시방은 인제 저:. {동아줄이라고 그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저.}

10220 # 무주에 다 글거 가져오더만. {무주에서 다 그것을 가져오더니만.}

10220 # 엔날엔 게 인자 저 ... {옛날에는 그 이제 저 ...}

10220 # 엔나른은 그 인자 생상주를 동애쭈리라고 그랜꺼등요. {옛날에는 그 이제 행상 줄
을 동아줄이라고 그랬거든요.}

10220 # 동애줄 동애줄이라고 그러는디. {동아줄 동아줄이라고 그러는데.}

10220 # 그레 인제 그 광 묶는, 그 주를 일따 또 까느로마니. {그레 이제 그 관 묶는 그
줄은 이제 또 가느름하니.}

10220 # 가로:마니 이캐 디리오. {가름하게 이렇게 드려요.}

10220 # 지비 이르캐 ... {짚으로 이렇게 ...}

10220 # 예. {예.}

10220 @ 지브로 만드려요? {짚으로 만들어요?}

10220 # 예, 지비로. {예, 짐으로.}

10220 @ 지비로 인제 저. {짚으로 이제 저.}

10220 @ 상두구니라고. {상두꾼이라로.}

10220 # 상두구니라고 그 사람드리 ... {상두꾼이라고 그 사람들이 ...}

10220 @ 동애쭈런 생이 인제 미는기고. {동아줄은 상여 이제 메는 것이고.}

10220 @ 그라고 인제, {그리고 이제,}

10220 @ 상주덜. {상주들.}

10220 @ 이캐 쓰넌 거슨. {이렇게 쓰는 것은.}

10220 @ 머리다 이걸. {머리에다 이것.}

10220 # 그리 그리 쓰자내요, 왜? {그렇게 그렇게 쓰잖아요, 왜?}

10220 @ 거기다도 이캐 그 새내키. {거기에도 이렇게 그 새끼.}

10220 @ 새내키로 헤 헤예 {새끼로 했어요?}

10220 # 예예예 쟈 새내키로 이캐. {새끼로 새끼로 이렇게.}

10220 # 삼얼 너 가지고, {삼을 넣어 가지고,}

10220 # 사마고 지바고 너어가지고 이르캐. {삼하고 집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10220 # 그거보고 텅이라구래요 텅이. {그것 보기 텅이라고 그래요 텅이.}

10220 # 상주텅이라고, (10220 @ 아:) 아지마네 쓰는 거시. {상주 텅이라고, (10220 @
아) 아주머니들 쓰는 것이.}

10220 # 상주텅이는 텅이라고 허고, {상주 텅이라는 텅이라고 하고,}

10220 # 그래서 인제 텅이를 다 멩글알짜나요, 그래가꼬, {그래서 이제 텅이를 다 만들었
잖아요. 그래가지고.}

10220 # 그레 그 저. {그레 그 저.}

10220 # 대염 다하면 대염 다허면 그 과글. {대염 다 하면 대염 다 하면 그 관을.}

10220 # 그 줄로 이르캐 팍팍 열거요 쭈매요. {그 줄로 이렇게 팍팍 엮어요, 잡아매요.}

10220 # 그래가꾸서나 나중에 인재 생이 나갈찌기 행상 우구다가 거그 짝 그 줄로 꼼짝 요동 이리저리 요동 모더게 그 줄로 다라매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상여 나갈 적에 행상 위예다 거기 짝 그 줄로 꼼짝 요동 이리저리 요동 못하게 그 줄로 달아매 요.}

10220 @ 아:. {아.}

10220 @ 그러면요 인자 자 그러케 허면, 그러케 허면 인자, 그 바깥에서는 그 아네서는 그러케 헨꼬, 도라가시면 바깥에 아까 그 저 저 뭐야, 철 철량부렁가를 켜노코. {그러면요 이제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바깥에서는 그 안에서는 그렇게 했고, 돌아가시면 바깥에 아까 그 저 뭐야. 철 철야불인가를 켜놓고.}

10220 # 차랑 차랑뿔. {철야 철야불.}

10220 @ 차랑뿔 켜노코. {철야불 켜놓고.}

10220 # 예. {예.}

10220 @ 동네 싸람들 상두군드리 와서 인재 다 준비 하지요 잉? {동네 싸람들 상두꾼들이 와서 이제 다 준비하지요?}

10220 @ 아까 텅이도 만들고, 또 인재 여러가지 준비를 하지요 잉? {아까 텅이도 만들고, 또 이제 여러가지 준비를 하지요?}

10220 # 예. {예.}

10220 @ 그때 그때 바깥에서는 주로 어떠 어떤 이를 해요? {그때 그때 바깥에서는 주로 어떠 어떠한 일을 해요?}

10220 @ 상두군드리 주로. {상두꾼들이 주로.}

10220 # 상두군드리? {상두꾼들이?}

10220 # 그때는 일할꼐 업찌, 거기서 인재 차랑어고 노름 노르미지. {그때는 일할 것 없지, 거기서 이제 철야하고 놀음 놀음이지.}

10220 # 할일이리 업찌 인재. {할 일이 없지 이제.}

10220 @ 그 그 그때 제가 어릴때 보면, {그 그 그때 제가 어릴 때 보면,}

10220 # 예:. {예.}

10220 @ 그 그 메고 가는 거슬 뭐라고래요? {그 그 메고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10220 @ 나중에 그 먼 끝 인꼬 이러케 이러케 허능거? {나중에 그 뭐 쫓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10220 # 거시기 요요도 인꼬, {거시기 요요도 있고,}

10220 @ 예. {예.}

10220 # 영전도 인꼬, 만사도 인꼬 그러치요. {명전도 있고, 만사도 있고 그렇지요.}

10220 @ 잠깐만요 이? 그먼 그거슬 행낭이라고 그래요 아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을 행낭이라고 그래요 아까?}

10220 @ 그 그거슬? {그 그것을?}

10220 @ 그걸 나가 나갈찌그는 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나가 나갈 적에는 상여라고 그러나요?}

10220 # '생이라구 그라쥬. {상여라고 그러지요.}

10220 @ 그먼 ... {그러면 ...}

10220 @ 생이다가. {상여에다가.}

10220 # 생애라고해 생이 메구, 여기는. {상여라고 해 상여 메고, 여기는.}

10220 @ 생이라고요? {상여라고요?}

10220 # 으, 생이라구래요. {응, 상여라고 그래요.}

10220 @ 그뎨 그 생이 그가 인꼬, 아까 그 저 동애쫄로 ... {그러면 그 상여 그것이 있고, 아까 그 저 동아쫄로 ...}

10220 # 어: {응.}

10220 @ 동애쫄로 묵기 위해서 이러케 이러케 나무 두개가 두개를 노코 ... {동아쫄로 묵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무 두개가 두개를 놓고 ...}

10220 # 애. {예.}

10220 @ 여푸로 인자 동애쫄리 이러케 사람드리 멩능거 요로케 인자 가로질른 나무 인쫄? {옆으로 이제 동아쫄이 이렇게 사람들이 메는 것 이렇게 이제 가로지른 나무 있지요?}

10220 # 애: 애:. {예, 예.}

10220 @ 요 요로케 요로케 트리 짜저 짜여진거 요고슨 뭐라구려? {이 이렇게 이렇게 틀이 짜여지 짜여진 것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10220 @ 그제 아까 너 그 저 콧 올리는데? {그것이 아까 너 그 저 콧 올리는 데?}

10220 # 이 나무? {이 나무?}

10220 @ 애. {예.}

10220 # 거 거 거시보고 거시기라구레 거. {그 그 거시기 보고 거시기라고 그래 그.}

10220 @ 모양이 요 요. {모양이 이 이.}

10220 # 아이 아 알아요 알아. {아, 아 알아요 알아.}

10220 @ 예예예. {예예예.}

10220 @ 요로케 생겨 인는 건 인? {이렇게 생겨 있는 것?}

10220 # 예예 아라. {예예 알아.}

10220 # 이 나무, 요 나무 마리오? {이 나무, 이 나무 말이요?}

10220 @ 애. {예.}

10220 @ 요요요 요고설 뭐라굴로 여그다 인자 요로케 인자 메능거 멩개 인꼬 인자. {이이 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고,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메는 것 몇 개 있고 이제.}

10220 # 요요요인, 찐자능거슨 굴글뵈기라고 하고, {이이이, 잔잔한 것은 굴글목이라고 하고,}

10220 @ 굴글 ... {굴글 ...}

10220 # 짱짜냥거. {잔잔한것.}

10220 @ 굴글뵈기라고? {굴글목이라고?}

10220 # 굴글뵈기라 하고, 요 큰나무 이거? {굴글목이라고 하고, 이 큰 나무 이것?}

10220 @ 애. {예.}

10220 # 이건 대차라고 해 대차. {이것은 대차라고 해 대차.}

10220 @ 대차? {대차?}

10220 # 으:. {응.}

10220 @ 요 아페 요고선요, 아페 요고선? {이 앞에 이것은, 앞에 이것은요?}

10220 @그거또 대차? {그것도 대차?}

10220 # 머김모기라 할꺼 이건 머김목. {머김목이라 할 것이야 이것은 머김목.}

10220 @ 뎨? {뎨?}

10220 # 머김목. {머김목.}

10220 @ 머기목? {머기목?}

10220 # 머김목. {머김목.}

10220 @ 머김목? {머김목?}

10220 # 애. {예.}

10220 @ 아:아. {아:..}

10220 @ 그리고 인자 요고 요고시 동애쭈리고 이? {그리고 이제 이것 이것이 동아줄이고
요 이?}

10220 # 그 인제 여그다 인제 주를 이르케 양쪼게다 주를 동애주를 지비로 이르케 해자나
요? {그 이제 여기다 이제 줄을 이렇게 양쪽에다 줄을 동아줄을 짚으로 이렇게 하잖
아요?}

10220 @ 애. {예.}

10220 # 그래가꼬 나무 이러케 질러가꼬 여그여그 하나씩 하나씩 여가 들어가서. {그래가
치고 나무 이렇게 질러가지고 여기여기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가 들어가서.}

10220 @ 들어가제. {들어가지.}

10220 # 애애애 동애줄. {예예예 동아줄.}

10220 @ 그다메 여기다가 인자 여기가다 인자 아까장 과글 이러케 묵썌요 잉?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앞까지 관을 묵지요?}

10220 # 애애. {예예.}

10220 @ 이러케 인제. {이렇게 인제.}

10220 @ 안 움지기게. {안 움직이게.}

10220 # 예. {예.}

10220 @ 그다메 여그다 인자 이러케 이러케 썌우는 썌우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
렇게 이렇게 썌우는 썌우잖아요.}

10220 # 애. {예.}

10220 @ 요로케 여페서 보면 요로케 인자 끝까지 허고 요로케 해서 ... {이렇게 옆에서 보
면 이렇게 이제 꽃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

10220 # 썌우지. {썌우지.}

10220 @ 머 부터 인꼬. {뭘 붙어 있고.}

10220 # 이. {응.}

10220 @ 요 요고설 다 이, 요고 요고시 생애에요 잉? {이 이것을 다 이 이것 이것이 상여
예요?}

10220 # 애. {예.}

10220 @ 요 요 요고시 요고시 생이여 잉? {이 이 이것이 이것이 상여여 이?}

10220 @ 그러면, {그러면,}

10220 @ 그러면, 거기는 거기는 끝또 인꼬 ... {그러면, 거기는 거기는 꽃도 있고 ...}

10220 # 예:. {예.}

10220 @ 여러가지 부치쥬? {여러가지 붙이지요?}

10220 # 애. {예.}

10220 @ 혹씨 그 그런거뜰 이름가통거 기영, 생각나시는 거쥬 이 이야기 해쥬보세요. {혹
씨 그 그런 것들 이름같은 것 기억, 생각나시는 것 쥬 이야기 해쥬보세요.}

10220 # 거 인썸요 다. {그 있지요 다.}

10220 # 이제 전체를 노코 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전체를 놓고 상여라고 하기는 하는데.}

10220 @ 예. {예.}

10220 # 생이라고 해도 거기 또 이리미 인썸요. 고곶또. {상여라고 해도 거기 또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10220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0 # 고곶또 이리미 인는디 생가기 안나네 잘. {그것도 이름이 있는데 생각이 안나네 잘.}

10220 @ 애. {예.}

10220 @ 그:. {그.}

10220 # 이리미 다 인썸요. {이름이 다 있어요.}

10220 @ 그 생이 위에 요로케 포장가통거또 치지요 잉? {그 상여 위에 이렇게 포장같은 것도 치지요?}

10220 # 애. {예.}

10220 @ 그건 뭐 그건 뭐라구레? {그것은 뭐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10220 # 그 거시기. {그 거시기.}

10220 # 저: 그기 거시기 하하하. {저 그것이 거시기 하하하.}

10220 @ 사람드리 아페 이러케 들고 가는 거슨 머여?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은 뭐요?}

10220 # 그건 인자 영전도 인꼬, 영전. {그것은 이제 명전도 있고, 명전.}

10220 @ 영저는 뭘뭘뭘? {명전은 뭘뭘뭘?}

10220 @ 어떻거설 영저니라그레? {어떤 것을 명전이라고 그래?}

10220 # 영저니랑거선. {명전이라는 것은.}

10220 @ 예. {예.}

10220 # 공포:, 공포하고 영저나고 두가지고 거가 만사고 세가지거등요. {공포, 공포하고 명전하고 두가지고, 거의가 만사고 세가지거등요.}

10220 # 여 공포넌 삼베, {이 공포는 삼베,}

10220 @ 애. {예.}

10220 # 삼베로 이르게 해가지고서 이르게 인썸왜 공포? {삼베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있지 왜 공포?}

10220 @ 애애. {예.}

10220 @ 삼베만 이르게. {삼베만 이렇게.}

10220 # 삼베만 대나무땃에 다라매가지고 하능거. {삼베만 대나무에 달아매가지고 하는 것.}

10220 @ 그기 공포여? {그것이 공포여?}

10220 # 그게 공포고. {그것이 공포고.}

10220 # 또 영저니라능건 인재 빨간 이제 저:. {또 명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간 이제 저}

10220 # 거시기다가 이제 흥겹때기 인주허고 거기따 이제 여 그럴 써가지고 그게 영저니고. {거시기에다가 이제 흥겹때기 인주하고 거기에다 이제 이 글을 써가지고 그것이

명전이고.}

10220 # 만사라 만사라는거 인제 영저나고 공포하고넌 아래우릴 다 다라매고 대납다가.
{마사라 만사라는 것은 이제 명전하고 공포하고는 아래위를 다 달아매고 대나무에다
가.}

10220 @ 아:. {아.}

10220 # 아래우릴 다. {아래위를 다.}

10220 # 만사라는 거슨 이 한쪽만 다라매서 펄:럭 펄:러기 이기 만사고. {만사라는 것은
이 한 쪽만 달아매서 펄럭 펄럭 이것이 만사고.}

10220 @ 그먼 만사에도 글씨를 쓰능가요? {그러면 만사에도 글씨를 쓰는가요?}

10220 # 다 쓰지. {다 쓰지.}

10220 @ 공포에는 안쓰고? {공포에는 안 쓰고?}

10220 # 왜 공포도 다 쓰지. {왜 공포에도 다 쓰지.}

10220 @ 어: 공포도. {어, 공포에도.}

10220 # 공포도. {공포에도.}

10220 @ 그먼 만사는 무슨 무슨 처느로 허능거요? {그러면 만사는 무슨 무슨 천으로 하는
것이요?}

10220 # 어? {어?}

10220 @ 아까 하나는 삼베로 허능거시 ... {아까 하나는 삼베로 하는 것이 ...}

10220 # 공포. {공포.}

10220 @ 공포고. {공포고.}

10220 # 어:. {응.}

10220 @ 영저는: {명전은.}

10220 # 영저는 이르캐 이제 흥겹때기로 아래우 째매능 거 ... {명전은 이렇게 이제 형곶때
기로 아래위를 잡아매는 것}

10220 @ 아래 쫌매능거고. {아래 잡아매는 것이고.}

10220 # 기기 영저니고. {그것이 명전이고.}

10220 @ 어:. {어.}

10220 @ 만사는 그냥 이러케 막 ... {만사는 그냥 이러케 막 ...}

10220 # 펄렁 펄렁 (10220 @ 펄렁 펄렁하고) 애 (10220 @ 가는 거고.) {펄렁 펄렁 (10220 @ 펄렁 펄렁 하고)예 (10220 @ 가는 것이고.)}

10220 # 그기 만사고. {그것이 만사고.}

10220 @ 그러면: 그거슬요. {그러면 그것슬요.}

10220 # 예. {예.}

10220 @ 그 거 그 동네에서 다른 사라미 쓰다가 가따 주기도 해요? {그 그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이 써다가 가져다주기도 해요?}

10220 # 다른 사라미 써다 주기도 하고, 보:퉁이면 인자 거, 거기 그 가멸, 가멸 떠가지고
오면 거그서 또 쓰는 수가 마나요. {다른 사람이 써다 주기도 하고, 보통이면 이제
그 거기 그 감을, 감을 떠가지고 오면 거기서 또 쓰는 수가 많아요.}

10220 # 그 상가지비서나 쓸 ... {그 상가집에서나 쓸 ...}

10220 # 잘 글씨거통거 붓글씨 잘쓰고 이런 사례미. {잘 글씨같은 것 붓글씨 잘 쓰고 이런
사람이.}

10220 @ 대개 어떤 내용을 써요, 거그다가? {대개 어떤 내용을 써요, 거기에다가?}

10220 # 만:사는 그 인재 머: 나도 거 확씨리 잘 모르건는데. {만사는 그 이제 뭐 나도 그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10220 # 인쥔 내가 누가 인자 그 만사를 헐자느면요. {인제 내가 누가 이제 만사를 헐자면요.}

10220 @ 애. {예.}

10220 # 아무거시 누가 이캐 이기 만사를 인재 그 호상 그럴때 먼자 먼자 쓰능가 그걸 모르겄씨. {아무것이 누가 이렇게 여기 만사를 이제 그 호상 그럴 때 무슨 자 무슨 자 쓰능가 그것을 모르겠어.}

10220 # 먼자먼자 쓰능가 인재. {무슨 자 무슨 자 쓰능가 이제.}

10220 # 그 호상에 대한 이제 그 아무거시가 호상에 대한 거시기를 한다고 그러케 인재 그 만사 하준 사람 이영지르 헐쓰면 이형지 일똥이라등가. 켜니 헐쓰면 개인 누가 이르게 헐따고 인자 그거 쓰고 인재, 호상이라는 거설 거기다 쓰능갑떼 이제 그건. {그 호상에 대한 이제 그 아무것이가 호상에 대한 거시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 만사 하준 사람, 의형제로 했으면 의형제 일똥이라등가. 개인이 했으면 개인 누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것 쓰고 이제, 호상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쓰는가보테 이제 그것은.}

10220 @ 아:. {아:.}

10220 # 만사. {만사.}

10220 # 그래 인재, 엔날버텀 인자 거 저: 부쥔찌비. {그래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저 부쥔집에.}

10220 @ 애. {예.}

10220 # 부쥔찌비드라고 그런디는 엔나레는 만사가 마:나짜나 막. 아마 움는 지비는 그 만사 영전하고 공포하고 시가지만 일썩꼬. {부쥔집들하고 그런 데는 옛날에는 만사가 많았잖아 막, 아마 없는 집에는 그 만사 명전하고 공포하고 세가지만 있었꼬.}

10220 # 부쥔찌비는 막 만사가 만코 그래 인재. {부쥔집에는 막 만사가 많고 그래 이제.}

10220 # 이 중녀네는요 중녀네는 인재 또 그 의형제라고 부라게서 인재 아까도 아침찌레 의형제라고 드러가꾸서 인재, 애경사가네 인재 뭐: 그지비 인쓰면 그르케 인자 가치 와서 인재 예 이를 가통거 도와주고 이런, 게 이런, 이영지라고 인끄든요. {이 중녀네는요 중녀네는 이제 또 그 의형제라고 부락에서 이제 아까도 아침결에 의형제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애경사간에 이제 뭐 그 집에 있으면 그렇게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일을 같은 것 도와주고 이런, 그 이런, 의형제라고 있거든요.}

10220 # 자기 부무 도라가시면, 도라가시면 인재 그종모기 일썩요 인재, 인재 만사가 뎡개를 해주기로. {자기 부모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종목이 있어요. 이제, 이제 만사가 몇 개를 해주기로.}

10220 @ 어:. {어.}

10220 # 고로게 종목, 그런 게가 일썩요, 또. {그렇게 종목, 그런 게가 있어요, 또.}

10220 # 그래구서 인재 만사를 해주는 그런 수도 인꼬.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사를 해주는 그런 수도 있고.}

10220 # 또 개인찌그로 자기가 그냥 해주는 수도 인꼬 그러 그리.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냥 해주는 수도 있고 그러 그것어.}

10220 @ 그런거또 그러니까 만사도 부자찌번 만코, 결구근 ...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만사

도 부자집은 많고, 결국은 ...}

10220 # 그치이:. {그렇지.}

10220 # 애,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10220 @ 그렇게 요즈무로 마라면 그러니까 머 화환보내능거 머 그런식 쟁도 되능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화환보내는 것 뭐 그런 식 정도 되는가요?}

10220 # 어? {어?}

10220 @ 요즘가테 보면 그막 그 장례식장 가 먼 막 끝 마:니 보내자나요? {요즘 같은 데
보면 그 막 그 장례식장 가면 꽃 많이 보내잖아요?}

10220 # 어 어: {어어.}

10220 @ 마치 그 끝보내능거더고 (10220 # 그러치 그러치) 그런시기나 마찬가지로건데요?
{마치 그 꽃 보낸 것하고 (10220 # 그렇지 그러지)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로겠네요?}

10220 # 화환 보냈거나 마찬가지로지. {화환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지.}

10220 @ 애. {예.}

10220 # 그나 마찬가지로여. {그것이나 마찬가지로야.}

10220 @ 자 그러면 인자 그러케 해서 인제 상여가 나갈 나갈 준비를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여가 나갈 나갈 준비를 할 때.}

10220 # 애. {예.}

10220 @ 그 상두꾼들리 그 저 철야를 하면서 그 미리 연습또 한번씩 하지요? {그 상두꾼
들이 그 저 철야를 하면서 그 미리 연습도 한번씩 하지요?}

10220 # 예: 연습비라고 하능 건요. {예,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10220 # 이제 댁뜨리라고 인썸썸요. {이제 대뜰이라고 있었어요.}

10220 # 엔나레 댁뜨리라고, 인는 지번 부재집 우리 동네도 엔나레 우리 쪼그만헐썸그 부
재집 한집 그러칸 집 인썸썸요. {옛날에 대뜰이라고, 있는 집은 부자집 우리 동네도 옛
날에 우리 쪼그만 할 적에 부자집 한 집 그렇게 한 집 있었어요.}

10220 # 인재: 도라가시머는. {이제 돌아가시면.}

10220 @ 애. {예.}

10220 # 내일 이제 내일 이제 출쌍헐꺼 거트머는 오늘 오늘 바메 생이를 참:부 이케 다 꾸
미가꼬 다 꾸미가꼬 인재 참 상두꾼드리 참:부 다 미고, 상주가 뒤따 따라 따라댕김
서나 인재 메:긴 사لامي 인짜나 생이서나 방울 이케 흔들서나 이케 메김서 동네로 이
르케 한번 와따가따 이르케 하고 그러케 하는 사لامي 인썸썸요. {내일 이제 내일 이제
출상할 것 같으면 오늘 오늘 밤에 상여를 전부 이렇게 다 꾸며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이제 참 상두꾼들이 전부 다 메고, 상주가 뒤로 따라 다라 다니면서 이제 메기는 사
람이 있잖아 방울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메기면서 동네로 이렇게 한번 왔다갔다 이
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220 # 그거보고 엔나레 우리들 댁뜨리라고 그렘썸요. {그것 보고 옛날에 우리들 대뜰리
라고 그랬어요.}

10220 # 그러케 할라면 인재 머 거기 인재 그런 사람들 다 메기야 되자냐: 이? {그렇게 하
려면 이제 뭐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먹여야 되잖아?}

10220 @ 으으으. {으.}

10220 # 메기야 되고 허니께 도니 이썸야 되자냐. 그렇게. {먹여야 되고 하니까 돈이 있어
야 되잖아. 그러니까.}

10220 # 엔나레 인재 부재쩍 아조 인는 사람만 그러케 허고 어지간 허면 다: 그러케 아나고 그냥 그러케 고안날 아나고 연습 아나고 고이튼날 엔나렌 다 그냥 생이 나갈찌그만 그랜썬요. {옛날에 이제 부자집 아주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어지간하면 다 그렇게 안하고 그냥 그렇게 그 안날 안하고 연습 안하고 그 이튼날 옛날에 다 그냥 상여 나갈 적에만 그랬어요.}

10220 # 우리 동네 또 우리가 쪼마네썰찌게 그르케 우리 동니 그 사라미 머 엔나레 땅 백썬 백썬한다는 지비 거든요. {우리 동네도 우리가 조그만 했을 적에 그렇게 우리 동네 그 사람이 뭐 옛날에 땅 백석 백석 했다는 집이 거든요.}

10220 # 그집 하라버지 주거서 그르케 한썬요. {그 집 할아버지 죽어서 그렇게 했어요.}

<장례 절차>

10221 @ 그먼 관 과니 나가요 이? {그러면 관 관이 나가요?}

10221 # 예. {예.}

10221 @ 과니? {관이?}

10221 @ 그럴때 나갈 때 어떠케 나가요? {그럴 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10221 # 과니? {관이?}

10221 @ 예. {예.}

10221 # 방이서 방에서 나갈찌게? {방에서 방에서 나갈 적에?}

10221 # 머리버툼 나가지. {머리부터 나가지.}

10221 @ 머리부터? {머리부터?}

10221 # 머리버툼 나간디, 이: 바로 문텅너미 문텅너미 인제 엔나레 마리라구 일짜녀 마리. {머리부터 나가는데, 이 바로 문턱 넘어 문턱 넘어 이제 옛날에 마루라고 있잖아 마루.}

10221 @ 예. {예.}

10221 # 마리다가 인재 그 바가지 이케 큰:놈하나 이케 어퍼노테, 어퍼논 어퍼놈서나 인재, 그 상두꾼드리 양쪼게서 이케 이케 이제 들고 나가자나요. {마루에다가 이제 그 바가지 이렇게 큰 놈 하나 이렇게 얹어놓데, 얹어놓은 얹어놓으면서나 이제, 그 상두꾼들이 양 쪽에서 이렇게 이제 들고 나가잖아요.}

10221 # 들고감서 그 이제 바가지 문터기 나감서. {들고 가면서 그 이제 바가지 문턱에 나가면서.}

10221 @ 예. {예.}

10222 # 시르렁 시르렁 톱찌라야. 이라데요. {시르렁 시르렁 톱질이야. 이렇게 하데요.}

10222 # 그기 세버늘 해요. {그것 세번을 해요.}

10222 @ 예. {예.}

10222 # 시렁 시렁 톱찌리야 그람서 나옴서 그 바가지를 팍: 깨테, 팍 밟꼬 인자 그래. {시렁 시렁 톱질이야.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바가지를 팍 깨테, 팍 밟고 이제 그래.}

10222 # 그래 난 ... {그래 난...}

10222 @ 그 그 그. {그 그 그.}

10222 # 바가지릴 팍 발바서 깨요. {바가지를 팍 밟아서 깨요.}

10222 @ 발로 깨능거요? {발로 깨는 것이요?}

10222 # 응 발로. 사래미 인재. {응, 발로 사람이 이제.}

10222 # 사래미 인재, 신체 모시고 나오는 양반더리 맨: 뒤 맨: 뒤에 나오는 사래미 그 바가치를 발로 째 발바서 깨뜨리고 가는 바가지 이마:넝거 가따 어퍼노코. {사람이 이제, 신체 모시고 나오는 양반들이 맨 뒤 맨 귀에 나오는 사람이 그 바가치를 발로 째 밟아서 깨뜨리고 가는 바가지 이만한 것 갖다 얹어놓고.}

10221 @ 인자 그러케 해서 나와서 인재 그담날 생이가 나가는 ...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그 다음 날 상여가 나가는 ...}

10221 # 예 그래서 인재 생이다가 인자 모시가꼬 그래가꾸서 인재 나가지요. {예, 그래서 이제 상여에다가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가지요.}

10221 @ 그면 생이에 그 아까 메고갈때 상두꾼드리 인꾸요. {그러면 상여에 그 아까 메고갈 때 상두꾼들이 있고요.}

10221 @ 아페 메고간 사라몬 메기는 무슨 무슨 꾸니라구려요? {앞에 메고 가는 사람은 메기는 무슨 무슨 꾸이라고 그래요?}

10221 @ 메는 사라몬 상두꾸니고. {메는 사람은 상두꾼이고.}

10221 # 애. {예.}

10221 @ 아페 그 그 중치면서 이러케 잡꼬 허는 사래미 인찌요. 그 사라몬 뭐라구려? {앞에 그 중 치면서 이렇게 잡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10221 # 그 우리두 우리 마으른 그냥 보통 여그 저 별또로 이르케 인재 별또로 인자 그건만 흔들고 메긴 사람도 인끼는 인는데. {그 우리도 우리 마을은 그냥 보통 여기 저 별또로 이렇게 이제 별또로 그것만 흔들고 메기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10221 # 보통 그냥 민 사람드리 그냥 그러케 마니 방울 흔들러 미구 마니 나가요. {보통 그냥 맨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방울 흔들어 메고 많이 나가요.}

10221 # 그라구 인재, 그 제서 인자 이르케 그거보고 메기린다고 해요. 메긴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이제 이렇게 그것 보고 메겨 넣는다고 해요. 메긴다고.}

10221 @ 메긴다고. {메긴다고.}

10221 # 방울 이르케 흔들고 소릴 쥘 지른 사람미 메기는 사래미라고 그래요. {방울 이렇게 흔들고 소리 질 지른 사람이 메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10221 @ 메기는 사람. {메기는 사람.}

10221 @ 그 인자 매기는 사람드리 그 매기는데 그 매기는 소리하고, 그: 매고가는 소리가 또 달라요 잉? {그 인재 메기는 사람들이 그 매기는데, 그 매기는 소리하고, 그 메고가는 소리가 또 달라요 잉?}

10221 @ 동네마다 좀식 다르더라고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0221 # 틀려 동네 부랑마당 틀리요. {틀려 동네 부락마다 틀려요.}

10221 @ 그면 여기서 여기서 이 동네에서 허다 다른 동네에 가서 그 매며는 그 또 못따라갈 쥘도 인건네요 잉?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 동네에서 허다 다른 동네에 가서 그 매며는 그 또 못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잉?}

10221 # 고기 궁게 거기 가면 인자, 고기 순리대로 해야지며. {거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순리대로 해야지 뭐}

10221 # 그 동 그 마을 순리대로. {그 동 그 마을 순리대로.}

10221 # 앙그러컨썬요? {안 그렇겠어요?}

10221 @ 상이가 인자 올라 가썬요. {상여가 이제 올라갔어요.}

10221 # 애. {예.}

10221 @ 그 장지 올라감쎄. {그 장지에 올라갔어.}

10221 # 으. {응.}

10221 @ 그며는 그 생이는 나: 어떠케해요? {그러면 그 상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221 # 생이? {상여?}

10221 @ 애. {예.}

10221 # 인제 엔나레는, 엔나린:. {이제 옛날에는, 옛날은.}

10221 @ 그 만사나 만사나 아까 그 마니 가져강건 어떠케 허고 와요? {그 만사나 만사나 아까 그 많이 가져간 것은 어떻게 하고 와요?}

10221 # 엔나레는 인제 기계, 행상이라는 거시 인제 그 나무로 이케 인제 부라게서나, 부라게서 인제 모 어느 지꾼 지꾼 인짜너요. 그개. {옛날에는 이제 그것이, 행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이제 부락에서, 부락에서 이제 모 어느 지꾼 지꾼 있잖아요. 그개.}

10221 # 상두개라등가 지꾸니 인제 그 지꾼드리 도널 내가지고서나 생이를 맨드러 낚쎄요. {상두개라등가 지꾼이 이제 그 지꾼들이 돈을 내가지고서 상여를 만들어 놓았어요.}

10221 # 매:나고서 인제 그, 어: 동네 마을 꼬터머리라등가 이케 생이찌비라고, 그케 지블 지노코, 다 쓰고노른 다시 인제 그 생이라는걸 나무 그: 점문 나무가튼거 가지고 생 이지비다 또 가따 녀요. {매놓고서 이제 그 어 동네 마을 끝머리든가 이렇게 상여집 이라고, 그렇게 집을 지어 놓고, 다 쓰고 나면 다시 이제 그 상여라는 것을 나무 그 전부 나무같은 것을 가지고 상여집에다 또 가려다 넣어요.}

10221 # 녀코. {넣고.}

10221 @ 궁굴모기랄지 머 가튼거... {궁글목이랄지 뭐 같은 거 ...}

10221 # 궁굴모기라든지 그 대차라든가 인제 전반 그 따린거슨 인제 거기따 생이찌비다 녀요. {궁글목이랄지 그 대차라든가 이제 전부 그 따른 것을 이제 거기에다 상여집에다 넣어요.}

10221 # 녀따가 인제 탄 사람들 상당해면 거기서 내다가 인제 쓰고, 그런디 이기 인제 그 싸긴쎄요. {넣었다가 이제 탄 사람들 상당해면 거기에서 내다가 이제 쓰고, 그런디 거기 이제 그 샅이 있어요.}

10221 # 함번 가따 쓰는데 싹 싸긴꼬. {한번 가져다 쓰는데 샅, 샅 있고.}

10221 @ 그 끝가튼거슨 ... {그 꽃같은 것은 ...}

10221 # 그렇게 인제 꼬가튼거. {그러니까 이제 꽃같은 것.}

10221 @ 애. {예.}

10221 # 공포하고 영전, 영저나고는 인제 신체위에다 까라줘 이르캐. {공포하고 명전, 명전 하고는 이제 시체 위에다 깔아줘 이렇게.}

10221 @ 어:. {어.}

10221 # 신체를 땅에다 이케 모시고, 모시고 인제 그 위에다가 영저나고 공포하고 이르캐 배위에다 이케 까라줘. {시체를 땅에다 이렇게 모시고, 모시고 이제 그 위에다가 명전하고 공포하고 이렇게 배 위에가 이렇게 깔아줘.}

10221 # 까라주고, 만사는 엔나레 가자왈쎄요. 인제 지비로. {깔아주고, 만사는 옛날에는 가지고 왔어요. 이제 집으로.}

10221 # 가자서 시방 인제 시방언 안그러치마는 엔나레는 부모가 주그머는 삼년까지는 매

때마다 바벌 떠다 낱짜나요. {가져와서 지금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마는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삼년까지는 매 때마다 밥을 떠다 놓았잖아요.}

10221 @ 그러치요 애. {그렇지요.}

10221 # 어? 삼년상으. {어? 삼년상을}

10221 # 삼년상을 넌라고. {삼년상을 지내려고.}

10221 @ 응. {응.}

10221 # 그래서 인제 그: 그 그걸보고 인제 빈사라고 그랜는데, 엔나레. {그래서 이제 그 그 그것을 보고 이제 빈사라고 그랜는데, 옛날에}

10221 # 빈사를 이르케 커:게 이케 인제 진짜너 저 거시기다. {빈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짓잖아 저 거시기에다.}

10221 # 으지까니다 진는 사람도 이꼬 한디다 인제 지가꼬서 이케 물 몬드러가게 이케 지 비루 이르케 잘하는 사람도 인꾸 그러꺼든요. {의짓칸에다 짓는 사람도 있고, 한테다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물 못 들어가게 이렇게 쪼으로 이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10221 # 만사는 인자 빈사 양쪽 여피다 이르케 침:부 거리날썸썸요. {만사는 이제 빈사 양쪽 옆에다 이렇게 전부 걸어놓았었어요.}

10221 # 다 거리노코, 인제 삼년상 인제 지사, 삼년상 지내면 인제, 그저니는 저: 요 삼년상 나드라건 상제가요 상제르 항상 이 건거통거 그러고 귀늘 쓰고 땡겨썸요. {다 걸어놓고, 이제 삼년상 이제 제사, 삼년상 지내면 이제, 그전에는 저 이 삼년상 날 때까지 상주가 상주는 항상 이 권같은 것 그리고 권을 쓰고 다녔어요.}

10221 # 어른드리. {어른들이.}

10221 # 권닐. {권을.}

10221 # 인제 삼년상 나른 복 번는다고 그라더든요. 복. {이제 삼년상 나면 복 벗는다고 그러거든요.}

10221 # 게 인제 제사 지내고, 사니 가거나 인제 그 그 인제 상제 그 인제 옷 거니라든가 머 이렇거 인제 그렇걸 인제 딱 쳐댄 사람도 이꼬. {그 이제 제사 지내고, 산에 가서 이제 그 이제 상주 그 이제 옷 권이라는가 뭐 이런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딱 쳐대는 사람도 있고.}

10221 # 그라고 인제 아버지가 아페 도라가시고 거나 어머니가 아페 도라가시거나, 어머니가 아페 도라가시면 다메 아버지가 도라갈 때 또 그걸 맨들 되쟈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앞에 돌아가시고 그러거나 어머니가 앞에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앞에 돌아가시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0221 @ 애애. {애.}

10221 # 그런 사라면 저 사니 가서 인제 부래노코 부를 이러케 실실 둘러요. {그런 사람은 저 산에 가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슬슬 둘러요.}

10221 # 함번 둘러가꼬 침부 지베 가따봐. {한번 둘러가지고 전부 집에 갖다가 봐.}

10221 # 가따가 개 모드키 놔따가 자기 아버님 도라가시면 내내 고노미로 또 인제 상복 애 또 인제 이꼬 그르케 해요. {갖다가 그 모아 놓았다가 자기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내 그 놈으로 또 이제 상복 애 또 이제 입고 그렇게 해요.}

10221 # 게 인제 뒤로 인제 쓸데 얹는 사람드른 머 다 쳐뎌빠리고. {그 이제 뒤로 이제 쓸데 없는 사람들은 뭐 다 쳐대버리고.}

- 10221 # 그디 인재, 시방언 머 그거 다 인재 만사고 머고 단저리 그냥 다 업 치대 업썩뿌 리자나요 시방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그것 다 이제 만사고 뭐고 완전히 다 없 쳐대 없애버리잖아요. 지금은.}
- 10221 @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그 과늘 베꼈썩요? 베끼고 신체만 넌썩요? 과늘 가치 넌썩 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그 관을 벗겼어요? 벗기고 시체만 넣었어요? 관을 같이 넣었어요?}
- 10221 # 인재 엔나레: 인재 과늘 쓰는 사라미 이썩썩요. 과늘. {이제 옛날에 이제 관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 10221 # 과늘 쓰는 사라미 보편썩그로, 과늘 빼는 행페닌디 과늘 지파나고 지파는 다 빼 고, 천지파너고 지파너고 저 서판 양썩게 서판만 쓰는 사라미 마넌썩요. 서판. {관을 쓰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관을 빼는 형편인데 관을 지판하고 지판은 다 빼고, 천지판 하고 지판하고 서판 양썩에 서판만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서판.}
- 10221 @ 애. {예.}
- 10221 # 게서 인재 엔나레는 기낭 과늘 다 쓰는 사라미 인썩꺼든 다 그냥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관을 다 쓰는 사람이 있었거든 다 그냥 하나도 안 빼 고.}
- 10221 # 게 그기, 가마:니 생각허면 인재 거, 자기 부무가 인자 암만 주거썩마는 흐그로 이 케 막썩허기가 이제 자식 도리로서 보기가 썩 안대썩나. {그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 면 이제 그 자기 부모가 이제 아무리 죽었지만 흙으로 이렇게 막썩허기가 이제 자식 도리로서 보기가 썩 안됐잖아.}
- 10221 @ 으:. {응.}
- 10221 # 그럼 인재 그 과늘 쓰면 소기 저 공가느로 가마니 이썩개, 게 놀리는 거시 조개 이제 보기가 썩 갠는다. {그러면 이제 그 관을 쓰면 속이 저 공간으로 가만히 있으니 까, 그 놀리는 것이 조금 이제 보기가 썩 그랬는데.}
- 10221 # 그게 사:실상 나중예 따지고 보머는 사라미 인재, {그게 사실상 나중예 따지고 보 면 사람이 인재.}
- 10221 # 공기랑건 공가니라능게 생기면 그라구 고 소그서 인재 사라미인재 사리고 머고 썩기머는, 그 공 공가니 생기면 버리지라등가 머가 생기가 마려니래요. {공기라는 것 은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살이고 뭐고 썩으며 는, 그 공 공간이 생기면 벌레라등가 뭐가 생기가 마려니래요.}
- 10221 @ 애. {예.}
- 10221 # 그리가꾸서 엔나레 그르케 인재 과늘 쓰는 사라미 인는데 고 뒤 뒤로, 인재: 서판 만 썩고 지파너고 천지파너고는 보통 썩고, 서판만 쓰는 사라미 이꼬. {그래가지고서 옛날예 그렇게 이제 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 뒤로, 이제 서판만 썩고 지판하 고 천지판하고는 보통 썩고, 서판만 쓰는 사람이 있고.}
- 10221 # 근디 시방은 저 시방은 여 그 그저니는 인재 거 나무로 해서 거 헐는데, 인자 중 녀니는 또 그거 그케 업썩징개 석판, 돌로 맨둥기자나 인자. 그래서 돌로 보통 시방 도 돌로: 인재 거시개능개 일딴 양썩그서 서판, 서판만 썩내니 마나요. {그런데 지금 은 저 지금으 이 그 그전에는 이제 그 나무로 해서 그 했는데, 이제 중년에는 또 그 것 그것이 없어지니까 석판, 돌로 만든 것이잖아 이제. 그래서 돌로 보통 지금은 돌 로 이제 거시기하는 것이 일단 양썩에서 서판, 서판만 썩는 것이 많아요.}

10221 # 지파나고 천지파나고는 안쓰는 사라미 마나요. {지판하고 천지판하고는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10221 # 이기 인제: 쓰는 사람도 혹시 이즐랑가 모른디 원치근 우리가 생가개도 그기 소기 공가늘 안두는 거시 기기 원치기요. 그기. {이것이 이제 쓰는 사람도 혹시 있을라는 가 모른데 원칙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이 속이 공간을 안 두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요. 그것이.}

10221 # 근데, 나중에 기기 혹시 인재 이장도 하는 수가 이짜너요. 이장.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혹시 이제 이장도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장.}

10221 # 이장얼 하면 흐그로 막따진 디는 참 인제 폭 그 제 육타리 잘대가꼬 빼만 인재 이르게 인제마넌. {이장을 하면 흙으로 막 다진 데는 참 이제 폭 그 이제 육탈이 잘 되어가지고 빼만 이제 이렇게 있지만은.}

10221 # 그기 인재 과널 그냥 그대로 거시간 사라문, 그 소기 머 머래도 별거지 인쓰면 보기가 지랄차냐요. {그것이 이제 관을 그냥 그대로 거시기한 사람은, 그 속에 뭐 뭐라도 별레가 있으면 보기가 지랄하잖아요.}

10221 # 다 그러케 보통 그러케 하더만요 시방언. {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드만요, 지금은.}

10221 @ 자 그러면 인재 그 도라가시면 동네 사람들한테 어디 알릴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한테 어디 알리려고.}

10221 # 예. {예.}

10221 @ 돌아가시면 바로 내는 걸 먼 먼 먼내다고구려? {돌아가시면 바로 내는 것을 뭇 뭇 뭇 낸다고 그래요?}

10221 # 부구지. {부고지.}

10221 # 부구지. {부고지.}

10221 @ 그 그때 엔날로 마라면, {그 그때 옛날로 말하면,}

10221 # 예. {예.}

10221 @ 그 상두꾼드리 와서 그걸 쓰는 거요? {그 상두꾼들이 와서 그것을 쓰는 거요?}

10221 # 아니여, 상두꾼드리 쓰능게 아니고, 그건 그리도 인제 글씨 쓰능건 그도 쓸만한 사람드리 쓰야제. {아니야, 상두꾼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래도 이제 글씨 쓰는 것은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이 써야지.}

10221 # 그지바네 그지바네 좀 가깝꼬, 그도 쓸마넌 사람드리, 그때 와서 상 당해면 상 당해면, 오늘 이제 상얼 당하자나요. {그 집안에 그 집안에 좀 가깝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이, 그때 와서 상 당하면 상 당하면, 오늘 이제 상을 당하잖아요.}

10221 @ 예. {예.}

10221 # 그럼 오늘 저녁게 인재, 그 지바니라등가 친구지가니도 말 마디 이롭게 인자 그 잘 지낸 양반드리 와서 쓸마넌 사람드리 점부 인재 상두가 상두가 알키주문 다 써요. 다 써가꾸서 인재. {그럼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집안이라든가 친구지간에도 마을 마다 이르니까. 이제 그 잘 지낸 양반들이 와서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상주가 상주가 알르켜 주면 다 써요. 다 써가지고서 인재.}

10221 # 고 이튼날 엔나레는 사:방 인재 그저니는 지나가 업고 뭐, 우편 거시기도 우꼬 그렇게 인재. {그 이튼날 옛날에는 사방 이제 그전에는 전화가 없고, 우편 거시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10221 # 씨가꼬 사:라미 사라미 너른 너는 어드로 가고, 너는 서쪼가고 너는 동쪼그 가고 너는 부쪼그 가구 이르케 인제 마타요 이래. {씨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너는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서쪽으로 가고 너는 동쪽으로 가고 너는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말아요 이렇게.}

10221 # 그또 인제 고 인자 그 상당헸 지비 머 친 잘 친구지가네 잘 아는 사람드리 이르케 만따가 사방에 토를 인제. {그것도 이제 그 이제 그 상한 집의 뭐 친 잘 친구간에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사방에 토를 이제.}

10221 # 사람드리 가따 쫄쪼요. 이제. {사람들이 갖다 주었지요. 이제.}

10221 @ 그걸 뭐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뭐한다고 그래요?}

10221 # 그건? 부구지, 부구 저낸다고 그라지 머. {그것? 부고지, 부고 저낸다고 그러지, 뭐.}

10221 @ 부구 저낸다고요? {부고 저낸다고요?}

10221 # 애, 부구 저날따고. {예, 부고 저냈다고.}

10221 # 부고저나러 간다고 그랜썬. {부고 전하러 간다고 그랬어.}

10221 @ 부구를 저나면, {부고를 전하면,}

10221 # 애. {예.}

10221 @ 자 인자 제가 옆 여폐동네 사는데. {자 이제 제가 옆 옆에 동네 사는데.}

10221 # 애. {예.}

10221 @ 제가 인자 이르케 가서 부고를 저낸썬요. 어르신한테 가따 드렘썬. {제가 이제 그렇게 가서 부고를 전했어. 어르신한테 갖다 드렸어.}

10221 @ 그러면 그 그 동네에 인자 우리 친척이나 사람드리 맨썬 살고 인썬면, 제가 어르신한테만 저나면, 어르신만 와요? 아니면 어르시니 동네뽀한테 열라글해서 와요? {그러면 그 그 동네에 이제 우리 친척이나 사람들이 몇 집 살고 있으면, 제가 어르신한테만 전하면, 어르신만 와요? 아니면 어르신이 동네분한테 연락을 해서 와요?}

10221 # 아:. {아:}.

10221 (@ 입말에서 연)

10221 # 판 판 동네 부구렐 가따주머는. {판 판 동네 부고를 갖다 주머는.}

10221 @ 애. {예.}

10221 # 그 사람만 오능가? {그 사람만 오는가?}

10221 @ 애. {예.}

10221 # 판 사람도 오능가 가치? {판 사람도 오는가 같이?}

10221 @ 애, 그 지여게서. {예 그 지역에서.}

10221 # 그 사람만 와요. {그 사람만 와요.}

10221 @ 그 사람. {그 사람.}

10221 # 부구 낸 사람만 와요. 애. {부고 낸 사람만 와요.}

10221 @ 근디 마낙 ... {그런데 만약 ...}

10221 # 그라고 인제 부구낸 사라마고 상가썬하고 서로가 인제 친척기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보부고 낸 사람하고 상가집하고 서로가 이제 친척이 된다든가.}

10221 @ 애. {예.}

10221 # 친척 아니더라도 친구지가니 잘 안다든가, 요로캥개 부구 내지, 그 외 몰름서 서로 알면, 어디 저 장애를 바도 서로 인사 아나고 모르는 사라문 몰름개 아너지. {친

척 아니드라도 친구지간의 잘 안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부고 내지, 그 외 모르면서 서로 알면, 어디 저 장애를 봐도, 서로 인사 안하고 모르는 사람은 안하지.}

10221 # 아:는 사람만 하지. {아는 사람만 하지.}

10221 @ 이러케 인자 그 그집 어 어느 지베 친척 그 동네가 마으레 친척기 이따, 멘찌비 인따면 멘 찌블 다: 안내고 한 집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그 집 어 어느 집에 친척 그 동네가 마을에 친척이 있다, 몇 집이 있다면 몇 집을 다 안 내고 한 집만 해가지고.}

10221 #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10221 @ 열락좁 해라. {연락좁 해라.}

10221 # 아:~이 각각 다 내요. {아니 각각 다 내요.}

10221 @ 각각 다 내요? {각각 다 내요?}

10221 # 각각 다 내요. 그진. 각각 다 내. {각각 다 내요. 그것은 각각 다 내.}

10221 # 열찌비면 열찹 머 시무지비면 시무집 각각 다 저요 다. {열집이면 열집 뭐 스무집 이면 스무집 각각 다 줘요. 다.}

10221 @ 부고도 바든 사람만 오는 거시 잉? 원칙이에요? {부고도 받은 사람만 오는 것이 잉? 원칙이에요?}

10221 # 애. {예.}

10221 # 인제 시방은 저나가 인쥬개 저나가 인쥬개 상 당허면 예를 드려서 윤마을 워디 마으레 인쓰머는, 내가 그 마을 이제 썬찌비나 넌찌비나 아는 양반 인쓰면, 저나를 해가꼬서 아 그 누구누구 거시강개 거그서 좀 알레돌라고 사방은 이르케, 이르케 쫘 마니도 하능갑뜨만, 엔나레 부구넬 때는 각각 침부 다: 보내요. {이제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상 당하면 예를 들어서 윗마을 어디 마을에 있으면, 내가 그 마을 이제 세집이나 네집이나 아는 양반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서 아 그 누구누구 거시기하니까 거기에서 좀 알려 달라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도 하는가 보드만, 옛날에 부고넬 때는 각각 전부 다 보내요.}

10221 @ 다: 넌썬요? {다 내어요?}

10221 # 애, 다내요. {예, 다내요.}

10221 @ 그 부고를 안 바드면 안 오는 거여 ... {그 부고를 안 받으면 안 오는 것이어 ...}

10221 # 구르치요. {그렇지요.}

10221 # 엔나레는 안바드면 안 와썬요. {옛날에는 안 받으면 안 왔어요.}

10221 @ 아 그랜썬요? {아 그랬어요?}

10221 # 엔나레 안바드면 안 와썬. {옛날에 안 받으면 안 왔어.}

10221 @ 요즈믄 그냥 연락 바드면 인자 갈마녀면 그냥 아라서 가기도 허자나요? {요즘은 그냥 연락 받으면 인제 갈만하면 그냥 알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10221 # 시방인자 그런거 부고 업썬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부고 없어요.}

10221 # 시방은 업꼬:. {지금은 없고.}

10221 # 저와 처꼬 알마넌 사라면 시방 인자 다 저와로 인제 저와하고, 그가고 또 인제, 저와를 내 아내도 저와를 아내도 알마넌, 평소에 잘 지내고 알마넌 사람더른 그냥, 알머는 가지 인제 시방언 가요. {전화 쳤고 알만한 사람은 지금 이제 다 전화로 이제 전화하고, 그렇게하고 또 이제, 전화를 내가 안해도 전화를 안해도 알만한, 평소에 잘 지내고 알만한 사람들은 그냥, 알면 가지, 이제 지금은 가요.}

10221 # 그 상해서 그냥 알머는 가요. 그래 시방. {그 상 당하면 그냥 알면 가요.}

10221 @ 자 그럼 인자 부고 내고, 생애를 매고, 나가요. {자 그럼 인제 부고내고, 상여를 매고, 나가요.}

10221 @ 지베서부터 방으로부터 나가는, 나가서 상에 들고 장지까지 가는 걸 그걸 머한다고 그래요? {집에서부터 방으로부터 나가는, 나가서 상여 들고 장지까지 가는 것 그것을 뭐한다고 그래요?}

10221 # 장지까지 가는거? {장지까지 가는 것?}

10221 @ 애. {예.}

10221 # 장니 모시고 가는 기지머. {장례 모시고 가는 것이지 뭐.}

10221 @ 장니 모시고 가는거요잉? {장례 모시고 가는 것이요 잉?}

10221 # 응, 장니 모시로 간다고. {응, 장례 모시로 간다고.}

10221 @ 그쵸, 그 운구한다는 마른 어디다 어디다 쓰는 거요? {그렇지요, 그 운구한다는 말은 어디에다 어디에다 쓰는 것이요?}

10221 # 으? {으?}

10221 @ 운구한다는 말. {운구한다는 말.}

10221 # 운구? {운구?}

10221 @ 그런 마른 안썬요? {그런 말은 안썬요?}

10221 # 운구, 자세히 모르건는데. {운구, 자세히 모르겠는데.}

10221 @ 자 그먼 거기까지 갇썬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갇어요.}

10221 # 애. {예.}

10221 @ 장네지까지 갇썬 가면, 동네 사람드리 이케 파노치요 잉? {장례지까지 갇어 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파놓지요 잉?}

10221 # 애. {예.}

10221 @ 그 파논는 요 요 요거슬 머라구레요? {그 파놓는 이 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10221 # 파논는 거슬? {파놓는 것을?}

10221 @ 애. {예.}

10221 # 묻짜리. {묘자리.}

10221 @ 이제 묻짜리를 잡썬요? {이제 묘자리를 잡지요?}

10221 @ 애. {예.}

10221 @ 묘지 묻짜리다 ... {묘지 묘자리에다 ...}

10221 # 묻짜리 자바가꼬, {묘자리 잡아가지고,}

10221 @ 애. {예.}

10221 @ 땅을 팡거슬? {땅을 파는 것을?}

10221 # 예, 대강 이제 제 널버:라니 이케 파요. {예, 대강 이제 넓직하게 이렇게 파요.}

10221 @ 애. {예.}

10221 # 널베라니 파 노코. {넓직하게 파 놓고.}

10221 # 그라고 신체 드러갈때는 인제 신체 드러갈썬만 이르게 널베라니 판데다, 인제 쯔 부때너게 또 또 더 파요.(@ 그러치요.) {그리고 시체 들어갈 때는 이제 시체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넓직하니 판 데다, 이제 좁게 또 또 더 파요.}

10221 # 공 고 알광이라고 그래요. 알광. {그 것을 알광이라고 그래요. 알광.}

10221 @ 알광. {알광}

10221 # 알광판다고. {알광 판다고.}

10221 @ 알광판다고 해요? {알광 판다고 해요?}

10221 # 알광판다고, 애. {알광 판다고, 예.}

10221 @ 알광에다 나중에 인제 시체를 던는거예요잉? {알광에다가 나중에 이제 시체를 넣는 거예요.?}

10221 # 애애, 그러치. {예예, 그렇지요.}

10221 @ 자 그러면 인자 가서 생애를 내리고, 인자 생애 소게서 그 과늘 꺼내서, 그 알광으로 옮기는 거슬 머한다구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상여를 내리고, 이제 상여 속에서 그 관을 꺼내서, 그 알광으로 옮기는 것을 뭐한다고 그래요?}

10221 # 고게? {그것이?}

10221 @ 애. {예.}

10221 # 거시기. {거시기.}

10221 # 거시기여. {거시기여.}

10221 # 아이 자꾸만 머 잘 안나게. {아이 자꾸만 뭐 잘 안나게.}

10221 # 생가기 이케 자란나.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나.}

10221 @ 그 그 거슬 하관난다고 그렇가요? {그 그 것을 하관한다고 그런가요?}

10221 # 으으으, 하관 하관난다구래요. 하관난다고. {으으으, 하관 하관한다고 그래요. 하관한다고.}

10221 @ 그러면 그때 하관할 때는 어떤 어떤 방버부로 해요? {그러면 그때 하관할 때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요?}

10221 @ 어떤 방버부로? {어떤 방법으로?}

10221 @ 애. {예.}

10221 # 인제 생이:서 인제 뜨더가꼬. {이제 상여에서 이제 뜯어가지고.}

10221 @ 예. {예.}

10221 # 완저니 다 뜯짜너요. {완전히 다 뜯잖아요.}

10221 @ 애. {예.}

10221 # 게서 인제 그 묻짜리 인는디꺼지는, 묻짜지 인느디꺼지는 인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묘자리 있는 데까지는, 묘자리 있는 데까지는 이제.}

10221 # 그: 과나고 상두군드리, 상두군드리 양조게 인재, 들구 인재 가구, 알광 판디꺼지 들구 가고. {그 관하고 상두꾼들이, 상두꾼들이 양쪽에 이제, 들고 이제 가고, 알광 판 데가지 들고 가고.}

10221 # 상주는 그 뒤 따라오고. {상주는 그 뒤 따라오고.}

10221 # 그렇게 거기 그 인재, 상두군드리 거끄지 갠따노머는 알광 판디끄지 갠따노면, 알광이 는는 거선, 는는 거슨 인재 거: 상두군 가깐 지바니라등가 이케 이런 사람더리 인재 그런 사람드리 너요, 거그다가. {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상구꾼들이 거기까지 가져다 놓으면 알광 판 데까지 가져다 놓으면, 알광에 넣는 것은, 넣는 것은 이제 그 상두꾼 가까운 집안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넣어요, 거기 다가.}

10221 @ 그때 그때 널 때요. {그때 그때 넣을 때요.}

10221 @ 널 때, 지금 이케 산이라면, 산쪼기라면, 요로케 알광얼 판썰요. {넣을 때, 지금 이것이 산이라면, 산쪽이라면, 이렇게 알광을 쫓어요.}

10221 # 애. {예.}

10221 @ 그머는 머리가 저 저 그 묘르 무더메 뒤흔으로 가요? 압쭈으로 가요? {그러면 머리가 저 저 그 묘를 무덤의 뒷쪽으로 가요? 앞쪽으로 가요?}

10221 # 항상 인자 그 산수라능게, 아:래우가 인짜나요? {항상 이제 그 산소라는 것이, 아래 위가 있잖아요?}

10221 @ 애. {예.}

10221 # 아래 우라능게. {아래 위라는 것이.}

10221 @ 공개 우리가 나중에 무덤 쓰고 아페 상 채레노코 절허는데 인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무덤 쓰고 앞에 상 차려놓고 절하는 데 있지요?}

10221 # 어:. {응.}

10221 @ 거기가 인자 ... {거기가 이제 ...}

10221 # 하반시니여 거가. 발쪽. {하반신이지 거기가, 발쪽.}

10221 @ 거가 하반시니요? {거기가 하반신이요?}

10221 # 이, 발쭈기. {응, 발쪽.}

10221 @ 찌쭈게가 눕 ... {저 쪽에가 눕 ...}

10221 @ (# 글치요.) 노푼데가 머리가 가구요? (# 그렇지요.) 높은 데가 머리가 가고요?

10221 # 머리고요. 이. {머리고요. 응.}

10221 @ 자 그러케 알광에다 이러케 그 시체 너코 나면, 흐글 더풀 때 ... {자 그렇게 알광에다 이렇게 그 시체 넣고 나면, 흠을 덮을 때 ...}

10221 # 애. {예.}

10221 @ 거기다가 아까 마랜뎌 그 그 처늘 깔지요 잉?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 천을 깔지요 잉?}

10221 # 애. {예.}

10221 @ 명전 깔고 또 ... {명전 깔고 또 ...}

10221 # 애 애. {예 예.}

10221 # 공포. {공포.}

10221 @ 공포 깔고, 공포 깔고, 그 우에다 영전 깔 깔 까라요? {공포 깔고, 공포 깔고, 그 위에다 명전 깔 깔 깔아요?}

10221 # 공포부터 머니 깔고, 그 위에다 영전 깔 ... {공포부터 먼저 깔고, 그 위에다 명전 깔 ...}

10221 @ 영전 깔고 인자 그다메, {명전 깔고 인제 그다음에,}

10221 @ 흐글 너치요? 거그다가? {흠을 넣지요? 거기에다가?}

10221 # 애. {예.}

10221 @ 흐글 널 때 어떠케 너요? {흠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10221 # 흐걸 인재, 젤 처머니는, 젤 처머니는 인재 보드란 흑, 보드란 흐글 이 내: 거: 신체 모미 천빠니 다들 흐글 인재, 머: 산태미 쌀 산태미 거룻거 이렇걸로 이르게 천쓰요. 처서 함덕끄리께 모두께 날써요. 인재. {흠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부드러운 흠, 부드러운 흠을 이 내 그 시체 몸의 첫번째 닿을 흠을 이제, 뭐 산태미 쌀 산태미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쳤어요. 처서 한 무더기로 모아 놓았어요. 이제.}

10221 # 모두께 놔서 인재, 질 처머니는 인재, 젤 큰상주, 큰상주가 인재 그 상복 상복 거기다 인재 한 사벌 떠서 상보게다 너가꾸서 맨 웨, 맨 웨 인재 신체에다 이러케 부서

요. {모다 놓아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일 큰 상주, 큰 상주가 이제 그 상복 상복 거기에다 이제 한 삽을 떠서 상복에다 넣어가지고, 맨 위에, 맨 위에 이제 시체에다 이렇게 부어요.}

10221 # 부수면 고 담 고 다메 인재, 고 다메는 아무나 누구든지 이제 보드란 흙, 보드란 흐그로 인재, 그 신체를 아페 인자 무더, 묻꾸나서나 그 뒤로는 인재. {부으면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아무나 누구든지 이제 부드러운 흙, 부드러운 흙으로 이제, 그 시체를 앞에 이제 묻어, 묻고나서 그 뒤로는 이제.}

10221 # 흙 이냐 아무 흐기나 막 갈따 묻꼬, 이제. {흙 이제 아무 흙이나 막 가져다 묻고, 이제.}

10221 # 상두군드리 와서 인재, 흐글 좀 무더노면 상두군 한테서 발로 막 밟짜나요. {상두꾼들이 와서 이제, 흙을 조금 물어놓으면 상두꾼한테서 발로 막 밟잖아요.}

10221 # 밟버 금서 헤다지라고. {밟아 그러면서 헤다지라고.}

10221 # 헤다지라고 막 거그서 인자 머, {헤다지라고 마 거기서 이제 뭐,}

10221 @ 헤다지라구려? {헤다지라고 그레요?}

10221 # 애, 그거보고 헤다지라구려. 헤다지라 그림서 인재. {예, 그것 보고 헤다지라고 그래. 헤다지라 그러면서 이제.}

10221 @ 그 상주드른: 상주드른 오스로 오세다 인자 바다가꼬 인재 이러케 인자 그 흥내만, 승내만 내는 거지요, 그때는 잉? {그 상주들은 상주들은 옷으로 옷에다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흥내만, 흥내만 내는 것이지요, 그때는 잉?}

10221 # 아 인재 상주드리 질 첨머니, 상주드리 질 처머니 인자 보드란 흐글 갈따가 그다 인자 아페다 싸서 맨 가스미다가 인재 신체 가스미다 너줘요. {아 이제 상주들이 제일 처음에, 상주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부드러운 흙을 가져다가 거기다 이제 앞에다 싸서 맨 가슴에다가 이제 시체 가슴에다 넣어줘요.}

10221 # 그라고 인자 보드란 흐그로 인재 신체를 어지가니 좀 더퍼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흙으로 이제 시체를 어지간하게 조금 덮어요.}

10221 @ 애. {예.}

10221 # 더꾸서는 인재 나중에는 막흙 막흐그로 막 덮짜나요? {덮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막 흙 막 흙으로 막 덮잖아요?}

10221 @ 애. {예.}

10221 # 마그로 다시 인재 한 이제 이만:치 다지자나요. 이만치 다지면, 상두군드리 와서 인재 헤다지라고, 그 꼭꼭 밟버야 야물다고, {막 흙으로 다시 이제 한 이제 이만큼 다지잖아요. 이만큼 다지면, 상두꾼들이 와서 이제 헤다지라고, 그 꼭꼭 밟버야 야물다고,}

10221 @ 애. {예.}

<윤구 절차>

10222 # 야물다고 인재 와서 밟바요. 밟봄서나, 인재 머 거그서 머 지리산 영기가 여와서 똑떨러지고 머 그걸 생기데 인재 거시기가 머 저 상두군드리 막 이제. {야물다고 이제 와서 밟아요. 밟으면서나, 이제 뭐 거기서 뭐 지리산 영기가 여기 와서 똑 떨어이고 뭐 그것을 생기데, 이제 거시기가 뭐 저 상구꾼들이 막 이제.}

10222 #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예루다지하고, 하나가 생기면 예루다지고 이제 상두근드
른 그라고.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예루다지하고, 하나가 생기면 예루다지고 이제 상
두꾼들은 그렇게하고.}

10222 @ 그거슨 그거슨 마치 거시기 머야 금방 드러 보니까. {그것은 그것은 마치 거시기
뤄야, 금방 들어 보니까.}

10222 @ 집찔때에 ... {집 지을 때에 ...}

10222 # 응. {응.}

10222 @ 집찔때 그 집터 다지는 소리하고 비스딩간네요. {집 지을 때 그 집터 다지는 소
리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10222 # 아 집질 집찔때도 엔날 그러카는데. {아, 집 질 집 질 때도 옛날 그렇게 하는데.}

10222 @ 예. {예.}

10222 # 네 여기 맨쓰면 맨쓰면, 거 이제 생긴 사람 하나 일썤요. {예 여기 있으면, 있으
면, 그 이제 생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10222 # 지리산: 령기가 우루룬춤 여기와 떠러지젠구나 머 이러케 그라니가 그런 그러면
그 사람 그 상구데 예:루:다지요. {지리산 영기가 우루추춤 여기 와 떨어지겠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그 사람 그 상두꾼들이 예루다지요.}

10222 # 그러케 인재 게:속 그러캐서나 머 한, 한 이십뿐 다지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
게 해서 뭐 한 한 이십분 다져요.}

10222 # 그때 인재 뽕:뽕 도름서나. {그때 이제 뽕뽕 돌면서나.}

10222 # 그라운 인재 그기서 다지른 인재 술도 가따주고, 인재 고기도 안주도 가따주고 그
래 그놈 인재, 술 머금서 고기도 멩능개. 허허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지면 이제
술도 갖다주고, 이제 고기도 안주도 갖다주고 그래 그 놈 이제, 술 먹으면서 고기도
먹는 것이. 허허허.}

10222 # 그러케 해요. {그렇게 해요.}

10222 @ 헤다진다고 그러능구만? {헤다진다고 그러는구만요?}

10222 # 애 헤다지. {예, 헤다지.}

10222 # 그건 시방도 해요 여그도. {그것은 지금도 해요 여기도.}

10222 @ 그먼 뽕노래 하며는 ... {그러면 뽕노래 하며는 ...}

10222 # 애. {예.}

10222 @ 그 노래는 ... { 그 노래는 ...}

10222 # 애. {예.}

10222 @ 지금 어르신도 좀 뽕까지는 아세요? {지금 어르신도 조금 뽕까지는 아세요?}

10222 # 나 잘 몰라요. {나 잘 몰라요.}

10222 @ 으:. {응.}

10222 # 잘 몰라, 그거 내 잘 아는 사라미 일썤요. {잘 몰라. 그것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요.}

10222 @ 으:. {응.}

10222 # 그거 내 저 생이가통게 메기능거. {그것 인재 상여같은 것 메기는 것.}

10222 @ 애. {예.}

10222 # 메기능거또 그 잘하는 사라미 인고, 날 잘모대 여그서. {메기는 것도 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잘 못해 여기서.}

10222 @ 자 인자 그러케 해서 다지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지면,}

10222 @ 그다메 요로케 똥그라머게 요로케 헛걸 머라구레요, 그거슬? {그 다음에 이렇게 똥그라맴게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10222 # 묘 묘 묘묘. {묘 묘 묘묘.}

10222 @ 거 그거슬? {그 그것을?}

10222 # 묘. {묘.}

10222 @ 묘 묘 묘 만든다구려? {묘 묘 묘 만든다고 그래?}

10222 # 이, 묘. {응, 묘.}

10222 # 묘 만든다고, 분상. {묘 만든다고, 분상.}

10222 @ 음. {음.}

10222 # 분상이라구도 하고, {분상이라고도 하고,}

10222 @ 예. {예.}

10222 # 묘라구도. 분상어 보통 분상이라고 마이하지. {묘라고도. 분상 보통 분상이라고 많이 하지.}

10222 @ 그 분상은? {그 분상은?}

10222 @ 세우능거요, 만드능거요? {세우는 것이요, 만드는 것이요?}

10222 # 이제 (@ 분상진는 거요?) 묘를 이르케, 이제 묘를 흐기로 ... {이제 (@ 분상 짓는 것이요?) 묘를 이렇게, 이제 묘를 흙으로 ...}

10222 @ 애. {예.}

10222 # 흐그로 똥고로미 만 맨들자야? {흙으로 똥그랴게 만 만들잖아?}

10222 # 그거보고 분상이라개요. {그것 보고 분상이라고 해요.}

10222 @ 그러니까 분상은 맨든다고 그래요, 분상 진는다구레요? {그러니까 분상은 만든다고 그래요, 분상은 짓는다고 그래요?}

10222 # 분상을 진는다구라지. {분상을 짓는다고 그렇지.}

10222 @ 분상을 진는다구러지요? {분상을 짓는다고 그러지요?}

10222 # 진는다구제 맨든다고 하능기 아니라. {짓는다고 하지,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222 # 분상을 진는다고. {분상을 짓는다고.}

10222 @ 이:. {응.}

10222 @ 분상을 지면, {분상을 지으면,}

10222 # 애. {예.}

10222 @ 분상을 저 지고, 분상을 딱 전썬요. 똥고라머게 딱 해서. {분상을 저 지고, 분상을 딱 지었어요. 똥그랴게 딱 해서.}

10222 @ 그때 인자 보면 지과니 아페 요로케 나무를 딱 꼬바노치요 잉? {그때 이제 보면 지관이 앞에 이렇게 나무를 딱 꼽아 놓지요 잉?}

10222 # 인재 고곤 인재 분상 진키저네, {이제 그것은 이제 분상 짓기 전에,}

10222 @ 지키저네 미리. {짓기 전에 미리.}

10222 # 지키저니 이케 나무를 꼬바논치. {짓기 전에 이렇게 나무를 꼽아놓지.}

10222 @ 애. {예.}

10222 # 이제 그걸 ... {이제 그것을 ...}

10222 @ 압뒤를 자블라고? {앞뒤를 잡으려고?}

10222 # 압뽀하고 이자 가운데하고 고거. {앞뽀하고 이제 가운데하고 그것.}

10222 # 인제 고 잡나라고 그러케 하능기여 인제. {이제 고 잡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여 이제.}

10222 @ 인자 그 거그다 인제 요로케 요러케 분상을 진는 거자나요? {이제 그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분상을 짓는 것이잖아요?}

10222 # 애애애. {예예예.}

10222 @ 고 아네다가? {그 안에다가?}

10222 @ 인자 뽀드시 분상을 지면, 요 아페 요로케 만드는 거슨 머라구려? {이제 뽀드시 분상을 지으면, 이 앞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래?}

10222 # 뜰팡. {뜰팡.}

10222 @ 뜰팡도 만들지요? {뜰팡도 만들지요잉?}

10222 # 예 뜰팡. 예. {예, 뜰팡. 예.}

10222 @ 그건 뜰팡이라고 해요? {그것은 뜰팡이라고 해요?}

10222 # 예 뜰팡. {예, 뜰팡.}

10222 @ 뜰팡까지 만드능거지요? {뜰팡까지 만드는 것이지요?}

10222 # 애애 그럼 뜰팡꼬지 맨들어야지. {예예, 그럼 뜰팡까지 만들어야지.}

10222 @ 음:. {음.}

10222 @ 그다메요, 그다메 인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222 @ 음: 그: {음, 그.}

10222 @ 아까 인자 삼년상을 치루고 ... {아까 이제 삼년상을 치루고 ...}

10222 # 애:. {예.}

10222 @ 그러케 인잔, 다 운구해서 갈따 묻고 완썸요. {그렇게 이제, 다 운구해서 갖다 묻고 왔어요.}

10222 # 애. {예.}

10222 @ 글머는, 그 한 사밀 뒤에 지내는 거슬, 제사 함번 지내지요? {그러면, 한 삼일 위에 지내는 것을, 제사 한번 지내지요?}

10222 # 애. {예.}

10222 @ 그걸 무슨 제사라구려? {그것을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10222 # 사:모제. {삼오제.}

10222 # 사:모제. {삼오제.}

10222 @ 사모제는 그때는 지베서 지내요? 거기 가서 지내요? {삼오제는 그때는 집에서 지내요? 거기 가서 지내요?}

10222 # 아이 구리 가지요. {아니 그리 가지요.}

10222 @ 가지요 잉? {가지요 잉?}

10222 # 음식, 간따나니 음식 장마내가지고 ... {음식, 간단하게 음식 장만해가지고 ...}

10222 @ 애. {예.}

10222 # 사모젠 지내로 가요. {삼오제 지내러 가요.}

10222 # 재 오늘 출쌍헐쓰면 내일 떠워서 모리 사밀마니. {이제 오늘 출상 했으면 내일 떠워서 모레 삼일만에.}

10222 # 사밀마~이 간다고 사모쟁개기벼, 그기 암매. {삼일만에 간다고 사모제인가봐, 그 것이 아마.}

10222 @ 아, 오늘도 포함해가꼬? {아, 오늘도 포함해가지고?}

10222 @ 오늘, 내일, 모레 가능거 아니여? {오늘, 내일, 모레 가는 것 아니요?}

10222 # 애, 그러쥬. 그저 하루 띄워가꼬, 사밀마니. {예, 그렇지요, 그 저 하루 띄워가지고, 삼일만에.}

10222 # 사밀마네 간다고 해서 사모 사무중이라고 한상발란데 그기. {삼일만에 간다고 해서 삼오 삼오중이라고 하는 것 같네 그것이.}

10222 @ 그렇가봐요. {그러나 봐요.}

10222 # 애. {예.}

10222 @ 그러면요? {그러면요?}

10222 @ 거기를 갈때, 자 인자 그 행 행 행너리 지금 가요, 잉? {거기를 갈 때, 인제 그 행열이 지금 가요, 잉?}

10222 @ 그 쪽: 가면, 중간네 가다가, 동네 가다가도 머 술치들께 생이가 양가고 멈춰가꼬 또 술도머꼬 가고, 또 가다 그리고 그러쥬? {고 쪽 가면, 중간에 가다가, 동네 가다가고 뭐 **** 상여가 안 가고, 멈춰가지고, 또 술도 먹고 가고, 또 가다 그리고 그렇지요?}

10222 # 애. {애.}

10222 @ 제사를 뵈뵈 지내지요이? {제사를 몇 번 지내지요?}

10222 # 예 제사는. {예, 제사는.}

10222 @ 예. {예.}

10222 # 인재:. {이제.}

10222 # 여그서 인재 예를 드러서 우리 집 인는다 여그서 상을 당했쓰면 여기서 인재, 행상이 여그다 차례노코 인자 나가쟈나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있는 데 여기서 상을 당했으면 여기서 이제, 행상이 여기에다 차려놓고 이네 나가잖아요?}

10222 @ 애. {예.}

10222 # 나가점 마을 쪼트머리. {나가자면 마을 쪼트머리.}

10222 @ 예. {예.}

10222 # 마을 쪼트러미 가서 거렁찌라고 거저지라고 거렁찌라고 지내요. {마을 쪼트머리에 가서 거리제라고 거리제라고 거리제라고 지내요.}

10222 @ 이: 거렁찌요? {아 거리제요?}

10222 # 이 여그서 부른 거렁찌라고 그래, 거렁찌 지낸다고. {이 여기서 부른 것은 거리제라고 그래, 거리제 지낸다고.}

10222 # 거그거 제사를 함번 지내요. {거기서 제사를 한번 지내요.}

10222 @ 그먼 제대로 된 예막을 채레노코 지내능거여? {그러면 제대로 된 예막을 차려놓고 지내는 것이예요?}

10222 # 어 거그도 인재 거그도 수라고 머 인재 다 머. {어 거기도 이제 거기도 술하고 뭐 이제 다 뭐.}

10222 @ 절도 허고? {절도 하고?}

10222 # 아 그러람 저럴 다:하지요, 절 다하, 절 다 하고, 음식또 간따나니 좀 다 다: 차례노코. {아 그럼, 절도 다하지요. 절 다해, 절 다하고, 음식도 간단하게 좀 다 차려놓고.}

10222 # 떡꺼튼거또 다하고, 머 실거통거또 가따노코, 피기가통거또 다 차례노코 그라고

이냐, 마을 그 꼬트머리서 지내 인재. {떡같은 것도 다 하고, 뭐 실과같은 것도 갖다
 놓고, 고기같은 것도 다 차려 놓고 그리고 이제, 마을 그 꼬트머리에서 지내 이제.}
 10222 # 지내고, 사느로 인재 사느로 가지요. {지내고, 산으로 이제 산으로 가지요.}
 10222 @ 사네 가서는 안지내요? {산에 가서는 안 지내요?}
 10222 # 사네가서 또 분상 다: 안체노코 다 일 다: 해노코 다해노코 그 뜰팡에다가. {산에
 가서 또 분상 다 앉혀놓고 다 일 다 해놓고 다 해놓고 그 뜰팡에다가.}
 10222 @ 예. {예.}
 10222 # 뜰팡에다 인 또 제사 지내지. {뜰팡에다 또 제사 지내니.}
 10222 @ 어:. {어:}.
 10222 # 제사 지내고 와요. {제사 지내고 와요.}
 10222 @ 그때 뜰팡에다 지낼때도 상주드리 지내능거여? {그때 뜰팡에다 지낼 때도 상주들
 이 지내는 것이요?}
 10222 # 그러치 그건 상주드리 지내지. {그렇지 그건 상주들이 지내지.}
 10222 # 거랴찌도 상주드리 지내고. {거럿제도 상주들이 지내고.}
 10222 # 거그도 그건또 상주 다 상주드리 지내. {거기도 그것도 상주 다 상주들이 지내.}
 10222 @ 그리고 나서 사모제때 가고? {그리고 나서 삼오제때 가고?}
 10222 # 애, 그라고 인재, 사모제때가고. {예, 그리고 이제 삼오제때 가고.}
 10222 @ 그리고 나서 그 인잔 천해 도라오면 ...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첫해 돌아오면 ...}
 10222 @ 아: 사십꾸일마네 지내는 거슨? {아, 사십구일만에 지내는 것은?}
 10222 # 사십구이리나능거선, {사십구일이라는 것은,}
 10222 @ 예. {예.}
 10222 # 이 땅게 아요, 계게. {이 판 것이 이니요, 그것이.}
 10222 # 엔나른: 제사를 이게 그 보걸. {옛날은 제사를 이렇게 그 복을.}
 10222 @ 예. {예}
 10222 # 내내 건쓰고 예 보기라는 거시 인재, 예 삼년상이라는 건 삼 삼년상 지내기 저니
 는 항상 거늘 부무 보기라구려 부무 보걸 입는다 구라거든. {내내 권 쓰고 예 복이라
 는 것이 이제, 예 삼년상이라는 것은 삼 삼년상 지내기 전에는 항상 부모 복이라고
 그래, 부모 복을 입는다 그러거든.}
 10222 # 그기 왜그냐면, 부무가 어릴찌게 거 아드를 한 삼년가는 참: 그 똥이고 먹고 인자
 그 참 다: 바다내고 키우니라고, 부무가 인자 그 마니 거치를 헨짜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모가 어릴때에 그 아들을 한 삼년간은 참 그 똥이고 뭐고 이제 그 참 다
 받아내고 키우느라고, 부모가 이제 그 많이 거치를 헨잖아요.}
 10222 # 그래서 부무가 도라간찌마는 그 으네를 주거써도 그 으네를 자시기 갹는다는 으
 미해서나, 보걸 삼년간 이버준다능기요. 이버. {그래서 부모가 돌아갔지마는 그 은혜
 를 죽였어도 그 은혜를 자식이 갹는다는 의미에서나, 복을 삼년간 입어준다는 것이
 요. 입어.}
 10222 # 삼년 지내며는 고 다 건거통건또 안쓰도 돼고 저 인자 그 빈사에다 거시기도 안
 지내고 양거시가고 인재 다: 저 짝 빠사빠리지. {삼년 지내면 그 다 권같은 것도 안
 써도 되고, 저 이제 그 빈사에다 거시기도 안 지내고 안 거시기하고, 이제 다 저 짝
 벗어버리지.}
 10222 # 그라고 인재 일러니 지시 함번썩만 지내요. {그리고 이제 일년에 제사 한번썩만

지내요.}

10222 # 그러쨌는디, 사십구일제라는 거선 ... {그렇게 했는데, 사십구일제라는 것은 ...}

10222 @ 예. {예.}

10222 # 삼년간 지사를 지내는 거설 ... {삼년간 제사를 지내는 것을 ...}

10222 @ 예. {예.}

10222 # 그런거설 미리 ... {그런 것을 미리 ...}

10222 @ 응. {응.}

10222 # 그때 삼년가를 안지내고, 사십구일마네 보걸 다 번는다 그거여. 보글. {그때 삼년간을 안 지내고, 사십구일만에 복을 다 벗는다 그것이야. 복을.}

10222 # 애, 보글. {예, 복을.}

10222 # 엔나르는 삼년마~이 보걸 번는데, 사십구일마네 인재 보글 일찌감치 ... {옛날에는 삼년만에 복을 벗는데, 사십구일만에 이제 복을 일찌감치 ...}

10222 # 그 인자 자꾸 인자 그 새른 시대가 바까 징께나. {그 인제 자꾸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 지니까.}

10222 @ 아:. {아.}

10222 # 그래 삼 사십구일제요, 그기. {그래 삼 사십구일제요. 그것이.}

10222 @ 아: {아.}

10222 # 지방은 또 인재. {지금은 또 이제.}

10222 @ 애. {예.}

10222 # 엔나른 사십구일제 지낸는데, 지방은 사십구일제도 안지내고, 사밀 사무제 사무제 나가면 훌딱 다 버선편려 지방은 또 인재. {옛날은 사십구일제 지냈는데, 지금은 사십구일제도 안 지내고, 삼일 삼오제 삼오제 나가면 훌딱 다 벗어버려 지금은 또 이제.}

10222 # 자꾸 인재 그리케 시대가 발달되고 이케 ... {자꾸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발달되고 이렇게...}

10222 @ 아:. {아.}

10222 # 삼너네 버슨거슬. {삼년에 벗은 것을.}

10222 # 미리. {미리.}

10222 @ 사십구제마네 ... {사십구제만에 ...}

10222 # 애 애 애 애. {예 예 예 예.}

10222 @ 그먼 사십구제를 지낼때는 ... {그러면 사십구제를 지낼 때는 ...}

10222 @ 사십구제라구레요? 사십구일제라구레? {사십구제라고 그래요? 사십구일제라고 그래요?}

10222 # 사십구일잉께. {사십구일이니까.}

10222 @ 예. {예.}

10222 # 사십구일마네 지냉께, 사십구제라고하제, 사십구제. {사십구일만에 지내니까, 사십구제라고 하지, 사십구제.}

10222 # 사십구제마네 보걸 번는다 그마리여. {사십구제만에 복을 벗는다 그 말이여.}

10222 @ 그먼 여기서 지내요 그 ... {그러면 여기서 지내요 그 ...}

10222 # 사니로 가 사니로 ... {산으로 가 산으로 ...}

10222 @ 사니로 가서 아:. {산으로 가서 아.}

10222 # 사니로 가서 인자 거 가서 간파니 거기도 인자 머 제사 제사 음식꺼등건 해가지구 그래구 술 부셔노코, 가 절하고, 머 거시가고 그라구서 인제. {산으로 가서 이제 그 가서 간단하게 거기도 이제 뭐 제사 제사 음식같은 것 해가지고 그리고 술 부어놓고, 가 절하고 뭐 거시기하고 그리고 이제.}

10222 # 참 인자 거 건거텅거 머 그 그랑께 이 이령 먼, 상지 복인짜나요? 상지복 그렇거 아까도 내가 애깼찌마는. {참 이제 그 권같은 것 뭐 그 그러니까 이 이런 뭇, 상주복 있잖아요? 상주복 그런것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마는.}

10222 #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페 돌아가고 아버지가 인쓰머는 그럼 거그다 부리다 휘 휘 인자 둘러가꼬 지비로 되로 가지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돌아가고 아버지가 있으며는 그럼 거기다 불에다 휘휘 이제 둘러가지고 집으로 도로 자져오고.}

10222 # 업쓰면 거그다 다 쳐대고. 그렇개. {없으면 거기다 다 쳐대고. 그러니까.}

10222 # 삼년상이 지낼꺼설 미리 사십구일마네 보걸 번능기여. {삼년상에 지낼 것을 미리 사십구일만에 복을 베틀는 것이야.}

10222 @ 사십구일마네 허고 또 삼녀네 하능게 아니고? {사십구일만에 하고 또 삼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222 #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아니여.}

10222 # 사십구일마니 지내면 삼년상은 안지내. {사십구일만에 지내면 삼년상은 안 지내.}

10222 @ 그때요 참, 이거슨 거니라고 그러지요 이? {그대요 참, 이것은 권이라고 그러지요 잉?}

10222 # 예. {예.}

10222 @ 그면 이건 상보기고 잉? {그러면 이것은 상복이고 잉?}

10222 # 예. {예.}

10222 @ 여기다가 그 저 저 그 머야? {여기다가 그 저 저 그 뭐야?}

10222 @ 동아줄처럼 ... {동아줄처럼 ...}

10222 # 예. {예.}

10222 @ 이러케 끈 매쥬? 그건 머라고 불려요? {이렇게 끈 매지요? 그것은 뭐라고 불려요?}

10222 # 그기도 다 이르미 일지. {그것도 다 이름이 있지.}

10222 @ 대나무로 또 요로케. {대나무로 또 이렇게.}

10222 @ 대나무로 요로케 글, 머야 지꾸가능거 만들지요? {대나무로 이렇게 그, 뭐야 집 고가는 것 만들지요?}

10222 # 그 대나무는 지팡이고. {그 대나무는 지팡이고.}

10222 @ 지팡이라고 그냥 그래요? {지팡이라고 그냥 그래요?}

10222 # 이. {응.}

10222 # 대나무. {대나무.}

10222 @ 요 요 허리끈처럼 맨 떠는 그 그 거근 이름 업썩요? {이 이 허리끈처럼 맨 떠는 그 그것은 이름이 없어요?}

10222 # 일썩요. {있어요.}

10222 # 그 그 일썩요 다. {그 그 있어요 다.}

10222 # ***** 다 일썩. {***** 다 있어.}

10222 # 그러고 왜 건도요? {그리고 왜 권도요?}

10222 @ 예. {예.}

10222 # 건도 엔나레는 이 보통 컨상주: 보통 보통 상주는 이르게 이르게 건만 쓰지마는, 컨상주라고 질 크나들 인재. {권도 옛날에는 이 보통 큰상주 보통 보통 상주는 이렇게 권만 쓰지만은, 큰상주라고 제일 큰아들 이제.}

10222 @ 애. {예.}

10222 # 큰상주라고능 그 큰상주랑건 거네다가 이개 또 건 위에다가 이케 삼임때로 뽀분 쪼분하게 대고 여기다 요리 이르게. {큰상주라고 하는 그 큰상주라는 것은 권에다가 이렇게 또 권 위에다가 이렇게 삼임대로 쪼뽀쪼뽀하게 대고 여기다 이리 이렇게.}

10222 @ 예. {예.}

10222 # 서너군데 이르게 타고, 또 인자 걸거치 주절주절 이케 매라양꼬 그거보고 굴근보 기라해 굴근복. {서너군데 이렇게 타고, 또 이제 걸같이 주절주절 이렇게 매달고 그 것 보고 굴근복이라고 그래 굴근복.}

10222 @ 아:. {아.}

10222 # 굴근보기라고 큰상주는 또 인재 그 삼베로 해가꾸서나 그 주절 주절하니 매달구서 쪼끼가치 임능게 인씨요. {굴근복이라고 큰상주는 또 이제 그 삼베로 해가지고서 그 주절 주절하니 매달고서 조끼같이 입는 것이 있어요.}

10222 # 굴근보기라고 이르게 주절주저리해고. {굴근복이라고 이렇게 주절주절이 하고.}

10222 # 그녀를 이분 그기 굴근복이요. 그래 기기 큰상주가 큰상주만 구굴복 하능기요. {그 놈을 입은 것이 굴근복이요. 그래 그것 큰상주가 큰상주만 굴근복 하는 것이요.}

10222 @ 큰상주가 굴근보글 입꼬? {큰상주만 굴근복을 입고?}

10222 # 애. {예.}

10222 @ 그며는 그 여기다가 옆 여기 귀네다 쓰는 거슨 뭐라구레? {그러면 그 여기에다가 옆 여기 권에다 쓰는 것은 뭐라고 그래?}

10222 # 그거또 내 인재. {그것도 내나 이제.}

10222 # 굴근복: 그 한 상수가 써야지 그건또. {굴근복 그 한 상수가 써야지 그것도.}

10222 @ 건 건 (@ 그거또 굴거니라고 그렇가요?) 굴거니라고 글티지, 굴건. {권 권 (@ 그것도 굴건이라고 그런가요?) 굴건이라고 그럴테지— 굴건.}

10222 # 애. 큰상주만 그러케 해요 큰상주만. {예, 큰상주만 그렇게 해요. 큰상주만.}

10222 # 시방 그렇거 업씨요. 인재 그렇거 업꼬. {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이제 그런 것 없고.}

10222 # 엔날 이르게씨요. 엔나레는 굴근보기라고 컨상주는 다 그르케 했씨요. {옛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굴근복이라고 큰상주는 다 그렇게 했어요.}

10222 # 여기다 허리다 두르능거또 글 생가기 안나요. 다 그 이름 인씨요. {여기다 허리에 다 두르는 것도 그 생각이 안나요. 다 그 이름이 있어요.}

10222 # 내가 지금 내가 생각, 머 알다가도 이르게 그파게 생각갈라면 영: 생개기 잘 안나요. {내가 지금 내가 생각, 뭐 알다가도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려면 영 생각이 잘 안나요.}

10222 @ 아프로 뽀뽀 만나니까 나주에 가르쳐주세야 해요. 허허허. {앞으로 몇 번 만나니까 나중에 가르쳐주셔야 해요. 허허허.}

10222 # 아 영 여어그가 다 인자 아라서 혀. {아 영 영 어기가 다 이제 알아서 혀.}

1.2.8. 제사

<제사의 종류>

10223 @ 그뎨 제사 지넨때는 요? {그러뎨 제사 지넨 때는 요?}

10223 @ 제사를 지넨 때, {제사를 지넨 때.}

10223 @ 그: 아까 아까 처음 인자 그뎨, 일련마다 매번 지내는. {그 아까 아까 처음 이제
그러뎨, 일련마다 매번 지내는.}

10223 @ 그 도라가신나를 지내는 제사를 무슨 제라구려? {그 돌아가신 날을 지내는 제사
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10223 # 그 제사라구제 머, 부몬님 제사라고. {그 제사라고 그러지 뉘, 무모님 제사라고.}

10223 @ 예를든다면 어디 추석때, 설날, 그럴때 지내능건 머여? {예를 든다면 어디 추석
때, 설날, 그럴 때 지내는 것은 뉘여?}

10223 @ 추석때는 먼 지낸다구려? {추석때는 뉘 지낸다고 그래요?}

10223 # 내 추석때도 제사라고 해요. {내나 추석때도 제사라고 해요.}

10223 @ 제사요? {제사요?}

10223 # 멩질때도. {멩절때도.}

10223 @ 그럼요. {그러뎨요.}

10223 @ 차례지넨다는 마른 머 어뎨때 써요? {차례지넨다는 말은 뉘 어뎨 때 써요?}

10223 # 내나 이기 멩질때가 차리 지내는 차리진 차리지내능긴데. {내나 여기 멩절때가 차
례 지내는 차례지 차례지내는 것인데.}

10223 # 차리라구도 하고, 제사질이라고도 그래요. {차례라고도 하고, 제사질이라고도 그래
요.}

10223 @ 어떤 마를 마니써요? {어뎨 말을 많이 써요?}

10223 # 여그서요? {여기서요?}

10223 # 여그서는 인제 멩질때는 차리, 지낸다고 그 소리를 마니 쓸끼요. {여기서는 이제
멩절때는 차례, 지낸다고 그 소리를 많이 쓸거예요.}

10223 # 그라구 또 제사 지내구.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

10223 @ 자 그머는 지베서 지내는 제사요 잉? {자 그러뎨 집에서 지내는 제사요 잉?}

10223 # 애편. {예.}

10223 @ 자 아버지, 하라버지, 징조하라버지, 고조하라버지까지 지베서 지넨쑤 인능가요?
{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집에서 지넨 수 있는가요?}

10223 # 그리치요. {그렇지요.}

10223 @ 고조하라버지까지 지내쑤? 오대조 가트머는? {고조할아버지까지 지내지요? 오대
조 같으면?}

10223 # 이제 세사로 인제, 배까티 나가, 이제 방이서 하는 방에서 제사를 안 안지내고.
{이제 묘사로 이제, 바깥에 나가, 이제 방에서 하는 방에서 제사를 안지내고.}

10223 @ 예. {예.}

10223 # 이 저 음식글 이제, 차례가꼬 메 아프로 와요, 메 아프로. 메 아페 와 지내요. {이
저 음식을 이제, 차례가지고 묘 앞으로 와요. 묘 앞으로, 묘 앞에 와 지내요.}

10223 @ 그러치요 잉? {그렇지요 잉?}

10223 @ 그러 그런 세사는 세사는 무슨 세사라구레? {그런 세사는 세사는 무슨 세사라고 그래요?}

10223 # 세사. {묘사.}

10223 @ 세사, 그럼 세사 지낸다고? {묘사, 그러면 묘사 지낸다고?}

10223 @ 예. {예.}

10223 @ 지비시 지내는 거선? {집에서 지내는 것은?}

10223 # 세사. {제사.}

10223 @ 제사지낸다구려고요 잉?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요 잉?}

10223 @ 그며는 지베서 지내는 거슨 기제 기제사란 마른 혹씨 안씨요? {그러면 집에서 지내는 것은 기제 기제사라는 말은 혹씨 안씨요?}

10223 # 기제 기제사? {기제 기제사?}

10223 @ 기제사. {기제사.}

10223 # 기제사? {기제사?}

10223 @ 예. {예.}

10223 @ 기제사는 안쓰시고요? {기제사는 안 쓰시고요?}

10223 # 여그서는 잘 안쓰는디요. {여기서는 잘 안 쓰는데요.}

10223 @ 어떤 데는 그 마를 쓰거든요. {어떤 데는 그 말을 쓰거든요.}

10223 # 예. {예.}

10223 @ 그면 그쪼게는 세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그 쪽에는 묘사를 지내는데.}

10223 # 예. {예.}

10223 @ 세사 지낸단 마를: 또 다른 말로 허며는 무슨 말도 써요? {묘사 지낸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도 써요?}

10223 # 세사 지낸단 마를? {묘사 지낸다는 말을?}

10223 @ 예. {예.}

10223 # 여그서는 벨 다른 말 쓴 ... {여기서는 벨 다른 말 쓴 ...}

10223 @ 시제 지낸다는 거슨. {시제 지낸다는 것은.}

10223 # 예예예. {예예예.}

10223 @ 시제 지내는 거슨 뭐요? {시제 재내는 것은 뭐요.?}

10223 # 내내 시제나 세사, 시제라구도 하고 세사라고도 하구 그래요. {내내 시제나 묘사, 시제라고도 하고 묘사라고도 하고 그래요.}

10223 @ 어. {어.}

10223 @ 여기는 세라라고 주로 쓰고? {여기는 묘사라고 주로 쓰고?}

10223 # 예. {예.}

10223 # 아이 여그서도 세췌, 시제:라 쏘리도 해요. 시제 지내로 간단 쏘리도 하고, 세사 지낸다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도 세췌, 시제라는 소리도 해요. 시제 지내로 간단하는 소리도 하고, 묘사 지낸다고 그래요.}

10223 @ 그면:. {그러면.}

10223 @ 세사는 지내는 거요? 세사는 모시는 거요? {묘사는 지내는 거요? 묘사는 모시는 거요?}

10223 @ 세사 모시로 간다 그래요? {묘사 모시로 간다고 그래요?}

10223 # 세사를 모시는 몸 인재 모시능계지요. {묘사를 모시는 못 이제 모시는 것이지요.}

10223 @ 자 한식때, {자 한식때,}

10223 # 애. {예.}

10223 @ 엔나레는 한식때 사네 가지요이? {옛날에는 한식때 산에 가지요 이?}

10223 @ 그때는 머하로 간다고 그래요? {그때는 뭐하로 간다고 그래요?}

10223 @ 지금 추서게 추서게, 추성날 사네 갈때는, 뭐하러 간다 그래요? {지금 추석에 추석에 추석날 산에 갈 때는, 뭐하러 간다고 그래요?}

10223 # 성묘 간다구제. {성묘 간다고 하지.}

10223 @ 그러면 성묘하고:, {그러면 성묘하고,}

10223 # 으: {응.}

10223 @ 아까 그러케 세사 모실 때 강거 하고는 달라요? {아까 그렇게 묘사 모실 때 가는 것 하고는 달라요?}

10223 # 성묘:, {성묘,}

10223 # 인재 다르지이:. {이제, 다르지.}

10223 # 왜냐면 이제, 세사라는 거슨 오대조 너머가머는. {왜냐면 이것이 묘사라는 것은 오대조 넘어가머는.}

10223 @ 예. {예.}

10223 # 방에서는 거 지낼쑤가 인재 산소 아페가서 인재 인재 머 거그는 뎌때조꺼지 인재 다 제 지내고, {방에서는 그 지낼 수가 이제 산소 앞에 가서 이제 뭐 거기는 몇 대 조까지 이제 다 지내고}

10223 # 성묘라는 성묘라는 거선 명절때. {성묘라는 성묘라는 것은 명절때.}

10223 @ 응. {응.}

10223 # 부무님한티:. {부모님한테.}

10223 @ 응. {응.}

10223 # 인사하로 가는 기지 (@ 인사하로 가는) 인사. {인사하러 가는 것이지 (@ 인사하러 가는) 인사.}

10223 # 명지리 명지리 도라완썩개. {명절이 명절이 돌아왔으니까.}

10223 @ 애. {예.}

10223 # 가서 인재 술도 부서노코, 어머니 아버지 인재, 그동아니 안녕하신: 냐고. 이르케 절도 하고 인재 인사하로 가는 태기지. 명절때는. {가서 이제 술도 부어 놓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동안 안녕하셨냐고. 이렇게 절도 하고 이제 인사하러 가는 턱이지. 명절때는.}

10223 @ 그런 그 ... {그러면 그 ...}

10223 # 제사가 아니고, 그건 제사가 아이지. {제사가 아니고, 그것은 제사가 아니지.}

10223 @ 그런 그때도 음식글 가져가쥬? {그러면 그때도 음식을 가져가지요?}

10223 # 가져가지요. {가져가지요.}

10223 # 공개 어른들 보로 가면 제사는 아니래도, 어른들 아피 머 음식절도 가서 인재 수리라도 한 잔 부서노코 그라구 절하자나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러 가면 제사는 아니래도, 어른들 앞에 뭐 음식꺼리도 가서 이제 술이라도 한 잔 부어놓고 그리고 절하잖아요.}

10223 # 제사는 아니지 이기 성묘지. {제사는 아니지 이것이 성묘지.}

<기제사>

10224 @ 그러면 인자, 지베서 제사 지낼때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제사 지낼 때요.}

10224 # 애. {예.}

10224 @ 지베서 지내는 제사 방버비 지베 말따라 달르기도 하고: 또 문중에 따라 달르기도 하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 방법이 집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문중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10224 # 예 그거 좀 달라. {예 그것은 조금 달라.}

10224 @ 달리 하지요 이? {달리 하지요 이?}

10224 # 예 달라요, 달라요. {예, 달라요, 달라요.}

10224 @ 어르신네는 그 지금 그: 제사지낼때 어디서 지내세요? {어르신네는 그 지금 제사 지낼 때 어디서 지내세요?}

10224 @ 도라가신 선친 제사 모실때 어디, {돌아가신 선친 제사 모실 때 어디,}

10224 # *** 방에서 지내지요 며. {*** 방에서 지내지요. 뭐.}

10224 @ 아니 그. {아니 그.}

10224 # 거실 인쓰면 거실서 지내고, {거실 있으면 거실에서 지내고.}

10224 @ 여기 여기 어르시니 모시세요? 아니면 그 형님때게서 모셔? {여기 여기 어르신이 모시세요? 아니면 그 형님택에서 모셔?}

10224 # 형님때게서 모셔. {형님택에서 모셔.}

10224 @ 형니든 도라가설꼬 큰조카가? {형님은 돌아가셨고 큰 조카가?}

10224 # 애애. {예예.}

10224 @ 모시능가요? 모시는가요?}

10224 # 애. {예.}

10224 @ 그러면 인자 가시면, {그러면 이제 가시면,}

10224 # 애. {예.}

10224 @ 거기, {거기,}

10224 @ 그 제사 제사지낼때는 가시지요 잉? {그 제사 제사지낼 때는 가시지요 잉?}

10224 # 가죠. 껍 가죠. {가지요, 꼭 가지요.}

10224 @ 가시면, 그 대개 어떤 절차로 제사를 지내세요? {가시면, 그 대개 어떤 절차로 제사를 지내세요?}

10224 # 하하하 그걸 지사, 저내는 방버비요. {하하하 그것 제사, 지내는 방법이요.}

10224 # 다 안 또까티요. {다 안 똑같아요.}

10224 @ 그렇게 어르신네는 대개 대:략. {그러니까 어르신네는 대개 대략.}

10224 # 애: 대략? {예, 대략?}

10224 @ 엔나레는 요즘 며 요즈메 막 약시그로 인자, 가면 갈수록 약씩 약씩그로 지내능 거또 인쩌만, {옛날에는 요즘 뭐 요즘에 막 약식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약식 약식으로 지내는 것도 있지만,}

10224 # 예, 아 인재 우린 며 제사는 저 엔날 으른들 자 배와서 하신대로 그르케 해요. {예, 아 이제 우리는 뭐 제사는 저 옛날 어른들 저 배워서 하신대로 그렇게 해요.}

10224 # 이제 우리는 가면 인재 철빠니 인재 자손더리요. 인제. {이제 우리는 가면 이제 첫번째 이제 자손들이요.}

10224 # 음식글 첨:부 차레날짜네요? {음식을 전부 차려놓았잖아요?}

10224 # 음식글 아페다가. {음식을 앞에다가.}

10224 @ 예. {예.}

10224 # 아피 아니다 음식글 축: 차리 날짜냐? {앞에 안에다 음식을 죽 차려놓았잖아?}

10224 # 그럼 인자 술 일판 부서노키 저네. {그러면 이제 술 일단 부어놓기 전에.}

10224 @ 예. {예.}

10224 # 첨부 인재 자손드리 이제 첨부 저를 한번 해요. {전부 이제 자손들이 이제 전부 절을 한 번 해요.}

10224 # 절하고, 고라구서는 인재, 자손덜하고 그 잔 디리린 사람. {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손들하고 그 잔 드린 사람.}

10224 # 강시나라고 허그딩, 강신. {강신이라고 하거든, 강신.}

10224 # 혼채 집사가 그짜게서 인재 저 술 쏘다준 사라미 인짜나요? {혼자 집사가 그쪽에 서 이제 저 술 쏟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10224 @ 예. {예.}

10224 # 고라면 인재 술짜늘 쪼끔 수레다 반만 쏘다가꼬 반만 소파가꼬, 이제 잔 잔가시 자느 인재 이러케 드릉께 잔 가시능기요. 인재. {그러면 이제 술잔을 조금 술에다 반만 쏟아 가지고, 이제 잔 잔 가시 잔에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잔 가시는 것이예요. 이제.}

10224 # 자는 비우기까지 인재 물 비우는 거 가시능개 이케 술짜느 이케 싹 비워가꾸서 인재 그 아페 모래를 모래 인재 가따노코 떠 이르게 꼬바놓게 인끄덩 거다가 이르게 비워요. {잔은 비우기까지 이제 물 비우는 것, 가시는 것이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싹 비워가지고서, 이제 그 앞에 모래를, 모래 이제 가져다가 놓고, 떠 이렇게 폼아놓은 것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워요.}

10224 @ 예. {예.}

10224 # 비워노코. {비워놓고.}

10224 # 그 강시나라고 허능기 혼차만 인재 잔 디린 사람 혼차 먼저 지내요. {그 강신이라고 하는 것 혼자만 이제 잔 드린 사람 혼자 먼저 지내요.}

10224 # 혼차만 지내고, 또 고다메 술잔 하나 들자나요. {혼자만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술잔 하나 들잖아요.}

10224 # 술짜는 디리머는 인재 그때는 술잔 디리고, 이제 수제 고저니는 이제 수제를 여 밥, 밥 그 밥차레 노코 뚜껑 다 덮짜나요, 게. 밥뚜껑. {술잔을 드리며는 이제 그때는 술잔 드리고, 이제 수저 그 전에는 이제 수저를 여 방, 바 그 밥 차려 놓고, 뚜껑 다 덮잖아요, 그 밥뚜껑.}

10224 # 복소리 잡짜녀요? {주발 뚜껑으로 덮잖아요?}

10224 # 근디 밥 두도 아나고 수제도 양코 그 인재 그 술잔 한잔 디리고서는 이 보끼똥 인재 첨부 열:고, 수제 거기다 꼬꼬 저까락 인자 그 머글만한 음식기다가 저까락 다 인재 올리놔요. 올리노코. {그런데 밥 두지도 않고 수저도 않고, 그 이제 그 술잔 한잔 드리고서는 이 주발 뚜껑 이제 전부 열고, 수저 거기에다 폼고 젓가락 이제 그 먹 올만한 음식에다가 젓가락 다 이제 올려놓아요. 올려놓고.}

10224 # 그때는 인재 자손더리 첨:부 다 절하, 이제 고축 방찌사는 방 저 방찌사나 찌: 우리 세사나 다 마창가지여. {그때는 이제 자손들이 전부 다 절하, 이제 고축 방제사는

방 저 방제사나 저 우리 묘사는 다 마찬가지로여.}

10224 # 옛날 고축하자나요. 원 머 여기. {옛날 고축하잖아요. 원 뭐 여기.}

10224 @ 예. {예.}

10224 # 고축하고, 그라고 인자 저라고, 절하고 그라구서는 인재, 또 잔 디리자나요. {고축하고, 그리고 이제 절하고, 절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잔 드리잖아요.}

10224 # 잔 디릴때 고때는 인재 또 집 잔 디린 사람 고 사람만 또 저래요. {잔 드릴 때 그 때는 이제 또 잔 드린 사람 그 사람만 또 절해요.}

10224 # 그 사람만 저라고 또 인재 비우자나요? 그럼 두자니자아요? {그 사람만 절하고 또 이제 비우잖아요? 그러면 두잔이잖아요?}

10224 @ 애. {예.}

10224 # 또 인재 또 인재 석잔채 석잔채도 잔 디린 사람 혼차만 저래요. {또 이제 또 이제 석 잔채 석잔채도 잔 드린 사람 혼자만 절해요.}

10224 # 혼차만 저라고 고때는 인재 술 그저니 인재 두자넌 가뜩 가뜩 수를 쏟꼬. {혼자만 절하고 그때는 이제 술 그전에 이제 두 잔은 가뜩 가뜩 술을 쏟꼬.}

10224 @ 애. {예.}

10224 # 석잔채 디릴 때는, 그 우애가 쪼:뽀 남 자니 자니 쪼:뽀 낭키로 이르게 쏘다서 디리 뵈요. {석 잔채 드릴 때는, 그 위애가 조금 남 잔이 잔이 조금 남게 이렇게 쏟아서 드러 놓아요.}

10224 # 고라고서는 인재 나중에 인재 첨자기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첨작이라고.}

10224 @ 애. {예.}

10224 # 첨자기라고 인재, 예: 이제 술 저: 주준자애다가 인재 상뿌레다 이르게 인재 깨끄다게 인자 념새 거시가라고 가시가꼬 가시가꼬 첨자그라고 인자 그 집사가 그 자니다 쪼끔씩 쪼끔씩 세버늘 쏘다요. {첨작이라고 이제, 예 이제 저 술 저 주전자애다 이제 향불애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뵈내 거시기하라고 가서 가지고 가서 가지고 첨작이라고 이제 그 집사가 그 잔애다 조금씩 조금씩 세번을 쏟아요.}

10224 # 세번 쏘고 그때는 인재 점부 그 자손더리 점부다 저를 해요. {세번 쏟꼬 그때는 이제 전부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절을 해요.}

10224 # 점부다요. 그럼 제 삼잔 첨작까지는 다 올라갸짜나요. {전부다요. 그러면 이제 삼잔 첨작까지는 다 올라갸잖아요.}

10224 @ 예. {예.}

10224 # 고로카고서는 인재 또 갱:이라고 갱만다고 인재.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갱이라고 갱 만다고 이제,}

10224 # 구걸. {국을.}

10224 @ 예. {예.}

10224 # 구걸 인재 점부다 전 인재 수제인는데 전까라근 잔 디릴때마도 차꾸 왕기요. 인재. {국을 이제 전제 다 젓 이제 수저 있는 데, 젓가락은 잔 드릴 대마다 자꾸 옮겨요.}

10224 # 한잔 디리면 수릴 ** {한 자 드리면 술을 **}

10224 # 저까랑 왕기고, 한 잔 디리면 그 판디로 인재. {젓가락 옮기고, 한 잔 드리면 그 판 데로 이제.}

10224 # 안 저까랑 안 움길 땐 각각 wings요. {안 젓가락 안 움길 땐 각각 옮겨요.}

10224 # 그라구서 인재 술 삼잔 강 저: 침잔까지 다 하는 디는 인재. {그리고 나서 이제 삼잔 강 저 침잔까지 다 하는 데는 이제.}

10224 # 갱만다고 갱만다고 인재 국꺼러글 비우고 거그다 무릎 가따 노코 바벌 쪼끔씩 쪼끔씩 세번 인재 세번 떠노코 그라고 인재 저라고요. {갱만다고 갱만다고 이제 국그릇을 비우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 놓고 밥을 조금씩 조금씩 세번 이제 세번 떠놓고 그리고 이제 절하고요.}

10224 # 그라면 이제 제사는 다: 지냉게요, 인재. 다 지내고 인재. {그러면 이제 제사는 다 지낸 것이요. 이제, 다 지내고 이제.}

10224 # 인재 제물 고대로 차레노코 인재. {이제 제물 그대로 차려놓고 이제.}

10224 # 인재: 우리 제: 모시는 사람들 인재 그기 안자가꾸서나 인재 머 저 밥까통거또 인재 비비서 먹꼬 그 인재 술 퇴잔 퇴준 술 일짜네요? {이제 우리 제 모신 사람들 인재 거기 앉아서 이제 뭐 밥같은 것도 이제 비벼서 먹고, 그 이제 술 퇴주잔 퇴주잔 술 있잖아요?}

10224 # 술도 한잔씩 먹꼬 그라고 인재 놀다가. {술도 한잔씩 먹고, 그리고 이제 놀다가.}

10224 # 그저니 엔날: 으르신네는 요. {그전에 옛날 으르신네는요.}

10224 # 으르신네는 시방 앙그레 그렇거시 업는다. {으르신네는 지금 안 그래 그런 것이 없는데.}

10224 # 마리 시니. {말이 신이.}

10224 @ 예. {예.}

10224 # 열두시가 돼야 시니 인재 가신다 그거여. {열두시가 되어야 신이 이제 가신다 그 것이야.}

10224 @ 예예. {예예.}

10224 # 닭 울기 저니는 안간다고 그라거덩, 제 시니 가신 뒤 저 그 음식글 치우야 원칙이라고, 원칙이라고 닭 울드락 그 음식글 안치고 인썸썸요. {닭 울기 전에는 안 간다고 그러거든, 그래 신이 가신 뒤 저 그 음식을 치워야 원칙이라고, 원칙이라고 닭 울 때까지 그 음식을 안 치우고 있었어요.}

10224 # 안치우고 그냥 놀:고 그라 그라구 인썸썸요. {안 치우고 그냥 놀고 그리 그러고 있었어요.}

10224 # 그라다가 인재 다굴고 나머는 그때는 인재 음식글 상열 치웠썸요. {그러다가 이제 닭 울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음식을 상을 치웠어요.}

10224 # 음식상열 치웠썸 인재. {음식상을 치웠어 이제.}

10224 # 이제 그 지방언 인재 제 다 지내고 다 지내고 나문 다 지방은 철거해 지방은 그라고 제 엔나른 그러케 인재: 보통 ...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제 다 지내고 다 지내고 나면 다 지금은 철거해 지금은, 그리고 제 옛날은 그렇게 이제 보통 ...}

10224 # 제사를 인재 한 어지가니: 열씨 반, 열씨돼야 인자 지내기 시자개끄등요. 엔나레 그러다가 인재 열두시: {제사를 이제 한 어지간하게 열씨 반, 열씨 되어야 이제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열두시.}

10224 # 우리도 한 머 열씨에 시자가면 한 열두시까지 이르케 그냥 그러케 행썸는다. {우리도 한 뭐 열시에 시작하면 한 열두시까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10224 # 지방은 그러케 안지내 지방은 제 먹고 얼마 일따 그냥 {지금은 그렇게 안 지내

지금은 제사지내고 얼마 있다 그냥.}

10224 # 일찌개 지내고 일찌개 치우구 그래요. 그저나고 틀리요. {일찌가니 지내고 일찌가니 치우고 그래요.}

10224 @ 그러면 인제 제 지내고 나면 아까 마지막에 음식글 나눠 명는 거슬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 지내고 나면 아까 마지막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10224 # 우리 저, 인제 우리 저 가적 가정꺼지? {우리 저 이제 우리 저 가정 가정끼리?}

10224 @ 아니 쟁쟁에 인편 음식글 나눠서 어르시니 아버니미 하라버지가 드셨던 음식기라고 나눠 명는 거슬 서로 보글 비러주는 거슬, 명는 음식기라 그러자나요? {아니 쟁쟁에 있던 음식을 나눠서 어르신이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드셨던 음식이라고 나눠 먹는 것을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먹는 음식이라 그리잖아요?}

10224 # 몰라 우리는 그런 소리는 안하제. {몰라 우리는 그런 소리는 안 하지.}

10224 # 음복한다는 마른? {음복한다는 말은?}

10224 # 음보건 이제, {음복은 이제,}

10224 @ 음보건 어떨때 음보기라구래? {음복은 어떻게 할 대 음복이라고 그래요"}

10224 # 수를 인제: 그 제사때 술 잔 디릴짜나요? {술을 이제 그 제사때 술 잔 드렸잖아요?}

10224 # 잔 디리면 인제 음보기라능건 인제, 거그서 잔 디린 쥬 으런. {잔 드리면 이제 음복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잔 드린 제일 으런.}

10224 @ 예. {예.}

10224 # 쥬: 으러니 먼저 함 이제 그 음복수라고 인자 그 거그 저 쏘다놔튼 노물 한 잔 먹거요. {제일 어른이 먼저 한 이제 그 음복수라고 이제 그 거기 쏘아놓았던 놈을 한 잔 먹어요.}

10224 # 한 잔 먹꼬나 막꼬나면 인제 고 미테 자손더리 자선더리 먹꼬. {한 잔 먹고 나 먹고 나면 이제 그 밑에 자손들이 자손들이 먹고.}

10224 # 그기 음복수리라고 그래 음복수리. 그걸보고. {그것이 음복술이라고 그래, 음복술, 그것을 보고.}

10224 @ 그걸 음보기라고 그러능구만요? {그것을 음복이라고 그러는구만요?}

10224 # 예. {예.}

10224 @ 그리고 나면 그 그 아네 썰뎌 맨 위에 썰뎌 그 글씨 일찌요? 세워놓거? {그리고 나면 그 안에 썰뎌 맨 위에 썰뎌 그 글씨 있지요? 세워놓은 것?}

10224 # 거시기 지방. {거시기 지방.}

10224 @ 애, 그거슨 그거슨 누가 써요? {예, 그것은 그것은 누가 써요?}

10224 @ 인자 그건 머 제사 지낸 저 쥬 아무나 지손도 쓰고 장손도 쓰고 누구든지 쓸마는 사람드리 써요. {이제 그것은 뭐 제사 지내는 제일 아무나 지손도 쓰고 장손도 쓰고 누구든지 쓸만한 사람들이 써요.}

10224 @ 아까 맨: 처메 강신할 때는 장소니 하는 거지요 이? {아까 맨 처음에 강신할 때는 장손이 하는 것이지요 이?}

10224 # 애. {예.}

10224 @ 그러면 지금 선친 지양모시로 가드라도, 가며는 장조카가 먼저 먼저하지요 잉? {그러면 지금 선친 제사 모시로 가더라도, 가면 장조카가 먼저 먼저 하지요 이?}

10224 @ 그 그 강신할 때는? {그 그 강신할 때는?}

10224 # 애. {예.}

10224 @ 그리고 나서 어르시니 그다메 두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그다음에 두번째로 하시고?}

10224 # 애. {예.}

10224 @ 그다메 맨 마지막에 다 끈날썌요. 그먼 그 지방은 어떠케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지방은 어떻게 해요?}

10224 # 지방은 인자 불살라빠려요. {지방은 이제 불살라버려요.}

10224 @ 어떤시그로 어떤 절차에 따라 불살라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불을 살라요?}

10224 # 제사 다지내면 고거뜨를 인자 거시다가 인제 배까케: 마당에 나와서 그냥 불 불살라빠려 그냥. {제사 다 지내면 그것들을 이제 거시기에다가 이제 바깥에 마당에 나와서 그냥 부 불살라 버려 그냥.}

10224 # 불 불 태빠려 그냥. {불 불 태워버려 그냥.}

10224 @ 그러믄 그러면 끈나능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0224 # 그러쥬. {그렇지요.}

10224 # 그라믄 끈나제 제사가 다 끈나제. {그러면 끝나지 제사가 다 끝나지.}

10224 @ 그먼 엔나레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음식글 쪼끔 지반 그 문 아페가따 쫌 ... {그러면 옛날에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조금 집안 그 문 앞에 갖다 조금 ...}

10224 # 애. {예.}

10224 @ 헐쥬요 잉? {했지요 잉?}

10224 # 부샘무리라고. {무샘물이라라고.}

10224 @ 예? {예?}

10224 # 무샘물 그거보고 무샘 여기 여기는 무샘무리라구래요. {무샘물, 그것 보고 무샘 여기 여기는 무샘물이라고 그래요.}

10224 @ 무샘 무샘무리라고요? {무샘 무샘물이라고요?}

10224 # 지사 다 지내고 인제 다 끈나고 인제 술 남꼬 그러먼요. {제사 다 지내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술 남고 그러먼요.}

10224 # 바바고 머머 무신 머 땅거 머 거게 쪼끔씩 뜨더가꾸서 저 삼짝 배까티 삼짝 배까티다가 제 집 지비를 이르케 피노코 거그다가 인제 바가지로 부서놔요. {밥하고 뭐뭐 무슨 뭐 판 것 뭐 거기 조금씩 뜯어가지고서 저 대문 바깥에 대문 바깥에다가 제 쥘쥘을 이렇게 퍼놓고 거기다가 이제 바가지로 부어놔요.}

10224 # 그래 그걸 왜 그러냐머는, 하하하 그 마증까 안마증가는 몰라도. {그래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하하하 그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몰라도.}

10224 # 시니 귀시니 자식뚜 우꼬 그냥 이러케 지사를 이케 몬 자소니 업썌 지사를 모더 더 먹꼬 저 떠도라 다니는 귀시니 일떠야. {신이 귀신이 자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못 자손이 없어 제사를 못 얻어먹고 저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대야.}

10224 @ 으. {으.}

10224 # 그 그거보고 인제 거릴 귀시니라고 그러거든 으른들 그랴 거릴귀시니라고. {그 그것보고 이제 거릿귀신이라고 그러거든 으른들 그래 거릿귀신이라고.}

10224 # 그 불쌍헌 귀신들 와서 거 와서 먹꼬 가라고 그래 그걸 한다는 기요, 그기. {그 불쌍한 귀신들 와서 그 와서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 10224 # 그 엔나레는 인재 우리 어릴 썸:게는 인재 바블 몸무거서 거라지 그보고 거 거린
 덜 거라지라고 허그덩 거린더리 마날썰썰요. 우리 마닐썰그는. 근데 때 되머는 저 밥
 밥빠가지 가져와가꾸서 인재 바블 어드가꼬 자기 지브로 가서 멍는 사람 인꼬.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릴 적에는 이제 밥을 못 먹어서 거지 그것 보고 그 걸인들 거
 지라고 하거든, 걸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많을 적에는, 그런데 때 되면 저 밥 밥바가
 지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밥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 10224 # 그냥 이르게 도라댕김 떠도라 댕김서 그냥 집뚜 우꾸 떠 이런 사라문 그냥.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떠돌아 다니면서 그냥 집도 없고 떠 이런 사람은 그냥.}
- 10224 # 그 짜그서 그냐 떠 경거니하고 바바고 이제 바가지다 이르게가꾸서 순까라그로
 주문 그냥 거그서 먹꼬가고 또 판지브 가서 어더먹꼬 그랜꺼든요. {그 쪽에서 그냥
 뒤편 건건이하고 밥하고 이제 바가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숟가락으로 주면 그냥 거
 기서 먹고 가고 또 판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 10224 # 우리 마을도요, 한 서너찌비가 엔나레는 이르게 바벌 어더다가 지비 와서 자기 시
 꾸하고 멍는 지빈썰썰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우리 마을도요. 한 서너집이 옛날에는
 이렇게 밥을 얻어다가 집에 와서 자기 식구하고 먹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는요.}
- 10224 @ 그 사람드른 게을러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요?}
- 10224 # 아:니 게을러서 궁게 아니지. {아니, 게을러서 그런것이 아니지.}
- 10224 # 엔나레는 제 인 토지, 천째 바시나 노니나 토지 게 토지가 업쓰면 어디 토지서나
 이게 그게 곡씨글 해서 먹꾸사는데: 바시고 토지가 업썰개 그래요. 토지가 업썰개. 바
 시 땅이 업썰개. {옛날에는 제 토지, 첫째 밭이나 논이나 토지 그 토지가 없으면 어
 디 토지에서나 이것 그것 곡식을 해서 먹고 사는데 밭이고 토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토지가 없으니까. 밭이 땅이 없으니까.}
- 10224 @ 그 남메 가서 그 그 아까웁거 그 도 도지나 이런 이렇거또 묻 부치고. {그 남메
 가서 그 그 아까운 것 그 도 도지나 이런 것도 못 붙이고.}
- 10224 # 그러치 그거또 인재 그거또 자기 아페 도라운 도라오들 아능개 너무 땅도. {그렇
 지 그것도 이제 그것도 자기 앞에 돌아온 돌아오들 앓으니까 남의 땅도.}
- 10224 # 자기 넘 넘 땅도 인재 그 치니미 인꼬 거시기가 인꼬 그래야 주지 아무나 거 묻
 어더부쳐 그거또. 그저니는 그래 인재. {자기 남 남 땅도 이제 그 친임이 있고 거시
 기가 있고 그래야 주지 아무나 그 못 얻어 붙여 그것도. 그전에는 그래 이제.}
- 10224 # 넘 땅 어들래야 으더 부칠 쭈도 읍꼬. {남 땅 얻을래야 얻어 붙일 수도 없고.}
- 10224 # 자그 땅도 업찌 그렇개 그렇개 머글끼 읍짜내요. 그래서 그러케 땡거시오. {자기
 땅도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요.}
- 10224 @ 그레 너무 땅을 기왕에 도지를 주드라도 주는 사람 입짱에서 지주 입짱에서도.
 {그레 남의 땅을 기왕에 도지를 주더라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지주 입장에서.}
- 10224 # 앓. {예.}
- 10224 @ 농사를 잘 진코 부지런해서 수확기 마니 나게 허는 사람한테 주야지만 자기도 이
 무니 이무니 남곶꼬만 요, {농사를 잘 짓고 부지런해서 수확이 많이 나게 하는 사람
 한테 주어야지 자기도 이문이 이문이 남곶그만요.}
- 10224 @ 그쵸이? {그렇지요이?}
- 10224 # 그러치 물론 인재. {그렇지 물론 이제.}

10224 @ 그래도 어떤 사라문 함마지기에 세말 세가마니 명는데 어떤 사라문 두가마니 바께 몸명는다. 그머는 다메 두가마니짜리 빼다가 세사람한테 머근사람 줄수도 이쓸꺼 아니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한 마지기에 세 말, 세 가마니 먹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가마니 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다음에 두 가마니짜리 빼다가 세 사람한테 먹은 사람 줄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10224 # 그러쥬도 일제. 그건 그럴쥬 인쥬요. 인제.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10224 # 거: 인제 거, 땅님재보고 엔나레 지주라구덩. {그 이제 그, 땅 임자보고 옛날에 지주라고 하거든.}

10224 # 지주라고 허고 우리가 부친 노면 소자기라고 하고. {지주라고 하고 우리가 붙인 놈은 소작이라고 하고.}

10224 # 지주 소작 그러케 허면 게 제, 지주가 맘대로 인제 이 사람 줘따 저 사람 줘따 인자 그건 지주 맘대로 권리가 일제. 그 사람드른. {지주 소작 그렇게 하면 그 저, 지주가 마음대로 이제 이 사람 주었다 저 사람 주었다 이제 그건 지주 마음대로 권리가 있지. 그 사람들은.}

10224 @ 지주한테 꿈작 모데건네? {지주한테 꿈작 못했겠네?}

10224 # 하 꿈작 모다제 그라머 허허허 꿈작모다지요 머. {하 꿈작 못하지 그러면, 허허허 꿈작 못하지요 뭐.}

10224 @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냥.}

10224 # 그래서 제, 내가 아치미 저: 우리 마으레 이장호 땅이라고 그 땡이 마:나썸따고 그짜냐. {그래서 저, 내가 아침에 저 우리 마을에 이장호 땅이라고, 그 땅이 많았었다고 그랬잖아.}

10224 # 게서 가으레 도지 바드면 막 날빠르 수부:거게 쟁이날따고 글짜나요? {그래서 가을에 도지 받으면 막 날베를 수북하게 쟁여놓았다고 그랬잖아요?}

10224 # 이장호 땅이라는 거선 이제 우리 마을 사람 한사라미 한사라미 가시레 도지 받고 자기 지비다 수부:가니 쟁이노코, 그 인자 땅: 주는 겐또. {이장호 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가을에 도지 받고 자기 집에다 수북하게 쟁여놓고, 그 이제 땅 주는 것도.}

10224 # 자기가 맘든 사람, 장는 사람 자기 맘든 사람 자기가 주구 떠구 그르케 권리가 인제 그 사라미 권리가 일썸쥬요. {자기가 맘 든 사람, 자기 사람 자기 맘든 사람, 자기가 주고 떼고 그렇게 권리가 이제 그 사람이 권리가 있었어요.}

10224 @ 그저네. {그전에.}

10224 @ 이장호씨는 신경도 안쓰고? {이장호씨는 신경도 안쓰고?}

10224 # 그사람 부쟁께 인제 땅마능께 그사라문 먼. {그 사람 부자니까. 이제 땅 많으니까 그 사람은 뵈.}

10224 # 여 가시레 인제 다품하라도 안나오고 인제 그냥. {여 가을에 이제 답품하러도 안나오고, 이제 그냥.}

10224 @ 중간 중간 (# 중간 중간 짜라문 앤.) 짜라문. {중간 중간 (# 중간 중간 사람은 옛.) 사람은.}

10224 # 중간 짜라미 인제 예를 드려 인제 사무 보고 사무 보는 사람이라 이기지. {중간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사무보고 사무보는 사람이라 이것이지.}

10224 # 시방 그 사무 보는 사라미 인제 점부 가시리면 인자 그 농사가 잘된능가 못뎡능가, 잘뎡쓰면 인제 도지럴 얼마 나고 얼마고 그 사라미 그거 다하고 도지도 다 바다 드리고 땅도 인제 자기 맘대로 이리저리 누구 주구시푸른 주구 그럭카고. {지금 그 사무보는 사람이 이제 전부 가을이면 이제 그 농사가 잘 뎡는가 못 뎡는가, 잘 뎡으면 이제 도지를 얼마 내고 얼마고 그 사람이 그것 다하고 도지도 다 받아들이고 땅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누구 주고 싶으면 주고 그렇게 하고.}

10224 # 게 인제 도지 바다 수부:가면 인제 지주는 땅님채는 그건만 자기가 가주가문. {그 이제 도지 받아 수북하면 이제 지주는 땅 임자는 그것만 자기가 가져가면.}

10224 # 인자 이장호 짜라든 그랜썬요. 그라고 인제 땅이 얼마 안되는 사람. {이제 이장호 사람은 그랜어요. 그리고 이제 땅이 얼마 안되는 사람.}

10224 # 땅이 얼마 안되는 사라든 직접 보닌 지주가 지주가 와서 그걸 다푸미라고 그래요. 가시리. {땅이 얼마 안되는 사람은 직접 본인 지주가 지주가 와서 그것을 답뎡이라고 그래요. 가을에.}

10224 # 나래기 잘뎡능가 못뎡능가 인자 그 조사하러 가능걸 다푸미라 그라. 답뎡하로 뎡긴다 구라거든요. {나락이 잘 뎡는가 못 뎡는가 이제 그 조사하러 가는 것을 답뎡이라고 그래. 답뎡하러 다닌다 그러거든요.}

10224 # 그 인자 땅 짜근 사라든 직접 보닌드리 와서 인자 그 도지를 매고. {그 이제 뎡작은 사람은 직접 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 도지를 매고.}

10224 # 그러켄썬요. {그렇게했어요.}

<제사 음식상>

10225 @ 그: 제사를 지낼때요 잉? 제사 지낼때, 거기 올라가는 그 그 저 상은 상에 올라가는 음식드런 주로 어떤 음식뜨를 준비해요? {그 제사를 지낼 때요잉? 제사 지낼때, 거기 올라가는 그 저 상은 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주로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요?}

10225 # 그건. {그것.}

10225 @ 제사상에 올라가능거? {제사 상에 올라가는 것?}

10225 # 제산뎡는거요? {제사 뎡는 거요?}

10225 @ 고기드런 주로 어떤 고기드리 올라가요? {고기들은 주로 어떤 고기들이 올라가요?}

10225 # 고기요? {고기요?}

10225 # 고기는 인자 강 머: 해물. {고기는 이제 강 뎡 해물.}

10225 # 해물꼬기도 인제 인꼬, 해물꼬기도 인꼬, {해물고기도 이제 있고, 해물고기도 있고.}

10225 # 그라구 인제 동: 무시기는 소, 돼지, 닭 그래요. 닭 글치요 머. {그리고 이제 동무엇은 소, 돼지, 닭 그래요. 닭 그렇지요 뎡.}

10225 # 해무를 주로 여기는 먼뎡 썬썬요? {해물은 주로 여기는 뎡뎡 썬어요?}

10225 # 찰채는 이제 조구 조구도 조... {찰채는 이제 조기 조기도 조...}

10225 @ 조구는 꼭 올라가야 되고요? {조기는 꼭 올라가야 되고요?}

10225 # 애편, 조구는. {예, 조기는.}

10225 # 다름거 인제 저: {다른 것, 이제 저.}

10225 # 탕이라고 탕이라고 한디. {탕이라고 탕이라고 하는데.}

10225 # 그기 여기서는 합짜라구라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홍합이라고 그러는데.}

10225 # 합짜라구란디. {홍합이라고 그러는데.}

10225 # 조그서는 합짜라고 바다까에서는 합짜란소리를 아나고 뭐라구더라. {저기서는 홍합이라고 바다가에서는 홍합이란 소리를 안하고 뭐라고 하더라.}

10225 # 여기는 합짜하고, 피등애라고 피등애, 피등애 고고 인제 쌀마가고 두부하고 부수하고 합짜가 드러가고. {여기는 홍합하고, 문어라고 문어, 문어 그것 이제 삶아가지고 두부하고 무하고 홍합이 들어가고.}

10225 @ 조개처럼 요로케 생긴거? {조개처럼 이렇게 생긴 것?}

10225 @ 조 조개처럼 생긴거? {조 조개처럼 생긴 것?}

10225 # 이이이, 조개처 껍떼기가 찌대너지 왜. {응응응, 조개처럼 껍떼기가 기다랗지 왜.}

10225 @ 홍합 홍합. {홍합 홍합.}

10225 # 그거보고 홍하비라고 근쪼? 예, 마자마자. {그것보고 홍합이라고 그랬지요? 예 맞아 맞아.}

10225 # 홍하비구웁썬요. {홍합이라고 그랬어요.}

10225 @ 홍하비 여기서 합짜라구레요? {홍합이 여기서 홍합이라고 그레요?}

10225 # 예. {예.}

10225 # 예 그기 인제 합짜랑게 홍합 그노멀 껍떼기를 까가고 말린썬요. 말리가꼬 이르게, 꼬쟁이다 이러케 꾸여. 꼬쟁이다 켜서 말링기 일썬요. {예 그것이 이제 합짜라는게 홍합 그 놈을 껍떼기를 까가지고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꼬챙이에다 이렇게 켜어. 꼬챙이에다 켜서 말린 것이 있어요.}

10225 @ 예. {예.}

10225 # 그래 인제 그 그걸 파란썬요. 인제 그걸. 거거. {그래 이제 그 그것을 팔았어요. 이제 그것을, 그그.}

10225 @ 켜서 말잉거 작 자근자근 씹부면 머글만하. {켜서 말린 것 자근자근 씹으면 먹을 만해.}

10225 @ 그러지요. {그렇지요.}

10225 # 예, 합짜가. {예, 홍합이.}

10225 @ 합자허고 피등애허고 ... {홍합하고 문어하고...}

10225 # 예. {예.}

10225 @ 탕 꼬릴때 합짜허고 피등애하고 그다메 마른 마른꼰또 드러가지요? {탕 끓일 때 홍합하고 문어하고 그 다음에 마른 마른 것도 들어가지요?}

10225 # 마른거는 포, 멍태, {마른 것은 포, 멍태,}

10225 @ 멍태? {멍태?}

10225 # 멍태포, 조기. {멍태포, 조기.}

10225 @ 제 제가 조:아하능기 그 탕인디. {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 그 탕인디.}

10225 # 애. {예.}

10225 @ 탕을 꼬릴때 보면요이? 피등애 드러가고, 합짜 드러가고요. {탕을 끓일 때 보면요? 문어 들어가고, 홍합 들어가고요.}

10225 @ 그다메 거기에 새우 안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새우 안 넣어요?}

10225 # 예:. {예.}

10225 # 탕이라능게 원 원치기 다:할라면요 오탕얼 하라능기요. {탕이라는 것이 원 원칙이 다 할려면 오탕을 하라는 것이예요.}

10225 # 탕을 다선 궁 다선 그럭, 다선끄러걸. {탕을 다섯 다섯 그릇, 다섯 그릇을.}

10224 # 그라구 인재 다:할라면 오탕얼 해야되구. {그리고 이제 다 하려면 오탕을 해야 되고.}

10224 # 오탕. 돼지괴기 탕, 쇠괴기 탕, 두부 탕, 그러면 해물 괴등앵가 인자 머 그건 탕, 합짜 탕. {오탕, 돼지고기 탕, 소고기 탕, 두부 탕, 그러면 해물 문어인가 이제 뭐 그것 탕, 홍어 탕.}

10225 # 그래서 다선탕 오탕을 해야되요. 오탕을 하는데. {그래서 다섯탕 오탕을 해야돼요. 오탕을 하는데.}

10225 # 오탕을 다 아내요. 한 삼탕만 보통 한 삼탕만 마~이 ... {오탕을 다 안해요. 한 삼탕만 보통 한 삼탕만 많이 ...}

10225 # 오탕 한 사람도 인찌마는 삼탕만. {오탕 한 사람도 있지만은 삼탕만.}

10225 @ 그건 따로따로 이러케 ... {그것 따로따로 이렇게 ...}

10225 # 그러쵸 그러치 그럼 다 따로따로 노체. {그렇지요 그렇지 그럼 다 따로따로 놓지.}

10225 # 따로따로 그래서, 원치기 제대로 다:허질라면 오탕얼 해야돼요. 오탕얼. {따로따로 그래서, 원칙이 제대로 다 하려면 오탕을 해야 돼요. 오탕을.}

10225 @ 저히 지븐 저히 지븐 그면 그거슬 녀서 하나로 끄렷뎡거 가테, 하나로 끄렁거 가테. {저희 집은 저희 집은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하나로 끓였던 것 같애, 하나로 끓인 것 같애.}

10225 # 아:. {아.}

10225 @ 괴등앵도 녀코, 이러케 닌는데. {문어도 넣고, 이렇게 넣는데.}

10225 @ 끄려서 하나로. {끓여서 하나로.}

10225 @ 나면쪼근 그러케 지내. {남원쪽은 그렇게 지내.}

10225 # 그러케 해도 상관 업찌머. {그렇게 해도 상관 업찌머.}

10225 @ 그래서 오탕이그만. {그래서 오탕이그만.}

10225 # 여기는 여기는 오탕이라고 그러케 그르케, {여기는 여기는 오탕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10225 # 그게 전부 이케, 이르케 따루따루따루 이르캐서 다: 해요. {그것이 전부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이렇게해서 다 해요.}

10225 @ 바:문 요, 바:문 어떠케 해요? {밤은 요, 밤은 어떻게 해요?}

10225 # 밤? {밤?}

10225 @ 았. {예.}

10225 # 바면 인재. {밤은 이제.}

10225 # 꺄뎡기를 까가고, {꺄뎡기를 까가지고,}

10225 # 꺄뎡기를 가꼬 인재 그 빈들 잘 안버찌지자냐: 왜. {꺄뎡기를 까고 이제 그 비늘 잘 안 벗겨지잖아 왜.}

10225 # 그 무레다 당과 그다보면 쵸 부러지자냐. {그 물에 담가 그러다 모면 쵸금 불어지잖아.}

10225 # 그 칼로 침:부 밤 친다고 하자나 그기 밤친다고. {그 칼로 전부 밤 친다고 하잖아 그것이 밤 친다고.}

10225 # 칼로 일캐 다: 이르캐 보기 조케 보기 조케 그르케 인제 치가꼬서나 인제 꽤노치요. 머. {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기 좋게 보기 좋게 그렇게 이제 쳐가지고 이제 고여 놓지요. 뭐.}

10225 @ 그며는 그 ... {그러면 그 ...}

10225 # 접 접씨다가 인제 이캐 꽤나. {접 접시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여 놓아.}

10225 @ 그면 그거슨 그거슨 대개 누가 누가 쳐요, 바쁜?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대개 누가 누가 쳐요, 바쁜?}

10225 # 바쁜 인자 보통 인자 자손더리 치지 머, 장소니고 지소니고 그 상관업꼬. {밤은 이제 보통 이제 자손들이 치지 뭐, 장손이고 지손이고 그 상관업꼬.}

10225 # 인제 아즈마니가 치도 돼고, 밤거통건 보통 인제 남자드리 다:. {이제 아주머니가 쳐도 되고, 밤같은 것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다.}

10225 @ 남자드리 밤. {남자들이 밤.}

10225 @ 바쁜 남자드리 치고요? {밤은 남자들이 치고요?}

10225 # 애 남자드리. {예, 남자들이.}

10225 @ 혹씨 이:. {혹시.}

10225 @ 제사지내는 장을 보로 가는 거슬 남자드리 가, 여자드리 양가고 남자드리 갇썬썬요? {제사 지내는 장을 보러 가는 것을 남자들이 가, 여자들이 안 가고 남자들이 갇썬썬어요?}

10225 # 어지개니 보통 남 남자드리 가지요. {어지간히 보통 남 남자들이 가지요.}

10225 @ 제사 제살. {제사 제사.}

10225 # 예, 남자드리 예니 다 가요. {예, 남자들이 웬만하면 다 가요.}

10225 # 근데 인제 시방 시방 그케 머.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그것이 뭐.}

10225 # 엔나레는 다: 이거라고 인제 그저니 엔나레는 돈 팔리럴 아즈먼네는 몰란썬썬요. 돈 팔리. {옛날에는 다 이것이라고 이제 그전에는 옛날에는 돈 팔리를 아주머니들은 몰랐어요. 돈 팔리.}

10225 # 지비서 인제 밤먹꼬, 살림이나 살리미나 허고 바비나 해주고 머 이제.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살림이나 살림이나 하고 밥이나 해주고 뭐 이제.}

10225 # 잉: 온꺼통거 빠라주고, 머 그렇검만 해찌 돈 도널 몰란썬썬요. 엔날 아즈머니네는. {응, 옷같은 것 빨아주고, 뭐 그런 것만 했지, 돈 돈을 몰랐어요. 옛날 아주머니네는.}

10225 # 도니 일절 도늘 몰란썬썬요. 도늘 몰르고, 침:부 도는 남자드리 가꾸 만칠썬썬요. 남자드리. {돈이 일절 돈을 몰랐어요. 돈을 모르고, 전부 돈은 남자들이 가지고 만쳤어요. 남자들이.}

10225 # 여자드른 도니라구 도니리능건 몰란썬썬요. {여자들은 돈이라고 돈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10225 # 혹씨 머 거이간다고 머 인자 사로 간다고 머 거시가면 돌아면 인제 그 머하러 가능거 돈 주고 그러켤찌. {혹시 뭐 거시기 간다고 뭐 이제 사러 간다고 뭐 거시기하면 달라고 하면 이제 그 뭐하러 가는 것 돈 주고 그렇게 했지.}

10225 # 머 무신 저 머:. {뭐 무슨 저 뭐.}

10225 # 엔나렌 다 농사 저가꼬, 농물서 그레도 농사 그 저 농삼물 파라가꾸 게 도니 나오

자냐. 그 그 판데는 도니 업짜녀, 그저니. {옛날에는 다 농사 지어가지고, 농산물로서
그래도 농사 그 저 농산물 팔아가지고 그 돈이 나오잖아. 그 그 판 데는 돈이 없잖
아, 그전에.}

10225 # 그거 나오능거 참:부 남자드리 다 거멓썬요. 남자가 다 담썬. {그것 나오는 것 전
부 남자들이 다 거멓썬요.}

10225 # 여자드른 도니라고는 일절 도니란 몰란썬요. {여자들은 돈이라고는 일절 돈이란
몰랐어요.}

10225 @ 어:. {어.}

10225 # 그렇게 이제서 엔나레 불상허게 사란썬.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불상하게 살았
지.}

10225 # 돈도 맘 흘뜬 맘대로 써보도 모다고. {돈도 맘 흘듯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10225 @ 자: 그먼 거기 올라간 과이른 멈머 올라가요? {자 그러면 거기 올라간 과일은 뭇
뭇 올라가요?}

10225 # 과일? {과일?}

10225 @ 과이이문 인재 대추, 밤:, 쫄감, 감: 배, 사과 주로 인재 그그 그러케 올라가지.
{과일이면 이제 대추, 밤, 쫄감, 감, 배, 사과 주로 이제 그것 그렇게 올라가지.}

10225 # 시방 시방언 인재 먼. {지금 지금은 이제 뭇.}

10225 # 무신 저 뭇 저 곧 거시기 머여? {무슨 저 뭇 저 곳 거시기 뭇여?}

10225 # 저 계수하능기 문디리 머지? {저 제주서 하는 거 그것이 뭇지?}

10225 @ 제주서 농사 진능거 왜? {제주에서 농사짓는 것 왜?}

10225 @ 밀가미요? {밀감이요?}

10225 # 밀감. 밀감도 올라가고 시방은 파나나도 머 파나나도 노구 그래드만. {밀감, 밀감
도 올라가고 지금은 바나나도 뭇 바나나도 놓고 그러드만.}

10225 # 엔나레 어디 밀가미인꼬 파나나가 인썬썬요. 엔나레. {옛날에 어디 밀감이 있고
바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

10225 # 주로 그 그건만 날썬요. {주로 그 그것만 놓았지요.}

10225 @ '떠근 어떤 종류로 ... {떡은 어떤 종류로 ...}

10225 # 떠근 시루떠기라고. {떡은 시루떡이라고.}

10225 # 시루떠기라고 인재. {시루떡이라고 이제.}

10225 @ 시루떡만 올려놔요? {시루떡만 올려놓아요?}

10225 # 예. {예.}

10225 @ 콩떡가통거또 인재 인절미가통거또 제사때 안: {콩떡같은 것도 이제 인절미같은
것도 제사때 안.}

10225 # 아: 아니 일절도 일체 안썬. {아 아니 일절도 일체 안썬.}

10225 #그 신:떠기니 그렇거 머 거 제사썬는 일절 시리떡만 쓰지. {그 흰떡이니 그런 것
뭇 그 제사때는 일절 시루떡만 쓰지.}

10225 @ 세사 세사 모실때는? {묘사 묘사 모실 때는?}

10225 # 세사 모실때도 그러코. {묘사 모실 때도 그렇고.}

10225 # 우리 몰라 판디는 몰라도 여기닌 제사 모실 때는 시리떡만 썬요. 판 떠근 안썬요.
{우리 몰라 판 데는 몰라도 여기는 제사 모실 때는 시루떡만 썬요. 판 떡은 안썬요.}

10225 @ 저히는 보면 엔나레 그 인절미, 그 콩떡 이러케 긴: 긴: 콩떡 콩떠글 어 어른드리

갇, 세사 지 모시고 갇 가따 주섰명거 갇튼데? {저희는 보면 옛날에 그 인절미, 그
 콩떡 이렇게 긴 긴 콩떡 콩떡을 어른들이 갇, 묘사 모시고 갇다 주셨던 것 같은데?}
 10225 # 근디 지역벨로 그기 틀려. {그런데 지역별로 그것이 틀려.}
 10225 @ 아:. {아.}
 10225 # 지역벨로 틀려. 여기는 그거 안써요. 여기는 안쓰고. {지역별로 틀려. 여기는 그것
 안써요. 여기는 안쓰고.}
 10225 # 제사쌍에는 일딴 세사고, 방찌사고, 방이서 지낸 제사고 그냥 시리명만 써요. {제
 사쌍에는 일딴 묘사고, 방제사고, 방에서 지낸 제사고 그냥 시루떡만 써요.}
 10225 @ 시루명만? {시루떡만?}
 10225 # 예. {예.}
 10225 @ 떡꾸근 안끄리고요? {떡국은 안 끓이고요?}
 10225 # 제사요? {제사요?}
 10225 @ 애. {예.}
 10225 # 앙끄려. {안 끓여.}
 10225 @ 그며는 시루떠글 할 때, 시루떠글 할 때:, 할때 보면요 잉? {그러면 시루떡을 할
 때, 시루떡을 할 때, 할 때 보면요 잉?}
 10225 @ 시 시루가 인쪼? {시루가 있지요?}
 10225 # 애. {예.}
 10225 @ 그 시루 미테가 구멍이 뚫려 인짜나요. {그 시루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10225 # 예, 뚜러인쪼. {예, 뚫려있지.}
 10225 @ 그거 그거슨 먼 멀로 마가요? {그것 그것은 뭇 뭇로 막아요?}
 10225 # 예 집. {예, 쪼.}
 10225 @ 지부로? {쪼으로?}
 10225 # 지비로 이르게 인재 소느로 이케 인재, 가르가 안빠지기로. 지비로 열거가꼬 그냥
 구너지다 이르게 봐요. {쪼으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제 가루가 안 빠지도
 록, 쪼으로 얹어가지고 그냥 구멍에다 이렇게 봐요.}
 10225 # 그러케 하는 사람도 인꼬, *** 사라면 또 쏘립, 술리벌 술 그 거시기릴 가따가 술
 리비로 망는 사람도 인꼬 그랜쓰요. 근디 보펜찌그로 지비로 다 마가요. 어지가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 사람은 또 술읖, 술읖을 술 그 거시기를 갇다가 막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쪼으로 다 막아요. 어지간히.}
 10225 @ 그러면 그거슬 시루꾸녕 망는다구레? {그러면 그 것을 시루구멍 막는다 그래?}
 10225 # 예. {예.}
 10225 # 시루꾸녕 망는다구라제. {시루구멍 막는다 그러지.}
 10225 @ 시루꾸녕 막꼬, 그 위에다 인자 바로 뭇 봐요? {시루구멍 막고, 그 위에다 이제
 바로 뭇 봐요?}
 10225 # 시루 꾸녕 막꼬, {시루구멍 막고,}
 10225 @ 애. {예.}
 10225 # 거다 인재: 이 그 질 쳐무니 질 쳐무니는 인재 가르를 살짱 봐요. {거기에다 이제
 이 그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가루를 살짝 봐요.}
 10225 # 가루 살짱 노코 이제 거그다 이제 콩꼬물 판꼬무리라등가 판꼬물 보통 판꼬물 만
 쓰지, 판꼬물 한채 노코, 그러고 쌀가루 인재 노코, 쌀가루 노코 또 이르게 골루고 또

고 우에다 인제 또 인제 팔꼬물, 팔꼬물 또 지부자 체 체 체 체 그노미 침:부 싸올리
가꾸 인제. {가루 살짝 놓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콩고물 팔고물이라든가 팔고물 보통
팔고물 많이 쓰지, 팔고물 한 채 놓고, 그리고 쌀가루 이제 놓고, 쌀가루 살짝 놓아
요.}

10225 @ 그레가꼬 인제, 엔날 그 손 거다가 인자 가따 올리거나 미티 미티 손 물부꼬 그
래가꾸서 불 때가꾸 인제 지미로 지미로 찌지. {그레가지고 이제, 옛날 그 술 거기에
다가 이제 갖다 올리거나 밀에 밀에 술 물 붓고, 그레가지고서 불 때가지고 이제 김
으로 김으로 찌지.}

10225 @ 그거선 지므로 찢쪼? 그며는 짐. {그것은 김으로 찢지요? 그러면 김.}

10225 @ 빠지니까. {빠지니까}

10225 # 애. {예.}

10225 @ 시루하고 그 그 가매소다고 사이를 때우지요? 그 그걸 때우능걸 뭐라구래? {시루
하고 그 가마솔하고 사이를 때우지요? 그 그것을 때우는 것을 뭐라고 그래?}

10225 # 시루뿐. {시룻번}

10225 @ 시루뻘 부친다구래. {시룻번 붙인다고 그래.}

10225 @ 시루뻘는 멀로 멀로 주로 해요? {시룻번은 뭇로 뭇로 주로 해요?}

10225 # 시루뻘넌? {시룻번은?}

10225 @ 예. {예.}

10225 # 인제 저:. {이제 저.}

10225 # 엔나레는 인제 그 시방 읍네 기계가서 인제 그 저 시루떡 쌀 그걸 인제 찌완썰찌
마는 그저니 엔나레는 지비서 '방애, 그 디딜방애 이캐 사래미 두사래미 박꼬 인제
그 뱅애루요, 점부 방애로 찌가꼬 체로 이르게 천짜나요? 인제 체로? {옛날에는 이제
그 지금 읍네 기계에 가서 이제 그 저 시루떡 쌀 그것을 이제 찌어왔었지만 그전에
옛날에는 집에서 방아, 그 디딜방아 이렇게 사람이 두 사람이 밟고 이제 그 방아로
요, 전부 방아로 찌어가지고 체로 이렇게 쳤잖아요? 이제 체로?}

10225 # 체로 치고 나중에 다: 처:. {체로 치고 나중에 다 처.}

10225 # 다 치고나면 인제, 다 빠지요. 인제 다 빠지고. {다 치고 나면 이제, 다 빠져요.
이제 다 빠지고.}

10225 # 나면 거또 무거리가 인짜녀? 그럴때 그거설 이제, 그거설 딱 이르게 체로 이르게
칭개, 그 독또 인꾸 그래요. 인제 그기 독. {나면 그것도 무거리가 있잖아? 그럴 때
그것을 이제, 그것을 딱 이렇게 체로 이렇게 치니까, 그 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거기
돌.}

10225 # 고노멸 이기가꼬 ... {그 놈을 이겨가지고.}

10225 # 그 인제 도기 벅벅버시기가꼬 몸머거요. 그렇게 인제, 그노멸 이기가꼬서 시리뻘
니라고 그노멸 부쳐. {그 이제 돌이 벅벅벼쳐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놈을 이겨가지고서 시룻번이라고 그 놈을 붙여.}

10225 # 고 시루뻘는 인제 떠다꼬 인자, 머 내버리등가 인제 저 짐승 저 돼지가통거 머 주
등가 영 그래요. 거. {그 시룻번은 이제 때가지고 이제, 머 내버리든가 이제 저 짐승
저 돼지같은 것 뭐 주든가 그래요. 그}

<제사 절차의 차이>

- 10226 @ 그런 엔나라고 지금하고 엔나라고 지금하고 제사가 얼마나 마니 달라졌쎄요?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제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 10226 # 지사요? {제사요?}
- 10226 @ 가장 마니 달라지게 어떻거시 쥬?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제일?}
- 10226 @ 제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따 그러면 어르시니 보기에? {제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다 그러면 어르신이 보기에?}
- 10226 # 게 마니 달라징거선요. {그 많이 달라진 것은요.}
- 10226 # 예: 아까도 얘기했쎄만 엔나레는 ...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
- 10226 # 한 열씨에 시자게가꾸 열두시꺼지 이케 다기 우러야 인자 오래 돼야 인자, 제사 음식을 다 인자 치우고 그랜는데: 시방언 인자 그기 읍꼬. {한 열시에 시작해가지고 열두시까지 이렇게 닭이 울어야 이제 오래 되어야 이제, 제사 음식을 다 이제 치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고.}
- 10226 # 어떤 양반더런 이케 저녁머글때 저녁머글때 그냥 제사지내고 그 바비로 저녁 저녁밥 먹꼬 그러캐요. {어떤 양반들은 이렇게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냥 제사지내고, 그 밥으로 저녁 저녁밥 먹고 그렇게 해요.}
- 10226 # 고고시 한 저미 달라징게여, 방법 인재 제사 지내게, 고기 달라졌쎄요. {그것이 한 점이 달라진 거여, 방법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것이 달라졌지요.}
- 10226 # 그라고 인자 제물 차리능거선 그때나 지금도, 그때도 인재 잘차리니 사람하고, 못 차린 사람은 못차리고 머 제사라구해서 인재. {그리고 이제 제물 차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도, 그때도 이제 잘 차리는 사람하고, 못 차린 사람은 못 차리고 뭐 제사라고해서 이제.}
- 10226 # 돈 읍꼬 거시겐 사라른 어떠케 또 인자 참:부 다 자랄쑤가 인능가요. 인자 또 대강대강 인재 엔날부터 마릴짜나요. {돈 없고 거시기한 사람은 어떻게 또 이제 전부 다 잘할 수가 있는가요. 이제 또 대강대강 이제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 10226 # 읍 식 잘차리지 말고, 어 맘 정성껏 디리면 된다고. 참물 한 그릇기라도 인재. {음식 잘 차리지 말고, 어 맘 정성껏 드리면 된다고. 찬 물 한 그릇이라고 이제.}
- 10226 # 읍는 사람은 인자 그냥 바비나 항그럭 떠노쿠 물 항그럭 떠노쿠서 대강대강 이르캐서 인재, 참 정성껏 지내면 되고 ... {없는 사람은 이제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떠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서 대강대강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정성껏 지내면 되고 ...}
- 10226 @ 엔나레도 그랜 ... {옛날에도 그랬 ...}
- 10226 # 애 그러치요. 머. 우: 우트강가 읍는 사라른 어터가능가? 머. {예, 그러지요. 뭐 우 어떻게 하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뭐.}
- 10226 # 아이구 우선 머 내 모꾸니기 밥 드러갈 께이 업는디, 어떠케 제사라고 부문님 제사라고 해서 어떠케 도니, 도니 인쎄야 거 머 어디가서 장에가서나, 시장에 가서 멀사오는데 ... {아이고 우선 뭐 내 목구멍에 밥 들어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라고 부모님 제사라고 해서 어떻게 돈이, 돈이 있어야 그 뭐 어디 가서 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사오는데 ...}
- 10226 # 돈 읍쓰니까 사오덜 모당께 어떠카나요? {돈 없으니까 사오들 못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10226 # 그래 바비라도 인재 항그를 떠노코 인자. {그래 밥이라도 이제 한 그릇 떠놓고 이제.}

10226 @ 실가므로 둘 ... {*****}

10226 @ 그 돈절랴가기는 제삿상 제사 음식빠게 업따고 그런말도 인는거 같떠만 ... {그 돈 절약하기는 제사상 제사 음식밖에 없다고 그런 말도 있는 것 같드만 ...}

10226 # 허허허. {허허허.}

10226 @ 엔나레도 그랜능갑뜨만요이? {옛날에도 그랬는갑드만요 잉?}

10226 # 하이고 그거머. {아이고 그것 뭐.}

10226 @ 제사 인자 그거또 인자 원치 인재 그저니는 살기가 인재 ???가까부랑개 도니 업췌개 그 마리 나옴게지. {제사 이제 그것도 이제 원체 그전에는 살기가 이제 갑갑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말이 나온 것이지.}

10226 # 그 마리 나완는데: 하기는 머 그거또 제사도 간따니 지내면 인자 경지저그로 인재 쪼끔 마리 나와든디 ... {그 말이 나왔는데, 하기는 뭐 그것도 제사도 간단하게 지내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말이 나왔는데 ...}

10226 @ 딸 인제 도니 드르가제: 헤헤헤. {* 이제 돈이 들어가지 헤헤헤.}

10226 # 그 말도 과언 아니지요. 머 그말도. {그 말도 과언이 아니지요. 뭐 그 말도.}

10226 @ 사라게서서 머 음식 차례주면 모테준다고, 차례준다 모테준다 알지만, 도라가신 부니 거 알췌도 인는 겐또 아니고. {살아게서서 뭐 음식 잘해주면 못해준다고, 잘해준다 못해준다 알지만, 돌아가신 분이 그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10226 # 그르치요. 그럼 머. {그렇지요. 그럼 뭐.}

10226 @ 근테: 엔나레 지내는거 하고, 지금 이르케 바깥 거슬 보시면, {그런데 옛날에 지내는 것 하고,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시면,}

10226 # 응. {응.}

10226 @ 예 췌 어떤 느끼미 드세요. 예를 든다면? {예! 조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를 든다면?}

10226 @ 어르신도 인제 연세가, 저들도, 인제 마찬가지로. {어르신도 이제 연세가,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10226 @ 점점 년세가 드러가시면 가실췌록 마오미 엔나레 우리 어 우리 아 아버지한테 하라버지한테 이러케 헨는데: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 가실췌록 마음이 옛날에 우리 어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10226 # 아이, 내가 죽꼬나면 저놈들 이제 내가. {아이, 내가 죽고 나면 저놈들 이제 내가.}

10226 # 대충 대충 지낼꼐간따 이런 느끼므로 이자. {대충 대충 지낼 것같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10226 # 어르신드른 마니 드시는꼐 가튼데: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10226 # 그건 틀림 업췌요. {그것은 틀림없어요.}

10226 @ 가면 갈췌록 더 그럴꼐 아니예요. {가면 갈췌록 더 그럴 것 아니예요.}

10226 # 아: 그 틀림업췌요. {아 그 틀림없어요.}

10226 @ 그런:거슬 보시면 어떤 느끼미 드세요? {그런 것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10226 # 이기 사래미요. {이게 사람이요.}

10226 # 머 부몬님 지사 잘 모신, 나 인자 우리 제사 지내고 나면 늘 그런 소리를 해요.

{뭐 부모님 제사 잘 모신, 나 이제 우리 제사 지내고 나면 늘 그런 소리를 해요.}

10226 @ 서녕이 잘모신다고 해서나 선영 잘모세 내가 잘된다는 그런 마:벌 갇꼬 부무럴 제사를 지내고 부무를 모시면 안된다 그래요. {선영이 잘 모신다고 해서 선영 잘 모셔서 내가 잘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를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모시면 안 된다 그래요.}

10226 # 왜? {왜?}

10226 # 서녕이 인쫘께 어머니 아버지가 인쫘께 내가 태어나고 응? {선영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응?}

10226 #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르게 참 은? 시방 인자 도라가시고 참 인재 업찌마넌,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참 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참 이제 없지마는,}

10226 # 우리 어머니가 느그도 다 자식글 키워받쫘께 알지마는 우리털 키울쪼게, 참 어떠케 그 기가매키게 안키웁능가요. 응? {우리 어머니가 너희도 다 자식을 키워보았으니까 알지만 우리를 키울 적에, 참 어떻게 그 기가 막히게 안 키웠능가요. 응?}

1022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6 # 그래 그: {그래 그}

10226 # 잘 모시구 우리가 잘 모신다고 해서나 머 내가 잘되고, 서녕이 우리 어머니가 더 폐나게, 그 그거 보담도. {잘 모시고 우리가 잘 모신다고 해서 뭐 내가 잘 되고, 선영이 우리 어머니가 더 편하게, 그 것 보다도.}

10226 @ 인재: {이제.}

10226 # 우리: 그렇거시 업쓰면, 우리 사라미라고 할쭈가 업짜나요. 금수나 마찬가지로 자나요. {우리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금수나 마찬가지로 자나요.}

10226 # 응? 금수나 마찬가지로 ... 사람도리로써 사람도리로써 인재 아무리 인재 부무가 도라가쪼찌마는 인재 주근 날짜 주근 날짜는 아무리, 안 이저먹기 위해서 참 이르게 인재. {응? 금수나 마찬가지로 ... 사람 도리로써 사람 도리로써 이제 아무리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죽은 날짜는 아무리, 안 잊어먹기 위해서 참 이렇게 이제.}

10226 # 그래도, {그래도,}

10226 # 금방도 내 이야기 헐찌마넌. {금방도 내 이야기 했지마는.}

10226 # 예: 그렇겇 저렇겇 시방 인자 차꼬: 예: 무나가 발팔되고 새시대가 거시경께나, 옛날 구식꺼튼거 차꾸 인재 차꾸 인재 업쪼구 자꾸 이러카자나요? {예, 그런 것을 저런 것을 지금 이제 자주 예 문화가 발달되고, 새시대가 거시기하니까, 옛날 구식같은 것 자꾸 이제 자꾸 이제 없애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10226 # 업쪼고 머먼, {없애고 뭐 뱃.}

10226 # 시방 저 머 거시기도 머 게론 게론도 시방 갇 한 번 머 한 성 머머머 팔쭈 팔쭈간 그 저 이거 우리 나는 아주 참: 이거 항구그로써 이기 이? {지금 저 뭐 거시기도 뭐 결혼 결혼도 지금 갇 한 번 뭐 한 성 뽀뽀뽀 팔쭈 팔쭈간 그 저 이것 우리 나는 아주 참 이것 한국으로써 이것 이?}

10226 # 그렇거 저렇거를 다 양가리면 난 ***** 아주 거.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안 가리면 나 ***** 아주 그것.}

10226 # 사례미 머냐고 이게? 그렇거 저렇거 다: 양가리머는 금수나 똑까찌 안냐 어? {사람이 뭐냐고 이것이? 그런 것 저런 것 다 안 가리면 금수나 똑같지 안아 어?}

10226 # 금수가 소가 돼지가 자서기 나면 날찌기만 나서 귀할 찌기만 참 잘 그 그야 귀하지 떠나면 이 새끼가 부무를 모르자냐? {금수가 소가 돼지가 자식이 날 적에만 나서 귀할 적에만 참 잘 그 그야 귀하지 떠나면 새끼가 부모를 모르잖아.>}

10226 # 새끼가 부모 모르자냐? {새끼가 부모 모르잖아>}

10226 # 우리 사람 다 똑같잖네. 그렇거 저렇거 그렇거 다 이야기 제하머는, 게서 아직까지는 그렇질 거시거면 사례미 더 인시미 박카지고 사람 도리:라는 거시 업써지자나요? {우리 사람 다 똑같잖아. 그런 것 저런 것 다 이야기 제하면, 거기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거시기하면 사람이 더 인심이 박해지고 사람 도리라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10226 # 도리 업써지자나요 앙그려요? {도리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10226 # 도리라는거 업써지고 게서나 금방도 헐찌마는 꼭: 서녕을 잘모시고 지사를 잘모셔서 내가 잘되거따. {도리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나 금방도 했지마는 꼭 선영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모셔서 내가 잘 되겠다.}

10226 # 이런 마으를 가꾸서 지사 지내면 안되고, 서녕이 인쥁개 내가 태에날따. 게 어머니 아버지 아 언제 어느 때 도라가셨파는 날짜는 안 일끼 위해서 이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사 지내면 안되고, 선영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 언제 어느 때 돌아가셨다는 날짜는 안 잊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10226 # 그 기여이 머 참물떠노코 지사를 잘 지내서 그렇게 아니라. {그 기여이 뭐 찬 물 떠놓고 제사를 잘 지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226 # 참 참 지사 음식글 잘 이케 노쿠 차렁거시나, 그 날짜라도 암머키고 그개 자식 도리는 도리로서 성이로써 나는 그개 지내는 거시 내 거시킨디. {참 참 제사 음식을 잘 이렇게 놓고 차린 것이나, 그 날짜라도 안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식 도리는 도리로서 성의로써 나는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내 거시기인데.}

10226 # 이거시 자꾸 인재 업썩장께나 업쓰닝께 하기가 나중에 가면 이거시 이 머 가마니 생각갈 찌기 이기 게 이대로 시방 자꾸 절문 사람덜 하능 걸로 바서는 ... {이것이 자꾸 이제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하기가 나중에 가면 이것이 이 뭐 가만히 생각할 적에 이것이 그 이대로 지금 자꾸 젊은 사람들 하는 것으로 봐서는 ...}

10226 # 제사도 이거시 당대 당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몰라, 할머니까지는 지내고 그외는 이제 업썩질 걸로 내. {제사도 이것이 당대 당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몰라, 할머니까지는 지내고 그 외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내.}

10226 @ 내 생각근 ... {내 생각은 ...}

10226 # 틀림씨 틀림업씨 시방대로 나가면 업써저요, 이기. {틀림없이 틀림없이 지금대로 나가면 없어저요. 이것이.}

10226 @ 그럴께 가테요. {그럴 것 같아요.}

10226 # 애, 업써지요. {예, 없어저요.}

10226 # 업써지고. {없어지고.}

10226 # 시방: 인재 묘:거통거 이런 거또 시방 인재, 우리나라가 인재 땅땡어리는 자근디 차꾸 묘만 느러나가머는 이게 인재. {지금 이제 묘같은 것도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땅땡어리는 작은데, 자꾸 묘만 늘어나가면 이게 이제.}

10226 @ 예. {예.}

10226 # 사니 땅 땡땡어리가 인재 묘만 생기고, 땅땡어리가 조바진다고 그르케구서 납꼴당

얼 정부서 인재, 권장얼 하자나요.: 권장을 하느디. {산에 땅 땅덩어리가 이제 묘만 생기고, 땅덩어리가 좁아진다고 그렇게 하고서 납골당을 정부에서 이제, 권장을 하잖아요. 권장을 하는데.}

10226 # 그런 양반드른 다 우리보다 대이니고 다 훌륭하신 (@ 허허허) 양반더리 다 이케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러케 소이니 내가 이런 소리하는 거슨 내가 아조 인재 옛날 구식도 가진따면 가진꼬, 내가 또 인재 아푸로 인재 우리나라가 어트게 된다는거 알기는 아증 내가 그걸 배우덜 모데서 내가 몰:라서 그렇가 그건 모르는데. {그런 양반들이 우리보다 대이니고 다 훌륭하신 (@ 허허허) 양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소인이 내가 이런 소리하는 것은 내가 아주 이제 옛날 구식도 가졌다면 가졌고, 내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 알기는 아직 내가 그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몰라서 그런가 그것은 모르는데.}

10226 # 나는 내 생가근 난 아직까지 납골땅거통건 안 아조 권장 아네요. {나는 내 생각은 아직까지 납골당같은 것은 안 아주 권장 안해요.}

10226 # 왜? {왜?}

10226 # 이 분묘도 묘도 이기요. {이 분묘도 묘도 이것이요.}

10226 # 뎜때 뎜때까지만 가지, 묘를 쓰면 오:래가면 이기 자연으로 다 도라가요, 이기. {뎜 대 뎜 대까지만 가지, 묘를 쓰면 오래가면 이것이 자연으로 다 돌아가요. 이것.}

10226 # 머 백때고 그 천대고 뎜때고 그 뎜을 머 자소니 팔:나 다 모시고 다: 별초하고 인 뜬 모더자자너요. {뎜 백 대고 그 천 대고 뎜 대고 그 묘를 뎜 자손이 항상 다 모시고 다 별초하고 있든 못하잖아요.}

10226 # 자에느로 도라가면 나중에는 이케 자연 인재 난난 땅덩어리가 뎜빠레. 이케 땅 거기따 또 머 곡씩또 해먹고 어떠케 어떠케 돼요. 여그 오:래 오래 오래 가면, 앙그러컨 능가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 이제 난난 땅덩어리가 돼버려. 이것이 땅 거기에다 또 뎜 곡식도 해먹고 어떻게 어떻게 돼요. 여기 오래 오래 오래 가면, 안 그렇겠는가요?}

10226 # 응? {응?}

10226 # 그러느디. 납골땅이라구 이거 이거 해노머는 이견뚜 사례미 자소니 뎜김서나 팔리 하야 되요. {그런데 납골당이라고 이것 이것 해노면 이것도 사람이 자손이 다니면서 관리해야 돼요.}

10226 # 팔리 아나고 내비두면 막, 소나무 푸리 마:~이 이케 우거져 그 사람 드리가도 모 데요? 앙그러가요? {관리 안하고 내버려 두면 막, 소나무 풀이 많이 우거져 그 사람 들어가도 못 해요? 안 그런가요?}

10226 # 납골땅에다 하머는 일너니 성묘도 인재 성묘도 가고, 뎜질'때르 성미도 가고, 또 저 납골당 주버네는 풀도 까끄로 다 가야 되야. 머 납골땅 헐다고 해서머, 자손드리 머 여, 안가고 머 이: 이 더 아내요, 앙그래요? 가는 거는 나는 그래요. {납골당에다 하면 일년에 성묘도 이제 성묘도 가고, 뎜질때로 성묘도 가고, 또 저 납골당 주변에는 풀도 깎으러 다 가야 돼. 뎜 납골당 헐다고 해서 뎜, 자손들이 뎜 여, 안가고 뎜 이 이 더 앓해요, 앙그래요? 가는 것은 나는 그래요.}

10226 # 분묘를 서도 가능건 마찬가지로다 그거여, 마찬가지로. {분묘를 써도 가는 것은 마찬가지로다 그거여, 마찬가지로.}

10226 # 납골땅 해도 가고, 분묘도 아너고, 단지 납골땅이라고 아나면 인재. {납골당 해도

가고, 분묘도 안하고, 단지 납골당이라고 안하면 인제.}

10226 # 이제 여러, 묘를 이제 여러군데 머 할머니 하라버지 거기 할머니 한테다 그냥 이
르케 이제 한티다 모인다 단지 그거지: 단지 그거지. {이제 여러 묘를 이제 여러군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할머니한테다 그냥 이렇게 이제 한테다 모인다 단지 그것
이 단지 그것이지.}

10226 # 머: 납골당한다고해서 안가고 나는 그러타고 안생각해요. {뭐 납골당한다고 해서
안가고 나는 그렇다고 안 생각해요.}

10226 # 나는 시방 이제 아푸로 나 죽구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아덜네미 어떠케 할랑가 몰라
도.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 죽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아들놈이 어떻게 할라는가 몰
라도.}

10226 # 게 나도 시방 인제 내가 이제 다 가종이야기만 해서 이거 되능가요? {그래 나도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다 가족 이야기만 해서 이것 되능가요?}

10226 @ 아니 무슨 말쓰믄요, 예. {아니 무슨 말씀올요. 예.}

10226 @ 아니요 이런얘기 드를라고 왓썬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왔어요.}

10226 # 예. {예.}

<묘자리 잡기>

10220 # 그래서 여그 나도 인제 시방 치표 나 주구먼 드러갈떠릴 ... {그래서 여기 나도 이
제 지금 치표 나 죽으면 들어갈 데를 ...}

10220 @ 해노썬썬요? {해놓으셨어요?}

10220 # 애타. {예.}

10220 @ 가까운데 허시지 그러썬썬요. {가까운데 하시지 그러셨어요.}

10220 # 가깐 디여 머 까까이여 질도 조코 가깐디여 머, (@ 허허허) 내가 인제. {가까운
데요, 뭐 까까이여 길도 좋고, 가까운 데여 뭐, (@ 허허허) 내가 이제.}

10220 # 양지 발튼디. {양지바른 데.}

10220 # 내가 왜 그거설 인제, 치표릴 미리 해논냐머는, 시방 우리 다 아덜네 객지가 살고
그파게 사라미랑건 모르거등요. {내가 왜 그것을 이제, 치표를 미리 해놓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다 아덜네 객지가 살고 급하게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거등요.}

10220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20 # 응. {응.}

10220 # 인자 그파게 이케 주구머언: 우리더리 인제 나이가 먹꼬 인제 그렇거 거트면 인제
배우고 이래썬개 그도 대략 그저 머, 시방 머, 으, 묘는 머 그냥 엔날 마리지만 명당
은 다 찬떨 모대요. 찬떨 모대야. 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죽으면, 우리들이 이제 나
이가 먹고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배우고 이랬으니까 그것도 대략 그저 뭐 지금
뭐 묘는 뭐 그냥 옛날 말이지만 명당은 다 찾들 못해요. 찾지를 못해요. 어.}

10220 # 어디가 조은 명당이 썬보라고 엔날 마냥 엔날 어르신네 마냥 마리어 머 주령 찬
꼬 어티개 어티개 머이 묘가 어디 잘 잘 썬이고 어 어티개 그케 헐는지 ... {어디가
좋은 명당이 썬보라고 옛날 같이 옛날 어르신네 같이 말이야, 뭐 주령 찾고 어떻게
똥이 묘가 어디 잘 잘 썬이고 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

10220 # 그런데다 쓰면 자시기 잘되고 머 부재가 되고 이렇길 엔날 풍수되게 되머는 다:

그러케 해가꾸서 텀뽀뽀짜나요? {그런 데다 쓰면 자식이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것 옛날 풍수되게 되면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텀뽀뽀짜나요?}

10220 # 그런데 그러케 갈때는 시방 하나 업, 그러케 갈마넌 데는 다: 메가 묘가 다: 드러 갈썬요. {그런데 그렇게 갈 데는 지금 하나 없, 그렇게 갈만한 데는 다 묘가 묘가 다 들어갔어요.}

10220 # 아:무리 시방 엔날 어른드른 산날방에 세:상 노푸거나 그러겄 안가릴썬요. {아무리 지금 옛날 어른들은 산날망에 세상 높으거나 그런 것을 안 가렸어요.}

10220 # 노풍거 그러겄 안가리고. {높은 것 그런 것을 안 가리고.}

10220 # 엔날 그 풍수라고 인재, 그양반들 데리구 땡김서 하튼 자리만 조타면 그냥, 다: 노푼디다 다: 썬꺼등요. {옛날 그 풍수라고 이제, 그 양반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여튼 자리만 좋다고 하면 그냥 다 높은 데다 다 썬꺼등요.}

10220 # 그랜는다. {그랬는데.}

10220 # 그게: 인재: {그것이 이제.}

10220 # 나는 다 거저 머 묘짜리 잘쓰고 머 거시가고 게서 자시기 잘되고 먼 자시기 부자되고 나인 ... {나는 다 그 저 뭐 묘자리 잘 쓰고 뭐 거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뭇 자식이 부자되고 나 이 ...}

10220 # 나는 이게 이런 얘기럴 하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잖만 내가 배우, 저 사람 저 배우도 모대가꾸 머 (@ 어이 무슨 말쓰를) 무시개서 저런 소리한다고 이런 소리하까져퍼서, 내 선생님 인드레는 참 자 (@ 아이) 여기, 참 인재 허물업씨 내가 이르케 이야기를 하는디. {나는 이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까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배우, 저 사람 제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뭐 (@ 아이 무슨 말쓰를) 무시개서 저런 소리한다고 이런 소리할까 싶어서, 내 선생님 있는 데는 참 자 (@ 아이) 여기, 참 이제 허물없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디.}

10220 # 또 그러자느면 내가 잘 그런 소리를 아내요. {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 그런 소리를 안해요.}

10220 # 그런 소리허면 내가 마니 배우고 이래서 시방 내가 그런 소리를 허면 ... {그런 소리하면 내가 많이 배우고 이래서 시방 내가 그런 소리를 하면 ...}

10220 # 아: 사라미 그만치 그 지시기 인썬께로 저런 얘기하능갑따 참 구시카니 아랴짜마넌. {아 사람이 그만큼 그 지식이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보다, 참 구식하게 알았지마는.}

10220 # 아무겄또 모른 사라미 그런 얘기허면, 저 사람 무시개서 아무겄또 모르고 배우 몬 빼왈썬께 저러케 무시카게 저러한 소리르 한다.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무시개서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 못 배웠으니까 저렇게 무시카게 저러한 소리를 한다.}

10220 # 게 틀림업씨 이런 얘기를 한단 마리오. {그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어요.}

10220 # 그래서나 아 인재 아들네 인는디는 늘 이야기는, 녀 떠디 가서는 내 그런 얘기를 안하는디. {그래서나 아 이제 아들네 있는 데는 늘 이야기는, 녀 떠 데 가서는 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디.}

10220 # 나는 다: 그런거 다 난 허사라고 생가개요. {나는 다 그런것 다 난 허사라고 생각

해요.}

10220 # 허사라고 생각해기는 해도, 그래도 우선 인재, 자바돌쩌게는 사래미. {허사라고 생각해기는 해도, 그래도 우선 이제, 잡아놓을 적에는 사람이.}

10220 # 그 물주면 안나고 물안나고, 인재. {그 물 주면 안 나고, 물 안 나고, 이제.}

10220 # 방향 (@ 그거 피로허싱거 가태요.) 인재 이? {방향 (@ 그것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10220 # 양지발르고, 다냥하니 인재 고론디 고론디는 그냥 누구든지 쓰구시푸면 살 수 인 짜나요? {양지바르고, 당양하니 이제 그런 데 그런 데는 그냥 누구든지 쓰고 싶으면 살 수 있잖아요?}

10220 # 그래서 인재. {그래서 이제.}

10220 # 참 아까도 이야기 했찌만 참, 나라도 인자 그파게 주구머는 이거뜰 우찌 뭐가 뭐가 워트 워트가튼 메 쓸찌도 몰라. {참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참, 나라도 이제 급하게 죽으면 이것들 어찌 뭐가 뭐가 어떻게 하든 묘 쓸지도 몰라.}

10220 @ 그러드라니까요. {그러더라니까요.}

10220 # 으, 그러타고 머 머 웅그동 응구동. {으 그렇다고 뭐 웅구동 응구동.}

10220 # 머 무리 찌는가 어찌 그러거또 모르고 몰라. 그래서나. {뭐 물이 끼는가 어떤가 그런 것도 모르고 몰라. 그래서.}

10220 # 엔날: 으른들버틈요. {옛날 어른들브터요.}

10220 # 엔날부터 가마이 보머는, 게 때가 되머는 갈 가실 때가 되머는 자기 자리 자기가 자바서 드러간다고 엔날 으른도 그러켄썌요. {옛날부터 가만히 보머는, 그 때가 되머는 자기 자리 자기가 잡아서 들어간다고 옛날 어른도 그렇게 했어요.}

10220 # 게 내가 전버틈 인재. {그 내가 전부터 이제.}

10220 # 사래미 참 어티개 그파게 어터갈랑가도 모른디. {사람이 참 어떻게 급하게 어떻게 할랑가도 모른데.}

10220 # 그파그 주그먼 저건뜰 멘짜리 어파 쓸쫘도 몰루고 그래 내가 자리 자바놔타 시퍼서 내가 ... {급하게 죽으면 저것들 묘자리 어디다 쓸 줄도 모르고, 그래 내가 자리 잡아놓았다 싶어서 내가...}

10220 @ 저히 아번님도 어르신보다 다설썰 위시그든요. {저히 아번님도 어르신보다 다섯 살 위시거든요.}

10220 # 애. {예.}

10220 @ 근데 이르네 도라가썌썌요. {그런데 이른에 돌아가셨어요.}

10220 # 애. {예.}

10220 @ 그런데 그 냥반도 다망 다망에 산 꼭대기다 자바놔썌요. {그런데 그 양반도 담양 담양에 산 꼭대기에다 잡아놓았어요.}

10220 # 애:. {예.}

10220 @ 당시니 그 ... {당신이 그 ...}

10220 # 자리 조타고 현 자리요? {자리 좋다고 하는 자리요?}

10220 @ 아까 말씀허셴명걸처럼 그 뭐야 어떤 풍수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야 어떤 풍수 ...}

10220 @ 그래가지고 잘 써놔는데. {그래가지고 잘 써놓았는데.}

10220 @ 그때는: 별썌 한 시보년 십사 시보년 전만 해도 거기다가 모실썌 일썌썌요. {그

때는 벌써 한 십오년 십사 십오년 전만 해도 거기다가 모실 수 있었어요.}

10220 @ 그 아페 동네가 인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이르게 이르게 어떻게 해가지고 원래 동네 아프로는 진송장 못간다고 그러자나요? {그 앞에 동네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원래 동네 앞으로는 진송장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10220 # 애애. {예.}

10220 @ 어티게 해가지고 인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10220 @ 이르 이르 이르게 생긴 까그막. {이르 이르 이렇게 생긴 가풀막.}

10220 # 애. {예.}

10220 @ 올라가가지고 모션는데. {올라가가지고 모셨는데.}

10220 @ 어머니도 그 밋에다 자바노썰썰요. 아버님 자바노신 그 밋에다. {어머니도 그 밋에다 잡아놓으셨어요. 아버님 잡아놓으신 그 밋에다.}

10220 @ 산 산 말랭이에요. {산 산마루예요.}

10220 # 애. {예.}

10220 @ 그러니까, 이마난 돌드리 인썸가지고, 이게 잔디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잔디가 안 자라요.}

10220 @ 꼭대기는 그러드만요. 이러케 생긴 꼭대기는. {꼭대기는 그러드만요. 이렇게 생긴 꼭대기는.}

10220 @ 하여간 팔리허기가 참: 힘드려요. 근데 사네 올라가기도 힘들고 ... {하여간 관리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

10220 @ 그래서 인자 어머니는 그리 몸모실껀가테.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리 못 모실 것같아.}

10220 # 아:이 먼. {아이 뵈.}

10220 @ 근데 참 고마운 거슨 ...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10220 # 가 가찬데, 가찬디. {가 가까운데, 가까운데.}

10220 @ 그 꼭대기라도. {그 꼭대기라도.}

10220 # 애:. {예.}

10220 @ 딱 자바노시니까. 자바서 아예 석판까지 다 너노썰꺼는요. {딱 잡아놓으시니까. 잡아서 아예 석판까지 다 넣어놓으셨거든요.}

10220 # 으. {응.}

10220 @ 그러니까 편하기는 하드라구요. {그러니까 편하기는 하드라구요.}

10220 # 애. {예.}

10220 @ 가서 봉분만 열고, 그대로 너면 되니, 모시면 되니까. {가서 봉분만 열고, 그대로 넣으면 되니, 모시면 되니까.}

10220 @ 그랜는데 하:이구. {그랬는데 아이구.}

10220 # 아번님 산소가 지금 거기에 일따곤? {아버님 산소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10220 @ 다망에. {담양에.}

10220 # 아니 그 자리 자바논데? {아니 그 자리 잡아놓은데?}

10220 @ 예. {예.}

10220 @ 자버논 그 ... {잡아놓은 그 ...}

10220 # 아번님 산지가 인썸냐? {아버님 산지가 있잖아요?}

10220 # 그러면 도시에 거기 가시기는 가세야전네. {그러면 받드시 거기 가시기는 가셔야

겠네.}

10220 @ 가야죠 머. {가야죠 뭐.}

10220 # 그카면 머 도시 갈꺼거트면 어떤님 산소도 어머니도 거기다 모시도 무방하건네.(@ 한테 어머니를) {그렇다면 뭐 받드시 갈 것같으면 어머님 산소도 어머니도 거기다 모셔도 무방하겠네.. @ 한테 어머니를)}

10220 @ 글썸 거그를 거기를 그냥 지금 그 그리 모시고 갈쑤가 업쓸건가테. {글썸 거기를 거기를 그냥 지금 그리 모시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220 # 암모시고 가도 되제. {안 모시고 가도 되지.}

10220 @ 차라리 나중에 인제 이런데다 모쨌따가. {차라리 나중에 이제 이런데다 모셨다가.}

10220 # 애. {예.}

10220 @ 나중에 이장을 하든지 어쩌케 해야 될랑가.{나중에 이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랑가.}

10220 @ 어머니는 지금 어르신보다 한 살 위시그든요. {어머니는 지금 어르신보다 한 살 위시거든요.}

10220 # 예. {예.}

10220 # 오래 사셌꼬만. {오래 사셨그만.}

10220 # 게 나도 인제 저다 시방, 자리릴 자반는디. {게 나도 이제 저기다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10220 # 시방 저: 인제. {지금 저 이제.}

10220 # 유기오 참전, 유기오 참전자는 임실 임실따 시방 인제 거시기를 자리를 (@ 잘해날제) 잘해날썌요. 시방. {육이오 참전, 육이오 참전자는 임실 임실에다 지금 이제 거시기를 자리를 (@ 잘 해놓았지) 잘 해놓았어요. 지금.}

10220 # 거기따 인자 거기 가면 다 정부서 인자 팔리해주고 그라자냐요? {거기에다 이제 거기 가면 다 정부에서 이제 관리해주고 그렇잖아요.>}

10220 # 게 내가 그때 언제 한번 크나들보고, 야 어떠카꺼나? 저 임실 시방 유기오 참전자들 그 시방 정보에서 인자 거기도 국립묘: 그 거시개때 인제 국립묘지로 뵈때야. {게 내가 그때 언제 한번 큰아들 보고, 야 어떻게 할 거냐? 저 임실 지금 육이오 참전자들 그 지금 정부에서 이제 거기도 국립묘 그 거시기했대 이제 국립묘지로 뵈대.}

10220 @ 국립묘지. {국립묘지.}

10220 # 어 거기로 거리 가머는 느그들 다: 안귀찬코 느그들 흑씨 부무 생미나 오게되면 거기나 오고 그러면 되는데. {으 거기로 그리 가면 너희들 다 안 귀찮고 너희들 흑씨 부모 성묘나 오게 되면 거기나 오고 그러면 되는데.}

10220 # 나도 시방 확시라니 그거 시방 영, 저기다 자리릴 밥 잡끼는 자바반는디 결정을 시방 안지윰썌요. {나도 지금 확실하게 그것 지금 영, 저기다 자리를 잡기는 잡아놓았는데 결정을 지금 안지윰어요.}

10220 # 그래 워떠카능가 불라고. {그래 어떻게 하는가 불라고.}

10220 # 워터카면 조컨냐? {어떻게하면 좋겠냐?}

10220 # 저:리 저: {저리 저.}

10220 # 임실 그리 그리 각 그리 가꼬나: 여그다 놓개 나. {임실 그리 그리 갈 그리 갈거나 여기다 놓은게 나.}

10220 # 하는 마리 그랴, 아 고향 인쑹개 고향 땅이서 ...{하는 말이 그랴, 아 고향 있으니
 까 고향 땅에서 ...}

10220 @ 고향이 ... {고향이 ...}

10220 # 고향에서 무치능기 안조아요? 그랴. {고향에서 묻히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랴.}

10220 # 그랴 내가, 아 나는 느그들 떠나게 할라구랴 느그들. {그랴 내가, 아 나는 너희들
 편하게 하려고 그랴 너희들.}

10220 @ 허허허. {허허허.}

10220 # 시방인개 그런치 느그덜 아 느이 실췌이 그러코, 시방 인재 머 머 질조코 아조 가
 차워요. 여 아조. {지금이니까 그렇지 너희들 아 너희 실췌이 그렇고, 지금 이제 뭐
 길 좋고 아주 가까워요. 이 아주.}

10220 # 차만 차 차 차대노면 한 머 이십미터나 되능가 이리요. {차만 차 차 차대놓면 한
 뭐 이십미터나 되는가 이래요.}

10220 @ 으. {응.}

10220 # 그러케 자바날췌요. {그렇게 잡아놓았어요.}

10220 @ 그러면 뭐: {그러면 뭐.}

10220 # 차 그랴. {차 그랴.}

10220 # 포장 다 되고, 좋아요 요보다. {포장 다 되고, 좋아요 이보다.}

10220 # 그랴 내가. {그랴 나가.}

10220 # 야! {야!}

10220 # 너하고, 너대는 거시가지마는 네대 미티라도 내 손자 아니여. {너하고 네 대는 거
 시기하지만은 네 대 밑에라도 내 손자 아니여.}

10220 # 손자덜 나중에 느 느 거시가면 벌초하러 올껜... {손자들 나중에 느 느 거시기하면
 벌초하러 올 것...}

10220 # 하라버니 묘라고 머 벌초 머리끝 풀까끄로 올랑가 몰라? {할아버지 묘라고 뭐 벌
 초 머리끝 풀 깎으러 올랑가 몰라?}

10220 @ 그건 몰로지. 허허허허허. {그것은 모르지요. 하하하하.}

10220 # 내가. {내가.}

10220 @ 하하하. {하하하.}

10220 # 몰라, 그러까 몰라. {몰라 그럴까 몰라.}

10220 # 그랴, 나중에 묶는건보단 저리 가능케 안날껜냐? 근디. {그랴, 나중에 묶는 것 보
 다는 저리 가는 것이 안 낡겠느냐? 그런데.}

10220 # 이제 이게 하기는 머 주그먼 상파니 업는데:, 주그먼 상파니 업는다: {이제 이것
 이 하기는 뭐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10220 # 아무리 부무가 주거서 그 즉시 인재 그냥 갑따가 저 화장을 즉시 갑따 그러케 하
 른 줌 ... {아무리 부모가 죽어서 그 즉시 이제 그냥 갖다가 저 화장을 즉시 갖다 그
 령게 하면 줌 ...}

10220 # 몰라 인재 시방 사람들 모도 우리 우리도 아주 그개 보기가 지랄마자요. {몰라 이
 제 지금 사람들 모두 우리 우리도 아주 그것이 보기가 지랄맞아요.}

10220 # 보기가. 상관업는디 그기. {보기가. 상관없는데 그것이.}

10220 # 가기는 저리 가면 폐난 폐난디, 게 시방. {가기는 저리 가면 편안 편안한데, 그 지
 금.}

10220 # 바서 아조, 게 크나드란케 한번 인자 물러는 바 떠보지만 꺄똥은 안지윳썤요. {바서 아주, 그 큰아들한테 한번 이제 물어는 봐 떠보았지만 결정을 안 졌어요.}

1.3. 생업

1.3.1. 논농사

<벼농사 과정>

10302 @ 이 동네는 주로 인제, 농사 이애기썤 썤 해주세요. {이 동네는 주로 이제, 농사 이야기 썤 해주세요.}

10302 # 애. {예.}

10302 @ 여기는 논농사 반농사 대개 그러케 나뉘지지요잉? {여기는 논농사 밭농사 대개 그렇게 나뉘지지요 잉?}

10302 # 애, 반농사 논농사 그치요. {예, 밭농사 논농사 그렇지요.}

10302 @ 주로 논농사는 뭇 어떤 농사드를 지어요? {주로 논농사는 뭇 어떤 농사를 지어요?}

10302 # 논농사 벼농사지 머 점부. {논농사는 벼농사지 뭇 전부.}

10302 # 벼농사고. {벼농사고.}

10302 @ 그면. {그러면.}

10302 # 벼농산데. {벼농산데.}

10302 @ 논농사 반농사 논농사 지실때:. {논농사 밭농사 논농사 지실 때.}

10302 # 애. {예.}

10302 @ 주로 벼농사 지시 지시자나요잉? {주로 벼농사 지시 지시잖아요 잉?}

10302 # 애. {예.}

<벼의 종류>

10301 @ 그머는 벼 종류는 주로 어떤 겂뜨리 인썤요? {그러면 벼 종류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301 # 벼 종류는 뭇 여:러 가지요. {벼 종류는 뭇 여러 가지요.}

10301 # 벼가 각기 여러가지 종류여 게 머 시방 인제, 자꾸 또 싣품종이 나오고 그랜싸니 깨. 머 여그에 오래는 머 저:. {벼가 각기 여러가지 종류여, 그 뭇 지금 이제, 자꾸 또 싣품종이 나오고 그랜싸니까. 뭇 여기에 올해는 뭇 저.}

10301 # 뭇 차꾸 이르케 차꾸 난 생가갈라면 이자 금 금방 잘 잘알던 잘아능거 가터. {뭇 차꾸 이렇게 자꾸 나는 생각하려면 이제 금방 잘 잘 알던 잘 아는 것 같아.}

10301 # 동진, 동진 일호도 인꼬, 오래 동진 일호, 동진 일호를 마니 햅썤요. {동진, 동진 일호도 있고, 올해 동진 일호, 동진 일호를 많이 햅썤요.}

10301 # 동진 일오, 사모라능가 동진 사모도 인꼬, 일미베, 일미베도 인꼬, 남평베도 인꼬, 머 또 판 베도 인꼬, 여러가지 흥:해요. {동진 일호, 삼호라는가 동진 삼호도 있고, 일미베도 있고, 남평베도 있고, 뭐 또 판 베도 있고, 여러가지 흥해요.}

10301 @ 그런데 인자 그 그런 종륜디 베가 쪼금 빨리 나오고 ...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종류인데 베가 쪼금 빨리 나오고 ...}

10301 # 애. {예.}

10301 @ 머 느께 수화가고 이런건 이런거세 따르는 종류는 무슨 종류라구레. {뭐 늦게 수확하고 이런것 이런것에 따르는 종류는 무슨 종류라고 그래요.}

10301 # 오대저비 오대벼라구라데 인자 올되능거가꼬. {오대저며 오대벼라고 그러데 이제 올되는 것 가지고.}

10301 @ 아: 올되는 거슬 뭐라군다고? {아 올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10301 # 오대베. {오대벼.}

10301 @ 오대베, 느께 이른거슨? {오대벼, 늦게 이른 것은?}

10301 # 느께 비능건 늑똥 알고 그냥 저 머 진, 신 품종이니 머 일미베니 각각 그거 벼 이르미 일썌요. {늦게 베는 것은 늦든 알고 그냥 저 뭐 신 품종이니 뭐 일미벼니 각각 그 벼 이름이 있어요.}

10301 # 그렇거 벼 이름 인자 그라자나 인제 인꼬. {그런것 벼 이름 이제 그러잖아 이제 있고.}

10301 @ 그먼 엔나레 그 베가 저 빨리 베는 거슨? {그러면 옛날에 그 벼가 저 빨리 베는 것은?}

10301 @ 조생종, 만생종 이런마른 안썌요? {조생종, 만생종 이런 말은 안썌요?}

10301 # 예, 쓰지요. {예, 쓰지요.}

10301 # 엔나레는 만생종 조상베를 썌는데, 시방 그 잘 안쓰데요. {옛날에는 만생종 조생벼를 썌는데, 지금 그 잘 안 쓰데요.}

10301 # 조생종, 만생종은 썌썌요. 그저니는 다 그러케. {조생종, 만생종은 썌어요. 그전에는 다 그렇게.}

10301 @ 중생종도 인꼬? {중생종도 있고?}

10301 # 애. {예.}

10301 # 중생 중생종? {중생 중생종?}

10301 @ 애. {예.}

10301 # 몰라 중생종은 몰라. {몰라 중생종은 몰라.}

10301 @ 조생종은 쪼금 빨리 수화글 하는 거지요? {조생종은 쪼금 빨리 수확을 하는 것이지요?}

10301 # 예예. {예예.}

10301 @ 여기는 대개 추석 저네 수화글 마니 옛날부터 했나요? {여기는 대개 추석 전에 수확을 많이 옛날부터 했나요?}

10301 # 아니요 여기는 느나라글 해요. 느께 되는거. {아니요 여기는 늦나락을 해요. 늦게 되는 것.}

10301 @ 왜 그래요? 느나라글 하는 이유가 따로 일썌요? {왜 그래요? 늦나락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10301 # 여가 인자 저: 시방 저 안성이요? {여기가 이제 저 지금 저 안성이요?}

10301 @ 예. {예.}

10301 # 여그 저 전주서 오는 데 안성. {여기 저 전주에서 오는 데 안성.}

10301 @ 예. {예.}

10301 # 인자 무주군 안성며니자나요? {이제 무주군 안성면이잖아요?}

10301 @ 예. {예.}

10301 # 거가 지역이 기영기 높짜나요. {거기가 지역이 지형이 높잖아요.}

10301 @ 애. {예.}

10301 # 건 지영이 높꼬. {거기는 지형이 높고.}

10301 # 가튼 구나라도 여기는 지에기 나자서요. {같은 군이라도 여기는 지역이 낮아서요.}

10301 @ 아:. {아.}

10301 @ 안성보다 여가 나자요? {안성보다 여기가 낮아요?}

10301 # 아 마니 나찌요. 그래머. {아 많이 낮지요. 그래 뭐.}

10301 @ 지난서 보면 쪽: 올라오는 거 가튼 느끼미 드러서 저 저도 여가 지금. {진안에서 보면 쪽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저도 여기가 지금.}

10301 # 아: 지난도 여그보다 지에기 노파요. {아 진안도 여기보다 지역이 높아요.}

10301 @ 그래요? {그래요?}

10301 # 지난도 노파요. 애, 지낸도 높꼬. {진안도 높아요. 예 진안도 높고.}

10301 # 여가 지에기 나차와요. 그래서 여가 따수워요. 따시고서나. {여기가 지역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요. 따뜻해서나.}

10301 # 안성은 서리가 일찌기 오고. {안성은 서리가 일찍이 오고.}

10301 @ 예. {예.}

10301 # 서리가 일찌기 오고 거가 춥:요, 아조. 눈두 거가 아피 오고 마니 오고. {서리가 일찍이 오고 거기가 추어요, 아쥬. 눈도 거기가 앞에 오고 많이 오고.}

10301 # 게서 안성은 엔:날버툼 제: 올되는 거. {그래서 안성은 옛날부터 이제 올되는 것.}

10301 # 시방 거그 안성 사람들 오대 오대벼라고 다 그라데. 올된다고 오대벼라고. {지금 거기 안성 사람들 오대 오대벼라고 다 그라데. 올된다고 오대벼라고.}

10301 @ 으:. {으.}

10301 # 게서, 거기는 주로 시방 나락 다 이거쥬거여. 어지가니 뭐 이거. {그래서, 거기는 주로 지금 나락 다 익었을 거야. 어지간히 뭐 이것.}

10301 @ 올 때 보니까 그 금방은 지금 마니 별쥬요. {올 때 보니까 그 금방은 지금 많이 뻬어요.}

10301 # 예, 그럴끼요 암매. 빈디고 인꼬, 시방 어지가니 다 이거쥬게여, 암매 어지가니. {예, 그럴 것이요 아마. 벤 데도 있고, 지금 어지간히 다 익었을 거예요.}

10301 @ 예. {예.}

10301 # 거기는 주로, 첨부 이제 그 이제 올 된 노를 해요. {거기는 주로, 전부 이제 그 이제 올 된 놈을 해요.}

10301 # 그러고 여기는 보통 인제 엔날부툼 여기는 이제 워:짜다가 올 된 놈 올라간 사람 인꼬, 오대베.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제 옛날부터 여기는 이제 어찌다가 올 된 놈 올라간 사람 있고, 오대벼.}

10301 # 그라고 이자근 제 만생종을 마니 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만생종을 많이 해

요.}

10301 @ 여가 그러케 낚끄만요 잉? {여기가 그렇게 낚끄만요?}

10301 # 예, 나자요. 아주 나자요. 여가 아주 나자요. {예, 낮아요. 아주 낮아요. 여기가 아주 낮아요.}

10301 @ 전주서도 올라와가지고, {전주에서도 올라와가지고,}

10301 # 애. {예.}

10301 @ 올라와서 여기는 별로 지금 그대로 뽕드싱갑따 그래서 무주도 상랭이 노풍가보다 그러케 생가글 햐떠니. {올라와서 여기는 별로 지금 그대로 받드시인가보다 그래서 무주도 높은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10301 # 아니. {아니.}

10301 # 무주: 시방 무주굴래서는 시방 무풍면, 안성면, {무주 지금 무주군내에서는 지금 무풍면, 안성면,}

10301 @ 예. {예.}

10301 # 부남, 설천, 안성 게 게 ... {부남, 설천, 안성 그 그 ...}

10301 # 그런데, {그런데,}

10301 @ 예. {예.}

10301 # 무주구네서는 여기가 제일 나자요. 지대가요. {무주군에서는 여기가 제일 낮아요. 지대가요.}

10301 # 여가 질 나자요. 여가. {여기가 제일 낮아요. 여기가.}

10301 # 판디 다 노파요. {판 데 다 높아요.}

10301 # 그라구 시방 무주구네서도 마리오. 다: 판 디 판 면 판 며니서 다 네리와서 여그 와서 끝뎡이자나. 여기 우리 우리 우리 동네가. {그리고 지금 무주군에서도 말ियो. 다 판 데 판 면 판 면에서 다 내려와서 여기 와서 끝뎡이잖아요. 여기 우리 동네가.}

10301 # 무풍면 무풍 설천도 저: 저그 저그, 예 구천동 상뉴류자나 거가. {무풍면 무풍, 설천도 저 저기 예 구천동 상류잖아 거기가.}

10301 @ 예. {예.}

10301 # 구천 상뉴제. {구천 상류지.}

10301 # 시방 안성. {지금 안성.}

10301 @ 애. {예.}

10301 # 안성이 저 부남 부넙면 저리도 인재 여그여그 큰넙물. {안성이 저 부남 부넙면 저리도 여기여기 큰넙물.}

10301 @ 예. {예.}

10301 # 큰넙무리라고 인재 거, 거가 상뉴자냐. {큰넙물이라고 이제 거기가 상류잖아.}

10301 # 쟁기, 쟁기, 장수 거가 큰넙물 상뉴자냐. {장계, 장계, 장수 거기가 큰넙물 상류잖아.}

10301 @ 그러쵸. {그렇지요.}

10301 # 예, 거 다: 여기보다 다 높짜냐. {예, 그 다 여기보다 다 높잖아.}

10301 # 거그서 이캐 네레오는 거 이캐.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여 이렇게.}

10301 # 그래서 여기가 좀 따췌요. {그래서 여기가 좀 따뜻해요.}

10301 @ 그면 옛날에는 여 여기가 무리 조아서 여기는 계속 논농사를 마니 전전네요, 잉?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가 물이 좋아서 여기는 계속 논농사를 많이 지었겠네요, 잉?}

10301 # 어 그코 주로 논농사 했죠. {으 그렇고 주로 논농사 했지요.}

10301 @ 그 논 땅도 조꾸요 잉? {그 논 당도 좋고요 잉?}

10301 # 예. {예.}

10302 @ 그며는 그러케 논농사:를 할 때 논농사를 하는 과정을 ... {그러면 그렇게 논농사를 할 때 논농사를 하는 과정을 ...}

10302 # 예. {예.}

10302 @ 벼를 시면서 거둘때까지 ... {벼를 심어서 거둘 때까지 ...}

10302 # 애. {예.}

10302 @ 준비해서 그 허는 과정을 쪽: 조금만 설명좀 해줘보세요. {준비해서 그 하는 과정을 죽 조금만 설명 좀 해줘보세요.}

10302 # 엔나레 인자 헐 ... {옛날에 이제 헐 ...}

10302 @ 엔날곶하고, 엔날곶 한번 헐쓰면 요쯤꺼더고 얼마나 달라전는가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옛날 것하고 옛날 것 한번 했으면 요즘 것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10302 # 요즘 마:이 달라저썩개 엔날거하고 이 시방 ... {요즘 많이 달라졌으니까 옛날 것하고 이 지금 ...}

10302 @ 엔날에는 어뎡써 어르신 절무실 때는? {옛날에는 어뎡어요, 어르신 젊으실 때는?}

10302 # 엔나레요? {옛날에요?}

10302 # 엔나레 인제 보메, {옛날에 이제 봄에.}

<모내기 과정>

10303 # 봄 되머는 인재 모자리라고 ... {봄 되면 이제 못자리라고 ...}

10303 @ 예. {예.}

10303 # 모자리라고 인재, 전부 이제 지비서 그저니 소, 돼지 이제, 그 똥 거그다 인자 ... {못자리라고 이제, 전부 이제 집에서 그전에 소, 돼지 이제, 그 똥 거기다 이제 ...}

10303 # 엔나레 인자 보미요. {옛날에 이제 봄이요.}

10303 # 지비서 집:집마다 엔나레는 소 돼지를 다: 메긴짜나요. {집에서 집집마다 옛날에는 소 돼지를 다 먹였잖아요.}

10303 @ 예예. {예예.}

10303 # 집집마동 소 함마리 이제 돼지 함마리는 거진 다 메긴썩요. {집집마다 소 한 마리 이제 돼지 한 마리는 거의 다 먹였어요.}

10303 # 안 미긴디도 위:쩌다 암미긴집 이썩썩요. 어쩌다. {안 먹인 데도 어쩌다 안 먹인 집 있었어요. 어쩌다.}

10303 # 그람 인자 게으레 인제 거: 똥얼 똥 누면 거그다 풀 거름 한다고 인재 푸럴 가따 너가꼬 인자 그노멸 거르멸 처내 수부:가니 쟁에노채네 인재.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똥을 똥 누면 거기다 풀 거름한다고 이제 풀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늪을 거름을 처내 수북하게 쟁여놓잖아 이제.}

10303 @ 애. {예.}

10303 # 보미 인재 그놈 논바티로 인재 내가꼬. {봄에 이제 그 늪 논밭으로 이제 내가지

고.}

10303 # 거름 그놈덜 인재, 노느로 인재 내가지고, 내가지고 인재, 그저니는 인재 노를 이
개 소로 가란짜나요? {거름 그 놈을 이제, 논으로 이제 내가지고, 내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논을 이렇게 소로 갈았잖아요?}

10303 @ 애:. {예.}

10303 # 소로 가르면 이제 벽덩이 덩어리 덩어리가 커:게 너머가자나요. 왜? {소로 갈면
이제 벽덩이 덩어리 덩어리가 크게 넘어가잖아요. 왜?}

10303 # 너머가면 인재 사래미 엔나레 사래미 다 깰싸요. 게.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 옛날
에 사람이 다 깰어요. 그.}

10303 # 소시랑이라고 왜, 가정찌비 두발소시랑이라고, 게 이케 이케 이케 고 발 이케 발
두개 이르케 인능거 인시오. {쇠스랑이라고 왜, 가정집에 두발 쇠스랑이라고, 그 이러
게 이렇게 발 이렇게 발 두개 이렇게 있는 것 있어요.}

10303 # 그놈덜 갖고서 인재 짐:부 벽똥이를 깨요. {그 놈을 갖고서 이제 전부 벽똥이를
깨요.}

10303 # 벽똥이를 깨가지구 인재 거기다 인자 거름, 거름 인재 가뜰 피고서나 인자 소로
함번 가랴요. {벽똥이를 깨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거름, 거름 이제 가져다 퍼고
서나 이제 소로 한번 갈아요.}

10303 # 소로 함번 가 가라가꾸서 인재 가상으로 뽕: 인제 물모디기 논뚜렁이라고 물 몬나
가게 헐짜나요, 인재? {소로 한번 가 갈아가지고서 이제 가로 뽕 이제 물모두기 논두
렁이라고 물 못 나가게 했잖아요. 이제?}

10303 # 그게 논뚜렁 해가지고설랑 인재, 무를 자바 열차나요? {그렇게 논뚜렁 해가지고설
랑 이제, 물을 잡아넣잖아요?}

10303 # 물을 자바 넘, 자바 너구서는 인재. {물을 잡아 너면, 잡아넣고서는 이제.}

10303 # '쓰린다고, 쓰리질 알 알걸요? {써린다고, 써리질 알 알 걸요?}

10303 @ 애애애. {예예예.}

10303 # 써리질, 소로 가따가 인자 써리지를 해요. {써리질, 소로 갖다가 이제 써리질을 해
요.}

10303 # 게 써리질, 써리질 하문 인재, 흐기 확: 푸리지자너요? {그 써리질, 써리질 하면
이제, 흙이 확 풀어지잖아요?}

10303 # 확 푸리지면 인재, 산내키로 인자 가지고 와서 개탕이라고. {확 풀어지면 이제 새
끼로 이제 가지고 와서 개탕이라고.}

10303 # 게 이케 양쪼게다 요로케 이제, 저:찌게 이르케 주를 매노코, 개탕이라고 인재.
{그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이제, 저쪽에 이렇게 줄을 매놓고, 개탕이라고 이제.}

10303 # 이노물 처가꾸서 인재, 또랑이끼지 또랑이지 인재, 또랑얼 이르케 맨드란싸요. {이
놈을 처가지고 이제, 도랑이졌지 도랑이지 이제, 도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0303 # 그래가꾸서 인재, 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

10303 @ 사내끼를 왜 왜 가꾸가요? {새끼를 왜 왜 가지고 가요?}

10303 # 어? {어?}

10303 @ 산내끼는 왜 왜 가꾸가? {새끼는 왜 왜 가지고 가?}

10303 # 이 빠드다니 (@ 아 빠드다게? 요요로케) 빠드다게 칠라고 인재 산내끼를 처노코.
{이 반듯하니 (아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치려고 이제 새끼를 쳐놓고.}ㅈ

10303 # 산내키로 빠드다니 처노코, 인재, 양쫄그로 이러케 처노쿠 인재. {새끼로 반듯하게 처놓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처놓고 이제.}

10303 # 흐글 이르케 인재 그러가꼬 이케 (@ 올려요?) 올려, 등이로 올려. 그라고 인재. {흠을 이렇게 이제 굽어가지고 이렇게 (@ 올려요?) 올려, 등으로 올려. 그리고 이제.}

10303 # 고랑 맨들라고 그래. {고랑 만들려고 그래.}

10303 @ 예. {예.}

10303 # 고레가꾸서 인재 송판. {그레가지고서 이제 송판.}

10303 @ 예. {예.}

10303 # 송파니로 인재 번지, 그기 번지지리라고 해요. {송판으로 이제 번지, 그것이 번지 질이라고 해요.}

10303 @ 애:. {예.}

10303 # 송파니로 인재 발로 발뽀서 거러나감서 이케 착착착착착 해서 이케, 발뽀서 이케 뒤로 쪽: 쪽 미릉개 뽀드더자나요. {송판으로 이제 발로 밟으면서 걸어 나가면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뒤로 쪽: 미르니까 반듯하잖아요.}

10303 @ 애. {예.}

10303 # 이 뽀드더 뽀드다구 그래 그래노면 인재. {이 반듯해 반듯하고 그래 그래놓으면 이제.}

10303 # 썸나라기라고 인재 그 모자리 하기 저네. {범씨라고 이제 그 못자리하기 전에.}

10303 @ 예. {예.}

10303 # 모자리 하기 저네 한, 모자리 하기 한 이:시빌 저니 썸나라글 당과요. 지비다가. 당과노차나요. {못자리하기 전에 한, 못자리하기 한 이십일 전에 범씨를 담귀요. 집에 다가. 담귀놓잖아요.}

10303 # 당가놔따가 인재 고로케 모자릴 고로케 해가지고, {담귀놓았다가 이제 그렇게 못 자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10303 # 이제 물 대가지고 인재, 거다가따가 인재, 사례미 가따 썸나라 이케, 그걸보고 썸나라 친다구라지. {이제 물 대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갖다 범씨 이렇게, 그것을 보고 범씨 친다고 그러지.}

10303 # 썸나라 치로 간다구라제 인재, 뿌리능걸. {범씨 치로 간다고 그러지 이제, 뿌리는 것을.}

10303 # 뿌리가꼬, 그래서 인재, 모릴 키울찌게 그저네 비루가 업썰개:. {부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를 키울 적에 그전에 비료가 없으니까.}

10303 @ 예. {예.}

10303 # 저:. {저.}

10303 # 인분. {인분.}

10303 # 저: 인분 바든걸 엔나렌 웅기 장구니다 지다가 논바티다 뿌린짜나요. {저 인분 받은 것을 옛날에는 웅기 장군에다 지어다가 논밭에다 뿌렸잖아요.}

10303 @ 예. {예.}

10303 # 그놈도 가따 뿌리꼬, 인자 그러캐서. {그 놈도 갖다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0303 @ 그거슬 그 모자리다도 뿌려썰요? {그것을 그 못자리에도 뿌렸어요?}

10303 # 아: 뿌려썰요. 그럼. 모자리 뿌리면 조아요. {아 뿌렸지요. 그럼 못자리 뿌리면 좋

아요.}

10303 # 그거또 뿌리고 그러캬썌요. {그것도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10303 # 그라고. {그리고.}

10303 # 엔:날 엔:나레는 인자, 모자리라 그라우 인제, 양조게 이케 산내끼 가꼬 인제 이케 개 개탕이라고 한테 이케 산내끼를 친 치거등요. {옛날 옛날에는 이제 못자리라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새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끼를 치 쳤거든요.}

10303 # 근디 그:저니 엔나레, 엔나레는 산 산내끼를 안천썌요. {그런데 그전에 옛날에 옛날에는 새끼로 안 쳤어요.}

10303 # 산내끼를 안천는디, 일변놈들 나와가꾸서 일짱때, 일변놈드리 일 이른 올케 시키는 기여. {새끼로 안 쳤는데, 일본놈들이 나와가지고서 일짱 때, 일본놈들이 일 일을 옹게 시키는 것이야.}

10303 # 산내끼를 안치면 그 썌나라기 이케 어떠까면 똥똥 몰리 그지가는 수가 인썌요. 몰리댕기. {새끼를 안치면 그 뽕씨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똥똥 몰려 거시가하는 수가 있어요. 몰려 다녔어.}

10303 # 저 산내끼를 치머는 고 산내끼 때미네 개탕이라고, 또랑이로, 또랑이로 몬네레 몬네레오게 험다고 이제. {저 새끼를 치면 그 새끼 때문에 개탕이라고, 도랑으로, 도랑으로 못 내려 내려오게 한다고 이제.}

10303 # 그 사내끼로 천썌요. {그 새끼를 쳤어요.}

10303 @ 아:. {아.}

10303 # 그저니는 그 산내끼를 안치고 그냥 그냥 거시갠는데. {그전에는 그 새끼를 안치고 그냥 그냥 거시기했는데.}

10303 # 그래가꾸서 인제 거 인자 모 키워가꾸 인제, 모 키워가꾸 인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이제 모 키워가지고 이제, 모 키워가지고 이제.}

10303 # 엔나레 인제 노네다가 버:리를 다 가랴짜나요. 버:리. {옛날에 이제 논에다가 보리를 다 갈았잖아요. 보리.}

10303 @ 예. {예.}

10303 # 보리. {보리.}

10303 @ 애애. {예예.}

10303 # 보리를 가라서 인제. {보리를 갈아서 이제.}

10303 # 보리가 누:러니 익짜나요. {보리가 누렇게 익잖아요.}

10303 # 보리가 누러니 이그먼 이제, {보리가 누렇게 익으면 이제,}

10303 # 나시로 베가꼬, 나시로 베가꼬 지비로 이케, 다니로 무꺼가꾸서, 그노멸 이제 모싱 굴라고 인자 그 노멸 생버를 무꺼가꾸서 이 저. {낫으로 베가지고, 낫으로 베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단으로 묶어가지고서, 그 놈을 이제 모 심으려고 이제 그 놈을 생 것을 묶어가지고 이 저.}

10303 # 그저니 여그 지금 재너미라고 여기 저 사과밭 크자나요. {그전에 여기 지금 재너미라고 여기 저 사과밭 크잖아요.}

10303 @ 애:. {예.}

10303 # 거가 바시 업썌썌요. 거가 점부 갱버닐썌요. 갱번. {거기가 밭이 없었어요. 거기가 전부 갱번이었어요. 갱번.}

10303 @ 아:. {아.}

10303 # 거가 갱버닐꺼든요. {거기가 강변이었거든요.}

10303 # 거 점:부 이리 지넌썬요. 인재. 저버니 거기. {그 전부 이리 지어냈어요. 이제 저
번에 거기.}

10303 # 지개로, 지개로 다 지내요. 거 지내고서 인재. {지개로 지개로 다 지어내요. 그 지
어내고서 이제.}

10303 # 왜 그걸 지내냐면, 그럼 그럼 말르드락 거그다 인재 말리가꼬 거시갈라면 모가 늘
짜냐. {왜 그것을 지내냐면, 그럼 그럼 마르도록 거기다 이제 말려가지고 거시기하려
면 모가 늦잖아.}

10303 # 모가 느징개로나, 깡벼느로 지내서 갱버니다 다 널고, 인재 그 노닐 그 엔나레 인
재 버리논 버리 베넌짜녀요. {모가 늦으니까, 강변으로 지어내서 강변에다 다 널고,
이제 그 논을 그 옛날에 이제 보리논 보리 베넌잖아요.}

10303 @ 예. {예.}

10303 # 버리 비넌 거기다가 인재 퇴비, 퇴비를 내가꼬 가따 퇴비 뿌리고, 바닥푸리라고
엔나레 사니서 비다가 인자. {보리 베넌 거기에다가 이제 퇴비, 퇴비를 내가지고 갖
다 퇴비 뿌리고, 바닥 풀이라고 옛날에 산에서 베다가 이제.}

10303 @ 예:, 아까 말씀하 ... {예, 아까 말씀하 ...}

10303 # 봄 봄 보미 인재 푸릴 가따가 인자 노니다 이르캐 모티케 놔요. {봄 봄 봄에 이제
풀을 갖다가 이제 논에다 이렇게 모아놔요.}

10303 # 족: 모티키 놔. {족 모아놔.}

10303 # 버리 그놈 비내고, 거름 그놈 막 피고, 풀 그놈 이제 막 피재냐. {보리 그 놈 베내
고, 거름 그 놈 막 피고, 풀 그 놈 이제 막 피잖아.}

10303 @ 그 푸리 안 다: 안 썬건는데도? {그 풀이 안 다 안 썬었는데도?}

10303 # 으? {응?}

10303 @ 푸리 다: 안썬거도? {풀이 다 안 썬어도?}

10303 # 아: 안썬썬 안썬지, 그냥 인썬 인재 이러캐. {아 안 썬지 안 썬지, 그냥 있지 이제
이렇게.}

10303 # 그 안썬꼬 그냥 빼썬 말라가꼬, 웅:아니 인썬요. {그 안 썬고 그냥 바삭 말라가지
고, 웅하니 있어요.}

10303 # 그래 그노멸 소로 가라. {그래 그 놈을 소로 갈아.}

10303 # 그래 저 그노멸 소로 가르면, 푸리 인재 웨로 인재, 땅쏘그로 다 안드러간 놈 인
꼬, 웨로 이캐 나온 놈 인짜나요. {그래 저 그 놈을 소로 갈으면, 풀이 이제 위로 이
제, 땅속으로 다 안 들어간 놈도 있고, 위로 이렇게 나온 놈 있잖아요.}

10303 @ 애애. {예예.}

10303 # 그람 무를 자바 너코, 무를 자버 너코, 발로 밭아서 대강 쭈시너. {그러면 물을 잡
아넣고, 물을 잡어 넣고, 발로 밭아서 대강 쭈셔넣어.}

10303 @ 어:. {어.}

10303 # 발반 쭈시 너코. 인재 그라고 인재 썬리지 인재. {밟아서 쭈셔 넣고. 이제 그리고
이제 썬리지 이제.}

10303 # 썬리가꼬서나, 게 인재. {썬러가지고서나, 그 이제.}

10303 # 엔나렌 모싱굴썬게 모썬다고 구라제, 모 뽕넌걸. 모썬다구래요. {옛날에는 모 심을

적에 모 찢다고 그러제, 모 뽑는 것을. 모 찢다고 그래요.}

10303 @ 애. {예.}

10303 # 인재 모싱굴 때 되면 인재 노별 마:니 어더요. 마:니 어더가꾸서, 인재. {이제 모 심을 때 되면 이제 놈을 많이 얻어요. 많이 얻어가지고서, 이제.}

10303 # 모릴 점:부 뽀바가꾸서나, 지비루 인재. {모를 전부 뽑아가지고서나, 쥘으로 이제.}

10303 # 게 요만:치씩 인재 게 무꺼요. {그 이만하게 이제 그 묶어요.}

10303 # 무꺼가꾸서나 인재. {묶어가지고서나 이제.}

10303 # 그녀를 인재 지개다 또 질머지다가, 그 윈 노네다 이제 퍼지, 사방이. {그 놈을 이제 지개에다 또 짹어져다가, 그 온 논에다 이제 퍼지, 사방에.}

10303 # 그거보고 모 베린다고 하는데, {그것보고 모 별른다고 하는데,}

10303 @ 모 베린다고요? {모 벼른다고요?}

10303 # 벨리, 벨른다고. 모 벨른다구랴. {별리, 별른다고, 모 별른다고 그래.}

10303 # 벨리가꾸서나 인재. {별러가지고서 이제.}

10303 # 줄대고 줄대고 인재, 놈 마:니 으더가꼬, 그르케 모릴 시면씨요. {줄 대고 줄 대고 이제, 놈 많이 얻어가지고, 그렇게 모를 심었어요.}

10303 @ 모를 가따 그개 그 이케 찡거슬 가따 농거슬 모벨른다고 그래요? {모를 갖다 그 이렇게 찢 것을 갖다 놓는 것을 모 별른다고 그래요?}

10303 # 애, 모 벨른다구래. {예, 모 별른다고 그래요.}

10303 @ 아:. {아.}

10303 # 모 벨른다구랴 공개. {모 별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10303 # 노니 인재 드문드문 사방이 이르케 여기저기 노야, 여기저기 노야 인자 사라미 시몽개 ... {논이 이제 드문드문 사방에 이렇게 여기저기 놓아야, 여기저기 놓아야 이제 사람이 심으니까 ...}

10303 @ 예. {예.}

10303 # 그러케 가따놔야 사라미 인재 예 싱구고 인재 죽: 이케 느려서나 주니까나, 고 뒤 가따놔야 인재, 고 주머그로 인재 빼서 싱구고, 또 빼서 싱구고, 차꾸 그라카자냐. 그리서. {그렇게 갖다 놓아야 사람이 이제 심고 이제 죽: 이렇게 늘어서 주니까, 그 뒤 갖다 놓아야 이제, 그 주먹으로 이제 빼서 심고, 또 빼서 심고, 차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303 # 그리 가따놔야 되자너. 그리캐서 엔나레 인재, 농사릴 진씨요. {그렇게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10303 # 농사 진는데 ... {농사 짓는데 ...}

10303 # 시방언: 시방언 그: {지금은 지금은 그}

10303 # 인재. {이제.}

10303 # 기계로 시몽개 모파니라고 이케 일짜너요. 모판. {기계로 심으니까 모판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모판.}

10303 # 거기다가 흑 다마가꼬, 시방언 기계루 인재 시방언 찢나락 이케 치는 거또 기계다가 이제 저 찢나라걸 다머가꼬, 주루루 흘리면 그냥 지대로 쳐지요 인재. {거기다가 흙 담아가지고, 지금은 기계로 이제 지금은 벼씨 이렇게 치는 것도 기계에다가 이제 그 벼씨를 담아가지고, 주루룩 흘리면 그냥 제대로 쳐져요. 이제.}

10303 @ 아:. {아.}

10303 # 지대로 처져. {제대로 처져.}

10303 # 지대로 치 인따가 인재, 모자리도 하 모자리라도 하기는 하지, 모자리를 하기, 하기는 해도 인자 그. {제대로 처졌다가 이제, 못자리도 하 못자리도 하기는 하지, 못자리를 하기 하기는 해도 이제, 그.}

1.6. 주거 생활

1.6.1. 집짓기

<들여가기>

10601 # 후회허드라니까요.{후회하더라니까요.}

10601 # 그때가서 인재 나이 마너머는 다 시방 인는 목사님도 배끼고, 교인들도 다 인재 전부다 배끼자나요. 절문사람덜 인재 드러서고 인재.{그때 가서 이제 나이 많으며는 다 지금 있는 목사님도 바뀌고, 교인들도 다 이제 전부 다 바뀌자나요. 젊은 사람들 이제 들어서고 이제.}

10601 # 시방 만난, 인는 양반들 그 사람들은 느껴끄지 가치 그래쓰면 외로면 그도 그도 틀리자너요.{지금 만난, 있는 양반들 그 사람들은 늦게까지 같이 그랬으면 외로우면 그것도 그거도 틀리잖아요.}

10601 # 그전부텀 시방부텀 가치 인쁜 사람들허고는. {그전부터 지금부터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는.}

10601 @ 근데 자식 문제는 아무리 자래도 그러케 그러고 그럴꼰 가테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10601 @ 연세가 좀 드시고 그래도. {연세가 좀 그시고 그래도.}

10601 @ 애들문제 애들보며는 시원찬고 그러지. {아이들 문제 아이들 보며는 시원찮고 그러지.}

10601 # 그료, 그리요. {그래요, 그래요.}

10601 @ 서울 살고인는 자제분 교수하고 계시는 그분도 봐도 시원찬치요? {서울 살고 있는 자제분, 교수하고 계시는 그분도 봐도 시원찮지요?}

10601 #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10601 # 시방도, 머 나는 몰빼우고, 저 마이 배웠써도, 사회 경허미나 사회 이렇거 이렇거 선 ... {지금도, 뭐 나는 못 배우고, 저는 많이 배웠어도, 사회 경험이나 사회 이런 것 이런 것은 ...}

10601 # 마이 머 내가 마니 좀 거시강거 가터요. {많이 뭐 내가 많이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10601 # 흐흐흐, 저는 저는 나보다 멘빼 날찌, 멘빼 날찌마넌. {흐흐흐, 저는 저는 나보다 몇 배 낱지, 몇 배 낱지만은.}

10601 # 허허허. {허허허.}

10601 # 어, 시방도 어떤때를 보며는 좀 안들고, 그런 생개기 드러가요. {어, 지금도 어떤 때를 보며는 좀 안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10601 # 그렇게, 나 그 생개게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생각해요.}

10601 # 이제 느그도 자식 키워보지마는, 부부는 늘거죽뜨락 자시기 오십쌀되나 육십쌀되나 항상 자식 사랑하는 마면 변치안코 만날 뭐가 어린아가꼬, 그런 마미 드능기 사시 령개비여. 사라미랑건. {이제 너희도 자식 키워보지마는, 부부는 늙어죽도록 자식이 오십살 되나 육십살 되나 항상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매일 뭐가 어린아이 같고, 그런 맘이 드는 것이 사실인가 봐요. 사람이란 것은.}

10601 @ 그런 말쓰를 차꼬 드르면 정말 그런가 하다가도 저도 어쩔때 보면, 저는 아버니 른 이르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십사년, {그런 말씀을 자주 들으면 정말 그런 가 하다가도 저도 어떨 때 보면, 저는 아버님은 칠십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십사년.}

10601 # 애. {예.}

10601 @ 장인어르니 살아계셔서 이룬들. {장인어른이 살아계셔서 이룬들.}

10601 # 어. {어.}

10601 @ 근데 가끔 이러케 먼 말쓰를 들어보면, {그런데 가끔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들어보 면,}

10601 @ 뭘 상이가통거 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모델뎡거를 어르니 생각하는 거시 저희보다 기퍼. {무엇을 상이 같은 것 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어른이 생각하는 것 이 저희보다 깊어.}

10601 # 어. {어.}

10601 # 으. {으.}

10601 @ 그러니까 어른드리 보기에는 아직도 나이 오십 오시비 너먼꼬 사회저그로 저정도 똥쓰며는 차므로 패차늘꼐 가튼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나이 오십 오십이 넘었고 사회적으로 저 정도 됐으면 참으로 팬참을 것 같은데.}

10601 # 허허허허. {허허허허.}

10601 # 금방도 내가, 내가 얘기 했찌마는, 아머 나보다 머, 멘, 나는 아무꼐도 몰빼윰찌 만, 저그들은 배울만치 배우고 뭐, 내가 뭐 저한테 배울께지 머, 내가 머 자싱 몬미들 꺼시업짜나요. {금방도 내가, 내가 이야기 했지마는, 아마 나보다 뭐, 몇, 나는 아무것 도 못 배웠지만, 저희들은 배울만큼 배우고 뭐, 내가 뭐 저희에게 배울 것이지 뭐, 내 가 뭐 자식 못 믿을 것이 없잖아요.}

10601 # 근데 ... {그런데 ...}

10601 # 땅건 거시거고. 사회 경험거통거 인자, 우리 사라나오는 그렇거시 인제, 그렇거나 쪼끔 그러자꼬 땅거야 머 몬미들 머 인다요. {다른 것은 거시기하고. 사회 경험 같은 거 인자, 우리 살아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나 조금 그렇지 않고 딴 것이야 뭐 못 믿을 뭐 있나요.}

10601 # 히히히. {히히히.}

10601 @ 오늘은 요. 집 진능거. 집 진능 거세 ... {오늘은 요. 집 짓는 것. 집 짓는 것에 ...}

10601 @ 들리건는디요. {들리겠는데요.}

10601 @ 오늘은 거, 집 진능거에 관한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은 그, 집 짓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세요.}

10601 # 애. {예.}

<집터잡기>

10601 @ 엔날레 그 지블 요 미테 손수 지썬파고 그랜나요? {옛날에 그 집을 이 밑에 손수 지으셨다고 그랬나요?}

10601 # 다 절썬요. {다 지었지요.}

10601 @ 그며는, 그때 그 경허물, 집, 그 질라고, (# 애.) @ 맨처메 분가준비할때부터, 그 다메, 산에 나무 나무해다가, 일년똥안 나무를 어떠케 말련꼬 ... {그러면, 그때 그 경허물, 집, 그 지으려고, (# 예.) 맨 처음에 분가 준비할 때부터, 그 다음에, 산에 나무 나무를 해다가, 일년 동안 나무를 어떻게 말렸고 ...}

10601 @ 그다메, 집터 터를 어테께 다드마꼬, 또 인자, 나머지 짐 니고 머, 벽 바르고, 그 건 어떠케 해꼬, 나중에 또 어떠케 집을 고쳐꼬 뭐, 이렇거까지, 쪽 그냥 기영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집터 터를 어떻게 다듬었고, 또 이제, 나머지 짐 이고 뭐, 벽 바르고, 그것은 어떻게 했고, 나중에 또 어떻게 집을 고쳤고 뭐, 이런 것까지, 쪽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10601 # 그거 이얘기할라머 시가니 마니 걸리젠네. {그것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10601 @ 팬차나요 오전내내 오저네 그 얘기만 듣썬요. 오늘. 허허허. {팬찮아요. 오전 내내 오전에 그 이야기만 듣썬요. 허허허.}

10601 # 지가 시물이곱쌀 머거서요. 이자 큰지비서나 분가를 할라고, 형님하고 인재 상이를 켜썬요. {제가 스물 일곱살 먹어서요. 이제 큰집에서 분가를 하려고, 형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10601 # 저에도, 아리끼도 내가 한번 그런마를 슬쩍 스치서 하는 거시가 인는다. {전에도, 아래께도 내가 한번 그런 말을 슬쩍 스쳐서 하는 것이 있는데.}

10601 # 그 집이 참, 저: 썬, 지엑 지대가 높꼬, 지비 행펜 엄는걸 자꼬 그걸 성니미 사줄라고 그래요. 그거때미. {그 집이 참 저 조금, 지역 지대가 높고, 집이 형편없는 것 자꾸 그것을 형님이 사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10601 # 아이고 나 양갈티여 성님, 뭇까야: 어떠케 거가 사라. {아이고 나 안 갈테야 형님. 뭇 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10601 # 게 두썬비나 돼서 내가, 참 인재: {그 두 집이나 돼서 내가, 참 이제.}

10601 # 내가 승이를 아내줘서 성님도 내가 증작 가 산단 사라미 마단디 어께케요. 그래서 게 거기를 양가꺼든요. 그래코 인재, {내가 승인을 안해줘서 형님도 내가 정작 가 산다는 사람이 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 거기를 안 갔거든요.}

10601 # 형님하고 그러면, 형니미 그러더만, 시방 여기 살던 이 집터요. 요 터를 인재, 제가 함번, 인재 넘 터라, 내가 함번 말해볼팅께 요 터를 그시개서 함번 해보자고. 그래 그럼 그러케 해보자고 그래서 안재. {형님하고 그러면, 형님이 그러더구만, 지금 여기 살던 이 집터요. 이 터를 이제, 제가 한 번, 이제 남의 터라, 내가 한 번 말하여 볼테니까 이 터를 거시기해서 한 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인재.}

10601 # 형니미 인재 이 집터를 인재: '살썰요. {형님이 이제 이 집터를 이제: 샀어요.}

10601 @ 얼마나 주썰썰요, 그럼? {얼마나 주셨어요, 그럼?}

10601 # 모르지요 인재 그때 뭐 얼마나 쥐똥가 몰라. {모르지요. 이제 그때 뭐 얼마나 주
었던가 몰라.}

10601 @ 메평이나? 엔나래. {몇 평이나? 옛날에?}

10601 # 요기 얼마 안돼요. 칠십두평빼기 안돼요. {여기 얼마 안돼요. 칠십두평밖에 안돼
요.}

<나무준비>

10602 # 그래코서 인재, 그제네는 인재 점부 머:, 나무덜, 지베 인재 머, 소 메기고, 인재,
나무해다가 인재, 밥 지어먹꼬, 이렇거슬 점부 사니서 나무덜 해다가 인재 부어게다
이러케 ??해노코 바 바벌 해먹짜나요. {그레가지고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전부 뭐:
나무를, 집에 이제 뭐, 소 먹이고, 이제, 나무 해다가 이제, 밥 지어 먹고, 이런 것을
전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부엌에다 이렇게 해놓고 바 밥을 해먹지 않아요.}

10602 # 개 형니면 인재 그 나무를 하고, 저는 인재 그냥 밤먹꼬, 그 나무만 집찔 나무만
인재 사니로 인재, 하루 비로딩긴썰요 인재. {그 형님은 이제 그 나무를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밥 먹고, 그 나무만 집 지을 나무만 이제 산으로 이제, 하루 베러 다녔어
요. 이제.}

10602 그래까꼬서나, 개도 가을일 해노코, 갈일 추수해노코요. 고해 겨으레, 하여튼 겨을내,
보자 이제 보:메, 그때 어지가니 ??박 느진보미 그제 어지가니 물만 헐썰요. {그레가
지고서 그래도 가을일 해놓고, 가을일 추수해놓고요. 그 해 겨을에, 하여튼 겨을 내,
보자 이제 봄에, 그때 어지간하게 막 늦은 봄이 그 때 어지간하게 물만 했어요.}

10602 @ 그러면, 원래 지블 지을 때 나무는? {그러면, 원래 집을 지을 때 나무는?}

10602 # 애. {예.}

10602 @ 겨으레 베능게 조아요? {겨을에 베는 것이 좋아요?}

10602 # 겨으레 베능게 조치요. 겨으레 인재. {겨을에 베는 것이 좋지요. 겨을에 이제.}

10602 @ 나무가 여름메 한참 커니라고 나무가 좀 ??무르자나야. {나무가 여름에 한참 크
느라고 나무가 좀 무르잖아요.}

10602 # 물러, (@ 예 {예}) 그라고 인재, 칠월썸 음력 칠월 썸되면 인재, 나무가 영 역***
야물제. {물러, (예) 그리고 이제, 칠월 썸 음력 칠월 썸 되면 이제, 나무가 영 역***
야물지.}

10602 # 파럴썸 되지머 ... {팔월 썸 되어서면 ...}

10602 @ 여름 지나고 가을 도라오면서부터는 여름기 시작하 ... {여름 지나고 가을 돌아오
면서부터는 여름기 시작하 ...}

10602 # 애, 여름기 시작하지요. {예, 여름기 시작하지요.}

10602 # 원또, 여름메 베도 돼요 되기는. 큰나무는 해넘는거 쪼끈거는 어뜨케 물론데, 큰나
무는 인재 좀 인재 오래 나이가 머거서 좀 단단하자나요. 그래서 여름메 베도 돼요.
여름메 베도 되는데. {??온전히 또, 여름에 베도 돼요 되기는. 큰 나무는 해 넘기는
것, 작은 것은 어떻게 물론데, 큰 나무는 이제 좀 이제 오래 나이가 먹어서 좀 단단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베도 돼요. 여름에 베도 되는데.}

10602 # 여리미는 농사뽕구때때 뭐 조깨 사네가서 나무 거시기 하고 그럴 절이 업썬요.
{여름에는 농사일 때문에 뭐 조금 산에 가서 나무 거시기 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10602 @ 그러쥬. {그렇지요.}

10602 # 애. 그럴 저리 없어요. {예, 그럴 겨를이 없어요.}

10602 # 그래서, 보메 한 음넉 사멸딸 ... {그래서, 봄에 한 음력 삼월달 ...}

10602 @ 사멸딸. {삼월딸}

10602 # 애. 음넉 사멸딸꺼지, {애, 음력 삼월 딸까지,}

10602 # 강가니 인재, 형님도 나무해노코 또 강가니 쪼끔씩 나무 하는 거설 거드러주고...
인재 해오고. (간간히 이제, 형님도 나무해 놓고 또 간단히 조금씩 나무하는 것을 거
들어 주고 ... 이제 해오고.)

10602 # 그래서, 음넉 사월 사멸딸꺼지 그 집 나무를 다 자 인재 산이서 비와 비다가 지비
다가 인재 {그래서, 음력 사월 삼월달까지 그 집 나무를 다 이제 산에서 베와 베다가
집에다가 이제}

10602 # 껌띠기, 나무껌띠기를 베끼자나요. 껌띠기 베끼가고, 한테다 이러케 수부가니 만날
쟁에날썬썬요. [껌떼기, 나무 껌떼기를 벗기잖아요 껌떼기 벗겨가기고, 한테가 이렇게
수북하게 매일 쟁여놓았었어요.]

10602 @ 잠깐만이요. 그며는, 나무를 혈때에, 기둥하는 나무까지 다 베오신거예요? [잠깐
만요. 그러면, 나무를 할 때에. 기둥하는 나무까지 다 베오신 것예요?]

10602 # 그러쥬. 점:부. 기둥, 이케 이러케 세우능게 기둥이자나요. 세우능게 기둥이고. 요:
리 요곤요, 보라고하 보. 요러케 인는 건. 보. [그렇지요. 전부. 기둥,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기둥이잖아요. 세우는 것이 기둥이고. 이러 이것은요, 보라고하고 보, 이
렇게 있는 것은. 보.]

10602 @ 여프로 가는 거요 이? [옆으로 가는 것이요 잉?]

10602 # 아니, 가운데 이거. 가운데 이건 보라고 하고, 가상 이 돌리는 거 이건 도리, 도리
도리라고 하고. [아니, 가운데 이거. 가운데 이것은 보라고 하고, 가에 이 돌리는 것
은 이것은 도리, 도리 도리라고 하고.]

10602 # 인재, 저 문 이러케 이러케 문 다는데 이러케 나무때기 양쪼게 세워야 되자나요
이러케, 이건 물설쥬. [이제, 저 문 이렇게 이렇게 문 다는데 이렇게 나무때기 양쪽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 문설쥬.]

10602 @ 이따가 인자, 그 그런거슨 이따 설명해 주시고, 나무껌쥬 베께서, 거기서부터요.
[있다가 이제, 그 그런것은 있다 설명해 주시고, 나무껌쥬 벗겨서, 거기서부터요.]

10602 # 애, 거기서. 큼. 게코 인재 음넉 사월따리요. [예, 거기서, 그렇고 음력 사월달에
요.]

10602 # 음넉 사월 초승이쥬. 애. 사월 초승에 인재, 어 저 집진는 저 목수 인짜나요. 대목
이라고도 하고 목수라고도 하고. 목썬님을 인재, 구해가꼬서나 인재, 지빌 지키 시자
깁썬요. [음력 사월 초승이쥬. 예, 사월 초승에 이제, 어 저 집 짓는 저 목수 있잖아
요. 대목이라고 하고 목수라고도 하고. 목수님을 이제, 구해가지고서나 이제, 집을 짓
키 시작했어요.]

10602 @ 그러면요. 그날 그해에 겨울, 가실부터 해가지고, 가을부터해서 쪽: 해서, 한 사오

개월동안 나무를 허션나 허셔가지고, 얼마나 말리싱거요 나무를? [그러면요. 그날 그 해 겨울, 가을부터 해가지고, 가을부터 해서 쪽 해서, 한 사오개월동안 나무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말리신 것이예요. 나무를?]

10602 # 나무를 그냥 몬말런쥬. 나무는 뭐: 가을버텨 베퍼나 거시개썰개는 아마 베퍼 몬말런쥬요. 뭐 한... [나무를 그냥 못 말렸지. 나무는 뭐 가을부터 베퍼 거시기했으니까 아마 별로 못 말렸어요. 뭐 한...]

10602 # 말링거슨 한 뭐 삼개워리나 여우대빠끼 몬말런쥬요. [말린 것은 한 뭐 한 삼개월이나 이정도밖에 못 말렸지요.]

10602 @ 그날 나무 베다가 그냥 그날 꺾질 베게서... [그날 나무 베다가 그냥 그날 꺾질 벗겨서...]

10602 # 베게서 이케 쟁에놔요. 수부가나깨 쟁이놔. [벗겨서 이렇게 쟁여놔요. 수북하게 쟁여놔.]

10602 # 그리고 인재, 사월 음력 사월 초승썰 인재 집썰라고 목썰니멀 에 거시기 구해가꼬 시자걸 켜쥬요. [그리고 이제, 사월 음력 사월 초승썰 이제 집 지을려고 목수님을 거시기 구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목수 초벵>

10602 # 목썰니미 침부 이거 다 이케 따듬 따드마서 거시기를 허자나요. 우리가 될 될빠라지는 해주고. [목수님이 전부 이것 다 다듬 다듬아서 거시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뒷뒷바라지는 해주고.]

10602 # 그래가꼬서, 세워가꼬. [그래가지고서, 세워가지고.]

10602 @ 그때, 그때 목수 인 인건비는 얼마씩이나 쥬쥬? [그때, 그때 목수 인 인건비는 얼마씩이나 쥬쥬요?]

10602 # 시방, 그때... 뭐 그거. [지금, 그때... 뭐 그것.]

10602 @ 일반사람들 인건비허고 비해서 어느정도? [일반 사람들 인건비하고 비해서 어느정도?]

10602 # 일반 한, 일반사라미 예를 드려서 만원 바들꺼거트면 목썰니면 한 삼만원 내지 사만원 이러케 바다요. 삼만 암케도 삼만원 가요. 세모건 가요 세목. 그러케 가요. [일반 한, 일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원 받을 것같으면 목수님은 한 삼만원 내지 사만원 이렇게 받아요. 삼만 아무렇게 해도 삼만원 가요. 세 뭇은 가요 세 뭇. 그렇게 가요.]

10602 @ 그 그 사라미 그 사라미 대모기라고 그래요? [그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목이라고 그래요?]

10602 # 애, 대목. [예, 대목.]

10602 @ 그먼 혼자, 그 사람 혼자 와요? 아니면 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혼자, 그 사람 혼자 와요? 아니면 댜 명을 데리고 와요?]

10602 # 인재: 그 집 파네서나 빨리 허라고 후딱하라면 될 거시기 하고, 그때 우리는 인재 한분: 만 그래쥬요. 한분만 거시기 하고. [이제, 그 집 판에서나 빨리 하려고 빨리 하려면 두엇 거시기하고, 그때 우리는 이제 한 분만 그랬어요. 한 분만 거시기 하고.]

<나무 다듬기>

- 10602 # 인제 뒤, 뒤서 우리가 목수말고 대강 벌목꺼통거 이렇걸 쳐주면 좀 쉬락꺼든요. 벌목꺼통거 이렇거션 인제 우리가 뒤서 인제 차꼬 인제 마니 해주고. [이제 뒤, 뒤에서 우리가 목수말고 대강 벌목같은 것 이런 것을 쳐주면 좀 쉽거든요. 벌목같은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꾸 이제 많이 해주고.]
- 10602 @ 벌모기란 마른 무슨 마리여? [벌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여?]
- 10602 @ 이게, 나무가요. 이게 둥구:러마니 이게, 나무가 동고루마니개 동고란 기둥이자나요. 켜 나무넌 사가로 사가그로, 사가그로 깎짜나요. [이게, 나무가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나무가 둥그스름하게 둥그란 기둥이잖아요. 큰 나무는 사각으로 사각으로, 사각으로 깎잖아요.]
- 10602 @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예.]
- 10602 # 어. 그러면 인제, 사가그로 깎는거 대강 인자, 외에 대강 거시기는 도치로 점부 갑따 빼전썰요. [으, 그러면 이제, 사각으로 깎는 것 대강 이제, 위에 대강 거시기는 도끼로 전부 갖다 빼졌어요.]
- 10602 # 그라구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인제 마무리가 곱게하능거 마무리만 인제 목쭈님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이제 마무리가 곱게 하는 것 마무리만 이제 목수님 하고.]
- 10602 @ 애:. [예.]
- 10602 # 벌, 벌모건 막 도치로 대강 후딱후딱 그러케 까까주면 머 겹나게 수랍썰: 그기 배수랍썰요. [벌, 벌목은 막 도끼로 대강 빨리빨리 그렇게 깎아주면 뭐 많이 수월하지 그것이 배 수월하지요.]
- 10602 @ 아아:. [아아.]
- 10602 # 그거보고... [그것보고...]
- 10602 @ 벌모기라고 그러는그만요? [벌목이라고 그러는구만요?]
- 10602 # 애:.[애.]
- 10602 @ 아:. [아.]
- 10602 # 건목, 건모기라구라지. [건목, 건목이라고 그러지.]
- 10602 @ 건모기라고? [건목이라고?]
- 10602 # 벌목이라구도 건목이라고도. 공개, 건모걸 우리가 인제 쳐주고, 목쭈니면 나중에 인제 마무리만 하고. [벌목이라고도 건목이라고도. 그러니까. 건목을 우리가 이제 쳐주고, 목수님을 나중에 이제 마무리만 하고.]
- 10602 # 그라고 이제 구녕 이러케 구녕씨 거통거 뚫짜나요? [그리고 이제 구녕 이렇게 구녕같은 것 뚫잖아요?]
- 10602 @ 애:. [예.]
- 10602 # 구녕또 인제 어디 어디에 뜯는다고 이러케, 딱 이러케 인제 거리놔요. 요로케 요로케 그러놔. [구녕도 이제 어디 어디에 뚫는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그러놓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놔.]
- 10602 # 그러면 인제, 구녕거트면 인제 목쭈니미 공개 그리노면 우리가 인제 구녕글 뜯꼬. [그러면 이제 구녕같으면 이제 목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놓으면 우릭 이제 구녕을 뚫고.]

10602 # 우리가 저, 뒤에서 이제 뒤편라지 하는 사라마 마날썬요 인재. 여러시 와서 그도 마날썬. [우리가 저, 뒤에서 이제 뒤편라지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여럿이 와서 그래도 많았어.]

10602 # 그러케 해가꼬 설랑은 목쭈니든 혼채 이랴썬썬요. [그렇게 해가지고설랑은 목수님은 혼자 일했어요.]

10602 # 그래가꼬서나, 집 세워가지고, 집 세워가지고 인재:. 예:. [그래가지고서는, 집 세워가지고, 집 세워가지고 이제, 예.]

10602 # 벽, 벼겅 인재 이캐. [벽, 벽을 이제 이렇게.]

<집터 잡기>

10602 @ 잠깐만요. 인자, 아페서부터. 그먼 그겅 세울 때, {애} 세울 때. [잠깐만요. 이제, 앞에서부터. 그러면 그것을 세울 때, (@ 예.) 세울 때.]

10601 @ 자, 먼저 땅은 어떠케 허세요? 땅? [자, 먼저 땅은 어떻게 하세요? 땅?]

10601 # 땅? [땅?]

10601 @ 땅 자리가통거, 집짜리가통거, 집터가통거 어떠케 잡으썬썬요? [땅 자리같은 것, 집자리같은 것, 집터같은 것 어떻게 잡으썬썬요?]

10601 # 집짜리는 인재, 예, 팽이 삼. [집짜리는 이제, 예, 팽이 삼.]

10601 @ 아니, 방향가튼 겅, 좌가튼 겅 안보썬썬요? [아니, 방향같은 것, 좌같은 것 안보썬썬요?]

10601 # 그때 봤썬썬요. [그때 봤썬썬요.]

10601 @ 거 누가 보썬썬썬요? [그 누가 보썬썬썬요?]

10601 # 저: 우리 시방 고종사추니라고, 저: 여그서 한 사키로: 떨어져서 인는 그 양바니 에 받는데... [저 우리 지금 고종사촌이라고, 저 여기서 한 사키로 떨어져서 있는 그 양반이 봤는데...]

10601 # 그 무신 좌등가 나 그거 이전뿌리고 몰라요. [그 무슨 좌든가 나 그것 잊어버리고 몰라요.]

10601 @ 그며는 그때 지블 지썬썬 때, 요고시 방향이... 저도 좌는 잘 모르니까, 동서남부 그로 본다면 어느 방향 지비에요? [그러면 그때 집을 지썬썬 때, 이것이 방향이... 저도 좌는 잘 모르니까.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어느 방향 집이에요?]

10601 # 아:. 서향, 서썬썬로 바라보고 썬썬. [아, 서향, 저쪽으로 바라보고 썬썬.]

10601 @ 서썬썬기요? [서썬썬기요?]

10601 # 응. [응.]

10601 @ 이 마으리 지금 거으다 서썬썬 향해요? [이 마을이 지금 거으 다 서썬썬 향해요?]

10601 # 아니요. 썬썬부 나망 지비에요. 남썬썬 보로 썬썬치요. [아니요. 썬썬부 남향집이요. 남썬썬을 보고 썬썬치요.]

10601 # 게 시방 이 우리 지비 시방 이기 나망지비에요 이제. [그 지금 이 우리 집이 지금 이것이 남향집이요 이제.]

10602 @ 이제 나망이예요? [이제 남향이예요?]

10601 # 이기 나망이지요. @ {그러썬썬} 썬, 썬나미요, 썬나민데, 시방 내가 가마니 볼썬썬

거 인자 고종사촌 형님인데, 형님미 인자 거 방문도 마니 보는 거 세때가지고 뭐, 에 저 산소거통거 머 이렇거또 집짜리도 보고 그러케 해요. [이것이 남향이지요. (@ 거 령지요.) 정, 정남이요. 정남인데 지금 내가 가만이 볼 적에 그 이제 고종사촌 형님인 데, 형님이 이제 그 방문도 많이 보는 그 쇠가지고 뭐, 에 저 산소같은 것 뭐 이런것 도 집자리도 보고 그렇게 해요.]

10601 # 그런 양바니 내가 가마이 무러보도 아너고 내가 가마니 내가 보니까. [그런 양반 이 내가 가만히 물어 보지도 않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601 # 이 산 이 주령, 이걸 보는거 갇뜨만. [이 산 이 주령, 이것을 보는 것 갇뜨만.]

10601 # 여그서 정 우리 될싼서 정: 먼디서 시방 이러케, 산 주령이 요로케 해서 요리 이 러케 빠더나왔꺼든요. [여기서 우리 뒷산에서 저 먼데서 지금 이렇게, 산 주령이 이 령게 해서 이러 이렇게 뻗어나왔꺼든요.]

10601 # 게 산 주령얼 뒤다 두고 아궐 조리하고 그러케 보시능갇뜨만요. [그 산 주령을 뒤 에다 두고 앞을 저리하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갇뜨만요.]

10601 @ 그러케 보니까 서향이 뵈끄만요? [그렇게 보니까 서향이 뵈그만요?]

10601 # 애애야. 고곤, 그다메 인재, 나는 그때도 나망으로 할라고 했는데, 그저 보시는 양 바니 그러케 하야 조타고 하고, 삽짝도 인재 뭐 그때는 인재 삽짜기 내내 어디 서, 삽짜건 인자 북쪽, 북쪽걸 아벌 두고 날찌. [예예, 그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때도 남향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저 보시는 양반이 그렇게 해야 좋다고 하고, 사립짝도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사립짝 내내 어디 서, 사립짝은 이제 북쪽, 북쪽을 앞을 두고 났지.]

10601 # 애애, 북, 북, 북씨. 애애 배껴씨요. 그조. [예예, 북, 북, 북서. 예예 바궤어요. 그 령지요.]

10601 @ 뵈쪼그로가 길이요? [뵈쪽으로가 길이요?]

10601 # 요가 인선씨요 삽짜기 그저네는. [여기가 있었어요. 사립짝이 그전에는.]

10601 @ 삽짜기 이쪼게 인선씨요? [사립짝이 이쪽에 있었어요?]

10601 # 애애, 요쪼게. [예예, 이쪽에.]

10601 @ 아:. [아.]

10601 # 집 암마당얼 이케 며늘 요로케 그저네 요로케 헐찌요 요로케 인재 요로케 요로케. [집 앞 마당을 이렇게 면을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했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 게.]

10601 # 예, 서 서쪼그로 요로케 인꼬, 삽짜건 요쪼그로 인선씨요. 그제네. [예, 서 저쪽으 로 이렇게 있고, 사립짝은 이쪽으로 있었어요. 그전에.]

10601 # 게. 전, 원 북또 아니고 서북향이로 서북 고 사이로 이케 썩린무늘 뵈찌요. [그, 전, 원 북도 아니고 서북향으로 서북 그 사이로 이렇게 사립문을 뵈어요.]

10601 @ 지금 저기 저 풀베고 인는 [지금 저기 저 풀 베고 있는.]

10601 # 애. {예}

10601 @ 금초하고 인는 그쪽 길로 들어오셔서 내나 이리 들어오신거요? [벌초하고 있는 그쪽 길로 들어오셔서 내나 이리 들어오신거요?]

10601 # 아니 아니, 고곤 고곤 녀 땡이여. [아니 아니, 그것은 그것은 남의 땅이여.]

10601 # 녀 땡이고, 요고 우리 길... [남의 땅이고, 이것 우리 길...]

10601 # 거게 철뵈, 철뵈네... 아구래넌 그러체 고길로 드리왈씨요. {거기 첫번, 천번에...

입구는 그렇지 그 길로 들어왔어요.}

10601 @ 아구대는 그쵸그로? [입구는 그쪽으로?]

10601 # 애, 애구댕이년, 애, 거 고 길로 내: 고 길로 드러왈써요.{에, 입구는, 예, 그 그 길로 내나 그 길로 들어왔어요.}

10601 # 지그른 인재 그걸 마가서 그러체. [지금은 그것을 막아서 그렇지.]

<주춧돌 놓기>

10601 # 애, 게서 인재, 터넌 인재 팽이, 삼 이걸로 사래미 인재, 그저네넌 인재 머 점부다 사래미 다허자나요. [애, 그래서 이제, 터는 이제 팽이, 삼 이걸로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전부다 사람이 다하잖아요.]

10602 # 사래미 이러케 골라가꼬, 인자 저: 거시기가 강벼니 가세요. 돌 주춧돌이라고 인재, 지동 이케 위다 인재 노코서 이케, 도게다 이러케 궤야되자나요. 그러케 해야 나무가 안썩공개. [사람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저 거시기가 강변에 가세요. 돌 주춧돌이라고 이제, 지동 이렇게 위에다 이제 놓고서 이렇게, 돌에다 이렇게 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나무가 안 썩으니까.]

10602 # 게 주춧돌 이러케 요케 조은 노미로 거시개서나. [그 주춧돌 이렇게 이렇게 좋은 높으로 거시기해서나.]

10602 # 저, 우리기는 여 저, 강벼니 이써서요. [저, 우리에게는 여 저, 강변이 있어서요.]

10602 # 고론 도기쑤 판테보다 구하기가 쉬어요. [그런 돌이 쑤 판 테보다는 귀하기가 쉬어요.]

10602 # 이자 그거또, 점부 사래미 그저네 인재, 지개로 지개로 한덩이썩 한덩이썩 그러케 지다가 침부 그러케, 그러케 헐써요. [이제 그것도, 전부 사람이 그전에 이제, 기개로 지개로 한덩이썩 한덩이썩 그렇게 지어다가 전부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10601 @ 그머는 그 주춧돌 논는 그 자리는... [그러면 그 주춧돌 놓는 그 자리는...]

10601 @ 맨 처으메 그게 방향을 자부면, 땅에다가 어떠케 그를 그럴꺼 아니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땅에다가 어떻게 금을 그럴 것 아니예요?]

10601 # 그러쵸. [그렇지요.]

10601 # 인재, 그 인재 거시기가 목쑤, 목쑤양반 인재 딱: 자때 딱딱 재가지고서 인재, 그 멀 딱딱 그레가꼬 인재, 주춧돌일 인재 거 목쑤양바니 인재 어디 노라 어디 뇌라 인재 그레 시기는대로 허지요. 인자 그건. [이제, 그 이제 거시기가 목쑤, 목쑤 양반이 이제 딱 자 딱딱 재가지고서 이제, 금을 재가지고서 이제, 금을 딱딱 그려가지고 이제, 주춧돌을 이제 그 목쑤양반이 이제 어디 놓아라 어디 놓아라 이제 그레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제 그것은.]

10601 @ 그먼 주춧돌 자리는 자리는 어떠케 다져요? [그러면 주춧돌 자리는 자리는 어떻게 다져요?]

10601 # 그기 인재 엔나레넌 마니 채운 땅, 땅이 허부석 한디 이런디넌 도걸, 도걸 이러케 인재 큰: 도걸, 큰 도걸, 이케 이런 이런 도걸쓰면 여기다가 이러케 거시기릴 해요. 이러케.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많이 채운 땅, 땅이 허부석한 데 이런 데는 돌을, 돌을 이렇게 이제 큰 돌을, 큰 돌을, 이렇게 이런 이런 돌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거시기를 해요. 이렇게.]

10601 # 끈나팔로 째미야, 끈나팔로 째매가꼬, 뽕두리케 주털 이러케 거시기고서나. [끄나 불로 잡아매야. 끄나불로 잡아매가지고, 뽕둘러서 이렇게 거시기해가지고서나.]

10601 # 한 너더시 저짜게 둘, 이짜게 둘, 너더시 이노멸 빨끈 들고, 양조게서 어차 어차 허먼 이러케 함목 함목 이러케 추어서 이러케 이러케 두루먼, 이노미 도기 드런따 낱 따 드런따 낱따 하며는 여기가 다지지자나요. [한 너덜이 저 쪽에 둘, 이 쪽에 둘, 너덜이 이 높을 분끈 들고, 양쪽에서 어차 어차 하면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두르면, 이 높의 돌이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하면 여기가 다지지잖아요.]

10601 # 애:.[애.]

10601 # 그러카고 돌란썬요. [그렇게하고 돌을 샀어요.]

10601 # 그러카고 돌란는데. [그렇게 하고 돌샀는데.]

10601 # 우리 지번 여가 땅이 강강해서나, 그냥 주추 그냥 낱썬요. [우리 집은 여기가 땅이 강강해서나, 그냥 주추 그냥 샀어요.]

10601 # 그런데, 언나레 어 컨집 지코 거시간데 이러케 다지요. 주추 놀떠만. 주추 놀떠만 이러케. [그런데, 옛날에 이 큰집 짓고 거시기한데 이렇게 다져요. 주추 놀 데만, 주추 놀 데만 이렇게.]

10601 # 어차 어차 이러카면서나 마리지 드런따 낱따 드런따 낱따, 큰: 도걸 무꺼가꼬, 게 주털 매가꼬 그러카머는 거 다지지자나요. 그러케 가꼬 주추털 놔썬요. [어차 어차 이렇게 하면서나 말이지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큰 돌을 묶어가지고, 그 줄을 매가지고 그렇게 하며는 그 다지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추를 놓았어요.]

<기둥 세우기>

10601 @ 그때 혹시 그러케 다져서 집 지실 때, 그 한번, 동네 집 질 때, 해보신지 있으시지요? [그때 혹시 그렇게 다져서 집 지실 때, 그 한 번, 동네 집 질 때, 해보신 집 있으시지요?]

10601 # 인쥬. [있쥬.]

10601 @ 그면 그때 혹시 기억나는, 그러케 할때 그 소리가통건 중에 어차 어차 라고 할때에 (# 애.) 무슨 그 아페 뭐 메기거나, 앞에 소리를 뭇 하거나, 뒤에서 이러케 하거나, 그렇건 중에서 혹시 한대모기라도 기억나는 대목 인쓰시편... [그러면 그때 혹시 기억나는, 그렇게 할 때 그 소리같은 것 중에 어차 어차라고 할 때에 (# 예.) 무슨 그 앞에 뭐 메기거나, 앞에 소리를 뭇 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 중에서 혹시 한 대목이라도 기억나는 대목 있으시면...]

10601 # 아 메기는 사라면 업꼬, 메기는 사라면 업꼬, 보통 한 너더시 이러케 저 저짜게 둘, 이짜게 둘 이러케 거머쥐고, 이러케 다 거시기가 인짜냐. 이러케 낱 이러케 드러 따 어차허고 노코, 어차허고 노코 이러케 해요. [아 메기는 사람은 없고, 메기는 사람은 없고, 보통 한 너덜이 이렇게 저 저쪽에 둘, 이쪽에 둘 이렇게 거머쥐고, 이렇게 다 거시기가 있잖아. 이렇게 낱 이렇게 들었다 어차하고 놓고, 어차하고 놓고 이렇게 해요.]

10601 @ 딱딱 마저야되니까. [딱딱 맞아야 되니까.]

10601 # 애 마저야 땡개. 애. [예 맞아야 되니까. 예.]

10601 # 게 시미 딱땅 마저야 이러케 불끈불끈 들지, 시미 안마지면 이러케 하나 하나만, 한쪽만 한조기 양거시거면 안 들자녀요. 그렇게 소리릴 해야 딱땅 마중께. 소리를 그러케 하면서 해요. [그 힘이 딱딱 맞아야 이렇게 불끈 불끈 들지, 힘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하나 하나만, 한 쪽만 한 쪽이 안 거시기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해야 딱딱 맞으니까.]

10601 @ 그러케 다지는데, 여기는 땅이 강강해서 그냥 그대로 하셨고? [그렇게 다지는데, 여기는 땅이 강강해서 그냥 그대로 하셨고?]

10601 # 금강 강강해서 그냥, 그냥 낚썰요. 주춧돌덜. [금강 강강해서 그냥, 그냥 낚썰어요. 주춧돌을.]

10602 @ 자 근데 주춧돌덜 딱 노코, 그 위에다가 세워나갈 때요. 그때 그거슬 어떻게 세워요? [자 그런데 주춧돌을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세워나갈 때요.]

10602 # 그 인제, 처머니는 인제...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602 # 요게 지둥 쥔 처머 인제 기둥이자나요, 기둥부텨 세워야 되자나요. [이것이 기둥 제일 처음에 이제 기둥이잖아요. 기둥부터 세워야 되잖아요.]

10602 # 기둥 이러케 하나 세워짜나요, 그뎨 놔두면 이케 이러케 너머가 뿌리자냐. [기둥 이렇게 하나 세웠잖아요. 그러면 놔두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106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2 # 게 연모기라고, 연모기랑건 인제, 저 위에다 맨 위에다 이케 이러케 해가꼬서 물 바지하능거 연모기랑거 인짜나요? [그 연목이라고, 연목이라는 것은, 저 위에다 맨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 받아하는 것 연목이란 것 있잖아요?]

10602 @ 예. [예.]

10602 # 고노멸 이러케 인제, 한 상가경으로 세개로 요로케 해가꼬, 여기다가 우선 임시 모시로 기냥 제기놔요 이러케 몬너머가게. [그놈을 이렇게 이제, 한 삼각형으로 세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우선 임시로 못으로 그냥 박아놓아요. 이렇게 못 넘어가게.]

10602 # 고로케 해노코, 또 저기 세우고, 또 그러케 인제, 모시로 그러케 거시기 [그렇게 해놓고, 또 저기 세우고, 또 그렇게 이제, 못으로 그렇게 거시기.]

10602 # 그러케 형께. 안뎨, 그렇게 처빼니부터 너르케 네개를 세워놔요. 네개. [그렇게 하니까. 안 뎨, 그러니까 첫번부터 넓게 네개를 세워놔요. 네개.]

10602 # 네개 세워노코서는, 그때 따우에는, 나중엔 이케, 여기는 하능게 도리요 이케, 도리. [네개 세워놓고서는, 그때 따우에는, 나중에 이것, 여기는 하는 것이 도리요 이것이, 도리.]

10602 @ 도리 맨위에? [도리 맨 위에?]

10602 # 예. {예.}

10602 @ 맨위에 나무. [맨 위에 나무.]

10602 # 예. {예.}

10602 # 뽕: 가시 돌리능건 도리, 가운데 이진 보. [뽕 가로 돌리는 것은 도리, 가운데 이것은 보,]

10602 @ 보? [보?]

10602 # 응. [응.]

10602 # 근데 고노멸 인제, 네개를 세워쓰면 인제, 여그다 요로케 인제 걸고, 위에다. 도

리, 도리 걸고, 또 요조게 인재 걸고, 또 요조게 걸고, 그러면 삼가경이 다 거리절짜나요, 삼가경이. [그런데 그 놈을 이제, 네개를 세웠으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제 걸고, 위에다. 도리, 도리 걸고, 또 이쪽에 이제 걸고, 또 이쪽에 걸고, 그러면 삼각형이 다 걸었잖아요. 삼각형이.]

10602 # 그 요조그로 하능기 보요 이게 보, 보, 그러면 인재 네군데 방향이 이게 딱 서서나 고때는 인재, 다 선짜나요. [그 이 쪽으로 하는 것이 보요. 이것이 보, 보, 그러면 이제 네군데 방향이 이렇게 딱 서서 그때는 이제, 다 섰잖아요.]

10602 # 그럼 인자 한조게 그러케서나 인자 이 예를 드려서 인재 상칸 상칸 상칸찌비머는요. [그럼 이제 한쪽에 그렇게해서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삼 칸 삼 칸잡이머는요.]

10602 # 네군대면 항카느로 인재, 항카는 이미 세워절짜나요? [네군대면 한 칸으로 이제, 한 칸은 이미 세워졌잖아요?]

10602 # 그럼 인자 요조게다 또, 또 세우고, 또 다 세우고, 또 저짜게 또 세우고, 세우고 그러케 해서나 상카니면 상칸, 사카니면 사칸 인재. [그럼 이제 이쪽에다 또, 또 세우고, 또 다 세우고, 또 저쪽에 또 세우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삼칸이면 삼칸, 사칸이면 사칸 이제.]

10602 # 애: 다 세우머는. [예, 다 세우머는.]

10602 # 인자, 도리, 아까도 금방 그러케 뽕: 형거 도리, 도리털 인재 다 걸고, 보 걸고 그러면... [이제, 도리, 아까도 금방 그렇게 뽕 한 것 도리, 도리를 이제 다 걸로, 보 걸고 그러면...]

10602 @ 장간만요 인. 도리를 거리써요. 도리를 딱 걸면, [잠간만요 잉. 도리를 걸었어요. 도리를 딱 걸면,]

10602 # 언저. [없어.]

10602 @ 언저? [없어.]

10602 # 어, 언저. [예, 언저.]

10602 @ 도리는 언지면 거가 그 파여인는데다가 가따 끼어서 만추능거예요? [도리는 없으면 거기가 그 파여 있는 데다가 갖다 끼어서 맞추는 거예요?]

10602 # 그러쵸 그치. [그렇지요 그렇지.]

10602 @ 못찌른 아네:~? [못질을 안해?]

10602 # 모쪼 아네요. [못질 안해요.]

10602 @ 아! 도리는 못쪼 아네요. [아! 도리는 못질 안해요.]

10602 # 고기 인재, 게 게 안는다고 한다, 이러케 서로가 이러케 이러케 엉물리케코롬 요로케 고걸 토비로 이러케 잘 안빠지기로, 딱 언지면 이 안빠지기로 다 그러케 탠드라노차나요. [그것이 이제, 그 그 안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얹켜물리게 이렇게 그것을 톱으로 이렇게 잘 안 빠지게, 딱 없으면 이 안 빠지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10602 @ 아 그러면... [아 그러면...]

10602 # 대모기. [대목이.]

10602 @ 안빠지게, 안빠지게, 공개 이러케 빠드시 파능게 아니고, 요로케 요런 모양으로... [안 빠지게, 안 빠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이 파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10602 # 암! 그러면요. 아! 애! [암! 그러면요. 아! 애!]

10602 @ 그거슨 그거슨 공개, 뭐라고 헨다고요 아까? [그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헨다고요 아까?]

10602 # 도리. [도리.]

10602 @ 도리를 안는다고레? [도리를 엮는다고 그래요?]

10602 # 예, 아사. [예, 앓아.]

10602 @ 아사? [앓아?]

10602 @ 예, 아사. [예, 앓아.]

10602 @ 안, 아순단 마리 무슨 마리에요? 그거슬 이러케, 그, 파내서 이러케 딱, 여겨짜지게 만드는 거... [앓, 앓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그 , 파내서 딱 엮어 짜지게 만드는 것...]

10602 # 애 애! 그러쵸 그러쵸. [예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10602 @ 아순다고 허는거예요? [앓은다고 하는 것이예요?]

10602 # 애 애 애! {예 예 예!}

10602 @ 그면 아사서 가따가 연저? [그러면 앓아서 갓다가 엮어?]

10602 # 아사서 가따 언저요. [앓아서 갓다 엮어요.]

10602 @ 애.[예.]

10602 # 아사서. [앓아서.]

10602 @ 그면 그면 묻쵸 아네 아네요?

10602 # 애 묻쵸 아네요. [예, 못질 안해요.]

10602 @ 그면 그걸 딱 세울 때, 정확키 세우가꼬 정확키 재야되건네? [그러면 그것을 딱 세울 때, 정확히 세워가지고 정확히 재야되겠네?]

10602 # 그러치:이. [그렇지.]

10602 @ 마냐게 안되면... [만약에 안되면...]

10602 # 그러쵸:. [그렇지요.]

10602 @ 안마즈면 문제가 생기겐네요 잉?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잉?]

10602 # 어: 고게 인재, 그렇게 이걸, 짐 나무릴 인재: 짐나무 아슬쪼게. [응 그것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짐 나무를 이제 짐 나무 앓을 적에.]

10602 @ 애. [예.]

10602 # 인재 거시갈쪼게, 예덜드러서 도리는 인재 예덜드러서 인재 지레기가 예덜드러서 큰방언, 컴방 운빵 뭐 이러케 인재 나가면 마리오. [이제 거시기할 적에, 예를 들어서 도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이가 큰 방은, 큰방 윗방 뭐 이렇게 이제 나가면 말 이요.]

10602 # 츠메 아슬쪼게 이러케 또까치 하능기 아니요. [처음에 앓을 적에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요.]

10602 # 컴방언 커게하고, 짜근방언 째게하고 뭐 이러케 할라머는, 컴방은 인재 도리가 멘 짜, 기리가 멘짜. 또 짜근방은 기리가 멘짜. 이러케 해서 잠재 거기다 다 썬노차나요. [큰방은 크게하고, 작은방은 작게하고 뭐 이렇게 하려머는, 큰방은 이제 도리가 몇 자, 길이가 몇 자. 또 작은방은 길이가 몇 자. 이렇게 해서 잠재 거기에다 다 썬놓잖 아요.]

10602 @ 애. [예.]

10602 # 거기다 인제 그 대목이 다 써요. 거기. [거기에다 이제 그 대목이 다 써요. 거기
에.]

10602 # 인자 그러고서 인제, 요고시 머 아피로 간다등가 뒤로 간다등가 다 인제 글짜를
인자 새기논, 표시를 해노트만요. 대목이.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것이 뭐 앞으로 간
다등가 뒤로 간다등가 다 이제 글짜를 이제 새겨놓고, 표시를 해놓더만요. 대목이.]

10602 @ 나무에다가요? [나무에다가요?]

10602 # 이, 나무다가. [응, 나무에다가.]

10602 # 그러카야 그제, 표시릴 해노야, 아 요곤 어디로 갈끼고, 어디로 갈끼고 이러카지.
그냥 더퍼노코 아스면 요기 어디로 갈끼릴 모루자나요. [그렇게해야 그것이, 표시를
해놓아야, 아 이것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이렇게하지. 그냥 덮어놓고
앗으면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10602 # 그러고 인제, 기둥도 이제 다 그 표시릴 해요. [그리고 이제, 기둥도 이렇게 다 그
표시를 해요.]

10602 # 어따 안칠, 어떤 노면 어따 안치고, 어떤 노면 어따 안치고 인자 그러케 하더만요.
[어디에다 앓힐, 어떤 놈은 어디에다 앓히고, 어떤 놈은 어디에가 앓히고 이제 그렇
게 하드만요.]

10602 @ 그면 인자, 도리를 가따 안천써요. [그러면 이제, 도리를 갖다 앓혔어요.]

10602 # 앓. [예.]

10602 @ 도리릴 안치면 일다는 인자 안너머지겐네요. [도리를 앓히면 일단은 이제 안 넘
어지겠네요.]

10602 # 일따년 안너머가지요. [일단은 안 넘어가지요.]

10602 @ 그 여페 인자, 아까 그 저 뭐지요? 그... [그 옆에 이제, 아까 그 저 뭐지요?
그...]

10602 @ 그 임시로 험뎨... [그 임시로 했던...]

10602 # 임시르케 몬너머가게 이케 거시깁뎨거? [임시로 그렇게 못 넘어가게 이렇게 거
시기했던 것?]

10602 @ 앓, 그때 이제 떼어내고... {예, 그때 이제 떼어내고...}

10602 # 아이, 바로 안빠요. [아니, 바로 안 빠요.]

10602 # 흑이라도 막, 막쌔무지로 바로 안빠고. [흑이라도 막, ***** 바로 안 빠고.]

10602 # 그러고 인제, 맨 위에는 이러케 뽕: 돌리서 도리라고, 도리가 뽕: 돌리, 우리 지꺼
차나요. 뽕: 돌리서 인제 도리릴 언저, 이러케.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뽕 돌려
서 도리라고, 도리가 뽕 돌려, 우리 집같잖아요. 뽕 돌려서 이제 도리를 엮어, 이렇
게.]

10602 # 지동얼 이제 축: 세워노코. [기둥을 이제 축 세워놓고.]

10602 # 그 요기 요기 언는 거슨 보. [그 여기 여기 언는 것은 보.]

10602 @ 바까테만 도리고? [바깥에만 도리고?]

10602 # 앓. [예.]

10602 @ 그면 그 안쪼그로 카늘 망는 그거슨? [그러면 그 안쪽으로 칸을 막는 그것은?]

10602 # 보 보. [보 보.]

10602 @ 그면 보도 언저요? [그러면 보도 없어요?]

10602 # 으, 보도 언지야지쥬. [응, 보도 없어야지요.]

10602 # 요기 인재, 요리 가는 요리 가능건, 요리 가능기 보. [여기 이제, 이리 가는 이리 가는 것은, 이리 가는 것이 보.]

10602 @ 애, 그건 보, 아, 바깥에가 도리, 그건 보. [예, 그것은 보, 아 바깥에가 도리, 그것은 보.]

10602 # 그라고 인재, 맨 위여가 인재 맨위여가 인재 도리, 보는 이러케 되고, 도리는 이러케 인재 이러케 이러케 뽕 돌리야고 그러차나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가 이제 맨 위에가 이제 도리, 보는 이렇게 되고, 도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뽕 돌려야 하고 그렇잖아요?]

10602 # 거 또, 요 미티 요마니서 저, 지둥이다 이러케 구녀글 똑꼬, 구녀글 뜯 저 도 저, 중방이라고야. 그건. [그 또, 이 밑에 이만큼에서 저, 기둥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구멍을 뜯 저 도 저, 중방이라고 해. 그것은.]

10602 @ 아:. [아.]

10602 # 중방. [중방.]

10602 @ 미테건 중방이구만요? [밑에 것은 중방이구만요?]

10602 # 미티가 중방. [밑에가 중방.]

10602 # 미티 중방인데. [밑에 중방인데.]

10602 # 여그다가 인재 또 이러케 구녀글 요리 요기다 이러케 뜯브야, 요리 개서 이러케 뽕: 내내 도리마냥 뽕: 돌리서 인 또 그러케 해요. 뽕 돌리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구멍을 이리 여기에다 이렇게 뚫어야, 이리 그래서 이렇게 뽕 내나 도리같이 뽕 돌려서 또 그렇게 해요. 뽕 돌려서.]

10602 # 게 중방을 해노야... [그 중방을 해놓아야...]

10602 @ 안 너머가겐네요? [안 넘어가겠네요?]

10602 # 응, 너무가도 아나고, 탄타나고, 또 그러고 거기다가 이 중방할 때 미티넌. [응, 넘어가지도 안하고, 탄탄하고, 또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 중방할 때 밑에는.]

10602 # 아주 인재, 방, 저: 그게 온돌방이자나요, 온돌방 인재 온돌방얼 그거또 인재 아까도 얘기했지 저: 괴또리라고, 다: 이제 집 다 세우고, 다 세우고 인재, 벽 다 만, 베키라고... [아주 이제 방, 저 그것이 온돌방이잖아요. 온돌방 이제 온돌방을 그것도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 저 꿇돌이라고, 다 이제 집 다 세우고, 다 세우고 이제 벽 다 벽이라고...]

10602 # 그러고 여기다, 거 온 저:, [그리고 여기다, 그 온 저.]

10602 # 괴또랑 이따 내가 나중에 얘기럴 해야겐네. [꿇돌은 이따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네.]

10602 # 중방얼 이러케 인재 [중방을 이렇게 이제.]

10602 @ 돌런썬요. [돌렸어요.]

10602 # 돌리가꼬, 뽕: 돌리고 뽕 돌리서 사방 만좌 인재. [돌려가지고, 뽕 돌리고 뽕 돌려서 사방 맞춰 이제.]

10602 # 개새도 막고, 여기는 또 인자, 칸카니 인자 또 요리 요리 거시거자나요. [가에도 막고, 여기는 또 이제, 칸칸이 이제 또 이리 이리 거시기하잖아요.]

10602 @ 보나 마찬가지로, 미테도 보 가튼게 또 가요 잉? [보나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 같은 것이 또 가요 잉?]

10602 # 그걸 인재 중방, 다 중방이라구래, 그 나무보고. [그것을 이제 중방, 다 중방이라

고 그래, 그 나무 보고.]

10602 @ 보라고 양코 인자, 똑까지 중방이라고... [보라고 앓고 이제, 똑같이 중방이라고...]

10602 # 중방나무라고 그래요, 중방나무. 중방나무. [중방나무라고 그래요. 중방나무, 중방나무.]

10602 # 중방나무르 다 인재, 뽕 돌리서 마차노쿠서는. [중방나무를 다 이제, 뽕 돌려서 맞춰놓고서는.]

10602 # 여 저, 방, 방에 문 인재 저러케 드러가다 무늘 내자나요. [이 저, 방, 방에 문 인재 저렇게 들어가다 문을 내어야 하잖아요.]

10602 @ 애. [예.]

10602 # 그러면 인재, 중방은 여기 여기 중방이고, 여기 여기다가 인재 저러케, 조구조구 영납씨 저그거치 이러케 인재.{그러면 이제 중방은 여기가 중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렇게, 저기저기 영락없이 저기 같이 이렇게 이제.}

10602 # 외 저:, 또. [외 저, 또.]

10602 @ 도리다가? [도리에다가?]

10602 # 도리다가 아나고, 임방나무라고 또 이제 문설쭈할때는 여기다 또 나무를 또 또하나 질러요. [도리에다가 안하고, 인방나무라고 또 이제 문설쭈 할 때는 여기에다 또 나무를 또 또 하나 질러요.]

10602 # 도리다가 허면 너무나 고잉개나. [도리에다가 하면 너무나 고이니까.]

10602 @ 노푸니까 [높으니까]

10602 # 노푸니까나, 인방이라고 문설쭈하는디만 이러케 나무털 질러요. [높으니까, 인방이라고 문설쭈하는 데만 이렇게 나무를 질러요.]

10602 @ 인방이요? [인방이요?]

10602 # 응, 인방. [응, 인방.]

10602 @ 그러며는, 자 자보셔요잉? [그러면, 자 자 보세요잉?]

10602 @ 마냐게 이 쪼가고 지금 이 쪼가고 두개, 기둥이 두개가 일썌요. [만약에 이 쪽하고 이 쪽하고 이 쪽하고 두개, 기둥이 두개가 있어요.]

10602 # 어:. [응.]

10602 @ 그면 미테 지금 중방 중방하고... [그러면 밑에 지금 중방 중방하고...]

10602 # 중방. [중방.]

10602 @ 위에 보는, 참 뭐야... [위에 보는 참 뭐야...]

10602 # 도리. [도리.]

10602 @ 무조건 일꼬. [무조건 있고.]

10602 # 애. [예.]

10602 @ 근디 여기 무니 업쓰면, 무늘 안낼 때는 그대로 두고, 무니 일썌 때면, 그 요 중간만큼 또 하나 임방을 질른다... [그런데 여기 문이 없으면, 문을 안 낼 때는 그대로 두고, 문이 있을 때면, 그 이 중간만큼 또 하나 인방을 질른다...]

10602 # 애, 그러치요. 애. [예 그렇지요 예.]

10602 # 무넙쓸 때넌 무늘 내비두고, 무느쓸 때넌 인방이라고 인자 저, 도리 미티다가 도리 미티다가 나무털 하나 대요. 대노코서나. [문 없을 때는 문을 내버려두고, 문 있을 때는 인방이라고 이제 저 도리 밑에다가 도리 밑에다가 나무를 하나 대요. 대놓고

서.]

10602 # 나무를 이르게 양쪽에 저 문, 저근네 저러케 나무 이르게 이르게 세우야 무널 여
기다 달자나요. [나무를 이렇게 양쪽에 저 문, 저기 있네, 저렇게 나무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문을 여기다 달잖아요.]

106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2 # 기 문설쭈라구래 인제. [그것을 문설주라고 그래 이제.]

10602 @ 문설쭈요? [문설주요?]

10602 # 애. [예.]

10602 @ 인방을 달고, 문설쭈를 달면, 인제 지비 기본저긴 ...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네
요. 인자? [인방을 달고, 문설주를 달면, 이제 집이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공간이 생
기네요. 이제?]

10602 # 그림... [그림...]

10602 @ 그 다메요? [그 다음에요?]

10602 # 그러카고서는 인제, 인제, 이기 사방언 인제, 저러케 이제 벽또럴 저러케 싸치마넌
이건 인자 거시기 칸카니 이걸... [그렇게하고서는 이제 이제 여기 사방은 이제, 저렇
게 이제 벽돌을 저렇게 쌓지마는 이것은 이제 거시기 칸칸이 이것을...]

10602 @ 그 위에부터, 위에. [그 위에부터, 위에.]

10602 # 웨? [위에?]

10602 @ 위에 위에부터 해야할 거 아니예요? [위에 위에부터 해야할 것 아니예요?]

10602 # 아:, 우부텀? [아, 위부터?]

10602 @ 애. [예.]

10602 # 그러고 인제, 매는 인제 다 이제 미터 중방 질르고 문설쭈 질르고, 다 헐짜나요.
[그리고 이제, 매는 이제 다 이제 밑에 중방 지르고 문설주 지르고, 다 했잖아요.]

10602 @ 애. [예.]

10602 # 다허머는 맨 위에 가서는 인제, 여그 여그 여 시방 거시기다가 보, 보라고 동자주
라고 인제, 이만:항걸 가운데다 이러케 하나 세워요. [다하면 맨 위에 가서 이제, 여
기 여기 지금 거시기에다가 보, 보라고 동자주라고 이제, 이만한 것을 가운데가 이러
게 하나 세워요.]

10602 # 저 가운데다. [저 가운데다.]

10602 @ 동자주? [동자주?]

10602 # 동자주. [동자주.]

10602 # 그제 세워놓거보고 동자주라고야. [그것 세워놓은 것 보고 동자주라고 그래.]

10602 # 게 인제 지비 다세쓰머넌 동자주, 동자주에다 또 지대:넌 저. [그 이제 집이 다 섰
으면 동자주, 동자주에다 또 긴 저.]

10602 # 거시기릴 거기, 그기 그거 머라고 머라고허냐? [거시기를 거기, 거기 그것 뭐라고
뭐라고 하냐?]

10602 # 예기 가운데다 이케 지댄: 저, 예를 드려서 인제 상파니면 상판, 요로케 저 외대
이러케 또 하야되야 이러케 나무릴 하나. 그대로 항:가운데다가 인자 그걸, 항:가운데
다 이기 나무 하나 언저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긴 저 예를 들어서 이제 상판이면
상판, 이렇게 저 외대 이렇게 또 해야돼 이렇게 나무를 하나. 그대로 한 가운데다가
이제 그것을, 한가운데가 여기 나무 하나 얹어요.]

10602 # 요로케 엉꼬서는, 요로케 언저노면 인재, 연모기라고, 연모기라고 양쪼고로 요로케 엉꼬, 요쪼그도 요로케 엉꼬 이제, 연모기라고 이러케 축: 인재. [이렇게 엉꼬서는,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제, 연목이라고, 연목이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엉꼬, 이쪽에도 이렇게 엉꼬 이제, 연목이라고 이렇게 죽 이제.]

10602 # 언저 도라와 그걸 인재, 모설 바가요 인재. [얹어 돌아와 그것을 이제, 못을 박아요 이제.]

10602 @ 연모걸? [연목을?]

10602 # 연모건 맨위에다가. 맨위에다가 인자. [연목은 맨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제.]

<상량 올리기, 지붕이기>

10608 @ 맨 위에 올링거 그건 머라구려? [맨 위에 올린 것은 뭐라고 그래?]

10608 # 맨우? [맨 위?]

10608 @ 나무덜? [나무를?]

10608 # 그게 무슨 시아가꼬 생가기 잘 안나네. [그것이 무슨 **** 생각이 잘 안나네.]

10608 @ 상량이라구려? [상량이라 그래?]

10608 # 만네 상낭. 상낭이라구랴. 상낭. [맞네 상량. 상량이라 그래. 상량.]

10608 @ 그거슨... [그것은...]

10608 # 응 상낭이여. [응 상량이여.]

10608 @ 그건 그건 어티게 헨다고 그래?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헨다고 그래?]

10608 # 어? [어?]

10608 @ 그런 상낭은 어티게 헨다고 그래? [그런 상량은 어떻게 헨다고 그래?]

10608 # 어티게 언저? [어떻게 얹어?]

10608 @ 아니, 그거또 상낭 얻 언진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도 상량 얻 얹는다고 그래요?]

10608 # 애, 언지다 상낭 얻는다구래요. {예, 얹는다. 상량 얹는다 그래요.}

10608 # 상낭 언질 때년, 이제 그날, 이제 모든 이제 첨부 집나무 따드마가꼬 세우가꼬 이제 상낭은 인재 그 큰노면 마지막 올라가자너요. [상량 얹을 때는, 이제 그날, 이제 모든 이제 전부 집나무 다듬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상량은 이제 그 큰 높은 마지막 올라가잖아요.]

10608 # 그러면 그 상낭 올라 올갈쩌게. [그러면 그 상량 올라 올라갈 적에.]

10608 # 머 떡거튼, 떡거통거또 하는 사람, 떡거통거또 해노코 머, 대:지 대가리도 가따노코, 수거통거또 내노코, [뭐 떡같은, 떡같은 것도 하는 사람, 떡같은 것도 해놓고, 돼지 대가리도 술같은 것도 내놓고,]

10608 # 거그다가 인재, 상 거 저 집 권, 원 쥐니 상봉넙꼬 허허허. [거기에다가 이제, 상 그 저 집 주인, 원 주인이 상복입고 허허허.]

10608 @ 상보걸 이버요? [상복을 입어요?]

10608 # 애:. [예.]

10608 @ 어:. [어.]

10608 # 또 여기는 상복 입고, 상복 아니면 두루매기라도 입고, 술 부서노코 저라고 그래요. 저라고. [또 여기는 상복 입고, 상복 아니면 두루마기라도 입고, 술 부어놓고 절

하고 그래요. 절하고.]

10608 # 그나런 고 상냥만 언저노면 인재 대목 대모기 언제든지 이제 쟁일해야 되자나요?
[그 날은 그 상냥만 엇어놓으면 이제 대목 대목이 언제든지 이제 종일해야 되잖아
요?]

10608 @ 예. [예.]

10608 # 쟁일 하는데. [종일 하는데.]

10608 # 상냥만 언저노면 그나런 쉬어요. [상냥만 엇어놓으면 그 날은 쉬어요.]

10608 @ 아:. [아.]

10608 # 그날, 그리고 인재, [그날, 그리고 이제,]

10608 @ 하루 이제 노는 날이그만요? [하루 이제 노는 날이그만요?]

10608 # 애, 노는 날, 상냥하는 날. [예, 노는 날, 상냥하는 날.]

10608 # 그럼 인재, 상냥하는디도, 인재, 돈도, 돈도 예를 드려서 인자, 그날 이제 저. [그
럼 이제, 상냥하는데도, 이제, 돈도 돈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 이제 저.]

10608 # 품삐기 하루 '마뉘닐곶거트면, 품삐기 마뉘닐꺼 거트면, 거그다가 돈도 인재 한,
돈 인재, 체새대로 마뉘 인재 그 상냥이다 이러케 다라매주는 사람도 인꼬, 봉투나
너가꼬 머 이마뉘 주는 사람도 인꼬 그러케, 그러케 해요. 엔나레. [품삐기 하루 만원
일 것 같으면, 품삐기 만원일 것 같으면, 거기에다 돈도 이제 한, 돈 이제, 형편대로
만원 이제 그 상냥에다 이렇게 달아매주는 사람도 있고, 봉투나 넣어가지고 뭐 이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해요. 옛날에.]

10608 @ 거그다 글씨도 쓰지요? [거기다 글씨도 쓰지요?]

10608 # 글씨 쓰지요. 예 그건. [글씨 쓰지요. 예 그건.]

10608 @ 그 누가 써요, 대개? [그 누가 써요, 대개?]

10608 # 그건 저 거시기가 머, 대모기 쓰는 사람도 인꼬, 아무라도 써요 그건. [그건 저 거
시기가 뭐, 대목이 쓰는 사람도 있고, 아무라도 써요 그건.]

10608 # 그건 인재. [그건 이제.]

10608 # 시방 인재 단 서기로, 엔나레 단기로 썬찌만, 서기 멘년, 메뿔, 메칠, 멘씨 멘씨에
상냥. 이러케 써노치요. [지금 이제 단 서기로, 옛날에 단기로 썬찌만, 서기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몇 시에 상냥. 이렇게 써놓지요.]

10608 @ 그면 그거시 지비 이거스로 다 될파는 이해깁가요? [그러면 그 것이 집이 이것으
로 다 났다는 이야기인가요?]

10608 # 고로케 해노코, 고로케 해노코 인자, 아까 내가 여그 상냥 위에다 이기 상냥이면
여기 염목, 염모기라고 이러케 이러케 염모걸 거러야 연모걸 이러케 뽕: 돌면서 거러
이러케 염모걸. 뽕: 도라감서나.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내가 여그
상냥 위에다 여기 상냥이면 여기 연목, 연목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연목을 걸어야, 연
목을 이렇게 뽕 돌면서 걸어. 이렇게 연목을. 뽕 돌아가면서나.]

10608 @ 염모근 건다고 그래요? [연목은 건다고 그래요?]

10608 # 애, 건다고 그케요. [예, 건다고 그렇게해요.]

10608 @ 그면 염모근 위에 상냥에서부터 도리, 도리까지만 나가능 거요? [그러면 연목은
위에 상냥에서부터 도리, 도리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10608 # 도리배까트로 나가야제. [도리 밖으로 나가야지.]

10608 @ 으:. [으.]

10608 # 이기 인재 상냥이고, 인재 도리가 또 요만치 가 인짜녀. [이것이 이제 상냥이고, 이제 도리가 또 이만치 가 있잖아.]

1060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8 # 그럼 도리 배까트로 이만치 나가야, 우리 집찌면 엔날 뜰팡이라고 인짜냐 뜨렁? [그럼 도리 밖으로 이만큼 나가야, 우리 집 치면 옛날 토방이라고 있잖아. 토방?]

10608 @ 예:. [예.]

10608 # 뜨렁에 배까케 비가 양끌리고 그러차나요. 도리 배까트로 마니 나가야 나가야제, 도리까지 하면 뜨렁에 다 비가 오고 배까트로 인재 방으 비가 깔쳐서 안되자나요. [토방에 밖에 비가 안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도리 밖으로 많이 나가야 나가야지. 도리까지 하면 토방에 다 비가 오고, 밖으로 이제 방에 비가 들어와 안되잖아요.]

10608 # 게서 도리 배까트로 이러케 마니 나가게 해요. 뽕: 돌려서. [그래서 도리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게 해요. 뽕 돌려서.]

10608 @ 그러면 인재 도리 배까테까지 나가 나가서 인자 딱 그러면 그러케 도라간쎄요. [그러면 이제 도리 밖에까지 나가 나가서 이제 딱 그러면 그렇게 돌아갔어요.]

10608 @ 그러면 인재 그다음부터 인재...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0608 # 그다음에는 인재, 그 연목 위에다가 연모게다가 외때기라고여 외때기, 자장:한 이 자:란 자자:란 나무 똥고로만 요론걸 외때기라고 췌매넌, 왕기서 인재, 그노멸 드문 드문 드문 이러케 침:부 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목 위에다가 연목에다가 윗가지라고 해 윗가지, 자잘한 이 자잘한 자잘한 나무 똥그란 이런 것을 윗가지라고 조그마한, 옮겨서 이제 그 놈을 드문 드문 드문 이렇게 전부 대요.]

10608 # 대서, 인재. [대서, 이제.]

10608 @ 묻찌럴 하능거요 그건?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10608 # 그제네는 산는 사채기로 쏘맨쎄요. 인재. [그전에는 새끼로 잡아땀어요. 이제.]

10608 # 요 중녀니는 간따 이개, 모일찌마넌 그: 저니 엔나른 거 모시 귀해자나요. [이 중녀에는 갖다 이렇게, 못 있지마는 그 전에는 옛날은 그 못이 귀하잖아요.]

10608 # 요로케 산내끼, 사내끼로 파가지고, 점부 이러케 산내끼로 인재. [이렇게 새끼, 새끼로 꼬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새끼로 이제.]

10608 # 이기 인재 이케 상냥하고 여기 여그 여기까지 인재 지대너게 연모기 인짜녀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상냥하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제 길게 연목이 있잖아요.]

10608 # 그럼 맨 가지 여기 대고, 또 요만치 대고, 요만치 대고, 요만치 대고, 요만치, 요만치, 요만치. [그럼 맨 가지 여기 대고, 또 이만큼 대고, 이만큼 대고,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10608 # 게:속 여꺼지 인자 그걸 반, 뽕: 도령 대야대요. [계속 여기까지 이제 그것을 뽕 돌아 대야 돼요.]

10608 # 그노멸... [그 놈을...]

10608 @ 연목 사이 사이에다. [연목 사이사이에다.]

10608 # 애 애, 연목 우에다가 인재. [예 예, 연목 위에다가 이제.]

10608 @ 우게다. [위에다.]

10608 # 연목 우게다가. [연목 위에다가.]

10608 # 이케 인재 이 미티는 인재 지비고. [이렇게 이제 이 밑에는 집이고.]

10608 @ 애. [예.]

10608 # 여가 인재 상냥이고. [여기가 이제 상냥이고.]

10608 @ 애. [예.]

10608 # 이게 인재 연목 이르게 비 암만게 할라고 인재 염모걸 양쫓걸, 여그도 요로케 하고, 여그도 요로케 하고 인재. [이게 이제 연목 이렇게 비 안 맞게 하려고 이제 연목을 양쪽을,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제.]

10608 # 여그 인재 머리빼기도 이러케 하고, 뺨디도 이러케 하자나요. [여기 이제 머릿박도 이렇게 하고, 뺨 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10608 @ 그걸 머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10608 # 머릴? [뭘?]

10608 @ 아 이 여페는 머라고 한다고 머리뺨? [아 이 옆에는 뭐라고 한다고, 머리뺨?]

10608 @ 머리뺨? [머리뺨?]

10608 # 머리빼기. [머릿박.]

10608 @ 머리빼기라고 해요? [머리빼기라고 해요?]

10608 # 양쪽 머리빼기라고구라제. 인재. [양쪽 머릿박이라고 그러지. 이제.]

10608 @ 아, 머리빼기? [아, 머리빼기?]

10608 # 애, 머리뺨. [예, 머릿박.]

10608 # 이걸. [이것.]

10608 # 이거 양쪽 여비라고 하고. 여피라고 하고. [이것 양쪽 옆이라고 하고, 옆이라고 하고.]

10608 # 여기는 머리빼기라고 하고. [여기는 머릿박이라고 하고.]

10608 @ 양쫓근 그먼 머리빠기고, 양쫓근 엽 여비 엽피고? [양쫓은 그러면 머릿박이고, 양쫓은 옆 옆이 옆이고?]

10608 # 여피고. [옆이고.]

10608 @ 아:. [아.]

10608 # 고로케 해서 인재. [그렇게 해서 이제.]

10608 # 여기다 외때기털 외때기라고 허능거설 여기 대고, 요만치 요만치 요만치 축: 이제 뺨: 도람서 이러케 대구서는 인자, 산내채로 쫘매썩요 엔나레. [여기다 윗가지를 윗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 대고,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쫘 이제 뺨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고서 이제, 새끼로 잡아맸어요. 옛날에.]

10608 # 산내채이로 쫘매고, 그라우서 인재. [새끼로 잡아매고, 그리고 이제.]

10608 # 지가 거 삼농사 진넌 저러비라고 인썩짜나요 왜? [제가 그 삼농사 짓는 저릅이라고 있었잖아요 왜?]

10608 @ 애. [예.]

10608 # 저릅. [저릅.]

10608 @ 애. [예.]

10608 # 천빼니 집질때넌 이, 저러벌요. [첫번째 집 질 때는 이, 저릅을요.]

10608 # 저러벌 인재 소느로 여꺼가꾸서나. [저릅을 이제 손으로 엮어가지고서나.]

10608 # 함벌차리, 함벌차리 인재 외때기 인썩짜나요? [한 벌 채, 한 벌 채 이제 윗가지 있었잖아요?]

10608 @ 애. [예.]

10608 # 외때기 인썩썩개, 저러벌 여꺼가꼬 이러케 함벌 썩: 이요. [윗가지 있었으니까, 저

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 벌 싹 이어요.]

10608 @ 이어요? 그거설? [이어요? 그것을?]

10608 # 예. 지붕이... [예, 지붕에...]

10608 @ 이영, 영 역뜨시 그러케 영능겨요? [이영, 이영 엮듯이 그렇게 엮는 거예요?]

10608 # 영 역뜨기 인재, 영 역뜨기 인재 저러블 이망끼 이망:께 역꺼요. [이영 엮듯이 이제, 이영 엮듯이 이제 저름을 이만하게 이만하게 엮어요.]

10608 # 여꺼가꼬설랑 지붕으로 올라가꼬 사라미 인재 미여 올라가꼬, 뽕: 도라서 함벌짜 리덜 여꺼지 뽕도라서 싹: 이요 함번. [엮어가지고설랑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사람이 이제 메 올라가지고, 뽕 둘러서 한 벌 채를 여기까지 뽕 돌아서 싹 이어요. 한 번.]

10608 @ 아:. [아.]

10608 # 저러블 함번 싹 이야돼 그건 인재. [저름을 한 번 싹 이어야 돼 그건 이제.]

10608 # 싹 이고, 다시 인재, 또 인재 짐여, 지비로 이러케 영녕거. [싹 이고, 다시 이제, 또 이제 짚 이어, 짚으로 이렇게 엮는 것.]

10608 # 지비로 영 여꺼가꼬설랑 인재, 또 저러부다가 인재, 다시 인재 함번 또 싹: 둘러야 돼요. [짚으로 이영 엮어가지고설랑 이제, 또 저름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 번 또 싹 둘러야 돼요.]

10608 # 싹 둘루고, 맨: 위에다가 이러케 하능거 용마름. [싹 두르고,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용마름.]

10608 # 용마름 이르게 트르가꼬서 인재. [용마름 이렇게 틀어가지고서 이제.]

10608 # 이 영이라능건 이르게 이르게 이르게 말때자나 이르게. [이 이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맞대잖아 이렇게.]

10608 # 인재 나중에 미티부터 해해 올라오면 웨가서는 서로가 이러케 되자나,뿌 령이가. [이제 나중에 밑에부터 해 올라오면 위에 가서는 서로가 이렇게 되잖아, 뿌리가.]

10608 @ 그러초 예. [그렇지요 예.]

10608 # 뿌링이 근디, 요기 요거 뿌링이가 조깨, 요기 요기 새가 까따꺼먼 요건, 머가 비가 썰상발라거덩, 그러케 용마러미라고 이러케 트러가꼬설랑언. [뿌리인데, 여기 여기 뿌리가 조금, 여기 여기 사이가 까딱하면 이것은, 뭐가 비가 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용마름이라고 이렇게 틀어가지고설랑은.]

10608 # 거저 맨위다 용마름 영꼬, 그라구선 인재, [그 저 맨 위에다 용마름 엮고, 그리구서 이제.]

10608 # 예:, 바람 불면 몬날라가게로 사챙이, 사챙이로 파가꼬 인재, 떠매요. 인재. [예, 바람 불면 못 날아가게 새끼, 새끼로 꼬아가지고 이제 떠매요.]

10608 # 바람 마:이 탄테는 '마이 떠매고, 바람 들 탄테넌 인자 좀 들 쫘매고, 요로케 요로케 해서 저, 여기 이르게 이르게 이르게 이르게 한 서너번 너덜뽕 사방 떠매요. [바람 많이 타는 데는 많이 떠매고, 바람 덜 타는 데는 이제 좀 덜 잡아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서너번 너덜뽕 사방 떠매요.]

10608 @ 근디 그먼 거기에는, 그 지붕 위에는, 아까 그 저, 그 저를 여꺼서 인자 그...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는, 그 지붕 위에는, 아까 그 저 그 저를 엮어서 이제 그...]

10608 # 아시벌 이고, 아시벌 인자 뽕:돌리고. [아시벌 이고, 아시벌 이제 뽕 돌리고.]

10608 # 이르고. [이고.]

10608 @ 거기다 흑까통건 아네요? [거기에다 흙 같은 것은 안해요?]

10608 # 아:, 거기 참. [아, 거기 참.]

10608 # 예, 우편 흑, 그저:이 엔나레요, 엔나레 인재, 움는 지비, 일러기 부조건 지비, 이런 지번 흑또 아니고, 그러케 해가꾸서나 그냥 저르만 그러카구서나 그냥 거시기를 해썬요. 그냥 저: [예, 어쩐 흑, 그전에 옛날에요, 옛날에 이제, 없는 집에, 인력이 부족한 집에, 이런 집은 흑도 안 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저름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거시기를 했어요.]

10608 # 짐 영하고, 그러케만 대썬요. [짚 이영하고, 그렇게만 됐어요.]

10608 # 그제 우리 저: 선조덜 짐짱건, 보통 그러케 그러케 마니 전썬요. [그전에 우리 저 선조들 짐 짓는 것은, 보통 그렇게 그렇게 많이 졌어요.]

10608 # 그러카고. [그렇게 하고]

10608 # 인는집, 부재집, 부재찌비는 아까 인재 이러캐서나 외때기 대고서, 외때기 이르캐. [있는 집, 부잣집, 부잣집에는 아까 이제 이렇게해서 윗가지 대고서, 윗가지 이렇게.]

10608 # 그르문 인재, 흐글 찢라면, 외때기덜 팡팡, 팡 찢야돼야. [그러면 이제 흑을 찢러면, 윗가지를 팡팡 찢어야 돼.]

10608 @ 아아:. [아아.]

10608 # 여바, 미태를 따썬 지고서나, 머머 엔나레 쭈숙때기라고, [여기 봐, 밑에를 답뽀 쥐고서나, 뭘뭘 옛날에 수술대라고,]

10608 # 엔나레 바티다가 쭈수, 쭈때기 아능가 몰라, 쭈때기라고 이러케 받 가운데다가 시 무끄든요. 쭈때기. [옛날에 밭에다가 수수, 수술대기 아능가 몰라. 수술대기라고 이렇게 밭 가운데다가 심거든요. 수술대.]

10608 # 그라구 가시레 가면 인재 그 쭈수, 거시기만 떠오고, 그제. [그리고 가을에 가면 이제 그 수수, 거시기만 떠오고, 이제.]

10608 # 머글껌만 주고 인재, 쭈수때하고 그냥 텅기 인짜나요. [먹을 것만 주고 이제, 수술대하고 그냥 둔 것 있잖아요.]

10608 # 그르문 인재, 비다 비다가 이노멸, 저: 이퍼리. [그러면 이제, 베다 베어다가 이놈을, 저 이파리.]

10608 @ 애. [예.]

10608 # 이퍼리덜 따고서 인재. [이파리를 따고서 이제.]

10608 # 내가 인재 내년 예 예를 드려서, 내가 지벌 지어야 거따 이런 마미 인쓰머년, 그러면 인재, 이마:너게 무꺼가꼬 어디 저: 비 암만는데 이런데다 어따 잘 뒤따가 집찢 찢게 그노멸... [내가 이제 내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맘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만하게 묶어가지고 어디 저 비 안 맞는데 이런데다 어디다 잘 두었다가 집 지을 적에 그 놈을...]

10608 # 이케 인재 열문거쓰면 요기 외때기 대고, 쭈숙때기로 이러캐, 쭈때기로만 대면 쭈때기 밭부면 폭 꺼뿌리자나. [이렇게 이제 열 묶었으면 여기 윗가지 대고, 수술대만 대면 수술대 밟으면 폭 꺼져버리잖아.]

10608 @ 애. [예.]

10608 # 궁께나 첨먼지 외때기 대고 여그다 가운데 또 쭈숙때기 대고, 또 좀 거시거다가 또 외때기 대고 또 쭈숙때기 대고, 또 외때기 또 쭈숙 대고, 또 외때기 대고 쭈숙 이러카다 축: 인재 사므 열거요. [그러니까 첫번째 윗가지 대고 여기에다 가운데 또 수술대 대고, 또 조금 거시기에다 또 윗가지 대고 또또 수술대 대고, 또 윗가지 또 수

순대 대고, 또 윗가지 대고 수수 이렇게 하다가 죽 이제 삼으로 얹어요]

10608 # 얼꼬설랑 인재, 흐걸 흐걸 인자 인자 이기가꼬, 이기가꼬서 인재, 흑또인자 그냥.
[얹고설랑 이제, 흙을 흙을 이제 이겨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흙도 이제 그냥.]

10608 # 지벌 지벌 요마크막케 쓰러가꼬 인재 호가고 인재 서꺼요. [짚을 짚을 이만하게
떨어가지고 이제 흙하고 이제 섞어요.]

10608 # 그러카야 호기 미테 구녀기 암마징개 구녀기 이쓰잔야. [그렇게 해야 흙이 밑에
구멍이 안 맞으니까 구멍이 있잖아.]

10608 # 저 지바고 이러케 거시가면 지비 이러케 거시갈때서 쑥 빠지자, 구녀그로 암빠지
자나요. [저 짚하고 이렇게 거시기하면 짚이 이렇게 거시기할 때 쑥 빠지자, 구멍으
로 안 빠지잖아요.]

10608 # 게서 인재. [그래서 이제.]

10608 # 지벌 쓰러서나 호가고 이러케 버무리서 인재 이기가꼬서랑언, 요마::크마께 목치
가꼬서 인재. [짚을 떨어서나 흙하고 이렇게 버무리서 이제 이겨가지고설랑은, 이만
큼하게 뭉쳐가지고서 이제.]

10608 # 사래미 막 미티 이러케 저 편지쥬 이러케. [사람이 막 밑에 이렇게 저 던지쥬. 이
렇게.]

10608 # 편지너른 인재. [던진 놈은 이제]

10608 # 가상으로 이러케 뽕:, 근디 이르께...{가로 이렇게, 뽕, 그런데 이렇게... [가로 이
렇게 뽕, 그런데 이렇게...]

10608 # 요기 인자, 저: 요 도리... [여기 이제, 저 이 도리...]

10608 # 도리 배까트로만 인재 찌는 사래미 인써요. [도리 밖으로만 이제 찌는 사람이 있
어요.]

10608 # 알매덜. [알매를.]

10608 # 그거 보고 인재, 흑짱기가 알매 찌다고 허거능요. [그것 보고 이제, 흙 찌는 것이
알매 찌다고 하거든요.]

10608 # 알매찌. [알매 찌어.]

10608 @ 아 호글 올리는게, 알매 찌다고 해요? [아 흙을 올리는 것, 알매 찌다고 해요?]

10608 # 애. [예.]

10608 @ 호글 위에다 호글 덮는걸 알매 찌다구래요, 알매 찌따고 그러. [흙을 위에다 흙
을 덮는 것을 알매 찌다고 그래요. 알매 찌다고 그래.]

10608 # 그래가꼬 고고설... [그래가지고 그것을...]

10608 # 저 도리배까테, 이케 사래미 바라보머는, 천장에 인자 사래미 비는데, 도리배까티
만, [저 도리밖에 이렇게 사람이 바라보면, 천장에 이제 사람이 보이는 데, 도리 밖에
만, 이렇게 이제 흙으로 놀른 사람이 있고.]

10608 # 이케 인재 호그로 놀른 사래미 인꼬 [이렇게 이제 흙으로 놀른 사람이 있고.]

10608 # 그람 저 전체 그냥 또 전체 그냥 싹 누른 사래미 인꼬. [그러면 저 전체 그냥 또
전체 그냥 싹 놀른 사람이 있고.]

10608 @ 아:. [아.]

10608 # 그라구 인재:, 방언 앤나레 인재 거, 시방 이기 아까 저: 거시기를 거시기 헨는다.
[그리고 이제, 방은 옛날에 이제 거, 지금 여기 아까 저 거시기를 거시기 했는데.]

10608 # 도리하고 보하고 망는다고 안헐써요. [도리하고 보하고 막는다고 안 했어요.]

10608 @ 예. [예.]

10608 # 인제, 조그 조그는 보, [이제, 저기 저기는 보,]

10608 @ 예. [예.]

10608 # 여그는 도리라 그랜짜나. [여기는 도리라 그랜짜아.]

10608 @ 예. [예.]

10608 # 이기 방이자나요 방. 이기 방. [이것이 방이잖아요 방. 이것이 방.]

10608 # 그럼 방이면 저 위에다가 인제 이러케 또 흐글 찌야되자나 거기. [그럼 방이면 저 위에다 이제 이렇게 또 흙을 찌어야 되잖아 거기.]

10608 @ 예 예. [예 예.]

10608 # 거기 그러면 여기 요기 방에다, 요기 방얼 방 디릴때만, 방 디릴 방할 떠닌 안하고, 방 디릴때만, 요기다 여기 총 조로케 나무르 조케 쪽: 대요 여기다가. 요그 요그 요그 요그다가. [거기 그러면 여기 여기 방에다, 여기 방을 방 들릴 데만, 방 드릴 방할 데는 안 하고, 방 드릴 데만, 여기다 여기 죽 저렇게 나무를 저렇게 죽 대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10608 # 그래노쿠서나 인제. [그래놓고서나 이제.]

10608 # 거그다가 인제 거그도 내내 그 저: 외때기하고 쑥때하고 그러케 얼거가꾸설랑 거그다가 억꾸설랑은 흐기로 인자 짝 찌빨지. [거기다가 이제 거기도 내내 그 저 윗가지하고 수순대하고 그렇게 엮어가지고설랑 거기다가 엮고설랑은 흙으로 이제 짝 찌버리지.]

10608 # 흐기로 짝 끼고. [흙으로 짜 끼고.]

10608 # 내가 고 이야기는 안헐까만 아까. [내가 그 이야기는 안헐까만 아까.]

10608 @ 아:. [아.]

10608 # 그리서, 여기 인제 여기 하년 여기 언는 나무보고 지네바리라고 그래, 지네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하는 여기 없는 나무보고 지네발이라고 그래, 지네발.]

10608 @ 지네발? [지네발?]

10608 # 지네바리라고. [지네발이라고.]

10608 # 게 왜 지네바리라고 하나먼는. [게 왜 지네발이라고 하나면.]

10608 # 에 여 이러케 드문드문 게 대는 사람도 인고, 가운데다 이러케 하나 큰: 나무 이러케 대고, 여그다 또 이러케 이러케 총총총총 대는 사람 인꺼등요. [에 여 이렇게 드문드문 그렇게 대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하나 큰 나무 이렇게 대고, 여기가 또 이렇게 이렇게 총총총총 대는 사람도 있거든요.]

10608 @ 예. [예.]

10608 # 게 예릴드러서 인제 요기 지네거트면 차차차차 쪽 양쪼거로 요그도 하고 요쪼그도 하고 항께나, 게, 나무가 만차나요. 그렇게 지네발거치 생게써요. 그렇게나 고보고 지네바리라고 그러케해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네갈으면 차차차차 쪽 양쪽으로 여기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하니까나, 그것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발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지네발이라고 그렇게 해요.]

10608 @ 아. [아.]

10608 # 지네발보고. [지네발 보고.]

10608 # 이런 방커트면, 요 가운데다 요로케, 이쪽 이쪽또 보, 이쪽또 보 그러케. 양쪼그가 보지. [이런 방같으면, 이 가운데다 이렇게, 이쪽 이쪽도 보 그렇지. 양쪼그가 보지.]

10608 # 보 이러케 거기다가 이러케 이런 나무 하나 하구서 여그다 인제, 총 요로케 총총 총총 저짜게도 하고 가운데다 이러케 측: 대요. [보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나무 하나 하구서 여그다 인제, 총 이렇게 총총총총 저쪽에도 하고 가운데다 이렇게 쪽 대요.]

10608 # 그래구 인제 거기다가, 외때기 대고 쑥때기 대고 그러케 해서 인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윗가지 대고 수숫대 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608 # 흐글 이기가꾸서 이르케 말 발라 인자. [흠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 이제.]

10608 @ 그니까 아까 그 그: 저머야. 지붕, 지붕 우에다가 흐글... [그러니까 아까 그 그 저 뭐냐. 지붕, 지붕 위에다가 흠을...]

10608 # 끝... [끝...]

10608 @ 알배기 알... [알배기 알...]

10608 # 고고요 인제. [그것이요 이제.]

10608 @ 흐글 알배기 안는 사람도 인써요? [흠을 알배기 안는 사람도 있어요?]

10608 # 아니, 여 여기 천장, 그러구 인자 천장에선, 천장 저 흐글 찌고, 흠 끼고... [아니, 여기 천장, 그리고 이제 천장에서는, 천장 저 흠을 찌고, 흠 찌고...]

10608 # 흐진 저 알매 얻는 사래미나 안허는 사래미나. [흠은 저 알매 얻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10608 # 천장, 천장언 눌러야되야. [천장, 천장은 눌러야 돼.]

10608 @ 애, 천장은. [예, 천장은.]

10608 # 천장, 천장은 지내부터 눌러야 되야. 그러면 알매 찌나 안찌나. [천장, 창장은 지내부터 눌러야 되야. 그러면 알매 찌나 안 찌나.]

10608 # 알매 안찌넌 사람도 이진 놀루고, 알매 찌넌 사람도 놀루고, 이진 다 눌러노야돼요. [알매 안 찌는 사람도 이진 누르고, 알매 찌는 사람도 누르고. 이것 다 눌러 놓아야 돼요.]

10608 @ 아:. [아.]

10608 # 그라야 이게 저 지병, 방이 생기 생기자나요. 이게. [그래야 이게 지붕, 방이 생기 생기잖아요. 이게.]

10608 # 그래 인제 거 요기부텀 인제, 천장부텀 그러케 놀루고, 요기 인제. [그래 이제 그 여기부터 이제, 천장부터 그렇게 누르고, 여기 이제.]

10608 # 여가 도리거터면, 요 배까트로, 요 우에는 인제 거시거고, 요 배까테 여기만 열거까꼬 찌는 사라미 인고. [여기가 도리같으면, 이 밖으로, 이 위에는 이제 거시기하고, 이 밖에 여기만 엮어가지고 찌는 사람이 있고.]

10608 # 보편저그로 인자 어지가니 여기만 거시개요. 여그만, 여그만 찌여. [보편적으로 이제 어지간히 여기만 거시기해요. 여기만, 여기만 찌여.]

10608 # 그라고. [그리고.]

10608 # 엔나레 정지, 부엌 불때는데, 불때는데는 방이는 이케 아까 인제 거시기럴, 천장빨기럴 해가지고 흐걸 놀런찌만, [옛날에 부엌, 부엌 불 때는 데, 불 때는 데는 방에는 이렇게 아까 이제 거시기를, 천장발기를 해가지고 흠을 눌렀지만,]

10608 # 전장은, 예, 정지. 엔나레 정지넌 기냥, 공중위 인짜나 그냥 이르케, 공중위. [천장은, 예, 부엌. 옛날에 부엌은 그냥, 공중에 있잖아 그냥 이렇게, 공중에.]

10608 # 공중의 이썩께나. 정지하고, 정지하고 도리 빼까티만 알매 찌는 사람, 알매를 찌

요. [궁중에 있으니까. 부엌하고, 부엌하고 도리 밖에만 알매 찌는 사람, 알매를 찌요.]

10608 # 게 엔나리넨 이제 인는 사라문 그러케하고, [그 옛날에는 이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10608 # 에, 업는사라문 그냥, 이 천장 여기만 찌고 그냥 그냥 도리, 저 염뭇 걸고, 천장 여기만, 업넨 사라문, [예, 업는 사람은 그냥, 이 천장 여기만 찌고, 그냥 그냥 도리, 저 염뭇 걸고, 천장 여기만, 업는 사람은.]

10608 # 인재 저: [이제 저.]

10608 # 외때기 외때기만 두문두문 대고서, 저러브로 한번 싹 둘루고, 거그다 영둘르고 그러케 햐썌요. [윗가지 윗가지만 드문드문 대고서, 저름으로 한번 싹 두르고, 거기에다 이영 두르고 그렇게 햐어요.]

10608 # 그전찌븐 모두다 그러케 질터만요. 그게 진는데. [그전 집은 모두가 그렇게 짓더만요. 그렇게 짓는데.]

10608 # 우리 시기에 인재:, 우리 때, 우리가 집질때, [우리 식기에 이제, 우리 때, 우리가 집 지을 때.]

10608 # 고때만 대도 어지가나면 그냥, 도리빠까티는 알매 다찌고, 부엌 저 부엌 부엌 위에, 부엌 위에넨, 인재. [그때만 되어도 어지간하면 그냥, 도리 밖에는 알매 다 찌고, 부엌 부엌 위에, 부엌 위에는, 이제.]

10608 # 그 외때기, 외때기 대고 쑤쑤때대고 그러케 햐구서는 흐걸 알매라고 그걸 싹 찌요. [그 윗가지, 윗가지 대고 수숫대 대고 그렇게 햐구서는 흠을 알매라고 그것을 싹 찌요.]

10608 # 싹 찌가꼬서나 고로카고서 인재 저름 한번 싹 둘루고, [싹 찌어가지고 그렇게 햐고서 이제 저름 한번 싹 두르고.]

10608 # 싹 둘루고 인재 짐영 징영 이러케 역겨 가꾸서, 싹 찌고... [싹 두르고 이제 질 이영 질 이영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싹 찌고...]

10608 @ 알매 찢 우에다가 저름 한번 돌리고요? [알매 찢 위에다가 저름 한번 돌리고요?]

10608 # 구룬치요. 으으으. [그렇지요. 으으으.]

10608 @ 돈이 인꼬 업꼬는 그거시 결구근 흠 그 흠... [돈이 있고 없고는 그것이 결국은 흠 그 흠...]

10608 @ 파다가, 그다메 집 썌러서 너서, 그 위에 이러니까. 인부갑썌 마니드러서 그러쿠만요? [파다가, 그 다음에 질 썌어서 넣어서, 그 위에 이러니까. 인부 값이 많이 들어서 그렇구만요?]

10608 # 구러치 그러치요, 인재. [그렇지 그렇지요, 이제.]

10608 # 돈 업넨 사라문 일러그로 돈업넨 사라문, 그거또 인재, 그러케 햐라면 인재, 그냥 알매릴 안찌면 외때기만 이러케 두문 두문 두문 두문 대구서 그냥 저르브로 햐뭇 싹 둘루고, 짐영으로 햐뭇 이뭇 되는데. [돈 업는 사람은 인력으로 돈 업는 사람은, 그렇게 햐려면 이제, 그냥 알매를 안 찌면 윗가지만 이렇게 드문 드문 드문 드문 대고서 그냥 저름으로 한 번 싹 두르고, 질 이영으로 한 번 이뭇 되는데.]

10608 # 알매릴 찢라머넨 이케 인재 쑤때도 대고, 참 저 외때기 대고 쑤때기 대고 저그저 그 총총총 그건 그거또 총총 여꺼요. 그건 인재, 총총 여꺼야 돼, 총총 여꺼야 미티로 흐기 안빠지지. [알매를 찢려면 이렇게 수숫대도 대고, 참 저 윗가지 대고 수숫대 대

고 저기저기 총총총 그것은 그것도 총총 엮어요. 그것 이제, 총총 엮어야 돼, 총총 엮어야 밑으로 흠이 안 빠지지.]

10608 # 총총 역꼬 그러칼라면 일이 좀 만차나요. [총총 엮고 그렇게 할려면 일이 좀 많잖아요.]

10608 # 이리 마넹개 움는 사라면 쉽, 엔날 으른들 쉬게 하느라고 그냥, 그걸 아나고 그냥 천장 천장 여기만 흐기로 찌노코 그냥, 드문드문 이케 외때기 대고 그냥 저름 한번... [일이 많으니까 없는 사람은 쉽, 옛날 어른들 쉽게 하느라고 그냥,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천장 천장 여기만 흠으로 썬놓고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윗가지 대고 그냥 저름 한 번...]

10608 # 저르븐 놀리야돼 인재, 누구더니. [저름은 놀리야 돼 이제, 누구든지.]

10608 # 저름 안돌르면 안되야. [저름 안 두르면 안 돼.]

10608 # 저름 함번 둘루고, 그 위에다 짐영하고 그러디. [저름 한 번 두르고, 그 위에다 짚이영하고 그런데.]

10608 # 우리가 집질 때만, 나도 그때 이 지벌 지가 전는데. [우릭 집 지을 때만, 나도 그때 이 집을 제가 지었는데.]

10608 # 우리 질때만 해도 그냥, 어지간하면 이제 도리 배까티하고 부어가고 이러케 알매를 다 천썬요. [우리 지을 때만 해도 그냥, 어지간하면 이제 도리 밖에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알매를 다 썬어요.]

10608 @ 그며는요 지비 그 천장 위에 흐그로 흐그로 놀리 썬능거 하고, 또 천장 천장 위에 인는 그 지 집 위에 도 알매를 처노면 훨씬 따뜨딩가요? [그러면 집이 그 천장 위에 흠으로 흠으로 놀리 썬은 것 하고, 또 천장 천장 위에 있는 그 지 집 위에 또 알매를 처놓으면 훨씬 따뜻하든가요?]

10608 # 따십썬요. [따습지요.]

10608 # 따시기도 따십고. [따습기도 따습고.]

10608 # 엔나링개 초가지비 부리 마니 날썬요. 초가지비 부리. [옛날에 초가집이 불이 많이 났어요. 초가집에 불이.]

10608 # 그래 이기 인재, 여기다 연모걸 거러서 인재 흐걸 딱 찌고 저러브로 거시가면, 이기 딱 드리부터 이제 딱 드리부터 붙짜냐. [그래 이것이 이제, 여기에다 연목을 걸어서 이제 흠을 딱 찌고 저름으로 거시기하면, 여기 딱 들어붙어 이제 딱 들어붙어 붙잖아.]

10608 # 도리 배까트로. [도리 밖으로.]

10608 # 이게 부리 언제든지 이기 가에서부터 나거든 보통 가운데는 안나고. [이것이 불이 언제든지 이것이 가에서부터 나거든 보통 가운데는 안 나고]

10608 @ 그러쵸. [그렇지요.]

10608 # 이기 부리 소그로부터 라고 위에만 이케 거시기가 돼요. 그러면 인지. [이것이 불이 속으로부터 가고 위에만 이렇게 거시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10608 # 이걸 안찌머년 흐글 안찌머는 부리 혹시 나면 그냥, 미티가 허하자나요. 그냥. 저기 허해가꼬 부리 소그로 확 드러가 드러가빠리가꼬설랑은 더 화재가 우염헐썬. [이것을 안 찌면 흠을 안 찌면 불이 혹시 나면 그냥, 밑에가 허하잖아요. 그냥, 저기 허해가지고 불이 속으로 확 들어가 들어가버려가지고설랑은 더 화재가 위험했어.]

10608 # 그래서 알매 찢지면, 불만 나서 바로 인재, 바로만 거시가면, [그래서 알매 찢 집

은, 불만 나서 바로 이제, 바로만 거시기하면.]

10608 # 그저네 우리기, 우리 동네 일정때에 뽀뿌라고요. [그전에 우리에게, 우리 동네 일정 때 뽀뿌라고요.]

10608 @ 애. [예.]

10608 # 뽀뿌라고 인씨. 기기가 인제 뽀뿌라고 헐는데. [뽀뿌라고 있어, 기계가 이제 뽀뿌라고 했는데.]

10608 # 막: 이케 이케 눌루고 눌루고 주를 대머는 사래미 양조게서 저짜게서 뒤시 눌루고 이짜게서 눌루고 막, 이르케 이르케 눌러요. [막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줄을 대면 사람이 양쪽에서 저 쪽에서 두엇이 누르고 누르고 이쪽에서 누르고 막, 이렇게 이렇게 눌러요.]

10608 # 그러면 우리 막 분사해서 폭: 나가는 뽀뿌라고 인씨요. 일정때. [그런면 물이 막 분사해서 폭 나가는 뽀뿌라고 있었요. 일정 때.]

10608 # 거거인꼬 인제 또, 시방 빠게스 거통거. 바게스 거통게 베로 되여인능거 베로 되여 인능거 그렇거시 인제 인꼬 그냥. [그것 있고 이제 또, 지금 바게스 같은 것, 바게스 같은 것 베로 되어있는 것 베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있고 그냥.]

10608 # 우리 동니가 부리 마니 나서요. [우리 동네가 불이 많이 나서요.]

10608 # 엔나레년, 여기 부리나면 부리야 하고 동서글 하자나요 막. [옛날에는, 여기 불이 나면 불이야하고 **을 하잖아요. 막.]

10608 # 그러면 막 우리 동네 인제 사래미 마나요. 우리 동네. [그러면 막 우리 동네 이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동네.]

10608 # 사래미 만코. [사람이 많고.]]

10608 # 저기 시방 포장헐짜나요. 여기. [저기 지금 포장했잖아요. 여기.]

10608 @ 애. [예.]

10608 # 포장한데 거가 툇이요 툇. 또랑이 겹:나 널룬끄든. [포장한 데 거기가 도랑이요 툇. 도랑이 겹나게 널롭거든.]

10608 # 윤꼴짜게 나오는 무리 아무리 머 시아네도 건 무리 떨어지든 아네요. 마르든 아냐. 삼푸도. [윗 골짜에서 나오는 물이 아무리 뭐 겨울에도 그것은 물이 떨어지든 안해요. 마르 든 안해, 샘을 퍼도.]

10608 # 중간중간 이르케 마가가꼬서 엔나레는 지비서 머 아들 머 방따끈 걸레라등가 툇 걸레거통거, 점부 거가서, 또랑에가 다 빠란씨요. [중간 중간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옛날에는 집에서 뭐 아들 뭐 방 닭은 걸레라등가 툇 걸레같은 것, 전부 거기 가서, 도랑에 가 다 빨았어요.]

10608 # 그레 엔나레 인제 썸:무리라능거슨 인제 사람 멍는거 멍는거 거릭 신능건만 하고, 무신 허드렛물. [그레 옛날에 이제 샘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먹는 것 그릇 씻는 것만 하고, 무슨 허드렛물.]

10608 # 소거통거또 엔나레 인제, 세죽 끄린다고 무럴 가따 마니 부서야 되자녀. [소 거름 같은 것도 옛날에 이제, 쇠죽 끓인다고 물을 갖다 많이 부어야 되잖아.]

10608 # 궁개 무리 자그니깨 자그니깨 점부 또랑물 드러다가 저무부다 인제 먹꼬, 거기서 걸리 빨꼬, 소 세죽 끄링거또 거기서 인제, 또랑에서 드러다가 인제, 슬따 부서가꼬 세죽 끄리주고 그러케 헐끄든요. [그러니까 물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전부 또랑물 들어다가 전부다 이제 먹고, 거기서 걸레 빨고, 소 쇠죽 끓이는 것도 거기서 이제, 도랑

에서 들어다가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쇠죽 끓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10608 # 게서나. [그래서나.]

10608 # 화재도 아주 방지가 돼요. [화재도 아주 방지가 돼요.]

10608 # 춤머니 부리 난파고 불나파고 막 동네 사람드리 막 팡: 모여서 뽀뽀 그놈 가지고 막, 그렇거 막 또랑에 가서 인자 물 그냥, 거다 퍼다가 이케 부스머는. [처음에 불이 났다고 불났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팡 모여서 뽀뽀 그 놈 가지고 막, 그런 것 막 또랑에 가서 이제 물 그냥, 거기에다 퍼다가 이렇게 부으면,]

10608 # 일찌거니 발견허면 꺼뿌려요. 꺼뿌리는데. [일찍 발견하면 꺼버려요. 꺼버리는데.]

10608 # 이걸 아니봐따 할찌머는, 불만 나면, 불나따면, 소그로 그만 부리 확 드러가빠리네. [이것을 안해놓았다 할때는, 불만 나면, 불났다면, 속으로 그만 불이 확 들어가버리네.]

10608 # 소그로 드러가, 위에 위에서 물 부서받자 안되자나요. 잘. [속으로 들어가, 위에 위에서 물 부어보았자 안 되잖아요. 잘.]

10608 # 거 한번, 쉬게로 확 번제버리고. [그 한번, 쉽게 확 번져버리고.]

10608 # 게서 인재, 화재 또 인재 빵지가 마니 되고, 화재도 방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화재 또 이제 방지가 많이 되고, 화재도 방지가 되고.]

10608 # 또 인재, 이 더위, [또 이제, 이 더위]

10608 # 그레 인재 알때 치고 알때 찌고 미티다가 이케 발라요 또, 거기 흐기로. [그레 이제 알때 찌고 알때 찌고 밑에다 이렇게 발라요, 또 거기에 흠으로.]

10608 # 매:꼬마니. [매콤하니.]

10608 # 거시기라고 인재, 지르기로 함번 발르고, 또 새올린다고 지르그 이케, 지르그로 인재 저 내내 이기가꼬 집 서꺼가꼬 함벌로 미세다 또 발라요 이르게. [거시기라고 이제, 진흙으로 한번 바르고, 또 새올린다고 진흙 이렇게, 진흙으로 이제 저 내내 이겨 가지고 질 섞어가지고 한 벌로 밑에다 또 발라요 이렇게.]

10608 @ 지르그로 발러요? [진흙으로 발라요?]

10608 # 미트다. 미트다 발르고는 그 이케 말르면 막 이케 트미가자나요. 금개 곱떨 아너 차야. [밑에다. 밑에다 바르고는 그 이것이 마르면 막 이렇게 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곱들 안하잖아.]

10608 @ 예. [예.]

10608 # 그러면 인재 새올린다고 모래하고 이 지르글 그다 모래하고 쪼끔 서꺼가꼬, 땀 땀 함번 발러 이르게. [그러면 이제 새올린다고 모래하고, 이 진흙을 거기에다 모래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땀 땀 한번 발러 이렇게.]

10608 # 배 그러면 인재, 버러징거도 매:꼬마지. [배 그러면 이제, 버러진 것도 매콤하지.]

10608 # 보기 조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10608 # 고로케 해서나 인재. [그렇게 해서나 이제.]

10608 @ 그 새올린다고 그래요? [그 새올린다고 그래요?]

10608 # 예, 새올린다고. [응, 새올린다고.]

10608 # 그래서 인재 도리, 도리 배까티만. [그래서 이제 도리, 도리 밖에만.]

10608 # 그리서 이르게 바르면, 깨까더니 이제는 매꼬머니 조차녀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깨끗하니 이제는 매콤하니 좋잖아요.]

10608 # 그르게... [그렇게...]

10608 @ 배까테가 다 그러케 돼인싸가지고, 안에도 다 그런지 아란떠니, 안에는 한집또
 인꼬 안한집또 인꼬 그랜썸꾸만요 잉? [밖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도
 다 그런지 알았더니, 안에는 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고 그랬었구만요 잉?]

10608 @ 지블 보며는 대개 보면 바까테가 크러케, 배까테가 돼인싸가지고, 아 이거 다 흐
 그로 저 위에까지 그러케 되어인능감따 그랜떠니... [집을 보며는 대개 보면 밖에가
 그렇게, 밖에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것 다 흠으로 저 위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가보다 그랬더니...]

10608 # 어어. [어어.]

10608 @ 그 안된 부분도 인썸 인썸똥감만요? [그 안 된 부분도 있었 있었든가봐요?]

10608 # 도, 도리 아느로? [도, 도리 안으로?]

10608 @ 응. [응.]

10608 # 으, 그리요, 으. [응, 그래요. 응.]

10608 # 게서나, 큼, 우리때: 인제 집찐 사라면 보펜저그로 대개 그러케 마니하고, 그러케
 지고. [그래서나, 우리 때 이제 집 지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대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지고.]

10608 # 엔나레 그저네 저 으른들 으르신덜 왜 예 구식찐 만썸자나요. {옛날에, 그 전에
 저 어들들, 어르신들, 왜 예: 구식집 많았었잖아요.}

10608 # 엔날 구식찌번, 인는 사람덜 부재찌비 인는 사람더런 인제 내가 이야기한대로 도
 리 배까티로 하고 부어가고 이르게 알매를 찌고, 알매 찌고, 미꾸넉또 발르고 이르게
 하고 썸는다. [옛날 구식 집은, 있는 사람들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야
 기한대로 도리 밖으로 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알매를 찌고, 알매 찌고, 밀구넉도 바르
 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10608 # 움는 사람드른 그냥, 배까티도, 배까티고 부어기고 그냥, 게날, 그저 주절주려라니
 저럽 저리비 헤잉거시 비고 그냥 그랜썸썸.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도, 바깥에도
 부엌이고 그냥, 그 날, 그저 주절주절하니 저릅 저릅이 하얀 것이 보이고 그냥 그랬
 어요.]

10608 # 그랜썸썸썸. [그랬었어요.]

10608 # 그래 인제, 그러케 알매 썸 찌면 저 거시기도... [그래 이제, 그렇게 알매 썸 찌면
 저 거시기도...]

10608 # 부어기도, 부어기도 인제 그도 예가 막 거시가면 거무주리 막, 이르게, 엔나레는
 거무주리 아주 마나 시방보단요. [부엌에도, 부엌에도 이제 그도 여기가 막 거시기하
 면 거미줄이 막, 이렇게, 옛날에는 거미줄이 아주 많아 지금보다요.]

10608 # 거무줄 막 처노코 그라면 거가 머가 붙꼬 그러면 일녀니 썸게리라고 봄새로 인제
 청소릴 함번썸 하고 그러자나요. [거미줄 막 처놓고 그러면 거기에가 붙고 그러면 일
 려에 썸결이라고 봄철에 이제 청소를 한번썸 하고 그러잖아요.]

10608 @ 썸겨리? [썸결이?]

10608 # 예. [예.]

10608 # 엔나레 일본놈더리 썸게리라고 그랴. [옛날 일본놈들이 썸결이라고 그랴.]

10608 @ 응:. [응.]

10608 # 엔나레 보미로 인제 일본놈더리, 예: 썸게리라고 인제 함번 정제 과네서 시시гий
 과네서. [옛날에 봄으로 이제 일본놈들이, 예 썸결이라고 이제 한번 정 관에서 시켜

요. 관에서.]

10608 # 그러면 인제, 메칠나런 쟁겔허라고 그라거든. [그러면 이제, 며칠날을 청결하라고 그러거든.]

10608 # 그러면 인자 또랑가튼거또 좀 깨끄더게, 지비 청소하고 그런디. [그러면 이제 도랑같은 것도 조금 깨끗하게, 집에 청소하고 그런데.]

10608 # 지바네 거무줄거텅거 저거 다: 떨고 이러카머넌. [집안에 거미줄같은 것 다 떨고 그렇게 하먼은.]

10608 # 쟁겔검사라고 예 그저네 면, 읍싸무소, 시방은 읍싸무소라구허지, 그저네는 머니라 구제. [청결검사라고 예 그전에는 면, 읍싸무소, 지금은 읍싸무소라고하지, 그전에는 면이라고 그러제.]

10608 # 며네서 조사가 나와서 쟁겔검사 나온다고, 허허허. [면에서 조사가 나와요, 청결검사 나온다고, 허허허.]

10608 # 저 그럼서나 이장하고, 지네는 구장이제, 이쟁이 아니라, 구장허고... [저 그러면서나 이장하고, 전에는 구장이지, 이장이 아니라, 구장하고...]

10608 # 마:닝개 이제 다는 몬또라 땡기쟈냐, 대강대강 집집마도 인제, 어디 대강 도라땡기요. [많으니까 이제 다는 못 돌아다니잖아, 대강대강 집집마다 이제, 어디 대강 돌아다녀요.]

10608 # 도라땡김서, 그저네는 저, 고야칸 사람, 승질 지랄헌 사람 만나면 그럼 깨까시 잘 모대면 잘모땡따고 막 지적또 받꼬 그랜썬요. [돌아다니면서, 그전에는 저, 고약한 사람, 성질 지랄한 사람 만나면 그럼 깨끗이 잘 못 했다고 막 지적도 받고 그랬어요.]

10608 # 어 그런데, 고래 그 알매털 찌머넌 으레 그냥 그 쟁겔하고 존데, 여그 거무줄 거 텅거 들찌고, 근런디 알, 부어기 그냥 이르게 바르머는 알매털 안찌면 그냥 저러바고 그냥 그기 이썬개나... [그 그런데, 그렇게 그 알매를 찌면 으레 그냥 그 청결하고 좋은데, 여기 거미줄 같은 것 덜 찌고, 그런데 알, 부엌에 그냥 이렇게 바르면 알매를 안 찌면 그냥 저름하고 그냥 그것이 있으니까...]

10608 # 막, 거시기가 거무줄 거튼디서 자꾸 떠러지면 거그서 또인제 무신 거 작꺼시가 떠러지고 지랄만짜나요, 보기도 흥하고. [막, 거시가가 거미줄 같은 데서 자꾸 떨어지면 거시기 또 이제 무슨 그 잡것이 떨어지고 지랄맞잖아요. 보기도 흥하고.]

<도구>

10606 @ 그 바께쓰가 그때는 멀로 뵈써따고요? [그 바께스가 그때는 뵈로 되어있었다고요?]

10606 # 예? [예?]

10606 @ 엔날 그때는 바께쓰가 멀로 되어인썰썬요? [옛날 그때는 바께스가 뵈로 되어있었어요?]

10606 @ 주로. [주로.]

10606 # 아, 바께쓰가? [아, 바께쓰가?]

10606 @ 애. [예.]

10606 # 바께쓰라고 이거시 시방 그저니넌 베랑 업썰썬요. [바께쓰라고 이것이 지금 그전에는 뵈로 없었어요.]

10606 # 인재:. [이제.]

10606 # 요고시 인재 일짱때, 일짱말려니 이르케 감서나 해방되고 이르케 마니 나왓제.
[이것이 이제 일짱때, 일짱 말년에 이렇게 가면서나 해방되고 이렇게 많이 나왔지.]

10606 @ 예. [예.]

10606 # 엔나레는 그냥 이게, 물거통걸 길러도, 웅기, 동오라구라그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물같은 것을 길러도, 웅기, 동이라고 그러거든.]

10606 # 똥고로:마이 춤노풍건 동오라고고 나차마게 널:룸때낭건 널배기라고하고. [동그럼 하게 춤이 높은 것은 동이라고하고 낮게 넓다란 것은 자배기라고 하고.]

10606 # 게 어디가 무릎 게와도 길러와도 보편저그로 이제 그: 웅기거럭, 널배기나 동우.
[그 어디가 물을 길러와도 길러와도 보편적으로 이제 그 웅기그릇, 자배기나 동이.]

10606 # 아지먼네넌 엔나레넌: 이 시야미라구제 그 싸:미 집집마다 인능게 아니요. [아주 머니네는 옛날에는 이 샘이라고 하지, 그 샘이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요.]

10606 # 머, 통 삼: 엄넌집 점파넌썸썸썸. [뭘, 통 샘 없는 집 많았어요.]

10606 # 그저니... [그전에...]

10606 # 이제 동니 시야미라고 또 이르케 더르 인는디가 인꼬. [이제 동네 샘이라고 또 이렇게 더러 있는 데가 있고.]

10606 # 우리동네 저 마을 저 웨 마를배까티 인재, 거서 물 마:니나는 우물 그런디가 인썸 썸꼬 그래서나. [우리 동네 저 마을 저 위에 마을 바깥에 이제, 거기서 물 많이 나는 그런 데가 있었었고 그래서.]

10606 # 삼:인는 지비가서 동우 그놈 가주가서 인재, 이다가. 머리다가 인재 차구 머리다가 이구서는 땡깁짜네요. [샘 있는 집에 가서 동이 그놈 가지고 가서 이제, 이어다가, 머리에다가 이제 자꾸 머리에다 이고서 다녔잖아요.]

10606 # 그케 다 이다가 식썸썸 밥해먹꼬, 머:. [그렇게 다 이어다가 식수를 밥을 해먹고, 뭘.]

10606 # 세수까지넌 점부 그르케 이다가 이제 그르케 햐썸썸. [세수까지는 전부 그렇게 이어다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10606 # 그랑개 인재, 아주먼네가 참 대그넌썸 인재.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네가 참 대간했었지요 이제.]

10606 # 그리구서 인재... [그리고서 이제...]

10606 @ 바께쓰까 업꼬. [바께스가 없고.]

10606 # 어: 바께쓰. [어, 바께서.]

10606 # 이게 인재 바께쓰는 읍꼬, 엔나레: 그저니넌 그거또 읍썸썸. [이것이 이제 바께스는 없고, 옛날에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10606 # 엔나레는 소규, 서규 지럼, 소규지러미 양처리라고 소규 양처리라고 왜, 니모가 뺨 드다니 이리요.{옛날에는 석유, 석유기름, 석유기름에 양철이라고 석유 양철이라고, 왜, 네모가 반듯하니 이래요.}

10606 @ 애:. [예.]

10606 # 그래 고고시 인재 그기. [그래 그것이 이제 그것이.]

10606 # 인재 저: 워서 인재 올찌기 그 양철로 오능갑뜨만 엔나레는. [이제 저 어디에서 이제 올찌에는 그 양철로 오는 가보더만 옛날에는.]

10606 # 양철보당 시방에는 도라무통이 일찌마넌. [양철보다 지금은 드럼통이 있지마는.]

10606 # 저 언제, 어서 올쨌기 그 양치리다 소규를 점부 다마가꼬 와요. [저 언제, 어디에서 올쨌에 그 양철에다 석유를 전부 담아가지고 와요.]

10606 # 그래서 인재 소규가통거 바드로 가구 그라면 거 양철 인꺼든. [그래서 이제 석유 같은 것 받으러 가고 그러면 그 양철 있거든.]

10606 # 거 서규 양, 소규양치리라고 인재, 위에다 구녕 쪼만:치 이캐 쪼만치 돌버가꼬서 나두구, 나중 그거 다두면, 양치리 비자나요. [그 석유 양, 석유양철이라고 이제, 위에다 구멍 조그만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서 나두고, 나중 그것 다 두면, 양철이 비잖아요.]

10606 # 그럼 저, 그럼 제, 그거또 그제네닌 이제, 무주 그튼데 가서 산 산쨌요. [그럼 저, 그럼 저, 그것도 그전에는 이제, 무주 같은데 가서 샀 샀어요.]

10606 # 글고 소게 양치리라고, 양치리라고 이제 사다가, 니모가 니모가 이르게 뺏드다거든. [그리고 속에 양철이라고, 양철이라고 이제 사다가, 네모가 네모가 이렇게 반듯하거든.]

10606 # 니모가 뺏드다고, 추멍이 이마:나면요. [네모가 반듯하고, 춤이 이만하거든.]

10606 # 그럼 가운, 가운데다 이르게 나무를 이케, 인재, 들구 땡기기 조케 나무를 대고서 양쪼게 이르게 모설 제기머는 이제 들기가 존차나요. [그럼 가운, 가운데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기 좋게, 나무를 대고서 양쪽에 이렇게 못을 박으면 이제 들기가 좋잖아요.]

10606 # 그르케 해서 이제, 들구땡기, 사래미 들구땡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 다니, 사람이 들고 다니고.]

10606 # 그러면 또, 물찌개라고 햐쨌요. [그러면 또 물지개라고 햐어요.]

10606 # 지개라고 쪼그마니 맨드라 노코, 인재, 거시기릴 물양치릴 양쪼게다 이르게 노코, 저:, 고를 이르게 그시가꼬 새로 질머지면, 여기다 고를 이르게가지고 이르게 질머지면 뿔끈 들지. [지개라고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시기를 물 양철을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저 고를 이렇게 거시기해가지고 사이로 짹어지면, 여기에다 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짹어지면 불끈 들지.]

10606 # 이르게 해서 인재, 사래미 마니 거시강기면 거 인재 물찌개릴 지개릴 맨드러까꼬. [이렇게 해서 인재, 사람이 많이 거시기 하는 것이면 그 이제 물지개를 만들어 가지고.]

10606 # 거: 양쪼게다 물양철 다라가꼬, 그러캐서 남자더리 지 날란쨌요. 그 [그 양쪽에다 물 양철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지어 날랐어요.]

10606 # 그래서 식쭈릴 햐쨌요. [그래서 식수를 햐어요.]

10606 # 그 인재 마:이 쓰는데만 그러카고, 그외 그냥 지바니서 머 바배벽고 식쭈하능거 점:부 그냥 아주먼네가 다 그냥 그케 물똥오로 이케 이다가, 이다가 그러케 그냥 다 햐머겄쨌요. [그 이제 많이 쓰는 데만 그렇게 하고, 이 외 그냥 집안에서 뭐 밥햐 먹고 식수하는 것, 전부 그냥 아주머니네가 다 그냥 그렇게 물똥오로 이렇게 이어다가, 이어다가 그렇게 그냥 다 햐먹었어요.]

10606 @ 그 바께쓰가 맨처메 나올 때는 지금처럼 플라스틱기 아니고... [그 바께스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아니고...]

10606 # 아니, 플라스틱 아녀, 함석. [아니, 플라스틱 아니어, 함석.]

10606 @ 함서글 마니... [함석을 많이...]

10606 # 응 양철. [응, 양철.]

10606 # 플라스틱 이거선, 시방 인자 비니루 이케 나옴선 이케 푸라스티기 나완찌, 그저네
푸라스티기 어디가 일썌썌요? [플라스틱 이것은, 지금 이제 비닐 이렇게 나오면서 이
거 플라스틱이 나왔지, 그전에 플라스틱이 어디가 있었어요?]

<벽 바르기>

10602 @ 아까 그러케 허먼 인자 지붕, 지붕쫓건 뽕꼬. [아까 그렇게 하면 이제 지붕, 지붕
쪽은 났고.]

10602 # 애. [예.]

10602 @ 그러면 인자 지붕에 인자 그 천장까지 허고, 천장 위에다가 발른... [그러면 이제
지붕에 이제 그 천장까지 하고, 찬장 위에다가 바른...]

10602 @ 아참! 여 여페 여페 여페부터 인자. [아참! 여 옆에 옆에 옆으로부터 이제.]

10602 # 애. [예,]

10602 @ 지붕은 뽕꼬요, [지붕은 났고요.]

10602 # 애. [예.]

10602 @ 지붕부터 해네레요와? 아니면? [지붕부터 해 내려와요? 아니면?]

10602 # 지붕부터 해야지. [지붕부터 해야지.]

10602 @ 지붕부터 하지요잉? [지붕부터 하지요잉?]

10602 # 애. [예.]

10602 @ 그 저, 상냥 올리고 나서부터 지붕허고, 그다메 인자 미테 힐 때는, 벼근 어떻게
해요? 벼근? [그 저, 상냥 올리고 나서부터 지붕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할 때는, 벽은
어떻게 해요? 벽은?]

10602 # 그라고 완저니 인재 지붕은 이르케 뽕썌개 비가와도 비는 안만짜나요. [그리고 완
전히 이제 지붕은 이렇게 했으니까 비가 와도 비는 안 맞잖아요.]

10602 @ 애. [예.]

10602 # 비릴 안바지머넌. [비를 안 맞으며는.]

10602 # 인제 벽, 이거 보고 베기라 거덩, 시방은 이러케 부루쿠로 싸지만넌. [이제 벽, 이
것 보고 벽이라고 하거든, 지금은 이렇게 불력으로 싸지만은.]

10602 # 그람 중방하고, 큼, 미티 내가 아까 중방이라고 그렘짜나요. [그러면 중방하고, 밑
에 내가 아까 중방이라고 그렘잖아요.]

10602 # 저 도리 말고, 인방이라고. [저 도리 말고, 인방이라고.]

10602 @ 예, 인방. [예, 인방.]

10602 # 인방이라고 그건또 또 인재, 도리 미티다가 뽕: 도라감서 다 질러야돼요. 또. [인
방이라고 그것도 또 이제, 도리 밑에다가 뽕 돌아가면서 다 질러야 돼요. 또.]

10602 # 그러케 요기 중방 요기 지동거트머넌 뽕:위에 여기 거 저거 인재 도리, 뽕:험서
도리. [그러니까 여기 중방 여기 기둥같으면 뽕 위에 여기 저 저것 이제 도리, 뽕 하
면서 도리.]

10602 # 가운데 함목쌀할 거건 인재 보, 요미테 허능건 인방. [가운데 한 뭇을 할 그것은
이제 보, 이 밑에 하는 것은 인방.]

10602 # 요 미테는... [이 밑에는...]

10602 @ 이 맨위에가? [이 맨 위에가?]

10602 # 맨: 위에가 인제 도리, 가운데 하능건 저 아까도 이얘기헐찌만 저 보, 그리고 요 미티 가능거 인제 임방, 요 미티 맨 미티는 아까 중방이라고 인제 중방. [맨 위에가 이제 도리, 가운데 하는 것은 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 보, 그리고 이 밑에 가는 것 이제 인방, 이 밑에 맨 밑에는 아까 중방이라고 이제 중방.]

10602 # 그러면 인제 이 벼걸 이제 이걸 벼걸 마출라면요. [그러면 이제 이벽을 이제 이것을 벽을 맞추려면요.]

10602 # 여가 도리고, 여가 임방이고, 요만 요만치가 중방이자나요, 중방 인짜나요. [여기가 도리이고, 여기가 인방이고, 이만 이만큼이 중방이잖아요, 중방 있잖아요.]

10602 # 그러면, [그러면,]

10602 # 요사이 요사이 요사이하고, 요사이하고 또 뽕: 도라감서나 심싸리라고 하능기, 심싸리라고. [이 사이 이 사이 이 사이하고, 이 사이하고 또 뽕 돌아가면서 힘살이라고 하는 것이, 힘살이라고.]

10602 # @ 힘쌀? [힘쌀?]

10602 # 힘싸리라고 나무랄 인재, [힘살이라고 나무를 이제,]

이르케 인제, 그럼 인제 나무랄 외때기라고 인제 좀 쪼끔 큰 힘싸리라고, 그렇거슬 인제 뽕: 도라감서나, 새새 이러케 이케 저, 도리하고 도리하고 임방하고 이러케 뽕: 도라감서 이케.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나무를 윗가지라고 이제 좀 쪼끔 큰 힘살이라고, 그런 것을 이제 뽕 돌아가면서, 사이사이 이렇게 이렇게 저, 도리하고 도리하고 인방하고 이렇게 뽕 돌아가면서 이렇게.]

10602 # 드문드문 드문 이러케 꼬부야돼 인제, 해 꼬부야되야. [드문드문 드문 이렇게 꽃아야 돼 이제, 해 꽃아야 돼.]

10602 # 그라고 요 미티는 또, 미티 인재 중방하고, 요 임방. [그리고 이 밑에는 또, 밑에 이제 중방하고, 이 인방.]

10602 # 뽕:도라감서하고, 요사이, 요 새꺼지 점부 인재, 이케. [뽕 돌아가면서 하고, 이 사이, 이 사이까지 전부 이제, 이렇게.]

10602 # 시방 여기도 이제, 아래 위로 이 백꺼트면 요. [지금 여기도 이제, 아래 위로 이 벽같으면 요.]

10602 @ 애. [예.]

10602 # 아래위로 이러케 심싸릴 이러케 점부 해바가야. 이런 나무로 해바가야 되요. [아래위로 이렇게 힘살을 이렇게 전부 해 박아야. 이런 나무를 해 박아야 돼요.]

10602 @ 그거슨 문쩔허응게 아니고? 구멍을 뚜려서 가따 끼우능거여? [그것은 못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갖다 끼우는 거요?]

10602 # 구멍도 뜯부, 구멍또 뜯끼도 하고 인재, [구멍도 뚫기, 구멍도 뚫기도 하고 이제.]

10602 # 이 저: 끌거녕기나 짜구 거팅기로, 요곤드러갈 때를 인재, 살짝살짝 어떠케 쪼끔, 쪼끔 이러케 파요. 이르케. [이 저 끌같은 것이나 자귀같은 것으로, 이것 들어갈 데를 이제, 살짝살짝 쪼끔, 쪼끔 이렇게 파요. 이렇게.]

10602 # 파고 왜, 고모 나무 이제 물... [파고 왜, 그 머 나무 이제 물...]

10602 # 새기녕걸, 심싸리라고 거든요. 심쌀. [새기는 것을 힘살이라고 하거든요. 힘살.]

10602 # 심싸리랑거 인재, 나무랄 인재, 여기 이기거트면 요그도 뽕쪼가니 요로케 요로케, 뽕쪼 뽕쪼한 인제 각꼬, 여그서 뽕쪼 뽕쪼 뽕쪼 각꺼든요. [힘살이라는 것은 이제, 나

무를 이제, 여기 여기같으면, 여기도 뽕족하게 이렇게 이렇게, 뽕족 뽕족한 이제 깎고, 여기서 뽕족 뽕족 뽕족 깎거든요.]

10602 # 게 우에 여기 거기 거기다 쪼그만치 파요, 그래 여그다 이리캐 대구서나 요노무 요로케 쪼끔 빼따가머는 요노미 쪼끔 질자나요, [그 위에 여기 거기 거기에다 쪼그만하게 파요. 그래 여기에다 이렇게 대고서 이놈을 이렇게 조금 빼딱하면 이놈이 조금 길잡아요.]

106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2 # 요로케 요로케 때려. [이렇게 이렇게 때려.]

10602 @ 아:. [아.]

10602 @ 때리면 요노미 저 고 새로 드리감서나 이 팽팡해지자냐. [때리면 이놈이 그 사이로 드리가면서나 이 팽팡해지잖아.]

106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2 # 이게 이리캐 이리캐 안빠찌냐냐.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안 빠지잖아.]

10602 # 그냥 가따 이리캐 찢르머는 구녀글 돌코 그냥 머한다. [그냥 갖다 이렇게 찢르면 구멍을 뚫고 그냥 뒤흔데.]

10602 # 그러케 그러케 해구서나.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10602 # 축: 인재, 우하고 미티하고, 그 라무털 중간중간 인재, 힘싸리라고 이리캐 해 바가요. [죽 이제, 위하고 밑에 하고, 그 나무를 중간중간 이제, 힘살이라고 이렇게 해 박아요.]

10602 # 힘싸릴 다 해바가쓰면 인재, 거그다 또 인재, 아까 지가 얘기 현대로, 외때기라고, 외때기라고 저... [힘살을 다 해박았으면 이제, 거기에다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윗가지라고, 윗가지라고 저...]

10602 # 쭈수나무, 쭈수나무 왜 그 아까 얘기했자나요. [쭈수나무, 쭈수나무 왜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602 # 그노멸 집찢 사라면 인재 미리 마련해노코 파:니 마련해노크덩. [그놈을 집 찢 사람은 이제 미리 마련해놓거든 많이 마련해놓거든.]

10602 # 그림 인재, 그노멸 쭈쭈때기털 이르케 헨쓰면, 산내키로 산내키 파가꼬, 그 심싸리다가 인재 산내키털 다라매가꼬. [그러면 이제, 그놈을 수숫대기를 이렇게 했으면, 새끼로 새끼 꼬아가지고, 그 힘살에다가 이제 새끼를 달아매가지고.]

10602 # 그 저런 베름빱 인쓰머는 인재 요 하나 다하자머는 사래미 뒤시나 서이나 이르케 돼요. 서이나 보통돼야. [그 저런 벅 있으면 이제 이 하나 다 하자면 사람이 두엇이나 서이나 이렇게 돼요.]

10602 # 하나는 가운데 인꼬, 양쪽 가지 인꼬:. [하나는 가운데 있고, 양쪽 가에 있고.]

10602 @ 애. [예.]

10602 # 그 인재, 그림 하나씩 이르케 댐서나 산내키 차꾸 얼거. [그 이제, 그림 하나씩 이렇게 대면서 새끼 자꾸 얹어.]

10602 # 얼그면, 죽: 올라가요 그래. 완저니. [얹으면, 죽 올라가요. 그래. 완전히.]

10602 # 그림 인재 그거시 품 마니 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품 많이 저요.]

10602 @ 애:. [예.]

10602 # 그 인재 완저니 인자 다 그걸 다 이제 외:영는다고 그라거든 그걸보고. [그 이제 완전히 이자 다 그것을 다 이제 외 역는다고 그러거든 그것을 보고.]

10602 @ 외영는다고? [외 역는다고?]

10602 # 외영은다고. [외 역는다고.]

10602 @ 아! 위에서 외때기를 영는다고 해서 외영는다고 허는감만요? [아! 위에서 윗가지를 역는다고 해서 외 역는다고 하는 가보네요?]

10602 # 예, 외영는다고. 예. [예, 외 역는다고. 예.]

10602 # 외를 다 열건, 다 열건짜나요. [외를 다 엮었, 다 엮었잖아요.]

10602 # 다 열건쓰면 인자 또, 흙, 호글 내내 이기가꼬, 호글 이기가꼬 인자 거기다가. [다 엮었으면 이제, 또, 흙을 내내 이겨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10602 # 인재 지별 인재 쓰러가꼬 드문드문 인자 지버너코 그러다가 인재. [이제 짚을 이제 썰어가지고 드문드문 이제 집어넣고 그러다가 이제.]

10602 # 호기 무지하니 마니드러가요. 인재. [흙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이제.]

10602 # 호걸 마:니 인재 이겨 이제 막. [흙을 많이 이제 이겨 이제 막.]

10602 # 사람 막, 서너너더시 인재, 삽 이케 사비다가 이제 저 꼬나파럴 이케 제기, 엔나레 년 제기 제꾸라고 그랜꼬, 끈나팔 달고 하나년 삽 들고, 양쪼그서 두리 막, 호글 마니 잉개 머 히미들자녀, 궁개 막. [사람 막, 서너너더이 이제, 삽 이렇게 삽에다가 이제 저 꼬나풀을 이렇게 제기, 옛날에는 지개꼬리라고 그랬고, 꼬나팔 달고 하나는 삽 들고, 양쪽에서 둘이 막, 흙을 많이 이기니까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막.]

10602 # 두리 자부댕기고 이르게 자꾸 이르게 호글 뒤고, 또 인재 가마이때기라고 혼가마 때릴 이르게 느쿠서 인자 지근지근 발바요. [둘이 잡아당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흙을 뒤엎고, 또 이제 가마니때기라고 현 가마니때기를 이렇게 넣고서 이제 자근자근 밟아요.]

10602 # 그 호기 착착 차지게 잘 이기지. [그 흙이 착착 찰지게 잘 이겨져.]

10602 @ 예. [예.]

10602 # 함번 뒤고, 가마이때기릴 느코 막 이케 사라미 박꼬. [한번 뒤집고, 가마니때기를 넣고 막 이렇게 사람이 밟고.]

10602 # 이리 뒤고, 저리 뒤고 이르게 뒤가꼬서 가마이때기로 박꼬.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가마니때기로 밟고.]

10602 @ 아까 그 삽에다 이러케 끈 매는 거슬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그 삽에다 이렇게 끈 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10602 # 으? [응?]

10602 @ 사 사비다 끈 끈 요로케 매서 자바댕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그레요? [사 삽에다 끈 끈 이렇게 매서 잡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레요?]

10602 # 저 끈내키는 인재, 지게꼬리라고 지게꼬리라고 엔나레 지게에다가 인재 이저. [저 꼬나풀은 이제, 지개꼬리라고 지개꼬리라고 옛날에 지개에다가 이제 이 저.]

10602 # 지게꼬리라고 이제 그걸 다라매야 지게다 뭘 수부:가니 너 질머지머는 지게꼬리를 이르게 다라매야, 꼭 다라매야 이케 안너머가지 지게꼬리를 안대면 후딱 너머가 빠리쟈냐. [지게꼬리라고 이케 그것을 달아매야 지개에다 뭘 수북하게 짚어지머는 지개꼬리를 이렇게 달아매야. 꼭 달아매야 이렇게 안 넘어가지 지개꼬리를 안 대면 후딱 넘어가버리잖아.]

10602 @ 애. {예.]

10602 # 지게꼬리 그노멀 풀러가꼬, 여기 사비다가 인재, 그 흥이길똥아니만, 사비다가 이

르케 다라매요. [지개꼬리 그놈을 풀어가지고, 여기 삼에다가 이제, 그 흙 이길 동안에만, 삼에다가 이렇게 달아매요.]

10602 # 다라매서 삼 저 끈내 펼 두 줄로, 이케 두 줄로해서 두리 자버댕겨, 두리 자버댕기고. [달아매서 삼 저 꼬나풀을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해서 둘이 잡아다녀, 둘이 잡아당기고.]

10602 # 하나넌 삼 이르케 대고. [하나는 삼 이렇게 대고.]

10602 @ 지개꼬리라고 그러요? 지그먼? [지개꼬리라고 그래요? 지금은?]

10602 # 지개꼬리, 지개꼬리 거그다 다라매가꼬. [지개꼬리, 지개꼬리 거기다 달아매가지고.]

10602 # 지개꼬리도 다라매고, 또 산내키도 인재 실란눔, 산내키도 시란눔 다라매서 하고 인재 그정 그리오. [지개꼬리도 달아매고, 또 새끼도 이제 실한 놈, 새끼도 실한 놈 달아매서 하고 이제 그것은 그래요.]

10602 # 노상 지개꼬리만 허능게 아니고. [항상 지개꼬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602 # 그래 새기, 호기 완저니 다 인재, 이계절쓰면 인재. [그래 색이, 흙이 완전히 다 이제, 이겨졌으면 이제.]

10602 # 이진 이기 방이자나요? 이런 방? [이것은 이거 방이잖아요? 이런 방?]

#10602 이런 방이다가 인재, 가마이럴 이케 가따 피고 인재, 하나는 이케 퍼다줘. [이런 방에다가 이제, 가마니를 이렇게 갖다 피고 이제, 하나는 이렇게 퍼다줘.]

10602 # 방이다가. [방에다가.]

10602 # 하나넌 이케 퍼다주고, 인재: 그구 인재, [하나는 이렇게 퍼다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10602 # 여 벽 발르는 양반보고, 토수라구라, 토수. [이 벽 바르는 양반보고, 토수라고 그래 토수.]

10602 # 토수는 인재. [토수는 이제.]

10602 # 요로케 영나겅씨 저: 송판때기로요, 요마:너게 여기가 이러케 커게 짜고 인자. [이렇게 영락없이 저 송판때기로요. 이만하게 여기가 이렇게 크게 짜고 이제.]

10602 # 미테다 이르케 바치고 인재 손 거머쥐게 조케 향기 인씨. [밑에다 이렇게 받치고 이제 손 거머쥐기 좋게 한 것이 있어.]

10602 # 하나는 인재, 하나넌 저 배까티 흥:이깁걸 방에다가 노코, 벽 바르는데 하나넌 인재 여기서 서서나, 거 인재, 호카리라고 이제, 나무로 이러케 납짜:가니 이룽거 까르서, 이르케 폭 뜨면, 떠서나 여기다 이르케, 그 저 토수, 토수, 요룽거 이르케 거머쥔꺼든 흑반능걸, 그 반능걸 흑쏘니라그라. [하나는 이제, 하나는 저 밖에 흙 이진 것을 방에다가 놓고, 벽 다른 데 하나는 이제 여기서 서서, 그 이제, 흙칼이라고 이제, 나무로 이렇게 납작하게 이런 것 깔아서, 이렇게 폭 뜨면, 떠서 여기다 이렇게, 그 저 토수, 토수, 이런 것 이렇게 거머쥐었거든 흙 받는 것을, 그 받는 것을 흙손이라고 그래.]

10602 # 흑빠침, 흑빠치미여, 흑빠치미라구라. [흙받침, 흙받침이여, 흙받침이라고 그래.]

10602 # 게 가따주머는 이제 토수는 그 흑, 흑쏜, 쇠, 쇠로 땡등거 베름빠게다 대고 이르케 이르케 발라 자꾸, 자꾸 발라, 이르케. [그 갖다주머는 이제 토수는 그 흙, 흙손, 쇠, 쇠로 만든 것 벽에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 자꾸, 자꾸 발라, 이렇게.]

10602 # 그 발르능거 흑쏜, 요건 인재 받는 흑빠침. [그 바르는 것 흙손, 이것은 이제 받는 흙받침.]

10602 @ 흑빠침? [흙반침?]

10602 # 흑빠침. [흙반침.]

10602 # 게서 인재, 게:속 그르케 해요 인재.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해요 이제.]

10602 # 배까치서 하나 인재 퍼다주고, 여기서 하나 인자 퍼주고. [밖에서 하나 이제 퍼다주고, 여기서 하나 이제 퍼주고.]

10602 # 인재, 목쭈 토수 토시양반 저그다 이르케 발르고. [이제, 목수 토수 토수양반 저기에다 이렇게 바르고.]

10602 # 그러칼라머는, 인재. [그렇게 하려면, 이제.]

10602 # 이 상 에르 드러서 인재 사카나니 상칸찌벌 함벌 막, 한번만 발르는데, 한번말 발르는데, 그기 한 이트른 해야 대야 토수 혼채. {이 상, 예를 들어서 인재, 사칸이나 삼칸 집을 한 벌 막, 한번만 바르는데, 그것이 한 이틀은 해야 돼, 토수 혼자.}

10602 @ 이틀... [이틀...]

10602 # 이틀 다 발르고, 고노미 인재 어지가니 또 말라요 인재. [이틀 다 바르고, 그놈이 이제 어지간히 또 말라요. 이제.]

10602 # 말르머는 재베기라고. [마르면 재벽이라고.]

10602 # 요쪽만 발라썩개, 요조근 매꼬마니 발랏짜냐. [이쪽만 발랐으니까. 이쪽은 매끄럽게 발랐잖아.]

10602 @ 그러쵸. [그렇지요.]

10602 # 한조건. 저 매고마개 발라썩개 저짜그론 막 인자 울통불통하게 이러짜여 인자 막. 나가서나 울통불통하니. [한쪽은. 저 매끄럽게 발랐으니까 저쪽으로는 막 울통불통하게 이렇잖아 이제 막. 나가서는 울통불통하니.]

10602 # 그래 이제, 재베기라고 또 그러케 흐걸 개야 초부통가치 이가꼬 재베기라고 또 인자 나중에 인재 또 하나는 저 배까치서 인자 사비로 퍼다주고, 하나는 여기서 이르케 떠주고 이제 토수는 이르케 또 발라요. [그래 이제 재벽이라고 또 그렇게 흙을 개야 초벽때같이 이겨가지고 재벽이라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하나는 저 밖에서 이제 삽으로 퍼다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떠주고 이제 토수는 이렇게 또 발라요.]

10602 # 그림 재베기라고, 그거또 한 이틀해야대야. [그림 재벽이라고, 그것도 한 이틀해야 돼.]

10602 # 그림 인재 초벽, 재벽. [그러면 이제 초벽, 재벽.]

10602 # 그라고 완저니 인재 이름 베름빠기 이르케 댄짜녀요 인재. 칸카니, 칸카니 이르케.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러면 벽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칸칸이, 칸칸이 이렇게.]

10602 # 베름빠그 댄쓰머는. [벽이 됐으머는.]

10602 # 그담 인자 또. [그다음에 이제 또.]

10602 # 인재, 고로케 해노쿠서는 인재.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10602 # 이 방버텨 뉘 인자. 방이요. 방. [이 방부터 뉘 이제. 방이요. 방.]

10602 @ 벽해노코요? [벽 해놓고요?]

10602 # 응 벼게는 초벽 다 다발라짜나요. 초벼그 다 발로노코 인재 방버텨 해요. [응, 벽에는 초벽 다 달랐잖아요. 초벽을 다 발라놓고 이제 방부터 해요.]

10602 # 방얼 인자 괴... [방을 이제 괴...]

10602 @ 중방 미테도, 중방 미테도 아까 그 뭐야, 그 저 힘싸를 해요? [중방 밑에도, 중방 밑에도 아까 그 뭐야. 그 저 힘살을 해요?]

10602 # 이게 인재, 요기 저, 아까 여 중방으 지른다고 하얀짜냐요. [이것이 이제, 여기 저, 아까 여 중방을 지른다고 했잖아요.]

10602 # 여가 지동뿌리고, 여기 인재, 요 미티가 또, 요기는 중방 요 우에. [여기가 기동뿌리고, 여기 이제, 이 밑에가 또, 여기는 중방 이 위에.]

10602 @ 그러치. [그렇지.]

10602 # 요 미티닌 칸카니 점부, 도걸 거 갱벼니 가서 도걸 지다가, 우리 저: 엔나레 그 흙땀, 담 싹차냐요. [이 밑에는 칸칸이 전부, 돌을 그 강변에 가서 돌을 지어다가, 우리 저 옛날에 그 흙담, 담 싹잖아요?]

10602 # 게 중방 싹는다고, 흐간채 노코 도간채 노코 흐간채 노고 해가꼬. 뽕: 도라감서 이러케 칸카니 하고, 침:부 중방얼 이러케 싸요. [그 중방 싹는다고, 흙 한채 놓고 돌 한 채 놓고 흙 한 채 놓고 해가지고. 뽕 돌아가면서 이렇게 칸칸이 하고, 전부 중방을 이렇게 싸요.]

10602 @ 아:. [아.]

10602 # 중방. [중방.]

10602 # 중방부터, 내가 야걸 지텐는데, 중방부터 싸노코, 이 저 초벽 재벽부터 해요. [중방부터, 내가 이야기를 지냈는데, 중방부터 싸놓고, 이 저 초벽 재벽부터 해요.]

10602 # 그 이제, 중방부터 싸노코. 도그로 인재 팽 도라감서 싸노코. [그 이제, 중방부터 싸놓고, 돌로 이제 뽕 돌아가면서 싸놓고.]

10602 # 그라든 인재, 중방 싸고, 초벽 재벽 재고, 칸카니 이케 땀짜냐요. [그러면 이제, 중방 싸고, 초벽 재벽 재고, 칸칸이 이렇게 땀잖아요.]

<구들 놓기>

10602 # 그람 인재 방 이 방부터 놔요 인재. 방. [그러면 이제 방 이 방부터 놔요. 이제, 방.]

10602 # 그 괴또리라고, 괴또리라고 인재, 이런 이런 방에다 이케 족: [그 핏돌이라고, 핏돌이라고 이제, 이런 이런 방에다 이렇게 족.]

10602 # 그저니는 여그서 부릴 때머는, 공개인재 불 두로오게 이케, 줄:주리 이케 인재 거시기릴 하야 부리 드리오거든. [그전에는 여기에서 불을 때면, 그러니까 이제 불 들어오게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제 거시기를 해야 불이 들어오거든.]

10602 # 거 괴또릴 인재, 이케 노머닌, 웨다 이케게 구드리라고 독 납짱납짱건노멸 이케 괴또레다 이러게 노자냐요. [그 핏돌을 이제, 이렇게 놓으면, 위에다 이것 이것 구들이라고 돌 납작납작한 놈을 이렇게 핏돌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10602 # 거 괴또를 암겔 암꺼나 아냐 안돼 이게. [그 핏돌 아무것 아무것이나 안해, 안 돼 이게.]

10602 # 고 웨 동노키 존놈. 드문드문 가레가꼬서 인재, 거 갱변 가 인재 거또 인재 사라미 하나씩 하나씩 지다 이제 모도케 놔요, 모도케 놔따가. [그 위에 돌 놓기 좋은 놈. 드문드문 갈려지고서 이제, 저 강변 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다 이제 모아놔요. 모아 놓았다가.]

10602 # 이런 방에다 이제, 주 저:그서부터 줄줄 이러케 이제 괴또기라고 드문드문 이러케 삭: 놔요. 이러케. [이런 방에다 이제, 주 저기서부터 줄줄 이렇게 이제 핏돌이라고

드문드문 이렇게 싹 놔요. 이렇게.]

10602 # 삭: 이케 머냐 놔노면 이제 구두리라고, 납작납작건 독. [싹 이렇게 뭐냐 놔놓으면 이제 구들이라고, 납작납작한 돌.]

10602 # 납작납 독 도기 시방 이룬데 암테나 엽짜나요. [납작 납 돌 돌이 지금 이룬데 아무 테나 없잖아요.]

10602 # 그 구들 뜨는, 그 바오가, 뜨는다가 따로 일썤요. [그 구들 뜨는, 그 바위가, 뜨는 데가 따로 있어요.]

10602 # 우리 동네는 저 미티 저 시방 아래 저 응고리라고 한디요. [우리 동네는 저 밑에 저 지금 아래 저 응골이라고 하는 데요.]

10602 # 거가 구들 그러께 독 뜨는다가 일썤요. [거기가 구들 그렇게 돌 뜨는 데가 있어요.]

10602 # 그럼 인재, [그러면 이제,]

10602 # 사래미 여러시 가가꾸서 인재, 에 거 거시기릴. [사람이 여럿이 가가지고서 이제, 그 거시기를.]

10602 # 흐걸 이르게 거드제치면 이케 바우가 나와요 바우, 바우. [흙을 이렇게 걷어제치면 이렇게 바위가 나와요, 바위, 바위.]

10602 # 바우가 나오면 철짱이라고, 지대:넌 철짱 일썤요 왜. 그거하고 또 증이라고 쇠 요 마냥거하고 망치하고 이제 가주가서 거시가면 이케. [바위가 나오면 철장이라고, 기다란 철장 있지요 왜. 그것하고 또 정이라고 쇠 이만한 것하고 망치하고 이제 가지고 가서 거시가하면 이렇게.]

10602 # 때리고 증 이르게이르게허면 념:떡넵떠거고 뽕떡뽕떡하니 인나요 이케. [때리고 정 이렇게 하면 넓적 넓적 하고 벌떡벌떡하니 일어나요. 그것이.]

10602 # 구두리라고 구들 뜨로 간다고 구래요. [구들이라고 두들 뜨로 간다고 그래요.]

10602 # 그리가꼬 구들, 그거또 또 구드리라고 잘뜨는 사래미 일썤요. 고. [그래가지고 구들, 그것도 또 구들이라고 잘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10602 # 고 기술짜 잘뜨는 사래미 일썤. [그 기술자 잘 뜨는 사람이 있어.]

10602 # 그리가지고 구두렐... [그래가지고 구들을....]

10602 # 재수가 일쓰면 쉬러케 되면 하루가 어지가 하루어지가니가서는 인자 구드렐 삼카 나라등가 사카나라등가 이르게 뽕거슬 뜨는데. [재수가 있으면 수월하게 되면 하루가 어지간히 하루 어지간히 가서는 이제 구들을 삼칸이라든가 사칸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을 뜨는데.]

10602 # 잘 안, 잘 안되는 수가 일짜냐요. 안되면 머 한이틀 가서 해야 되요 그건. [잘 안, 잘 안되는 수가 있잖아요. 안되면 뭐 한 이틀 가서 해야 돼요. 그것은.]

10602 # 사람도 대시 가가꾸서나 인재 대여날 ***돼야. [사람도 댓이 가가지고 이제 대여날 ***돼.]

10602 # 거 인자 구드렐 완저니, 다 인재 마려내노면 다 떠노머는, 그인자 도기라놔서 또 짐수가 엄청 이케, 무거요 그케, 무거서. [그 이제 구들을 완전히, 다 이제 마려내 놓으면 다 떠놓으면, 그 이제 돌이라 놔서 또 짐수가 엄청 이것이, 무거워요. 그것이 무거워서.]

10602 # 사람, 그저네 공개 등어리로 지오자냐. 머러요 요기서. [사람, 그전에 그러니까 등으로 지어오잖아. 멀아요 여기서.]

10602 # 한 이키로, 이키로까지 너머요 예리, 거가 이키로 너머요, 이키로바니나 되는다.
[한 이키로, 이키로까지 넘어요. 오히려, 거기가 이키로 넘어요. 이키로 반이나 되는 데.]

10602 # 그러면 인재, 흑씨 인재 거머, 자기네 동고간 또 청구덜, 이제 소리해가꾸서 인재.
[그러면 이제, 흑씨 이제 거 뭐, 자기네 동기간 또 친구들, 이제 소리해가지고서 이제.]

10602 # 우리 저 집찔라고 저그다 구새릴 좀 뜨는디 함번씩, [우리 저 집 지으려고 저기에 다 구들장을 좀 떠놓았는데 한번씩.]

10602 # 자구나서 바로 아츰 먹끼저네, 식찌네 그 그걸 해장이라고 그러그던. [자고나서 바로 아침 먹기 전에, 식전에 그 그것을 해장이라고 그러거든.]

10602 # 해쟁에 한짐씩 좀 지다줘야겜파고, 이카면 이제. [해장에 한짐씩 좀 지어다 줘야 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602 # 통동뉘내서 이제 마니 사래미 막 이십명이 되든, 삼십명이 되든, 막 이르게서 인재. [총 통원해서 이제 많이 사람이 막 이십명이 되든, 삼십명이 되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10602 # 식찌니 막 좌우간 카까면, 날도 안새서 막 가요 인재. [식전에 막 좌우간 캄캄한, 날도 안 새서 막 가요. 이제.]

10602 # 가서 한짐씩 지오면 어재 다 지오린 수가 일썤요. [가서 한짐씩 지어요면 어지간히 다 저오는 수가 있어요.]

10602 @ 인자 돈 안받꼬 그냥... [이제 돈 안 받고 그냥...]

10602 # 애, 무료로. [예, 무료로.]

10602 # 애, 그건 그러케 보통 마니헐썤요. 그러케도 마니하고, [예, 그것을 그렇게 보통 많이 했어요. 그렇게도 많이 하고.]

10602 @ 그림 인재, 짬간만요, 피뚱과 피뚱 사이에는, 그 피뚱 쫙날쓰면, 바다기 점부다 비어 인능거요? 미테는? [그러며 인재, 잠깐만요, 핏돌과 핏돌 사이에는, 그 핏돌 죽 놓았으면, 바닥이 전부다 비어 있는 거예요?]

10602 # 다 비야제, 비야지. [다 비어야지, 비어야지.]

10602 # 비야 비야 부리 이르게 이르게, 이노미 이리 완따간따 완따간따, 부릴 때문 부리 사방 둘라 방이 이르게 뜨시지. [비어야 비어야 불이 이렇게 이렇게, 이놈이 이리 왔다갔다 왔다갔다, 불을 때면 불이 사방 돌아야 방이 이렇게 따뜻하지.]

10602 # 암비머는 암비머는, 예를 드려서 요만치만 거시거고 저짜건 암비면 부리 양가자냐요. 부리 양간디 방이 차서 안데지. [아 비면 안 비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거시기 하고 저쪽은 안 비면 불이 안 가잖아요. 불이 안 간 데는 방이 차서 안 되지.]

10602 # 게 지다가 피뚱 그러케 아까 게 게 줄:줄 드문드문 이케 놔가지고서나. [그 지어다가 핏돌 그렇게 아까 그 그 줄줄 드문드문 이렇게 놓아가지고서나.]

10602 # 구들 인자 그러케 윈노능거 그거또 또 인재, 잘논넌 사람 방 잘논넌 사라미 인썤요. 허허허. [구들 이제 그렇게 온 놓는 것, 그것도 또 이제, 잘 놓는 방 잘 놓는 사람이 있어요. 허허허.]

10602 # 방이 잘놔야 방이 골고로 뜨시다고 그러거등. [방이 잘 놓아야 방이 골고루 따뜻하다고 그러거든.]

10602 # 인재 그, 논는 사람 데리다가 인재 죽: 우대 깔지 도걸. [이제 그 놓는 사람 데려

다가 이제 죽 위에다 깔지 둘을.]

10602 # 이케 방논다고 그리칸디. [이렇게 방 놓는다고 그렇게 한데.]

10602 @ 그거슬 인자 방논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방 놓는다고 그래요?]

10602 # 으, 방논다 구랴. [예, 방 놓다 그래.]

10602 @ 그면, 그걸 하루에 다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다해요?]

10602 # 게 그걸, 방이 예를 드려서 시방 보통 인재 몸채는 방이 어지가너면 엔나레는 세 개썬썬요. 세개. [그 것을, 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이제 몸채는 어지간하면 옛날에는 세개였었어요. 세개.]

10602 # 세개 인재 사칸 진는 사래미 네개고, 보통이면 저저 세개여 인자 엔나레. [세개 이제 사칸 짓는 사람은 네개고, 보통이면 어지간히 세개여 어지간히 세개여 이제 옛날에.]

10602 # 방세개릴 놀라면 그거또 머 한 이틀 해야돼요 그걸, 기술짜가 논는 사라미. [방 세개를 놓으려면 그것도 뭐 한 이틀 해야돼요 그것을. 기술자가 놓는 사람이.]

10602 @ 그면, 잠깐만요. 저는 지금 좀 궁금하게, 요로케 방이 인따. 요 미테가 지금 (# 애애.) 요 미테가 지금 도리 그면 피또리 줄:줄 노여인따는 애기쥬잉? [그러면, 잠깐만요. 저는 지금 조금 궁금한 것이, 이렇게 방이 있다. 이 밑에가 지금 (# 예예.) 이 밑에가 지금 돌이 그러면 핏돌이 줄줄 놓여있다는 이야기지요, 잉?]

10602 # 애애. [예예.]

10602 @ 언저 노코 언저 마취가꼬? [엎어 놓고 엎어 맞춰가지고?]

10602 # 애. [예.]

10602 @ 그면 인자 그 피똥 위에는 지금 인자. [그러면 이제 그 핏돌 위에는 지금 이제.]

10602 # 도그로 인자 딸 방으 돌 까라. [돌로 이제 방에 돌을 깔아.]

10602 @ 구들 구들로 짹: 인자 퍼면되지요? [구들 구들로 짹 이제 퍼면 되지요?]

10602 # 그지요. [그렇지요.]

10602 @ 그면, 구들 그 피똥 노피는 대개 얼마끄미나 되야요? [그러면, 구들 그 핏돌 높이는 얼마큼이나 돼요?]

10602 # 피똥 노피? [핏돌 높이?]

10602 @ 애. [예.]

10602 # 피똥 노피는 찌그저저저 거시기. 병개. [핏돌 높이는 저 거시기. 경계.]

10602 @ 요 요거? [이 이것?]

10602 # 이이. [응응.]

10602 @ 한자썬 되건네? [한자썬 되겠네?]

10602 # 그러치 그러치, 애, 보통 그러. [그렇지 그렇지, 예, 보통 그러.]

10602 @ 그면 요... [그러면 여...]

10602 # 요 사이 돼, 요 사이. [이 사이 돼, 이 사이.]

10602 @ 그면 지금 방 전체가 요만큼 떠인따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방 전체가 이만큼 떠 있다는 이야기네요?]

10602 # 그러치요 인제 미테가 다떠인찌. [그렇지요 이제 밑에가 다 떠있지.]

10602 @ 아:. [아.]

10602 # 으. [응.]

10602 # 고고보다 고만치 떠 일쓰쭈도 일꼬, 요고만치 썬 나차쭈도, 요만치 요기. [그 그것

보다 그만큼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조금 낮을 수도, 그만큼 여기.]

10602 @ 애. [예.]

10602 # 요만치 떨쭈도 이꼬 그려 그건 인제. [이만큼 뜰 수도 있고 그래 그것은 이제.]

10602 # 쪼끔 노피하는 사람도 인꼬, 쪼끔 나차게 할쭈도 인꼬. [조금 높이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낮게 할 수도 있고.]

10602 # 엔나레 그전 어른드런 엔나레 그전 으드런 이러케 방을 뜨더보면, 방을 뜨더보며는. {옛날에 그전 어른들은 옛날에 그전 어른들은 이렇게 방을 뜯어보면, 방을 뜯어보며는.]

10602 @ 나차와요. 나차와서나 바로바로 미여. [낮아요. 낮아서 바로바로 메어.]

10602 # 근디, 우리덜:마니도 쪼끔 엔날 구식 쪼끔 미네짜냐. 그 우리덜 할쩌게년 저걸 요만치 쪼 노푸게 헐찌. 노푸게요. [그런데, 우리들만해도 조금 옛날 구식 조금 면했잖아. 그 우리들 할 적에는 저것을 그만큼 조금 높게 했지. 높게.]

10602 # 게 인재, 구들 짝: 까라짜냐요. [그 이제. 구들 짝 깔았잖아요.]

10602 @ 애. [예.]

10602 # 구들 짝: 까르던 또, 흑, 흘글 아까 병미기디기 이케 흘글 집또 그거또 지벌 지벌 쓰러서 흘걸 이제 너코 그려케 인재 그래땀 그거또 마:니 이기요, 마:니 이기야 되야 그건. [구들 짝 깔으면 또, 흙, 흙을 아까 벽 메기듯이 이렇게 흙을 짚도 그것도 짚을 짚을 찢어서 흙을 이제 넣고 그렇게 이제 그랬다면 그것도 많이 이겨요. 많이 이겨야 돼 그것은.]

10602 # 마니 이기 이기가꾸서 인재, 미티 괴뜰 노코, 위에 시방 이제 구들 짝: 까라짜냐요, 짝 까라쓰면 흘걸 이기가꼬 여기다 막 가따냐. [많이 이겨 이겨가지고서 이제, 밑에 콧돌 놓고, 위에 지금 이제 구들 짝 깔았잖아요. 짝 깔았으면 흙을 이겨가지고 여기에다 막 갔다냐.]

10602 # 가따노면 인재 토수라고, 내나 토수, 벽빨른 사람 그 토수라고 그 사래미 인재 흑칼로 이케 짝: 짝: 여 분대 이케 짝짝 문대, 짝 까라 함번, 흘걸. [갓다 놓으면 이제 토수라고, 내나 토수, 벽 바르는 사람 그 토수라고 그 사람이 이제 흑칼로 이렇게 짝짝 여 문질러 이렇게 짝짝 문질러. 짝 깔아 한번, 흙을.]

10602 # 세빵 세빵 이르케 까르냐. [세 방 세 방 이렇게 깔아냐.]

10602 # 까라노면 인재, 말르라고 인재, 사니 가서 막 나무, 나무 당작 이런 노무 나무를 베다가 인재, 미티다가 인자 부를 막 때요, 부를 때야 마를꺼 아니여. 며칠 때요 인자 부를. [깔아놓으면 이제, 마르라고 이제, 산에 가서 막 나무, 나무 장작 이런 놈의 나무를 베다가 이제, 밑에다가 이제 불을 막 때요. 불을 때야 마를 것이 아니야. 며칠 때요. 이제 불을.]

10602 # 며칠 때문 인재 방이 인재 흐기 바쌍 말르담 마리어. 바쌍 말르머넌. [며칠 때면 이제 방이 이제 흙이 바짝 마른다는 말이어. 바짝 마르면.]

10602 # 그러카고 나서는 이제: 그러카고 그러카노 나서는 인재, 여 거시기부텨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게 하고 나서는 이제, 여 거시기부터 해요.]

10602 # 벼름빡, 새. [벽, 새.]

10602 # 초벽, 초벽 재벼글 다 해짜냐. [초벽, 초벽 재벽을 했잖아.]

10602 @ 애. [예.]

10602 # 초벽 재벼글 다 헐는데, 거 아까 내가 그저 모래, 모래하고 모래하고 흑, 인재 차

진놈 찰진노미야 돼야 인자 그건, 흑 차진노멸. [초벽 재벽을 다 했는데, 그 아까 내가 그저 모래, 모래하고 모래하고 흙, 이제 찰진 놈 찰진 놈이어야 돼. 이제 거것은, 흙 찰진 놈을.]

10602 # 찰진노멸 가따 허니께 이걸 가따 베기다 부치도 잘 안 뜨자나요. [찰진 놈을 갖다 하니까 이것을 갖다 벽에다 붙여도 잘 안 뜨잖아요.]

10602 # 흑 차진놈하고, 흑 차진놈 그 질물. [흙 찰진 놈하고, 흙 찰진 놈 그 질물.]

10602 # 흑 차진노멸 이케 파다가 무릎 가따가 분꼬 이러께 흥덩: 흥덩: 이러카면 막 그놈이 인재. [흙 찰진 놈을 이렇게 파다가 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 흥덩 흥덩 이렇게하면 막 그놈이 이제.]

10602 # 도 돌거통거 미트로 인재 미트로 빠지고, 흑 흙물 거 진한 물만 이러께 위로 거자나요. [도 돌같은 것 밑으로 이제 밑으로 빠지고, 흑 흙물 그 진한 물만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10602 @ 애. [예.]

10602 # 그러면 그 흑 진한 물, 그노를 갈따가 모래다가 석꺼요. 모래하고. [그러면 그 흙 진한 물, 그 놈을 갖다가 모래에다 섞어요. 모래하고.]

10602 # 호가고 인재 배:배 저서 인재 이겨, 이겨가꾸서 내내 인재 벽빨르드끼 벽빨르드끼 인재 방으다 거러걸 이케 커마너니 가따노코 흑 그 모래허고 서끈노를 여그다 가따노코, 그거또 이제 하나는 이케 떠 이 거럭. [흙하고 이제 배배 저어 이제 이겨, 이겨가지고서 내내 이제 벽 바르듯이 벽 바르듯이 이제 방에다 그릇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갖다놓고 흙 그 모래하고 섞은 놈을 여기다 갖다놓고, 그것도 이제 하나는 이렇게 떠 이 그릇.]

10602 # 그건 오망:아니 인재 머, 질리지 안응거 오망하니 떠지능게 인썸. [그것은 옴팡하게 이제 뭐, 질지 않는 것 옴팡하게 떠지는 것이 있어.]

10602 # 그 거러게다, 그런 그런커션 이케 나무 막때기 지대넘이 인썸서나 떠지능게 인썸. [그 그릇에다, 그런 그런 것은 이렇게 나무 막대기 기다란 놈이 있어서나 떠지는 것이 있어.]

10602 # 그래서 인재, 그러미로 폭 떠가꼬 인재, 어 토수 주면, 토수가 이러께 인재, 새올린다고 하지. 새. [그래서 이제, 그놈으로 폭 떠가지고 이제, 으 토수 주면, 토수가 이렇게 이제, 새올린다고 하지, 새.]

10602 # 그거또 새올릴라면. [그것도 새올리려면.]

10602 # 삼칸집:할라면 거또 머 빨리하야 이틀, 이틀 빨리하야 한번만. [삼칸집 하려면 그것도 뭐 빨리해야 이틀, 이틀 빨리 해야 한번만.]

10602 # 그래 거그 채넌 양조게 다 발르채너요.{그래 거기 새는 양쪽에 다 바르잖아요.}

10602 @ 애. [예.]

10602 # 요쪽 발르고 요쪽 발르고 담 양조그 다 발르라머는 한 사일을, 사일오일간 해야돼요. 사일오일간. [이쪽 바르고 이쪽 바르고 다음 양쪽에 다 바르려면 한 사일을, 사일오일간 해야 돼요. 사일오일간.]

10602 # 방만 해 저여 베 베름빵만. [방만 해 저 벽 벽만.]

10602 @ 애. [예.]

10602 # 게 베름빱 인자 고로개서 싹 인자 뽕: 도라감선 윈 거시기릴 새릴 다 올렘짜나요. [그 벽 이제 그렇게 해서 싹 이제 뽕 돌아가면서 온 거시기를 새를 다 올렸잖아요.]

10602 @ 애. {예.}

10602 # 안쫄게 요쫄기도 하고 요쫄기도. [안쪽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10602 # 그 다올리썬 인재, 어지가니 인재 또 말라, 말르면 인재 방, 방으로 인재 맨 뒤지 인재. [그 다 올려서 이제, 어지간히 이제 또 말라, 마르면 이제 방, 방에도 이제 맨 뒤지 이제.]

10602 # 방도 인재 새를 이케 올려 그냥. [방도 이제 새를 이렇게 올려 그냥.]

10602 # 벼름빠과 가치. 모래하고 호가고, 인재 이리캐서 썩: 썩 바르지. [벽과 같이. 모래하고 흙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썩 썩 바르지.]

10602 # 그러면 이저 어지가지 인재, 기본저긴거 댜썬 인재.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이제, 기본적인 것은 댜썬. 이제.]

10602 # 이, 그럼 다된 테기 머. [이 그럼 다 된 턱이지 뭐.]

10602 # 그러니까 대뒹쓰머는 인재, 여 도리 배까티, 도리 배까티도 인재 웨: 저 그 알매친 미티다 인자 거 저 초벽바르디끼 호가고 그 지바고 서꺼 이르게 발란디 거그도 인재 또 인재 새라고 모래하고 해가꼬 또 그놈 또 올려야돼요. [그러니까 다 댜으면 이제, 이 도리 밖에, 도리 밖에도 이제 위에 저 그 알매 썬 밑에다 이제 저 저 초벽 바르듯이 흙하고 그 짚하고 섞어 이렇게 바른 데 그것도 이제 또 이제 새라고 모래하고 해가지고 또 그 놈 또 올려야 돼요.]

10602 # 애. {예.}

10602 # 그러카면 인재, 이제 지 어지가니 이제 다 댜썬 인재, 지비. [그렇게하면 이제, 이제 지 어지간히 이제 다 댜썬. 이제 집이.]

10602 # 그러면 인재, 예: 문, 문 사다가 인재, 문 사다가 인재, 문 달고 그러면, 지병이 되지요. 인재 다. [그러면 이제, 예 문, 문 사다가 이제, 문 사다가 이제, 문 달고 그러면, 지붕이 되지요. 이제 다.]

10602 @ 그러면, 인자 자, 인자 새까지 올렸썬요. 대개. 벼름빠게. 그먼 여기다가 종 종우 때기 발란썬요?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새까지 올렸썬요. 대개. 벽에. 그러면 여기다가 종 종이 발랐지요?

10602 # 애: 조~이 발란썬. [애, 종이 발랐지.]

10602 @ 종이 발란썬요이? [종이 발랐지요?]

10602 # 애. [예.]

10602 @ 그 엔나레는 {그 옛날에는.}

10602 # 애. [예.]

10602 @ 엔나레는 종이 암발르로 그냥 사람... [옛날에는 종이 안 바르고 그냥 사랐...]

10602 # 안발란썬요. [안 발랐썬요.]

10602 # 엔날 아무나 대** 그, 조~이가 그 발를 조~이가 어디 이까디. 도니 업썬개, 도니 업썬개. [옛날 아무나 *** 그, 종이가 그 바를 종이가 어디 있간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10602 @ 그먼 그냥 천장도 그냥 새만 발르고 그러케 새 올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냥 천장도 그냥 새만 바르고 그렇게 새 올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고?]

10602 # 애: . [예.]

10602 @ 옆, 여페도 그러케 두고, 그 바다근, 방빠다근 안뒹썬꺼 아녀, 방빠다근 그 그 호게서 잘 쑤는 업썬썬꺼 아녀요? [옆, 옆에도 그렇게 두고, 그 바닥은, 방바닥은 안뒹

을 것 아니야. 방바닥은 그 그 흙에서 잘 수는 없었을 것 아니예요?]

10602 # '자리. [자리.]

10602 @ 자리:~? {자리?}

10602 # 자리라고, 예:: [자리가라고, 예.]

10602 # 왕골, 그저네는 저: [왕골, 그전네은 저.]

10602 # 이 봄새로 이제 미나루짱이라고 이썬썬요, 미나루짱에. [이 봄에 이제 미나리짱이라고 있었어요. 미나리짱에.]

10602 # 우리 여 동네 마을, 마을 가운데에도, 가운데 이제, 이제 직성 다: 지비 돼서 인제. [우리 이 동네 마을, 마을 가운데에도, 가운데 이것이, 이제 ** 다 집이 돼서 있지.]

10602 # 엔나레는 거 인제 톨 여기 톨 임무럴 대가꼬 내내 놔마냥. 미나루짱이라구 이제. 끔: 미나리 알자네요? [옛날에는 그 이제 도랑 여기 도랑 이 물을 대가지고 내내 논 같이. 미나리짱이라고 이제. 미나리 알잖아요?]

10602 @ 예예. [예예.]

10602 # 미나리털 낚따가, 이제 보메, 봄미럴 썩: 베떡짜나요. {미나리를 놓았다가, 이제 봄에, 봄 밑을 썩 베떡었자나요? [미나리를 놓았다가, 이제 봄에, 봄이면 썩 베어 떡잖아요.]

10602 @ 애.[예.]

10602 # 그럼 미나리 뿌랭이럴 한쫘그로 지게가꼬, 노늘 잘: 새로 인제, 엔나레 머 소로 쓰르나 가라가꼬 소로 쓰리가꼬, 이르게 썩: 골라노쿠서 인제. [그러면 미나리 뿌리를 한쪽으로 모아놓고, 논을 잘 새로 이제, 옛날에 뭐 소로 썰어 갈아가지고 소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썩 골라놓고서 이제.]

10602 # 왕고리라고 왕고릴 싱귀요. [왕골이라고 왕골을 심어요.]

10602 # 왕고릴 싱구머는, 왕고리 이제 그 잘 되면 더 켜디. {왕골을 심으며는, 왕골이 그 잘 되면 더 켜디. [왕골을 심으면, 왕골이 이제 그 잘 되면 더 켜데.]

10602 # 잘되면 우리보다 한지리 더커요. 이케. [잘 되면 우리보다 한 길이 더 커요. 이렇게.]

10602 # 휘:떡 크지. [훨씬 크지.]

10602 # 왕고리 이제, 너무지기마냥 그랜썬썬등요. 왕고리라고. [왕골이 이렇게, 네모진 모양으로 그랜썬썬등요. 왕골이라고.]

10602 # 그래 왕고를 싱구면 인제: 치릴따레, 치릴따레 가면 인제, 고걸 왕고릴 비어요. [그래 왕골을 심으면 이제, 칠월달에, 칠월달에 가면 이제, 그것을 왕골을 베어요.]

10602 # 왕고릴 베어가꾸서나. [왕골을 베어가지고서나.]

10602 # 저저 이케 사람 소노로 켜개 이르게. [저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켜개 이렇게.]

10602 # 이르게 이르게 꺾떼기를 이르게 찌개고, 소기 그라면 하:야니 나와. [이렇게 이렇게 꺾떼기를 이렇게 켜개고, 속이 그러면 하얗게 나와.]

10602 # 왕골 소건 내노코 꺾떼기만 이르게 거이거면 이제. [왕골 속은 내놓고 꺾질만 이렇게 거시기하면 이제.]

10602 # 벼티다 이제 '말리 말리거등요. [별에다 이제 말리 말리거등요.]

10602 # 밀리가꼬, 그노멀 겨으레 이제 '사미로 이제 그건 '노, '노끄니라고 그라그든 노끈. [말려가지고, 그놈을 겨울에 이제 삼으로 이제 그것은 노 노끈이라고 그러거든 노

끈.]

10602 @ 사르로 쏜거? [삼으로 쏜 것?]

10602 # '사무로 사무로 이케 비비요 인재 자리. [삼으로 삼으로 이렇게 비벼요. 이제 자리.]

10602 # 자리 이제 칠꺼썰. [자리 이제 칠 것을.]

10602 # 노비빈다구래 그걸. [노비빈다고 그래 그것을.]

10602 # 사미로 찰:부 저 기계, 게 저 기계라고 인썰. 이러케 가따대고 이렇게*** 차꾸 피여 이러케. [삼으로 전부 저 기계, 그 저 기계라고 있어.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 차꾸 꼬여 이렇게.]

10602 # 삼서 이르케, 사르미 이르케 맨드란썰 내내 그거 저, 거시기릴. 피케 맨드란썰, 인재 그걸. [삼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 내나 그것 저. 거시기를. 꼬이게 만들었어 이제 그것을.]

10602 # 돌꼬시라구구란테 이걸. [돌겟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10602 # 용유나라가면 자꼬 인자 띄거든 그라구 인재. [용유이러케 하면 차꾸 이제 꼬이거는 그리고 이제.]

10602 # 삼:서 인재 이케가꼬 또 인재 거기다 이케 강꼬. [삼으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다 이렇게 감고.]

10602 # 또 이르케 *** 피이먼 이르케 강꼬 강꼬, 차꾸 그리서 **** 막: 게, 가마. 그노멸 그러케가꼬설랑언. [또 이렇게 *** 꼬이먼 이렇게 감고 감고, 차꾸 그래서 **** 막 게, 감아. 그놈을 그렇게 해가지고설랑은.]

10602 # 그 자리 자리 트는 트리 트릴썰요. [그 자리 자리 트는 틀이 틀이 있어요.]

10602 # 그 왜 아까 저 가마 트는 바디라고 일떠기, 자리 바디라고 자리바디는 이러케 구니기 자자::내가꼬 그냥, 가마니 바디는 이러케 구니기 큼직큼직항게 드문드문드문한데, 자리는 이르케 자자:너게 배요 이러케. 콕찰썰. [그 왜 아까 저 가마니 트는 바디라고 있듯이, 자리 바디라고 자리 바디는 이렇게 구멍이 자잘해가지고 그냥, 가마니 바디는 이렇게 구멍이 큼직큼직한 것이 드문드문드문한데, 자리는 이렇게 자잘하게 배요. 이렇게 콕 찌어.]

10602 # 그러케 그진, 예: 자리트리라고 이러케, 이러케 인꼬, 미트 봉개 왜, 여그다 이러케 큼 큼 노라고 노꼬니라거든, 노끈 이르케 이르케 이리 저리 이르캐서구나, 바디다 이르케 구녕 꿰가꼬 ... [그러케 그것은, 예 자리틀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밑에 보니까 왜, 여기에다 이렇게 노라고 노끈이라거든. 노끈 이렇게 이렇게 이리 저리 이렇게 해서나. 바디에다 이렇게 구멍에 꿰가지고...]

10602 # 게 게으르 인재 그: 왕골 그 찌깰너미로 인재. [그 겨울에 이제 그 왕골 그 쪼깰 놈으로 이제.]

10602 # 이짜게서 하나는 이르케 너주면 하나는 바드로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해서 자리가 이제 완성되자냐요. [이쪽에서 하나는 이렇게 넣어주면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리가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10602 # 그럼. [그럼.]

10602 # 옛날에는 공개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

10602 # 그 자리 한번 움는 지버언: 자리가 한번 싸다문 싹 펠라문: 얼러윌썰요. [그 자리 한번 움는 집은 자리가 한번 사다가 싹 퍼려면 어려웠어요.]

10602 # 그 자리끼미 밀썬썬요. ** [그 자리금이 비썬어요. **]

10602 # 보통 어느드 어느드 옛날 다 왕골자리라고 허거썬요. [보통 어느 어느 옛날 다 왕골자리고 하겠어요.]

10602 # 다 이제, 느께 나중으는 장:판 머 하고, 머하고 그래서 그러치. [다 이제, 늦게 나중에는 장판 뭐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렇지.]

10602 # 그: 저니는 엔나렌 첩부다 왕골자리끄등요. [그전네은 옛날에는 전부다 왕골자리였그던요.]

10602 # 그리 새 올림선 조께 왕골자리 자리 인자 고곧 폐고 그라고 잔썬. [그래 새 올리면서 조금 왕골자리 자리 이제 그것 퍼고 그리고 잤지.]

10602 @ 그러면 그냥 바다게 먼지가 폭썬썬 나건네? [그러면 그냥 바닥에서 먼지가 폭썬썬 나겠네?]

10602 # 나지요이:, 그럼 나중으 인제 그 후리문 나제. [나지요 이. 그럼 나중에 이제 그 후려치면 나지.]

10602 @ 근데: 방이 꺼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방이 꺼진다고 그렇지요?]

10602 # 예:. [예.]

10602 @ 방이 꺼진다고, 방이 어쩔때 꺼져요 그먼? [방이 꺼진다고, 방이 어쩔 때 꺼져요. 그러면?]

10602 @ 아까 그 인자 도를 다 까란쓰면 돌 사이에 트미 인썬서 꺼지능거요? 어떠케? [아까 그 이제 돌을 다 깔았으면 돌 사이에 틈이 있어서 꺼지는 거요? 어떻게?]

10602 # 괴또를 이르게 잉개 차 총느러노차나요. [핏돌을 이렇게 쭉 늘어놓잖아요.]

10602 @ 예. [예.]

10602 # 그라고 구드를 이르게 인제 우에다 노차냐. [그리고 구들을 이렇게 이제 위에다 놓잖아.]

10602 @ 예. [예.]

10602 # 구들 노면 아무래도 이기, 이게: 거시기가 마리어, 구드리 사래미 딱땅 맨 멀로 기계저그로 맨등거꺼뜨면, [구들 놓으면 아무래도 이것어, 이것어 거시기가 말어, 구들이 사람이 딱땅 맨 멀로 기계적으로 만든 것같으면,]

10602 @ 예. [예.]

10602 # 네모지게 이케 딱딱 그르케 귀가 이르게 딱땅 맨드라, 가따 마추면 이르게 이가 업썬 탁탁 만짜냐. [네모지게 이렇게 딱딱 그렇게 귀가 이렇게 딱딱 만들어, 갓다 맞추면 이렇게 이가 없이 탁탁 맞잖아.]

10602 # 만는데, 기기저그로 이게 이게 하능기 아니고, 그양 인제 사니가 이르게 이케 막 췌개, 멀로 췌개서 인제 쇠로 췌가가꾸서 이르게 거시강기라. [맞는데, 그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산에가서 이렇게 이렇게 막 췌개, 뭐로 췌개서 이제 쇠로 췌개가지고서 이렇게 거시기한 것이라.]

10602 # 머 뻘뻘뻘하니 머: 이 예를 드려 구수 구비면:, 이르게 이르게 뻘썬 나온 디 인꺼든, 거거거 '널부디 인꼬, 거시기 인꼬, 널분디 거인꼬, 그러차녀. [뭐 뻘뻘뻘하게 뭐 이 예를 들어 구들 굽이면, 이렇게 이렇게 뻘썬 나온 데 있거든, 그그그 넓은 데 있고, 거시기 있고, 넓은 데 그 있고, 그렇잖아.]

10602 # 그렇게 이기 귀거기 딱땅 마뜰 아냐 이기. 마뜰아는디. [그러니까 이것어 규격이 딱딱 맞지를 앓아 이것어.]

10602 # 귀거기 안마즈 안마증개 인재 고 고 사이사이는 이르캐 인재, 잔돌로 가따가 점부 잔돌로 가따가 쟁귀요 이기, 쟁귀 쟁귀요 인재, 노푸로 잔돌로. [규격이 안 맞으니 안 맞으니까 이제 그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이제, 잔돌로 갖다가 전부 잔돌로 갖다가 끼워요. 여기. 끼워 끼워요 이제, 높이로 잔돌로.]

10602 # 그래 그걸 인재, 잔돌로 쟁구고 그러거 인재 그거 잘논는 사람 몽논 사람 거기 인썸요. [그래 그것을 이제, 잔돌로 끼우고 그런것 이제 그것 잘 놓는 사람 못 놓는 사람 그것이 있어요.]

10602 # 그르캐 노면 인자 위에다 흑찌고 인재 새 올리고 위에다 자리르 까라짜냐. [그렇게 노면 이제 위에다 흑 찌고 이제 새 올리고 위에다 지리를 깔았잖아.]

10602 # 그면 사라미서 어디 막 도라댕기자냐 인재, 우선 막 막 뽀서뽀서 그러꺼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서 어디 막 돌아다니잖아 이제, 우선 막 막 뛰면서 뛰면서 그럴 것 아니야.]

10602 # 그러면 미티 저, 미티 돌 그 공군거시이: 뚝뚝뚝 하면 어떠카면 이기 빠지는 수가 인썸 어찌 어찌면. [그러면 밑에 저, 밑에 돌 그 고인 것이 뚝뚝뚝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빠지는 수가 있어 어찌 어찌 하면.]

10602 # 거림 그기 구드리 놀꺼아녀 이러캐, 그면 그 폭 꺼져뿌리 허허허.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놀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 폭 꺼져버려 허허허.]

10602 # 폭 꺼지면 거가 막, 뜯면 앵기가 풍풍 올라우지, 그래서 방꺼진다구래서 인재. [폭 꺼지면 거기가 막, 뚫으면 연기기 폭폭 올라오지, 그래서 방꺼진다고 그래서 이제.]

10602 # 고개, 양꺼지 잘 양꺼지게 노코, 또 방얼 골고로 인재, 불땀 여기만 뜨싱게 아니라, [그것이, 안 꺼지 잘 안 꺼지게 놓고, 또 방을 골고루 이제, 불 땀 여기만 따듯한 것이 아니라.]

10602 # 부른 보통이면 가운데다 여그서 인자 부른 마니 때는데, 이 부리 '요리도 가고 요리도 가고 이캐 골고로 ... [불은 보통이면 가운데다 여기서 이제 불은 많이 때는데, 이 불이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렇게 골고루...]

10602 # 그개 가기 위하고 양꺼지게 노코, 그러캐 하능기 이제 방잘논넌 사람, 기술짜 이 켜찌 예들드러 이제 기술짜지. [그것이 가게 위하고 안 꺼지게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방 잘 놓는 사람, 기술자 이것이 예를 들어 이제 기술자지.]

10602 # 기술짜가 방얼 노야 향당게 그 마리지요. [기술자가 방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 말이지요.]

10602 @ 근디 구드리 매킨다는 얘기는 그면 그며는 다: 거기 거가 짹 매킨다는 얘지요? [그런데 구들이 막힌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러면 다 거기 거기가 짹 막힌다는 이야기에요?]

10602 # 구드리 매킨다니? [구들이 막힌다니>]

10602 @ 그 오래 인재 부를 때면, [그 오래 이제 불을 때면,]

10602 # 어:. [어.]

10602 @ 그 매키가꼬 부리 잘 안 ... [그 막혀가지고 불이 잘 안...]

10602 # 아::아 구드리 매킨다. [아, 구들이 막힌다.]

10602 # 저 엔나레는 저 배까테가 정녕, 여기는 방이고, 저 배까티가 부어기자냐. [저 옛날에는 저 밖에가 정녕, 여기는 방이고, 저 밖에가 부엌이잖아.]

10602 # 부어기다 인자 소설 축: 꺼노코 인자 방에서 막 나무랄 때짜냐: [부엌에다 이제

술을 죽 걸어놓고 이제 방에서 막 나무를 때잖아.]

10602 # 엔나레 인자 거 '솔리비라고, 저: 솔리깨비 이 담풍이 들면 땅에가 너러지쟈녀요. [옛날에 이제 그 솔잎이라고, 저 솔잎깨비 이 단풍이 들면 땅에가 널어지잖아요.]

10602 # 땅에가 너러지면, '깎구리라고 이깨 쇠로 이르게 맨드룽게 인썌요. [땅에가 널어지면, 갈키라고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10602 # 제:난 자로. {기다란 자루.}

10602 # 게 인제 밤먹꼬 가거나 이르게, 그노멀 특:특 그러모리가꼬 이깨 똥:똥 뭉치가꼬 사래미 지고 오쟈나요. [그 이제 밥 먹고 가거나 이렇게, 그 놈을 득득 긁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똥똥 뭉쳐가지고 사람이 지고 오잖아요.]

10602 # 그러면 인자 부어게다 때야. [그러면 이제 부엌에다 때요.]

10602 # 부어게다 때고 똥, 거기다 머 여르메는 호간 인제 마리어, 호간 그 엔날 그러케 그 마니힐 때는 보린때접거튼거또 때고 똥, 인제. [부엌에다 때고 똥, 거기다 똥 여름에는 호간 이제 말이며, 호간 그 옛날 그렇게 그 많이 할 때는 보릿대짚같은 것도 때고 똥, 이제.]

10602 # 나무 이파리, 나무 뿌리 나무 물뿌리: 때고, 또 속쟁이:라고 인제 솔림 이깨 달링 거, 솔림 달잉진, 인제, 솔림 때능진 그 '마:니 때 아조 그건 이제. [나무 이파리, 나무 뿌리 나무 물뿌리 때고, 또 삭정이라고 이제 솔잎 이렇게 달린 것, 솔잎 달린 것은, 이제 솔잎 때는 것은 그 많이 때 아루 그것은 이제.]

10602 # 쟁나무때기도 혹시 때지만 인제 말러, 쟁노멀 인제 가따가 인제, 어따가 지비다 노커나 이노멀 빠짱 말르쟈나요, 빠짱 때쟈나요. [쟁나무도 혹시 때지만 이제 말러, 쟁놈을 이제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가 집에다 놓거나 이놈을 바짝 마르잖아요. 바짝 때잖아요.]

10602 # 그라문 부를 때문, 그 나무 어: '탕거 [그러면 불을 때면, 그 나무 어 탄 것.]

10602 @ 애. [예.]

10602 # 나무 이파리라등가 머 이렇거시. [나무 이파리라든가 똥 이러 것이.]

10602 # 부리 드러가도 세:게 드러가머요. [불이 들어가도 세게 들어가면요.]

10602 # 그먼 이러케 따라두러오쟈냐, 재가 따라두러와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 들어오잖아, 재가 따라 들어와요.]

10602 # 그라 오래 때머는, 그 재하:고, 미티요. 재가 이르게 인제 채에가꼬, 채에가꼬 우에 구드라고 이르게 다다 이뇌미. [그래 오래 때머는, 그 재하고, 밀예요. 재가 이렇게 이제 차여가지고, 차여가지고 위에 구들하고 이렇게 달아 이뇌미.]

10602 # 그레 궁기 마킨다구라지. [그래 구멍이 막힌다고 그러지.]

10602 # 마킨다구란디. [막힌다고 그런는데.]

10602 # 게서 인제. [그래서 이제.]

10602 # 방 히비낸다고 구라거등. 방 매킨, 히비낸다고 그러자나 엔나레는. [방 휘벼낸다고 그러거든. 방 막힌, 후벼낸다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10602 # 이케 지대:너니 거 저 자루릴 나무릴 지대너니 이러캐구서나, 게 게 그걸 보고 저, 거시기라 하는데. [이렇게 기다란 그 저 자루를 나무를 기다란 이렇게 해서, 그 그 그것을 보고 저, 거시기라고 하는데.]

10602 # 이런 이런 이런디다가 이르기 나무가 이케 지르짖나요. 지대랴 한 스발 이르게 발 때로 서바리 되등가 두바리 되등가 이르게, 개가꼬 여기다가 인제 송파느로 해가꾸서

- 이르께, 이르께 쪼그망게 인썸요. [이런 이런 이런데다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길이가 한 서발 이렇게 발매로 서발이 되든가 두발이 되든가 이렇게,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송관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것이 있어요.]
- 10602 # 거기서 이르:께 자근 이재 거시기가 따라나 따라가기로. {거기서 이렇게 작은 인
제 거시기가 따라나 따라나와요.}
- 10602 # 게 이 재가 보똥이면 이재, 저그서 때면 재가 요만치 가서 마니 물리제 저가서는
들 물자냐. [그 이 재가 보통이면 이제, 저기서 때면 재가 이만치 가서 많이 물리지
저기 가서는 덜 물리잖아.]
- 10602 @ 애. [예.]
- 10602 # 공개 인재 그느미로 인재, 일녀니 함버니라등가 여 부리. [그러니까 이제 그놈으
로 이제, 일년에 한번이라든가 여 불이.]
- 10602 # 고고 채이머는 구머기 매킹개 '부리 안드러가자냐. 부리 잘 안들자냐. [그곳이 차
이면 구멍이 막히니까 불이 안 들어가잖아. 불이 잘 안 들잖아.]
- 10602 # 그리가고 그노미루 이르께 저: 이르 폭: 너가꾸 이르께 함번씩 꼬러댕겨 이르께.
재가 재가 꼬러나오지. [그래가지고 그 놈으로 이렇게 저 이러 폭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씩 끌어다녀 이렇게. 재가 재가 끌러나오지.]
- 10602 # 그러께: 이제 날 가찬데는 인재 이르께 꼬러내는디, 이게 인재 한, 한 오:너니라등
가 삼너니라등가 이래 가머는 재아니서 소리가 금마 그, 인자 부털 막 만:날 부를 때
쌍개나 그 끌:목 인짜내요. 끌:목, 끌무기 막, 외 그 구들짱에서 막 이르께 인꼬 미티
가서 가란지고 그래 끌:무가고 두들짜가고 이노미 이르께 이케 다:다요. [그렇게 이제
날 가까운 데는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데, 이것이 이제 한 한 오년이라든가 삼년이라
든가 이렇게 가머는 재 안에서 소리가 그냥 그 이제 불을 막 매일 불을 때니까 그 검
정 있잖요. 검정, 검정이 막, 외 그 구들장 안에서 막 이렇게 있고, 밑에 가서 가라앉
고 그래 검정하고 구들짱하고 이놈이 이렇게 이렇게 닫아요.]
- 10602 # 이케 다드머는, 한 머 삼년마니 하등가 인재, 오녀는 오래가야 오녕가. [이렇게 닫
으면, 한 뭐 삼년만에 하든가 이제, 오녀는 오래 가야 오년 가.]
- 10602 # 방얼 점:부 인재 흑꺼통거 인재 썩이로 인재 또, 다: 파내, 파서 배까트로 내고,
굴짱 그너멀 드세고, 미티 인자 그: 재, 재하고 끌무가고 이케 어지가니 이제 다다 이
재. [방을 전부 이제 흙같은 것 이제 썩이로 이제 또, 다 파내, 파서 밖으로 내고, 구
들장 그것을 들어내고, 밑에 이제 그 재, 재하고 검정하고 이렇게 어지간히 이제 다
이제.]
- 10602 # 구들짱하고, 게, 여기다 구들짱 쪼까니 미티가 어지가니 이노마고 이노마고 이제
다다요, 어재~이. {구들장하고, 그, 여기다 구들장 조그만하게 밑에가 어지간하게 이
놈하고 이 놈하고 이제 닫아져요, 어지간하게.}
- 10602 # 그리개구서나 다시 인재 또 구들 노코, 흑 그러께 또 찌고, 새 또 찌고, 그러카면
인자 불 또 잘드러가지. [그래가지고서나 다시 이제 또 구들 놓고, 흙 그렇게 또 찌
고, 새 또 찌고, 그렇게하면 이제 불 또 잘 들어가지.]
- 10602 # 멘년마니 그러케 해요. [몇 년만에 그렇게 해요.]
- 10602 @ 그때 어르시니 진 지븐 멘퐁평나 땀썸요? [그때 어르신이 지은 집은 몇 평이나
땀어요?]
- 10602 # 거 멘퐁, 엔나레는 예: 방은개 지버 방얼 커게, 커게 하면 인자 사람 살기도 조코

이런데. [그 몇 평, 옛날에는 에 방은 집의 방을 크게, 크게 하면 이제 사람 살기도 좋고 이러는데.]

10602 # 지비서 인제 부릴 부릴 때구서 방을 달쿠다 봉개, 방이 크머는 부를 조금 때서는 방이 뜨싹 뜰 아너자냐. [집에서 이제 불을 불을 때고서 방을 달쿠다 보니까, 방이 크면는 불을 조금 때서는 방이 따뜻하지를 앓잖아.]

10602 # 글또 그러코, 또 지비 이케 커:게 해노머는, 여르미께 지비로 여꺼가꾸서 이케 지병하기가 경장이 심 마니 드려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집이 이렇게 해놓으면, 여름께 집으로 켜어가지고 이렇게 지붕하기가 굉장하게 힘이 많이 들어요.}

10602 # 그라고 인자 그 집또, 엔남 집 집또 귀하고, 왜 엔나를 지비 귀하냐면 인제. {그리고 이제, 그 짚도, 옛날은 짚 짚도 귀하고, 왜 옛날에는 짚이 귀하냐면 인제.}

10602 # 농사지가고 이거 이걸 해야지, 또 소: 순전 소도 그걸로 메기자냐, 소 메기야지. [농사지어가지고 이것 이것 해야지. 또 소 순전히 소도 그것으로 먹이잖아, 소 먹여야지.]

10602 # 그라구 엔나레 인제 지비 귀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짚이 귀해요.]

10602 # 그라고 인제 또, 사래미 이 신: 싣꾸 땡기능거, 사래미 신 싣능거 순:저니 이케, 지비로 이케 시는 '맨:드라가꾸 싣꾸땡기 인자.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신 싣꼬 다니는 것, 사람이 신 싣는 것 순전히 이렇게 짚으로 이렇게 만드려서 싣고 따니지 이제.}

10602 # 그거 해야지 머 사내키 글또 이케 파가꼬 뭇머. [그것 해야지, 뭇 새끼 그것도 이렇게 꼬아가지고 뭇뭇.]

10602 # 또 쓸리리 마나요, 또 사내키 머. [또 쓸 일이 많아요. 또 새끼 뭇.]

10602 # 소 엔나레 소 메기는데 머 소 이러께 몰꼬 땡기는 꼬뽕이라고 지대:나니 그렇거또다: 지비로 하고 머, 드리 머 머 찢미능거또 다 산내끼 이르케, 지브로 산내끼 요로 캐, 집 쓸리리 마나. [소 옛날에 소 먹이는 데 뭇 소 이렇게 몰고 다니는 꼬뽕이라고 기다란 그런 것도 다 짚으로 하고 뭇, 들에 뭇 뭇 잡아매는 것도 다 새끼 이렇게, 짚으로 새끼 이렇게, 짚 쓸 일이 많아.]

10602 # 그래가꾸서나 이제 부재찌비는 농사 마는 지븐 인자 그 집또 만치마는 부재찌브다 그러케 만틸 안너자나요, 움는 사래미 만치 부자찌비 맨찢 안되자냐. [그래가지고 서나 이제 부잣집에는 농사 많은 집은 이제 그 짚도 많지마는 부잣집은 다 그렇게 많지를 앓잖아요. 없는 사람이 앓지 부잣집이 몇 집 안되잖아.]

10602 # 그래서나 방얼 커게 아내요. [그래서나 방을 크게 안해요.]

10602 # 그래서 방얼 이러케, 맨평 안되그딩. [그래서 방을 이렇게, 몇 평 안 되거든.]

10602 # 우리 그때 머네: 음 지비면 한 ... {우리 그때 먼저 집이면 한 ...}

10602 # 한 이십평. {한 이십평.}

10602 # 이십평정도 안될께이 이십평도. {이십평 정도 안 될 거야. 이십평도.}

10602 # 점부다 하야. {전부 다 하야.}

10602 # 이십평도 안되야 이십평도 안될끼, 이십평 안되야. {이십평도 안 돼 이십평도 안 될 꺼야, 이십평 안 돼.}

10602 @ 그먼 저. {그러면 어.}

10602 # 요 우리 지비 시방 현재 요거시 시방 삼십평 어지가니 되는데, 이십평 안될꺼여, 이십평이 안될, 안돼 이십평 머~이 그저니 이십평 ... [이 우리 집이 지금 현재 이것

이 지금 삼십평 어지간히 되는데, 이십평 안될 거야, 이십평이 안될, 안돼 이십평 뭐
그전에 이십평...]

<지붕에 따른 집 구분>

10603 @ 그러면 그거슨 초가지비지요 인자이? [그러면 그것은 초가지집이지요 이제?]

10603 # 애. [예.]

10603 @ 초가지집, 기와지븐 그먼 어떠케 저요? [초가지집, 기와집은 그러면 어떻게 지어요?]

10603 # 기와집? [기와집?]

10603 @ 애. [예.]

10603 # 기와집 인재 진는거선 우리 초가지마고 똑까치 지요. [기와집 이제 짓는 것은 우리 초가지집하고 똑같이 지어요.]

10603 @ 애, 지붕만 달르게 저요? [예, 지붕만 달르게 지어요?]

10603 # 똑까치 이고 기와지븐 아까 내가 알매 찢다고 아냐? [똑같이 이고 기와집은 아까 내가 알매 찢다고 안해?]

10603 @ 애. {예.]

10603 # 알매? [알매?]

10603 # 그런디 기와지븐 이 도리 배까티만, 우리는 참 초가지변 알, 도리 배까치만 인재 알매를 찢다고 내가 그랜짜냐. [그런데 기와집은 이 도리 밖에만, 우리는 참 초가지집은 알, 도리 밖에만 이제 알매를 찢다고 내가 그렸잖아.]

10603 # 그런디 기와지븐 점:부릴 다 인재 호기로 싹: 찢야돼요. 호기로 나무릴 싹 찢야되야. [그런데 기와집은 전부를 다 이제 흙으로 싹 찢야되요. 흙으로 나무를 싹 지어야 돼.]

10603 # 기와지비랑개, 그 호그로 함번 딱 찢고 기와 올림서나, 기와 한장 노코, 미티다 호기로 피고 호기로 피고 점:부 고로케 해서 싹: 기와릴 올리자나요. [기와집이라는 것이, 그 흙으로 한반 딱 찢고 기와 올리면서나, 기와 한 장 놓고, 밑에다 흙으로 피이고 흙으로 고이고 전부 그렇게 해서 싹 기와를 올리잖아요.]

10603 # 게서 건 이 이 지븐 이제 진는 거슨 다 또까티요, 다 또까티고, 또까틴데, 우에 알매만 알매 싹 찢고, 기와만 새로 올리며는 그 게 기와지비여. [그래서 그것은 이 집은 이제 짓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에 알매만 싹 찢고, 기와만 새로 올리면 그것이 기와집이여.]

10603 @ 그먼 기와는, 그때 보면, 이러케 넓저경 거시 인꼬요. [그러면 그때 보면 이렇게 넓은 것이 있꼬요.]

10603 # 애. [예.]

10603 @ 넓저건 기와가 인꼬. [넓적인 기와가 있꼬.]

10603 @ 넓저건 기와는 요로케 요로 요로케 생게가꼬, 요로케 요로케 (# 응.) 나가자나요. [넓적인 기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 응.) 나가잖아요.]

10603 # 그러체. [그렇지.]

10603 @ 요 위에 ... [이 위에...]

10603 # 어. [어.]

10603 @ 위에를 또 이러케 논는 기와 기와 인썸요? [위를 또 이렇게 놓는 기와 기와 있지요?]

10603 # 으으. [으으.]

10603 @ 거 이르미 다르지요? [그 이름이 다르지요?]

10603 # 다른디 그거 잘 모루건네, 인썸요. [다른데 그것 잘 모르겠네, 있어요.]

10603 # 계: 계 '넙쩍넙쩍강게 손빠닥꺼지 인제 곤빠닥부다 커지마는 예들 들어 그랜짜나 공개. [그 넓적넓적한 것이 손바닥같이 이제 손바닥보다는 크지만 예를 들어 그랫잖아 그러니까.]

10603 # 그래가꼬 점부 오루무로 이러케 이케 썸:썸 놀레오자나. [그래가지고 전부 오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썸썸 ****]

10603 # 그래가꼬 새새에 고:곤 인제 만 이러케 서르 서로 깨 만썸대가 인짜냐 만썸디럴웨로 이러케 썸: 놔나가능게 인썸. [그래가지고 사이사이에 그것 이제 맞 이렇게 서로 서로 깨 맞진 데가 있잖아, 맞진 데를 위로 이렇게 썸 놓아나가는 것이 있어.]

10603 # 그건 나는 나 모르건네. [그것은 나는 나 모르겠네.]

10603 @ 암키와 수키와 그런말 안썸썸요? [암키와 수키와 그런 말은 안썸썸요?]

10603 # 몰라. [몰라.]

10604 @ 그러면 인자 인제 지브 집 명칭이나 함번 ... [그러면 이제 이제 집의 집 명칭이나 한번...]

10604 @ 아, 그러면 인자 이 이 여기서, 그러케 지블 썸썸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이 여기서, 그렇게 집을 썸썸요.]

10604 # 애크. [예.]

<집 주변 명칭>

10604 @ 지블 지면, 저:, 드러오는 데서부터 명칭을 함번 썸: 이야기 이야기 해보세요. [집을 지면, 저 들어오는 데서부터 명칭을 한번 썸 이야기 이야기 해보세요.]

10604 @ 맨 아페 샅짜기 인썸요? [맨 앞에 샅썸썸이 있지요?]

10604 # 어. [어.]

10604 @ 샅썸썸에서부터. [샅썸썸에서부터.]

10604 # 샅 맨: 아페가 샅썸. [샅 맨 앞에가 샅썸.]

10604 # 고 인자 드란디가 데가 마당. [그 인제 들어온 데가 데가 마당.]

10604 @ 무:닐쓰면 그걸 뭘 뭘라고 불러? [문이 있으면 그것을 뭘 뭘라고 불러?]

10604 # 샅썸무니라구래. [샅썸썸문이라고 그래.]

10604 # 요기 양썸썸 나무 이케 세우능게 인짜나요. 고곤: 거시기 샅썸문 ... [여기 양썸썸 나무 이렇게 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거시기 샅썸문...]

10604 # 뭘 머 생가갈랑개 잘 안 나와. [뭘 뭘 생각할라니까 잘 안 나와.]

10604 # 샅썸썸구틀. [샅썸썸 귀틀.]

10604 @ 샅썸썸구틀? [샅썸썸 귀틀.]

10604 # 으:. [응.]

10604 # 이제 양썸썸다 나무를 세워야 되자나요. 샅썸문 무늘 만들라면, 요거시 샅썸썸구틀, 샅썸썸구트리코. [이제 양썸썸에다 나무를 세워야 되잖아요. 샅썸문 문을 만들려면, 이것

이 사립작 귀틀, 사립작 귀틀이고.]

10604 # 그라고 인제 나무로 인제 그거또 인제 맨드라요 삼짜걸. [그리고 이제 나무로 이제 그것도 이제 만들어요 사립작을.]

10604 # 이르캐 인제, 나무를 이러캐 양쪼개다, 양쪼개다 이르캐 이제, 양쪼개다 봐:. [이렇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양쪽에다, 양쪽에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다 봐.]

10604 # 그라고 여기 이르캐 노코, 이르캐 노코, 이르캐 노코, 이르캐 노코 인제 여기도 이르캐 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봐요.]

10604 # 나무를 이르캐 질러. [나무를 이렇게 질러.]

10604 # 그래 노코서 엔나레넌 ... [그래 놓고서 옛날에는...]

10604 # 우리기는 '사니, 망개쟁이, 망개쟁이 아능가요, 맹개쟁이? 망개쟁이? {우리에게는 산에, 청미래넝쿨, 청미래넝쿨 아능가요, 청미래넝쿨?}

10604 # 망개쟁이 까시라고, 까시가 도쳐는디, 그기 넝축뽕고 이르캐 키가 이러캐 커요. {청미래넝쿨 가시라고, 가시가 돋쳤는데, 그것의 넝쿨보고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요.}

10604 # 막 망개쟁이 덤पुर이 이러케까지 키 커:. [막 청미래넝쿨 덤불이 이렇게까지 키가 커.]

10604 @ 애. [예.]

10604 # 까시가 막 도칠써. [가시가 막 도쳤어.]

10604 # 그너멀 이제, 사:~이 가서 인제, 나시로 미꾸려글 비요. [그놈을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낮으로 밑부분을 베요.]

10604 # 나중예 지대:너니 이르캐가꾸서 인제, 지개다 질머지가꼬 와가꼬. [나중예 기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개에다 뚫어지고 와가지고.]

10604 # 여기 나무로 이르캐 이르캐 맨드라따고 아너냐? [여기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만 들었다고 안하냐?]

10604 @ 사이사이 어깔리게? [사이사이 엇갈리게?]

10604 # 으, 사이사이 두고, 까시나무를 그먼 여기다 봐:. [응, 사이사이 두고, 가시나무를 그럼 여기에다 봐..]

10604 @ 애. [예.]

10604 # 여그다 노코 인자 외때기라고, 갈마면 까시나무를 여기따 봐쫘개 인제 미티로 나무 이르캐 걸링거 인짜냐. [여기에다 놓고 이제 윗가지라고, *** 가시나무를 여기에다 놓았으니까 이제 밑으로 나무 이렇게 걸닌 것 있잖아.]

10604 @ 애. [예.]

10604 # 외때기라고 인제, 이놈부터 이제 이르캐 가따 봐 이르캐. [윗가지라고 이제, 이놈부터 이제 이렇게 갖다 봐 이렇게.]

10604 @ 아:. [아.]

10604 # 여기 노코 여기 노코 한 너덜뽕 너덜뽕 이르캐 나무를 노코설량은 ...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한 너덜뽕 너덜뽕 이렇게 나무를 놓고설량은...]

10604 # 엔나레는 인제 그걸 칙: 저 치기 들썩꺼덩 지비로 지비로 하며넌 바루 썩그니께나 바루 이르캐 거~잉께나. [옛날에는 이제 그것을 칙 저 칙이 덜 썩거든 짚으로 짚으로 하며는 바로 썩으니까 바로 이렇게 거시기하니까.]

10604 # 치글 떠다가 치기로 이르캐 이르캐 드문드문 맨드라요. [칙을 떠다가 칙으로 이렇

게 이렇게 드문드문 만들어요.]

10604 # 그래 맨드라가꼬 이노멀 이르케가꼬 인재 삼짝, 삼짝게다가 이르케 다:라, 이르케 이르케 가따 쫘매야.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립짝, 사립 짝에다가 이렇게 달아, 이렇게 이렇게 갖다 잡아매.]

10604 # 게 엔난레는 인재 철싸로 하든 그기: 생전 그리안디, 철싸는 도니 들자냐, 귀항께. [그 옛날에는 이제 철사로 하면 그것이 생전 그러한데, 철사는 돈이 들잖아, 귀하니 까.]

10604 # 도니 드니께 그렇거나 그거면 시방으로 말하면 그 철싸 그 돈 쎄푸니나 드러가 그란디 그 철싸살라든 도니 드더서 귀항께나, 사네서 치걸 치걸 떠다가 삼짜걸 코로 캐 맨드러가꼬, 그러케 대요. [돈이 돈이 그러니까 그거 뭇 지금으로 말하면 그 철사 그 돈 몇 푼이나 들어가 그런데 그 철사 살려면 돈이 들어 서 귀하니까, 산에서 칩을 칩을 떠다가 사립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요.]

10604 # 그 인재, 삼짝구틀, 삼짝. [그 이제 사립짝 귀틀, 사립짝.]

10604 @ 그 그서시 썩림무니 아니네? [그 거것이 사립문이 아니네?]

10604 @ 썩림무는 '썩렁개' '썩리로' 만드러야 도는디. [썩리문은 썩리이니까 썩리로 만들어 야 되는데.]

10604 # 그 또 썩리무를 썩리로 하는 사람도 인쓰요. [그 또 썩리문을 썩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604 @ 으: 썩리무는 더 조아요? [으, 썩리문은 더 좋아요?]

10604 # 어: 근대 우리기는 썩리로 안하는데, 그 다 '썩리무라고도 해요. [어, 그런데 우리 에게는 썩리로 안하는데, 그 다 썩리문이라고도 해요.]

10604 # 삼짜기라고도 하고 썩리무니라고도 하구 여그 그래요. [사립짝이라고도 하고 썩리 문이라고도 하고 여기 그래요.]

10604 @ 아까 ... [아까...]

10604 # 우리 기라넌데, 저: 산중이, 산중이 그 썩리나무 마는데, 사리나무 마는디서 순전 썩리나무로 그러카드만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산중에, 산중에 그 썩리나무 많 은데, 썩리나무 많은 데서는 순전히 썩리나무로 그렇게 하드만요.]

10604 @ 그 ... [그...]

10604 # 썩리나무. [썩리나무.]

10604 @ 명가미라고 하능거 여기에 빨가케 여능거, 그 열매 여 여는 그 ... [맹감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빨강게 여는 것, 그 열매 여 여는 그...]

10604 # 예 망개 그그저 ... [예, 맹감 그 그저...]

10604 @ 아: 망개(망개)가 그나뭇갑따. 그게 망쟁갑따. [아 청미래가 그 나무인가보가. 그 것이 청미래인가보다.]

10604 # 망개나무: 망개나무 까시, 망가나무 까시다 그 삼짜개요. [청미래나무 청미래나무 가시, 청미래나무 가시에다 그 사립짝해요.]

10604 @ 망개나무 요로케 똥고:라머치요? [청미래나무 이렇게 동그랑지요?]

10604 # 얘: 똥고로멍거. {예, 동그롭한 것.]

10604 @ 파라케 여런따 겨우레 색 ... [파랗게 열었다 겨울에 색...]

10604 # 빨:가치. [빨강지.]

10604 @ 빨강거? [빨간 것?]

10604 # 애애. [예예.]

10604 @ 아:. [아.]

10604 # 그걸로 싸 싸림문 헐썌요. [그것으로 싸 싸림문 했어요.]

10604 # 그기 망개쟁이 까시오, 망개쟁이 까시로, 싸림. [그것 청미래닝쿨 가시예요. 청미래닝쿨 가시로, 싸림.]

10604 # 보통 우리기는 그걸로 헐썌요. [보통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했어요.]

10604 @ 아:. [아.]

10604 # 그 싸리가 업쓰, 여기는 싸리가 구하자네요. [그 싸리가 없어, 여기는 싸리가 귀하잖아요.]

10604 @ 애:. {예.}

10604 @ 그 열매를 망개? [그 열매를 맹감?]

10604 # 망개 망개. [맹감 맹감.]

10604 @ 망개:?. [맹감.]

10604 # 애. [예.]

10604 @ 그먼 인자 그 인재 자. [그럼면 이제 그 인재 자.]

10604 @ 살짝 삭 싸림무늘 열고 두루완쓰면, 천뽕째가 마당이지요? [사립작, 싸리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첫번째가 마당이지요?]

10604 # 마당. [마당.]

10604 @ 그다메 인자, 마당에서 지부로 오면, 요로케 올라오는 터기 인찌요? 흐그로 되어 인능거? [그다음에 이제, 마당에서 집으로 오면, 이렇게 올라오는 턱이 있지요? 흠으로 되어있는 것?]

10604 # 애. [예.]

10604 # 거기는 뭐라구레? [거기는 뭐라고 그래?]

10604 # 뜨렁. [토방.]

10604 @ 거가 거가 뜨렁이지요? [거기가 거기가 토방이지요?]

10604 # 뜰팡이라고도 하고 뜨렁이라고 하고. [토방이라고도 하고 토방이라고 하고.]

10604 @ 어느 마를 만니썌요? [어느 말을 많이 썌요?]

10604 # 뜨렁이라고 마니 썌 여기는. [토방이라고 많이 썌 여기는.]

10604 # 뜨렁, 뜰팡이라고. [토방, 토방이라고.]

10604 @ 뜨렁으로 올라, 뜰팡으로 올라오면 ... [토방으로 올라, 토방으로 올라오면...]

10604 # 예 뜰팡이라고 ... [예, 토방이라고...]

10604 @ 거기다 인재 엔나레 돌 독까툽거 날찌요? [거기에다 이제 옛날에 돌 돌같은 것 왔지요?]

10604 @ 그 위로. [그 위로.]

10604 # 이제 거그다, 인재: 거기다 '마리, 송파~이로, 송파~이로 이르캐 쪽: 마리라고 날찌. [이제 거그다, 이제 거기다 마루, 송판으로, 송판으로 이렇게 쪽 마루라고 왔지.]

10604 # 인재 그런디, 마리 녹 ... [이제 그런데, 마루 놓...]

10604 # 그저네 인재: 움:는 사라른 또, 움:는 사라른 '마리가 업씨, 그냥 '뜨렁만 인재. [그전에 이제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은 마루가 없이, 그냥 토방만 이제.]

10604 # 교순님 말대로, 뜨렁에 올라왓꼬, 독 하나 놔가꼬 그냥 거그서 그냥 독 디디고, 방으로 드러간 사람 인썌썌요. {교수님 말대로, 토방에 올라와가지고, 돌 하나 놓아가지

고 그냥 거기서 그냥 돌 디디고, 방으로 들어간 사람 있었어요.}

10604 @ 그 도근 뭐라구레? [그 돌은 뭐라고 그래?]

10604 # 심방뚝. [신방돌.]

10604 @ 아:. [아.]

10604 # 심방뚝, 심방뚝. [신방돌, 신방돌.]

10604 @ 심방또기고? [신방돌이고?]

10604 # 애포. {예.}

10604 @ 그 인는 지른 거그다가 마리털 깔지요이? [그 있는 집은 거기에다 마루를 깔지요
이?]

10604 # 애포: 애포 그러치. [예, 예 그렇지.]

10604 @ 그뎨 마리는 칸다고 그러지요이? [그러뎨 마루는 칸다고 그렇지요?]

10604 # 마리 논다구라. [마루 논다고 그래.]

10604 @ 마리 논다그러? 마리 어쩌케 마레? [마루 논다고 그래? 마루 어떻게 말해?]

10604 # 그 이제: 아까 저 중방 내가 거시깁싸나요? [그 이제 아까 저 중방 내가 거시기했
잖아요?]

10604 # 거그다 질른 사람도 인꼬, 마리라고 ... [거기에다 지른 사람도 있고, 마루라고...]

10604 # 이르케 양쪼게 나무를 나무가 이르케 이케 인썸요. [이렇게 양쪽에 나무를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10604 # 그라뎨 이케 인제, 니방얼 짜 이르케, 나무로. {그러뎨 이렇게 인제, 네 방을 짜
이렇게, 나무로.}

10604 @ 애포. [예.]

10604 # 여그도 나무, 여그도 나무, 여그도 나무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나무. {여기도 나
무, 여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

10604 # 그러뎨는, [그러뎨는,]

10604 # 요고시 인제 마리구, 요쪼그로 뎡게 마리구트리라 구라, 마리구틀. [이것이 이제
마리구, 이쪽으로 뎡 것이 마루귀틀이라 그래. 마루귀틀.]

10604 @ 아페요, 아페? [앞에요, 앞에?]

10604 # 아페:. [앞에.]

10604 @ 아페요? 마리구틀? [앞에요? 마루귀틀?]

10604 # 아페가 마리구틀. [앞에가 마루귀틀.]

10604 # 인제: 그 그러캐서 그저니, 이제 드러온서리, 요게 마리구틀. {이제, 그 그렇게해
서 그 전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것이 마루귀틀.}

10604 # 그래가꾸서 인제 여기다 그냥 이케 '호멸 마리구트레다가 호멸 파가지고서나, 송
파닐 요 새, 흙 소그다 르이케 이르케 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그냥 이렇게
흙을 마루귀틀에다가 흙을 파가지고서, 송판을 이 사이, 흙 속에다 이렇게 이렇게 넣
어요.]

10604 # 여기는 이제, 중방인싸네요 여기 중방, 중방도 이르케 호멸 파가지고, 호미다가 이
르케, 쭈시년사람 인꼬. [여기는 이제, 중방 있잖아요 여기 중방, 중방도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쭈셔넣는 사람도 있고.]

10604 @ 아. [아.]

10604 # 인제: [이제]

10604 @ 묻찌를 안네요인? [못질을 안네요?]

10604 # 그러쵸 그러쵸 이기.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10604 # 우리기 때년 어지가니 그러케 헐쵸요. 우리 때는 그러케 헐는데. {우리 기 때는 어지간하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했는데.}

10604 # 엔:날, 엔날 양방더런, [옛날, 옛날 양반들은.]

10604 # 우리, 엔날 양반들 이르케, 여기다 인재, 여기 여기 마리구틀. [우리, 옛날 양반들 이렇게, 여기다 이제, 여기 여기 마루귀틀.]

10604 # 여기는 인재 그냥, 중방에다 안하고 여기다 나무를 대요 이르케. [여기는 이제 그냥, 중방에다 안하고 여기다 나무를 대요. 이렇게.]

10604 # 근디 오방이 나무 이르케 덴네. {그런데 오방에 나무를 이렇게 댔네.}

10604 @ 예. [예.]

10604 # 요 오방이 나무를 댄 댔쓰머는 여그다 송파늘 이르케 까라 이르케. [이 오방이 나무를 댔 댔으면 여기다 송판을 이렇게 깔아 이렇게.]

10604 @ 애. [예.]

10604 # 송파는 깔구설랑은, 여그도 못질하고 여그도 못질하고, 이르케 중:못질하고, 여그도 중:못질하고. [송판을 깔고설랑은 여기도 못질하고 여기도 못질하고, 이렇게 죽:못질하고, 여기도 죽 못질하고.]

10604 # 게 마르를 못질하구서, 요노를 드르다가 인재, 고기다 인재, 방문 아피다가 요로케 가따 논는 요고 마리어. [그 마루를 못질하고서, 이놈을 들어다가 이제, 거기에다 이제, 방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이것이 마리어.]

10604 # 엔:날 그러케 헐쵸요. 마르 그러케 짜가꼬. [옛날 그렇게 했어요. 마루 그렇게 짜가지고.]

10604 # 엔날 그러케 째는데, 나도 그러케 집쩍는데. 나는 그러케 아나고 그냥. [옛날 그렇게 째는데, 나도 그렇게 집 지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10604 # 요기 인재, 여가 마리구트리자나 여가여가 마리구틀, 요기는 지동, 여기는 중방, 그러면 양조기가 나무르 안대야 여기, 나무르 안대고 그냥, 나무 구틀만 여기다 이케 호미로 파 요로케. [여기 이제, 여기가 마루귀틀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마루귀틀, 여기는 기동, 여기는 중방, 그러면 양쪽에가 나무를 안 대, 여기 나무를 안 대고 그냥, 나무 귀틀만 여기다 이렇게 흙으로 파 이렇게.]

10604 @ 아: 그럼 되는구나. [아 그러면 되는구라.]

10604 # 요로케 요로케 호미로 파가꼬 인재, 송판 요로케 드러가기로, 요짜게 요 중방도 이러케 호미로 파가꼬 드러가기로. [이렇게 이렇게 흙으로 파가지고 이게, 송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쪽에 이 중방도 이렇게 흙으로 파가지고 들어가도록.]

10604 # 그먼 이제, 송판 가따가 인재, 거그다 가따 이르케, 말굽 요 말굽 가따가 느먼 돼. [그러면 이제, 송판 갖다가 이게, 거기다 갖다 이렇게, 말굽 이 말굽 갖다가 넣으면 돼.]

10604 # 그러캐서 예: 인재: 우리 이때만 해도 그러케 해서 마니 하쵸.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우리 윗대만 해도 그렇게 해서 많이 하쵸.]

10604 # 그러카머는 마릴, 엔날: 양반더런 마리를 이노을, 이르케 드러내넌따 또 가따넌따 이르케 할쑤가 인찌. [그렇게 하먼는 마루를, 옛날 양반들은 마루를 이 놈을, 이렇게 들어내넌다 도 갖다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10604 # *****, 우리 향으서 인자 함번 노머는 인자 그노멀 점부다 뜨더낼꺼거름 빼내기가
 좀 그 자주자주 움직은 모대요, {*****, 우리 향에서 이제 한번 놓으면 이제 그 놈을
 전부 다 뜯어낼 것 같으면 빼내기가 좀 그 자주자주 움직이지는 못해요.}

10604 # 그저네 엔나레 이제, [그전에 옛날에 이제,]

10604 # 정 움는 사람들 엔:나레 엔나레 움는 사람더런 그또 '말:도 그거또 놀라면 송관 거
 시개야지 또 인재 대목 거시개야지 도니 읍짜내요, 먹구 사라야 되는데에. [정 없는
 사람들 옛날에 옛날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마루도 그것도 놀라면 송관 거시기해야
 지 또 이제 대목 거시기해야지 돈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604 # 그렇게 그렇게 아나고 그냥, 심빵또기라고 방문 저티다가 돌 큰:노멀 가따노코, 돌
 큰노멀 그냥, 거그서 올라서면 방, 고 미티는 멀로 가냐면, 에 지비로 이케 맨드라머
 체 그보고 명서기라 그랴, 명서글 이르케 지비루 이케 이마:케 커:게 산내끼 짜가꼬
 이르케 절어, 절어서 맨드라가꼬 거그다 이케 명서글 깔고 그냥 마리마냥 그렇게 앙
 꼬 지내는 사래미 인썸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신방돌이라고 방문
 곁에다 돌 큰 놈을 갖다놓고, 돌 큰 놈을 그냥, 거기서 올라가면 방, 그 밑에는 뭇로
 가냐면, 에 짚으로 이렇게 맨드롭하게 그것 보고 명석이라고 그래, 명석을 이렇게 짚
 으로 이렇게 이만하게 크게 새끼 꼬아가지고 이렇게 절어, 절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에다 이렇게 명석을 깔고 그냥 마루마냥 그렇게 앉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10604 # 그러케도 마니 지내썸 움는 사람 그저네. [그렇게도 많이 지냈어 없는 사람 그전
 에.]

10604 @ 자: 그다메 ... [자 그다음에...]

10604 # 우리게 우리 기때 마~이도 이르케 어지가니 점부 마리털 다 놔썸는데, 그전 어른
 들 그저네는 그렇게 지낸 사래미 인썸썸요. [우리 기 우리 기 때만해도 이렇게 어지
 간히 전부 마루를 다 놔썸는데, 그전 어른들 그전에는 그렇게 지낸 사람이 있었어
 요.]

10607 @ 자 그면 인자 지붕이 요로케 인자 연 연자를 노코, (애) 연자 위에 인자 (# 연목)
 연모글 노코, 인자 지비 다 만드러썸썸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붕이 이렇게 이제 연
 연자를 놓고, (# 예) 연자 위에 이제 {# 연목) 연목을 놓고, 이제 집이 다 만들어졌어
 요.]

10607 # 으:. [응.]

10607 @ 그면 지베서 이러케 무리 떠러지는 데, 물이 떠러지는 데 거기 거기 이르를 뭐라
 그래?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데, 물이 떨어지는 데 거기 거기 이름을
 뭐라고 그래?]

10607 # 낙썸물, 처매물. [낙수물, 처마물.]

10607 @ 처마무리 처마물 떠러지는 데, 거기가 처망가요? [처마물이 처마물 떨어지는 데,
 거기가 처마인가요?]

10607 # 그러치, 고 제 지붕 꼬트머리가 처마라고그랴. [그렇지, 그 제 지붕 끝트머리가 처
 마라고 그래.]

10607 # 거 거그서 떠러지는 무리 처마물, 처매물. [그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 처마물, 처마
 물.]

10607 @ 처마에서 안쫘그로 요로케 연자가 돼인은 그 부부늘 그게 처마면, 그 부부는 뭐
 라구레요? [처마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자가 되어있는 그 부분을 그것이 처마면, 그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10607 @ 처마 처마가 인꼬. [처마 처마가 있고.]

10607 # 애. [예.]

10607 @ 지비 사가경으로 돼있쪄요? [집이 사각형으로 돼있쪄요?]

10607 # 어:. [어.]

10607 @ 아페 아페가 요로케 인자 쪽: 처마가 인쪄요인? 처마물 떠러지는데, 근디 여기 지비 모통이 요로케 요로케 생긴데 거기를 뭐라구려? [앞에 앞애가 이렇게 이제 쪽 처마가 있었쪄잉? 처마물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 집의 모통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데 거기를 뭐라고 그래?]

10607 # 추녀. [추녀.]

10607 @ 거기가 (# 귀팅이) 요로케 추녀예요? [거기가 (# 귀통이) 이렇게 추녀예요?]

10607 # 네 구텡이가 인쪄. [네 귀통이가 있지.]

10607 @ 애. [예.]

10607 # 추녀. [추녀.]

10607 @ 그 추녀는 네 귀텡이를 추녀라고 그러능구만요? [그 추녀는 네 귀통이를 추녀라고 그러는구만요?]

10607 # 애, 그래서 그 ... [예, 그래서 그...]

10607 # 인자 고 귀텡이:는 그 추녀 염모기라고, 게 좀 시란눔 네 귀텡이를 이케 ... [이제 그 귀통이는 그 추녀 연목이라고, 그 좀 실한 늬 네 귀통이를 이렇게...]

10607 # 맨 위에 동자주다가 이러케 걸치제, 추녀 연모기라고, 그 추녀연모기라고 그래요. [맨 위에 동자주에다가 이렇게 걸치지, 추녀 연목이라고, 그 추녀연목이라고 그래요.]

10607 @ 동자주는 뭐요? [동자주는 뭐요?]

10607 # 아까 그 내가 이야기 켜쪄. [아까 그 내가 이야기 했지.]

10607 # 이 쪄기 ... [이 저기...]

10607 @ 상냥 올라가는데. [상량 올라가는데.]

10607 # 어 '상냥' '상냥' 참 동자주넌 '상냥, 상냥, 상냥에다가 상냥 위다가 이르케 언저요. [어 상량 상량 참 동자주는 상량, 상량, 상량에다가 상량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10607 # 동자주는 동자주는 그, 이저 상냥 미테다 이러케 바치는 거, [동자주는 동자주는 그, 이 저 상량 밑에다 이렇게 받치는 것.]

10607 @ 상냥 미테 바치능거. [상량 밑에 받치는 것.]

10607 # 그거보고 그거보고 동자주라고 허고. [그것보고 그것보고 동자주라고 하고.]

10607 @ 처마에다가, 그먼 인자 고로케해서 추녀가 만들어지고. [처마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해서 추녀가 만들어지고.]

10607 @ 그먼 무는, 무는 다 사다해쪄요, 만들어쪄요? [그러면 문은, 문은 다 사다했어요, 만들었어요.?]

10607 # 인제 사다하는 수도 인꼬, 그 인제 문짜는 사람들 기술짜가 인짜냐, 기술짜보고 인제 그 무는 좀 짜돌라고 돈 주고 그러캐해서 인제. [이제 사다하는 수도 있고, 그 이제 문 짜는 사람들 기술자가 있잖아, 기술자보고 이제 그 문을 좀 짜달라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607 # 그라면 인제, 그 사래미 무는 인제 와서 딱, 와서 인제 재가지고 거기 맡끼로, 고 로개서 그 사래미 짜서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문을 이제 와서 딱, 와서 이제

제가지고 거기 맞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짜서 줘요.]

10607 @ 그러면 인제 도 도늘 주지. [그러면 이제 돈 돈을 주기.]

10607 # 우리는 보통 그러케 헐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했어요.]

10607 @ 그 그 문드르 이르미 어떠케 돼요? [그 그 문들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10607 # 저그는 그냥 '무니라'고 그란데. [저기는 그냥 문이라고 그러는데.]

10607 @ 예를 든다면, 사لامي 추립헌데가 인꼬, 추리별 앙코 이케 바라미나 비만 헐빌만 드러오게 이러케. [예를 든다면, 사람이 출입하는 데가 있고, 출입을 앓고 바람이나 비만 햇빛만 들어오게 이렇게.]

10607 @ 벼게 이르케 인는데도 인꼬, [벽에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10607 # 이케요 이르켄따 이러켄따, 나무럴 개탕을타고, 이케 밀창문. [이것이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나무를 개탕을 파고, 이것이 밀창문.]

10607 # 그기 인제: 엔나레 여. [그것이 이제 옛날에 여.]

10607 # 문도 집 잘진코 엔나레 부재지비 거시간 지번 저런 무니 한짜기자나요 한짜, 한짜 긴데 부재찌번 나두 쌍발집 뎌 쌍발지무닌디, 쌍발지무니라고, [문도 집 잘 짓고 옛날에 부잣집에 거시기한 집은 거런 문이 한짜이잖아요 한짜, 한짜인데. 부잣집은 나두 쌍단이집 때는 쌍단이문인데, 쌍단이문이라고.]

10607 # 무니 이케 저건 한짜긴디 일르케 두짜기 인썌, 저기 지번 양조기 두째기 인썌, 그 이뇌미 두짜 달린 노면 이래이래 이래 열려 이래, 이래. [문이 이렇게 저것은 한짜인제 이렇게 두짜이 있어, 저기 집은 양쪽에 두짜이 있어, 그 이뇌미 두짜 달린 놈은 이래이래 이래 열려 이래.]

10607 @ 애:. [예.]

10607 # 이래 두짱 이래 열리면 널롭자나 이케. [이래 뚜짱 이래 열리면 널롭잖아 이것이.]

10607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7 # 이래, 그래구 이제 한짜기면 이러케 한짱만 지면 좁꼬, 쌍발지비 널뤄서 인제 머방이 머 크면 조치 이제. [이래, 그리고 이제 한짜이면 이렇게 한짱만 지면 좁고, 쌍단이집이 넓어서 이제 뭐 방이 뭐 크면 좋지 이제.]

10607 # 고로케 쌍발지문 해노코 소게다가, 머 문설주라고 인제, 문설주라고 이러케 나무가 인짜나요 그기, 문설주가 *** [그렇게 쌍단이문 해놓고 속에다가, 뭐 문설주라고 이제, 문설주라고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것, 문설주가 ***]

10607 # 거기다가 소게다가 인제 개탕을 파가꼬 그그인자 밀창무니라고, 쌍바지문 아:니다가 밀창문 이르케 해다라요. [거기다가 속에다가 이제 개탕을 파가지고 그 인제 밀창문이라고, 쌍단이문 안에다가 밀창문 이렇게 해달아요.]

10607 # 그런디 이진 배까티건 던문, 아니건 송문, 송문 던문 이르케 해가꼬 밀창무니라고, 밀창무니라고도 하고. [그런디 이것은 바깥 것은 덧문, 아네 것은 속문, 속문, 단문 이렇게 해가지고 밀창문이라고. 밀창문이라고 하고.]

10607 # 이르케 해서 그 쌍발지무는 무니 두개개 바라미 마니 두러울 우려썌이 만차나요. [이렇게 해서 그 쌍단이문은 문이 두개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올 우려가 많잖아요.]

10607 # 게 겨우리 출짜냐. [게 겨울에 출잖아.]

10607 # 그렇게, 소게다 무늘 또 하나 밀창무니라고 송문 던문 그러케 쌍발지무는 보텡이 먼 송문 던무니 인썌요. [그러니까, 속에다 문을 또 하나 밀창문이라고 속문 던문 그

렇게 쌍단이문은 보통이면 속문 던문이 있어요.]

10607 # 그라고, 저 외무는 그러케 그러케 문 하나만 그냥 그라고. [그리고, 저 외문은 그렇게 그렇게 문 하나만 그냥 그렇게 하고.]

10607 # 여그다가 문설쭈다 이케서 이케 이케 쇠로 거시개 가지고 이케, 거시기 그기 머냐 또. [여기에다가 문설주에다 이렇게 이것이 이케 쇠로 거시기해서 이것이, 거시기 그것이 뭐냐 또.]

10607 # 거 생가기 만나서 *** [그 생각이 만나서 ***]

10607 # 돌쪼구, 돌쪼구렐 이 문설주에다 박꼬, 무니다 박꼬, 돌쪼구가. [돌쩌귀, 돌쩌귀를 이 문설주에다 박고, 문에다 막고, 돌쩌귀가.]

10607 # 거 이제 돌쪼구랑건 이르게 생게서 여그서 이르게 이르게 도능기여 이기. [그 이제 돌쩌귀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것.]

10607 # 이기 이기 돌쪼구여 이기. [이것 이것이 돌쩌귀여 이것이.]

10607 # 무니다 박꼬, 그르카야, 그르카야 이제 설사 박꼬 무늘 여르면 이르게 여르파 이르게 다단파 하자나요. {문에다 박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이제 철사 박고, 문을 열면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다단다 하잖아요.}

10607 @ 돌쪼구도 이러케 이러케 되여인능거시 인고 바킹게 인쪼? [돌쩌귀도 이렇게 이렇게 되여있는 것이 있고 박힌 것이 있죠?]

10607 # 으으 그걸. [으으 그것.]

10607 @ 이르미 따로 따르지 아나요? [이름이 따로 따르지 않아요?]

10607 # 따르지. [따르지.]

10607 # 요고 요고이 게 도랑형게 요곤 암놈, 요고이 나머지 숨놈, 암돌쪼구 숨돌쪼구. {이것 이것이 그 동그름한 것이 이진 암놈, 이것이 나머지 숨놈, 암돌쪼구, 숨돌쪼구.}

10607 @ 근디 그 무니 나무로 요로케 요로케 돼인썬 나무 나무렐 가따가 이러케 형견또 인꼬, 대나무 가통거슬 그냥 이러케, 이러케 하는 거또 인꼬. 그렇거 인썬짜나요. [그런데 그 문이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나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대나무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있었잖아요.]

10607 # 이제, 여기는 보편썬그로 침:부 그러케 나무로 그러케 쌍바라지문 송문 던문 그라고, [이제, 여기는 보편적으로 전부 그렇게 나무로 그렇게 쌍단이문 속문 던문 그라고,]

10607 # 저: 절라남도 라능건 우리 저그 거시기 가면, 그건 대나무가 만차나요, 순전. [저 전라남도라는 것은 우리 저기 거시기 가면, 그것 대나무가 많잖아요. 순전히.]

10607 # 그래 대나무를 이르게 엽거가지고 무를 그러케 힐썬요. [그래 대나무를 이렇게 엽어가지고 문을 그렇게 했어요.]

10607 @ 요그는 대나무 엽쓰니까 엽썬?. [여기는 대나무 없으니까 없어?]

10607 # 엽:썬요 대나무 엽썬요 엽썬. [없어요, 대나무 없어요 없어.]

10607 @ 우리가 거기서 거기다 무네다 바르는 거슨 머여. [우리가 거기서 거기에다 문에다 바르는 것은 뭐여.]

10607 # 그 엔나레 인자 그 따기라고, 따걸. [그 옛날에 이제 그 닥나무라고, 닥나무를.]

10607 # 예, 여기는 게 땅나무가 엽썬는데, 여여여 배고리라고, 산중이요. [예, 여기는 그 닥나무가 없었는데, 여여여 배골이라고, 산중이요.]

10607 # 산중이 가면 땅나무라고 인썬요 땅나무. [산중에 가면 닥나무라고 있어요. 닥나

무.]

10607 # 저: 배골 사니 이리가면 바시 이러캐 빼딱 남, 우리기는 이캐 바시쑤 폐파네여, 여기는 이르캐 빼작진대가 업써. 우리 우리 논 우리넌. [저 배골 산에 이렇게 하면 밭이 이렇게 빼딱 남, 우리에게는 이렇게 밭이 쑤 평탄해요, 여기는 이렇게 비탈진 데가 없어. 우리 우리 논 우리는.]

10607 # 근디 저 배고리라고 그런디 산골 산골짜기 산골짜기 가면 바시 막 잉께 사:니다 이러캐 일귀서 빼딱찌고 막 이러캐 소도 묻갈고, 바우 저 바시 막 바:우도 이캐 큰크 망게 이거 인짜나. [그런데 저 배골이라고 그런데 산골 산골쪽에 산골쪽에 가면 밭이 막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일귀서 비탈지고 막 이렇게 소도 못 갈로, 바위 저 밭이 막 바위도 이렇게 큰 큰한 것이 있잖아.]

10607 @ 애. {애.]

10607 # 이런디넌 밭 가상에도 인꼬, 가운데도 인꼬 머 거 땅나무라고 인써 땅나무 당나무, 게 그걸 가파, 가꾸면 인자 가시리 가서 이노멀 베요. [이런데는 밭 가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뭐 그 닥나무라고 있어 닥나무 닥나무, 그 그것을 가꿔. 가꾸면 이제 가을에 가서 이눔을 베요.]

10607 # 베까꾸서 거노멀 다는 이마:끄망개 거그서 인재 어따 이르캐 그 찌는 솔, 소설 맨드라가꼬 그노멀 찌덤만. [베가꼬서 그눔을 다는 이만큼하니까 그거시 이제 어디가 이렇게 그 찌는 솔, 솔을 만들어가지고 그눔을 찌드만.]

10607 # 이노멀 꺼풀 베께 이노멀 꺼풀 닥꺼풀 닥꺼풀 닥꺼풀 그노멀 베께가꼬, 인제 게으레 인내: 농항기 농사 안질때 겨으레 인재 인재 농사 안질짜야요. [이눔을 껍질을 벗겨. 이눔을 껍질 닥껍질 닥껍질 닥껍질 그눔을 벗겨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농한기 농사 안 질 때 겨울에 이제 이제 농사 안 짓잖아요.]

10607 # 그때 인재 그노멀, 껍떼기 그 빨경질 그노멀 인재 거시기가꾸서 그냥, 거 인자 조~이 뜨는디를 가보면 그노멀 이르캐 당과서 어떠케 해가꾸서 막 이런 몽둥이로 팍: 이러캐 두드러쌌데 이캐 막, 게 두드러싸면 두드러싸면 그뇌미 인재 그 빨경거시 그냥 그캐 그러케 해가꾸서 막 이르캐 시끄머는 빨건 거시하구 인재 속 껍떼기 하얗거 하얗거 그눔만 나요. [그때 이제 그눔을, 껍질 그 빨간 것을 그눔을 이제 거시기 해가지고서 그냥, 그 이제 종이 뜨는 데를 가보면 이눔을 이렇게 담귀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막 이런 몽둥이로 막 이렇게 두드러쌌데 이렇게 막, 그 두드러싸면 그눔이 이제 그 빨간 것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씻으면 빨간 거시기하고 이제 속 껍질 하얀 것 그눔만 나와요.]

10607 # 그눔만 나오면 그노멀 그러케 막 쌀마가꼬 어떠케가꼬 인자, 그노머 인재 조~이 뜨는디르 함번 강개 막: 이르캐 큰: 소시 인써 손. [그눔만 나오면 그눔을 그렇게 막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눔은 이제 종이 뜨는 데를 한번 가니가 막 이렇게 큰 솔이 있어 솔.]

10607 # 거기다가 그노멀 막: 이르캐 뚜디가꼬 나오면, 그노미 다: 푸러저가고 이러케 보머는 우리 무신 저: 쌀로 흰죽 꼬린짜나 왜. [거기에다가 그눔을 막 이렇게 두드러가지고 나오면, 그눔아 다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 무슨 저 쌀로 흰죽 끓였잖아요 왜.]

10607 # 엔나레 흰죽 꼬링거 마냥 그러케 인재 그 닥꺼풀 그 찢겨 그게 쟁자~이 찢겨. [옛날에 흰죽 끓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그 닥껍질 그 찢겨 그것이 굉장히 찢겨.]

10607 # 그거시 거 확: 푸러져 인썬요. [그것이 그 확 풀어져 있어요.]

10607 # 푸러진는 푸러져 인뜨만 그러면. [풀어져 있는 풀어져 있더만, 그러면.]

10607 # 게 넓짜:가니 왜 저 조~이 뜨는 디가 이캐 이제 ... [그 넓적하니 왜 저 종이 뜨는 데가 이렇게 이제...]

10607 # 이만:치 우리 문설쭈갈 문 문짱마:넝게 그렇게 인테요. [이만큼 우리 문설쭈갈 문 문짝만한 것이 그런것이 인테요.]

10607 # 게 거기다 지여꾸 이르캐 가따 인자 큰: 거시기가 인쓰면, 탁 싹 푸러진디다 이노멸 융: 설렁하면 여가 살짝 인재 고기 저 죽꺼팅게 이키 인짜너요. [그 거기다 지어 넣고 이렇게 갖다 이제 큰 거시기가 있으면, 탁 싹 풀어진 데가 이놈을 융 설렁하면 여기가 살짝 이제 거기 저 죽같은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10607 # 그러면 고노멸 그때 집. [그러면 그놈을 그때 집.]

10607 # 인자 고만치 노코 또 집 한치 노코, 또 이러카구 또 저 그래서 인재 지아치 거 똑 똑 떠가꼬 인재, 철판:이라고 거 말리는 디가 인썬 그 조~이 말리는디가. {이제 그만큼 놓고 또 쥔 한 치 놓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저 그래서 이제 쥔과 같이 그 똑똑 떼 어가지고 이제, 철판:이라고 그 말리는 데기 있어, 그 종이 말리는 데가.}

10607 # 저따 인재 까라노코 부릴 때가지고 거기다 조이*** 한지라고 그기 한지라고 제. [저기다 이제 깔아놓고 불을 때가지고 거기다 봉이*** 한지라고 그것 한지라고하지.]

10607 # 그리카구 인재 그기 거 한지로 인재 무늘 발랴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그 한지로 이제 문을 발랴썬요.]

10607 @ 엔나레는 외풍이 심헐 심헐썬다테요. [옛날에는 외풍이 심헐 심헐썬다테요.]

10607 # 심하지요, 심하지. [심하지요. 심하지.]

10607 # 엔나레는 심하지 이캐. [옛날에는 심하지 이렇게.]

10607 # 엔나레는 이르캐 방에 겨으레 안저쓰면 냥 바래미 술술해 바~이 이썬도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방에 겨울에 앉아있으면 그냥 바람이 술술해 방에 있어도 그냥.]

10607 # 술술하, 시방 짱 이런지비 이썬개 *** 바쁘지: 그전찌븐 머 겁나게 취요, 운풍이 겁나게 취. [술술해, 지금 그냥 이런 집에 있으니까 *** 바쁘지, 그전 집은 뭐 겁나게 취요., 운풍이 겁나게 취.]

10603 @ 지붕을 인느 재료에 따라서 아까 재료에 따라서 지블 나누면 대개 뎜까지 지브로 나뉘요? 초가집 인꼬. [지붕을 이는 재료에 따라서 아까 재료에 따라서 집을 나누면 대개 몇가지 집으로 나뉘요? 초가집 인꼬.]

10603 @ 초가지번, 초가지번 폴로 지푸로 영 영거시 초가지비지요이? [초가집은, 초가집은 폴로 쥔으로 영 이은 것이 초가집이지요이?]

10603 # 으, 그거이 초가지비지. [응, 그것이 초가집이지.]

10603 @ 예, 그다메 또? [예, 그다메 또?]

10603 # 이런디는 보통 초가집 아니면 재:지빈디. 이런디는 점부 재:집 우꼬:, 재지비는 저: 먼 줌 재. [이런데는 보통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인데. 이런데는 전부 기와집 없고, 기와집은 저 뭇 줌 저.]

10603 # 우리 여그도 이썬 중녀니 재집 한집 이썬네. [우리 여기도 이제 중년에는 기와집 한 집 있었네.]

10603 # 저 초가지벌 베끼고 재 올린 사라미 하나 인썬썬요. [저 초가집을 벗기고 기와 올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10603 @ 여기가 한 이백오십호 이리케 되는데도 그 그러케 ... [여기가 한 이백오십호 이렇게 되는데도 그 그렇게...]

10603 # 업썸썸썸. [없었어요.]

10603 @ 업썸썸썸? [없었어요?]

10603 # 재집 읍썸썸, 엔나레 인내 엔나레는 인재 그거또 인재 우리 한:그저 한 열뽕쌀 저 여워디 ... [기와집 없었고, 옛날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한 그저 한 열뽕쌀 저 여기 어디...]

10603 # 해방되고야 해방뒤 올린능가 한 재지비 재집 올리고, 함석찌비라고 함석지비 또 한지비 저 한지비 인썸고 그린썸썸. [해방되고야 해방 뒤에 올렸는가 한 기와집이 기와집 올리고, 함석집이라고 함석집이 또 한 집이 저 한 집이 있었고 그랬어요.]

10603 # 함석찹 부깸찌비. [함석집 부앗집이.]

10603 # 이장호라고. [이장호라고.]

10603 # 이장호라고 자사이 모를끼요 저. [이장호라고 자세히 모를끼요 저.]

10603 @ 멀썸허썸썸썸. 이장호는 애. [말썸하썸썸썸. 이장호는 예.]

10603 # 애. [예.]

10603 # 게 이장호가 전주로, 여그서나 그때 잠시릴 마니헐썸썸. [그 이장호가 전주로, 여그서는 그때 잠실을 많이했어요.]

10603 # 뉘: 뉘릴 뽕나무 마:니 해가꼬 뉘도 메기고, 뉘알 아릴 거시개가꼬. [뉘 뉘를 뽕나무 많이 해가지고 뉘도 먹이고, 뉘알 알을 거시기해가지고.]

10603 # 우리: 절라북또 내에서는 마:이 거 이장호씨 아버지가 그랜썸썸.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많이 그 이장호씨 아버지가 그랬어요.]

10603 # 그래가꾸서나 인재 전주가서 또 인자 그거를 뉘씨릴 내엔썸, 뉘씨가꾸서나, 그러케 헐썸썸.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 가서 또 이제 그 것을 뉘씨를 내였어, 뉘씨 가지고서나, 그렇게 했어요.]

10603 # 이장호년, 도라가썸는데. [이장호는 돌아가썸는데.]

10603 # 이장호가 나보다 한살 더먹건는디, 도라가썸썸. [이장호가 나보다 한살 더 먹었는데, 돌아가썸썸.]

10603 @ 그러케 부깸찹 썸사람도 그러케 빨리 가신 ... [그렇게 부깸찹 사람도 그렇게 빨리 가신...]

10603 # 허허허 부자찌비라고 안 주거요. 허허허. [허허허 부깸찹이라고 안 죽어요. 허허허.]

10603 # 아이 어터가면요, 돈인능 양반더리 그 멀 거시강개 저, 돈 인는 놈한데 더, 명이 저 쉽게 도라가는 수가 마나요. [아이 어떻게 하면요. 돈 있는 양반들이 그 멀 거시기하니까 저, 돈 있는 놈한데 다, 명이 저 쉽게 돌아가는 수가 많아요.]

10603 # 그 양반더리 함석 여그서 엔날부터 함석지비로 인썸썸썸. [그 양반들이 함석 여그서 옛날부터 함석집으로 있었어요.]

10603 @ 그먼 저, 재집, 초가집, 그다메 함석찹 혹씨 그 썸리나무 나올때 썸릿찹 가통거 아널썸썸? [그러면 저, 기와집, 초가집 그다음에 함석집 혹씨 그 썸리나무 나올 때, 썸릿찹 같은 것 안했어요?]

10603 # 여그는 업썸썸썸. [여그는 없었어요.]

10603 # 여그는 업썸는데. [여그는 없었는데.]

10603 # 저: 산 산중이로 가면 그 저 굴피 거 거시기라고 저, 참나무, 참나무 엔나레 참나무 꺾따기, 그기며 함번하면 말런 간다냐, 머 머 철런 간다냐 말런 간다냐 그래따고, 굴피 그 굴피꺾따기라고 왜 엔:나레 그 사니서 참나무 꺾따기 이노멸 베게 가꾸서나, 지병 해 인지 인찌요 왜. [저 산 산중으로 가면 그 저 굴피 거 거시기라고 저, 참나무 옛날에 참나무 꺾질, 그것 뭐 한번 하면 만년 간다냐, 뭐 뭐 천년 간다냐 만년 간다냐 그랬다고, 굴피 그 굴피꺾질이라고 왜 옛날에 그 산에서 참나무 꺾질 이놈을 벗겨 가지고서, 지봉 해 이은 집 있지요. 왜.]

10603 @ 애. [예.]

10603 # 받찌요 더러? [보았어요 더러?]

10603 @ 그건 굴피찌비라고 그러건데요? [그것은 굴피집이라고 그러겠네요?]

10603 # 애, 굴피찌비라고 그라데 그거는. {예, 굴피집이라고 그러데 그것은.}

10603 @ 그면 썩찌비라고 항건 머예요, 썩찹? [그러면 새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집?]

10603 # 새:찹? [새집?]

10603 @ 애. [예.]

10603 # 싯찌비라고 인찌. [새집이라고 있지.]

10603 # 여기는 그기 엄넌테. [여기는 그것이 없는데.]

10603 # 제주도 가면 점부 그걸로 해요. [제주도 가면 전부 그것으로 해요.]

10603 # 제주도는 노니 들하쟈냐, [제주도는 논이 덜하잖아.]

10603 # 그라고 새라고 저 사니가서나, 그왜 저: 이파리가 가상이가 꺼끌꺼끌해서 소니 이 러카면 쪽 손 탁: 베요. [그리고 새라고 저 산에 가서나, 그 왜 저 이파리가 가장자리가 꺼끌꺼끌해서 손이 이렇게 하면 쪽 손 탁 베요.]

10603 # 그 새요 이르캐. [그 새요 이렇게.]

10603 # 막 가시가 붙꼬, 썩라고 막 크다:너이, 우리 기로 막 거시가면 막 한질되고, 머 거시갈라면 한질도 넘꼬 그랜짜나요. [막 가시가 붙고, 새라고 막 크게, 우리에게로 막 거시기하면 막 한 길되고, 뭐 거시기할려면 한 길도 넘고 그랬잖아요.]

10603 # 그노멸 인재 가시가서 이르캐 비다가,가시리 가서 비다가 내내 인재, 우리 초가집 해이디끼. 초가집 해이디끼. [그놈을 이제 가을에 가서 이렇게 베다고, 가을에 가서 베다가 내내 이제, 우리 초가집 해 이듯이, 초가집 해 이듯이.]

10603 # 저 제주도: 강개 점 점 제주도 가면 점부 그 차인찌비요. [저 제주도 가니까 점 점 제주도 가면 전부 그 새집이요.]

10603 # '띤찹, 싯찹. [띠집, 새집.]

10603 @ 띤찌븐 또 뭐요? 띤찌버고 싯찌븐 달라요? [띠집은 또 뭐예요? 띤집하고 새집은 달라요?]

10603 # 띤는 띤랑은 틀리지. {띠는 띤랑은 틀리지.}

10603 # 풀: 푸리 띤라고 여기도 왜 이런디도 왜 이파리가 넘찌거니 두라게 이캐 인능거 왜 막 크능거. [풀 풀일 띤라고 여기도 왜 이런데도 왜 이파리가 넓적하게 두렁에 이렇게 있는 것 왜 막 크는 것.]

10603 # 제주도 가머는 새:하고 띤하고가 마나요. [제주도 가면 새하고 띤하고가 많아요.]

10603 # 순:저니 제주도 가니까. [순전히 제주도 가니까.]

10603 # 나 제주도 가서 그때 훌런 바단는데. [나 제주도 가서 그때 훌런 받았는데.]

10603 @ 아:. [아.]

10603 # 거기 강개 순:전 '새로 다여 새로 다 여가꾸서 궁께 여그 초가집 하면 그냥 그르
캐서나. [거기 가니까 순전히 새로 다 이어서 새로 다 이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
초가집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나.]

10603 # 동애주리라고 여기 엔 엔나레 왜 지비로 이르게, 삼저부로 해가꾸서나 왜 엔나레
는 이르게 동애줄 떠가꼬 권디도, 오월단온날 권디 매가꼬 권디 뛰고, 다 지부로 헨
짜녀, 왜 시방언 인재 읍찌마는. [동아줄이라고 여기 옛 옛날에 왜 짚으로 이렇게, 삼
겹으로 해가지고서나 왜 옛날에는 이렇게 동아줄 떠가지고 그네도, 오월 단오날 그네
매가기고 그네 뛰고, 다 짚으로 했잖아, 왜 지금은 이제 없지마는.]

10603 # 띠로 순:저니 이르게 동애줄 이케, 켜썬요 이케. [띠로 순전히 이렇게 동아줄 이렇
게, 찢어요. 이렇게.]

10603 @ 띠로 파요? [띠로 파요?]

10603 # 띠로. [띠로.]

10603 # 띠로 꼰꼬. [띠로 꼰왔고.]

10603 # 지병은 새, 새근 위로 초가집때기 이르게 썩: 놀러요. {지붕은 새, 새근 위로 초가
집 짓듯이 이렇게 썩: 놀러요.}

10603 # 제가 제주도 가니까. [제가 제주도 가니까.]

10603 # 썩: 놀러가고, 거그럴 이러케 인재, 이기 지붕가트면 축:축 이르게 해요. [썩: 놀러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이제, 여기 지붕같으면 썩: 이렇게 해요.]

10603 # 바래미 야튼 저, 총:총 이케 망 억띠끼 요로케 요로케도 대고, 또 이르게도 대고,
네모가꼬 망 억띠끼 썩: 그냥 놀러와요. 이케. 놀러노테요. [바람이 하여튼 저 총총
이렇게 망 엷듯이 이렇게 이렇게도 대고, 또 이렇게도 대고, 네모가지고 망 엷듯이
썩: 그냥 놀러와요. 이렇게, 놀러놓테요.]

10603 # 썩: 놀러노코 ... [썩: 놀러놓고...]

10603 # 여기 여 우리기로 말하면 인재 여 도리 도리까지 도리 인는디까지 도그로 강다무
로 강다무로 썩: 싸가지고, 거그는 인재 베클 아넝개 독 저 사무리 가통길로 요. [여
기 여 우리에게로 말하면 이제 여 도리 도리까지 도리 있는 데까지 돌로 강담으로 강
담으로 썩: 사가지고, 거기는 이제 벽을 안하니까 돌 저 회삼물같은 것으로 요.]

10603 @ 예. [예.]

10603 # 저: 도리까지 썩: 발라빠려 도그로 꺾: 싸가꾸서. [저: 도리까지 썩: 발라버려 돌로
꺾: 싸가지고서.]

10603 # 이르게 우리기 마니로 저 외억꼬 머 외억고 흑빨르고 이러케 하지네 거기 제주도
는 도리 개법짜나 이러케 개봉개나 돌로 그러케 싸구서나. [이렇게 우리것 같이 저
외 억고 뭐 외 억고 흙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 거기 제주도는 돌이 가볍잖아 이렇
게 가벼우니까 돌로 그렇게 쌓고서나.]

10603 # 바래미 항:시 싱개는 그러가능갑뜨만요. [바람이 항시 세니까 그렇게 하는가보다
만요.]

<칸수에 따른 집 구분>

10604 @ 지비 약간 인자, 그: 어르신네 지븐 세까니라고 그래쥬요인? [집이 약간 이제, 그

어른신네 집은 세칸이라고 그랬지요잉?

10604 # 애타. [예.]

10604 @ 근디 지비 세칸지비 인꼬, 그 다메 그냥 집 지비 방 하나만 인, 광 하나만 하나만 이꺼나 이러케 지베 칸쭈에 따라 불르는 이르미 달라요? [그런데 집이 세칸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집 지비 방 하나만 있, 광 하나만 하나만 있거나 이렇게 집에 칸쭈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10604 # 달라지요. [다르지요.]

10604 @ 한번 갈체 ... [한번 가르쳐...]

10604 # 방 하나는 이견 당칸집, 아:주 엔나레 이제 참 아:주 살기가 대가너고 대 그런 사람면, 지동 네개만 이르케 진코, 네개 네개면 거그다 인제 연목 이르케 오두막 시키여 인자, 엔날 그 오두막찌비라고 그러거덩 오두막집마냥. [방 하나는 이것은 단칸집, 아주 옛날에 이제 참 아주 살기가 대간하고 그런 사람은, 기동 네개만 이렇게 있고, 네개 네개면 거기에다 이제 연목 이렇게 오두막 식이여 이제, 옛날 그 오두막집이라고 그러거든 오두막집마냥.]

10604 # 게 오두막짜리 지비라구라. [그 오두막살이 집이라고 그래.]

10604 # 그리고 인자 고로캐서나 방 향칸만 해가꼬.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나 방 한칸만 해가지고.]

10604 # 이제 이쪽 인자 방 한칸나라도 버어기 인저 불때서 바배멍는디가 인씨야데자냐. [이제 이쪽 이제 방 한칸이라도 부엌이 이제 불 때서 밥해먹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

10604 # 그글 그냥 니개만 세우구서나 거기다 까다기라구 그냥 나무만 이르케 그냥 거기다 대가지구서 이르케, 요조게다 인자 까다기라 지동 나무 그냥 이렇겐 두개 세우구 이르케 까닥 이르케구서나, 머 무슨 저: '엎때기 가통거요 이렇겔로 바람 몬뜨리오게 대구서 그냥. [그것을 그냥 네개만 세우고서 거기에다 가대기라고 그냥 나무만 이렇게 그냥 거기에다 대가지고서 이렇게, 이쪽에다 이제 가대기라 기동 나무 그냥 이런 것 두개 세우고 이렇게 가대기 이렇게 하고서나, 뭐 무슨 저 연때기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바람 못 들어오게 대고서 그냥.]

10604 # 부어글 그러캐가꾸서나 산 사라미 인씨요. [부엌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산 사람이 있어요.]

10604 # 까달기라고. [개대기라고.]

10604 # 뭐 시방, 요조게 우리 아페 여기도요, 여기 당칸빵 한 지비 사람씨. [뭐 지금, 이쪽에 우리 앞에 여기도요, 여기 단칸방 한 집이 살았어.]

10604 # 그르캐구서나 까다기 요로케 대고, 그 양반드리 하:도 읍썩개나 바블 으드 잡썩썩. [그렇게 하고서 가대기 이렇게 대고, 그 양반들이 하도 없으니까 밥을 얻어 잡수셨어.]

10604 # 으더서 잡수고 산 양바니 인쓰요. [얻어서 잡수구 산 양반이 었어요.]

10604 # 그라고 인제 고건 당칸빵, 그라고 상칸 인제 세 세카니로 징 거슨 상칸집.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단칸방, 그리고 삼칸 이제 세 세칸으로 진 것은 삼칸집.]

10604 # 네카느로 인제 네카느로 형건 사칸집, 또 오칸지비라고 인씨 다석칸, 인제 다섯칸 더는 안진는다. [네칸으로 이제 네칸으로 한 것은 사칸집, 또 오칸이라고 있어 다섯칸, 이제 다섯칸 더는 안 짓는데.]

10604 # 마:이 진는데는 오카느로 저, 그건 오칸집. [많이 짓는 데는 오칸으로 저, 그것은

오칸집.]

10604 @ 큰: 제일 큰 지블 엔나레 팔칸집, 뭐 팔칸집 ... [큰 제일 큰 집을 옛날에 팔칸집, 뭐 팔칸집...]

10604 # 몸채로 몸채로 팔칸 팔칸 진 사람 업쓸까요. [몸채로 몸채로 팔칸 팔칸 진 사람 없을 거요.]

10604 # 마:는 사라미 오칸. 오칸도 예간 드무려요. [많은 사람이 오칸, 오칸도 여간 드물어요.]

10604 # 사카는 어지가니 썰꼬. [사칸은 어지간히 많고.]

10604 @ 삼작 인는데, 삼작게서 또 지블 지면, 요로케 지블 쪽: 사람들 몬뜨러오게 쳐놓길 뭐라구레? [사립작 있는데, 사립작에서 또 집을 지면, 이렇게 집을 쪽 사람들 못 들어오게 쳐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

10604 # 다미라구도 하고, 인재: 참 거시간 사라면 다미라고 인재 도:걸 갱변 저: 갱변니 가따 도걸 참:부 지개로 지다가, 흑 한치 노코 독 한치 노코, 그리고서 인재 싸요. [답이라고도 하고, 이제 참 거시기한 사람은 답이라고 이제 돌을 강변 저 강변에 갖다 돌을 전부 지개로 지어다가, 흑 한 채 놓고, 돌 한 채 놓고, 그리고서 이제 싸요.]

10604 # 싸서 인재 맨: 뒤에 인재 또 다 썬썬냐 다 썬쓰면 인재, 소쟁이라고 사니가서 나무, 솔라무, 솔라무 이케 자자:나니 요망:큼 한노멀 요꺼를 비다가, [싸서 인재 맨 뒤에 이제 또 다 썬썬아, 다 썬쓰면 이제, 솔가지라고 산에 가서 나무, 소나무, 소나무 이렇게 자잘하니 이만한 놈을 이것을 베다가.]

10604 # 이러케 맨 위다 이러케 낵요. [이렇게 맨 위에다 이렇게 낵요.]

10604 # 그라구서 인재 지비로 이르케 인재 용마람 트러논는다고 안해요?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이제 용마름 틀어 놓는다고 안해요?]

10604 @ 얘. [예.]

10604 # 그전 아 아르게 내가 얘기 한는데 그 '밀집. [그전 아 아레 내가 이야기 했는데 그 밀집.]

10604 @ 예예. [예예.]

10604 # 밀찌비로 인재 그 용마람 트러가갸꼬, 당허락 인재 비 암만게 이르케 인재 밀지브로 용마람 트러 언져요. [밀집으로 이제 그 용마름 틀어가지고, 담 이제 비 안 맞게 이렇게 이제 밀집으로 용마름 틀어 없어요.]

10604 @ 그면 ... [그러면...]

10604 # 이는 사람드른 인재, 어지간힌 사람드른 그러케도 하고, 그거또 저거또 인재, 다무라그도 그거또 할라문 인재 그, 일러기 마니 드러가자나요. 도니 마니 드러가야 되자나요.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이제, 담도 그것도 할려면 이제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0604 # 그래 그건또 모다는 사라면 울따리라고 울따리라고 게 뽕:집 둘레를 뽕: 도라서 이케 나무를 바가요 이케, 둥::구러캐 나무랄 나무랄 바가. [그래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울타리라고 울타리라고 그 뽕 집 둘레를 뽕 돌아서 이렇게 나무를 박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나무를 나무를 박아.]

10604 # 나무랄 바가가꾸서는 인재 나무랄 이제 우 우울짱이라 구러거든. [나무를 박아가지고서 이제 나무를 이제 우 우울짱이라고 그러거든.]

10604 # 나무를 이케 마구 이케 요그다 이르게 이르게 바깥짜냐. [나무를 이렇게 마구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

10604 @ 애. [예.]

10604 # 그러면 이러케 양조게다 이러케 나무를 지대:녕걸 게 지대:녕걸 막 한 머 뒤:발씩 서너발씩 이러케 되는 노멀 사니가서 비다가 꺾떼기럴 비끼가꼬서니 양조게 이르게 대고, 여 가운데는 속꼬행이 사:니 가서 속팽이를 찌다 이르게 드문 팻: 꼬바야 돼 팻 꼬바. 뽕: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나무를 기다란 것을 그 기다란 것을 막 한 뒤 두어발씩 서너발씩 이렇게 되는 놈을 이렇게 되는 놈을 산에 가서 베다가 꺾질을 벗겨가지고서나 양쪽에 이렇게 대고, 이 가운데는 술가지를 찌다 이렇게 드문 팻 꼬바야 돼 팻 꼬바. 뽕.]

10604 # 집잡쓸 뽕꼬든 그걸 울타리라구려. [집 ** *** 그것을 울타리라 그래.]

10604 @ 울타리라 그러고? [울타리라 그러고?]

10604 @ 여그여그 세운거슬 울짱이라 그러? [여기여기 세운 것을 울짱이라 그래?]

10604 # 이진 말목, 울짱 울타리 말목, 말모기라고 하고, 여비인찌 여피다 대능거 울짱이라고 하고, (여피다 대능기 울짱이고) 여피다 대능기 울짱이라고 하고. 울짱나무를 대고서, 양조그로 인재 그 치기로 치글 가따 이르게 떠매요. [이것은 말목, 울짱 울타리 말목, 말목이라고하고, 옆에 있지 옆에다 대는 것 울짱이라고 하고, (@ 옆에다 대는 것이 울짱이고.) 옆에다 대는 것 울짱이라고 하고. 울짱 나무를 대고, 양쪽으로 이제 그 칙으로 칙을 갖다 이렇게 떠매요.]

10604 # 그 인재 거 다멸 몬 쌀 행페니 되는 사라면 그판 사라면 공개, 사니가서 속팽이 나무 공개 외통빼기 인재 짜:근놈 외통수로 큰놈, 그노멀 찌다가 고르케 축: 세워요. [그 이제 그 답을 못 쌀 형편이 되는 사람은 급한 사람은 그러니까, 산에 가서 술가지 나무 그러니까 외통빼기 이게 작은 놈 곧게 큰 놈, 고놈을 찌어다가 그렇게 쪽 세워요.]

10604 @ 그러니 사네 나무가 업썸썸썸썸. [그러니 산에 나무가 없었겠어요.]

10604 # 아: 그렇게 사네가 나무 귀하지요. 귀하지. [아 그러니까 산에가 나무 귀하지요, 귀하지.]

10604 @ 지금가트면 사람덜 ... [지금같으면 사람들 ...]

10604 # 하하하. [하하하.]

10604 # 우리기가 머 큰: 사는, 큰 사는 저미티가 인자 큰 사는 인는디 큰 사는 게 업썸도 야사는 썸썸여 여기 썸썸도. [우리에게가 뭐 큰 산은, 큰 산은 저 밑에가 이제 큰 산은 있는데, 큰 산은 그 없어도 야산은 썸썸여. 여기 썸썸도.]

10604 # 원체 우리 부라게 인재 인구가 원체 마니 살고 점:부 그케 나무를 순:전 나무를 가따 그러케 거시경개나 귀해썸썸 나무가. [원체 우리 부락에 이제 인구가 원체 많이 살고 전부 그렇게 나무를 순전히 나무를 갖다 그렇게 거시기하니까 귀했어요 나무가.]

10604 # 그래 가꾸서 여 '배고리라고, 배골 가면 큰 사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여 배골이라고, 배골 가면 큰 산이거든요.]

10604 # 거가 순 산중이자나 인재, 거꺼지 가서 나무를 가따 해때고, 거기가 여기서 한: ... [거기가 순 산중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서 나무를 갖다 해 때고, 거기가 여기서 한...]

10604 # 팔키로, 팔키로 십 시키로 그래 돼요. 팔키로가 너머 한 시키로 돼요. [팔키로, 팔키로 십 십키로 그렇게 돼요. 팔키로가 넘어 한 십키로 돼요.]

10604 # 시키로 되는데 가서 나무를 해... [십키로 되는데 가서 나무를 해...]

10604 @ 그먼 하루에 한집빠게 모더건네? [그러면 하루에 한 집밖에 못하겠네?]

1060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4 # 팔키로 하루 한집 하루 한집. [팔키로 하루 한 집 하루 한 집.]

10604 # 겨울로는 인제 한지미요, 겨울로는 한지미고, 보미 인제 해가 기러지자냐, 보미 해가 기러지머는 두번 해와요. [겨울로는 이제 한 집이요, 겨울로는 한 집이고, 봄에 이제 해가 길어지잖아, 봄에 해가 길어지면는 두번 해와요.]

10604 @ 자 인자 담, 그리케 드리완써요. 드리오며는 인자 거 그 반찬가통거 만들어노면 이러케 한조게 싸논는 ... [자 이제 담,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며는 이제 거 그 반찬같은 것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한쪽에 쌓아 놓는 ...]

10604 # 응? [응?]

10604 @ 반찬가통거 머 ... [반찬같은 것 뭐...]

10604 # 아:. [아.]

10604 @ 그 논는 거슨? [그 놓는 것은?]

10604 # 애. [예.]

10604 @ 그걸 머라구려? [그것을 뭐라고 그래?]

10604 # 살강. [살강.]

10604 @ 아니, 살강은 집 아니고, 바까테, 머 이러케 도가지 가통거 쪽: 논는데 거기는 뭐라구려? [아니, 살강은 집 안이고, 바깥에, 뭐 이렇게 도가지 같은 것 쪽 놓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래?]

10604 # 아: 도가지 가능거 이, 장팡. [아 도가지 같은 것 이, 장독대.]

10604 @ 장팡, 장 ... [장독대, 장...]

10604 # 장팡. [장독대.]

10604 # 뭐 이개, 웅기도, 웅기도 죽 중: 너노코 인자 거기다가 머 저, 꼬치장, 된 된장, 꼬치장 머, 장:물 머 이러거 점:부 거기다 가다 노차나요. [뭐 이렇게 웅기도, 웅기도 죽 중 넣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뭐 저, 고추장, 된 된장, 고추장 뭐, 장물 뭐 이런것 전부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10604 @ 그 지비 인따면, 요로케 다무라기 인꼬, 지비 인따면, 그 마당쪽 말고 지베 될조근 뭐라구려? [그 집이 있다면, 이렇게 담이 있고, 집이 있다면, 그 마당쪽 말고 집의 뒷쪽은 뭐라고 그래?]

10604 # 똥:. [똥안.]

10604 # 똥. [똥안.]

10604 @ 똥:엔 주 주로 뭐가 뭐가 일써? [똥안에는 주 주로 뭐가 뭐가 있어?]

10604 # 보통 이제 장팡이랑걸 대네다 점부 어디든지 보통이면 돼:네다 해요. [보통 이제 장독대라는 것을 똥안에다 전부 어디든지 보통이면 똥안에다 해요.]

10604 @ 아. [아.]

10604 # 돼니. [똥안에.]

10604 @ 돼네따요? [똥안에다요?]

10604 # 이. [이.]

10604 @ 자 그 돼:니구요. [자 그 뒀안이구요.]

10604 @ 그다메 인제 소나: 이런거뜰 메기는데는? [그다음에 이제 소나 이런 것들 메기는데는?]

10604 # 아랫 댜: [아랫 뒀안.]

10604 # 여기 몸채가 이래 우리 인제 사는 이제 몸채, 사는 집뽕고 몸채라구라거는 (애) 몸채라고. [여기 몸채가 이렇게 우리 이제 사는 이제 몸채, 사는 집뽕고 몸채라고 그러거든(@ 예) 몸채라고.]

10604 # 몸채 뒀에는 댜. [몸채 뒀에는 뒀안.]

10604 # 미티 인제 아래쪼그는 아랫 모퉁이, 자 윗쪼그는 윗모퉁이. [밑에 이제 아래쪽에는 아랫 모퉁이, 자 윗쪽은 윗모퉁이.]

10604 # 소 미기는 디, 소 미기는 디는 행:냥. [소 먹이는 데, 소 먹이는 데는 행랑.]

10604 # 행랑이다가 소미기요 인제, 소 소도 미기고 돼지도 미기고. [행랑에다가 소 먹여요 이제, 소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10604 @ 소 메기는 카는 뭐라구레? [소 먹이는 칸을 뭐라구레?]

10604 # 땡: 외양 외양. [외양 외양 외양.]

10604 @ 외양이요? [외양이요?]

10604 # 애. [예.]

10604 @ 그러며는요, 삼칸뽕이여 세 세칸 뽕이면 ... [그러며는요, 삼칸방이여, 세 세칸 방이면...]

10604 # 애. [예.]

10604 @ 세칸 뽕이라고 하는, 지둥이 지둥으로 이러케 생긴거시 세개 일뽕 말이지요이? [세칸 방이라고 하는, 기둥이 기둥으로 이러케 생긴 것이 세개 있단 말이지요이?]

10604 # 세칸 뽕언 칸쭈가 칸쭈가 세개: 세개가 세칸 뽕이여. [세칸 방은 칸수가 칸수가 세개 세개가 세칸 방이요.]

10604 @ 그럼 그러면 세개중에서 사라미, 그 주인이 자고 인는 주인이 자고 인는 거기는 무슨 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세개 중에서 사람이, 그 주인이 자고 있는 주인이 자고 있는 거기는 무슨 방이라고 그래요?]

10604 # 컴방. [큰방.]

10604 @ 큰방 인꼬. [큰방 있고.]

10604 # 애. [예.]

10604 @ 그다메, 그 방이 일뽕면 예를 드려 지난버네 어르신 지은 지븐 뽕뽕 인꼬 방이 어떠케 불려써요? [그다음에, 그 방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어르신 지은 집은 뽕뽕 있고 방이 어떻게 불렸어요?]

10604 @ 큰방 인꼬. [큰방 있고.]

10604 # 우리 방? [우리 방?]

10604 @ 애. [예.]

10604 # 컴:방, 윗뽕. [큰방, 윗방.]

10604 # 그렇게 여피로 인써 여피로 그래 우리는 텡뽕이라구 하고. [그러니까 옆으로 있어 옆으로 그래 우리는 뽕방이라고 하고.]

10604 @ 아 텡뽕이라고, 그뽕 그뽕 저 뽕요인, 큰방 인꼬, 여기가 윗뽕 인꼬, 그뽕 여기는 뽕여? [아 뽕방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저 뽕요인, 큰방 있고, 여기가 윗방 있고, 그러

면 여기는 뭐여?]

10604 # 거 또 윤빵이라구러지머. [그 또 옷방이라 그러지 뭐.]

10604 @ 그거도 윤빵? [그것도 옷방?]

10604 # 애. [예.]

10604 @ 그먼 불 때고 바배멍는 데는? [그러면 불 때고 밥해먹는 데는?]

10604 # 정지. [부엌.]

10604 @ 정기가 인쓰면, 정기간까지 합치면 네 네카닝가요? [부엌이 있으면, 부엌칸까지 합치면 네 네칸인가요?]

1060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4 @ 이 정지까지 합쳐서 네카닝거시 방이 세개고 ... [이 부엌까지 합쳐서 네칸인 것이 방이 세개고...]

10604 # 삼칸빠이라는건요, 삼칸빵이랑건 보통 방이 두개요. [삼칸 방이라는 것은요, 삼칸 방이라는 것은 보통 방이 두개요.]

10604 @ 아:. [아.]

10604 # 방이 두개구 정지가 항칸 그래서 삼칸 방아라능기요. [방이 두개고 부엌이 한칸 그래서 삼칸 방이라는 것이예요.]

10604 # 사칸 빵이라능건 방이 세개고 정지가 하나 그래서 사칸 빵이여. 사칸 지비라고 하고. [사칸 방이라는 것은 방이 세개고 부엌이 하나 그래서 사칸 방이요. 사칸 집이라고 하고.]

10604 @ 사칸 지비고요. [사칸 집이고요.]

10604 # 애. [예.]

10604 @ 그다메 인제 그: 아까 그 행낭 가튼데다가 뭐 이걸저걸 허드레걸 가따 너논는데 ...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행낭 같은 데다가 뭐 이것저것 허드렛 것 갖다 넣어 놓는데...]

10604 # 예 그러쥬. [예, 그렇지요.]

10604 @ 그런데는 뭐라구래? [그런데는 뭐라 그래?]

10604 # '헛청. [헛청.]

10604 # 행낭중에 행낭에 돼지막, 소막, 헛청. [행낭 중에 행낭에 돼지막, 소막, 헛청.]

10604 # 그라구 자 도장이라구 또 인씨요 도장. [그리고 이제 도장이라고 또 있어요, 도장.]

10604 @ 도장은 뭐요? [도장은 뭐요?]

10604 # 도쟁이라능기 허청이가 보통 인넌데, 도장이라능 거선, 인자 이르케 이르케 방거 치 내내 만드라 이제. [도장이라는 것이 헛청에가 보통 있는데, 도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방같이 내내 만들어 이제.]

10604 @ 애애. [예예.]

10604 # 방거치 맨들고 무는 머 그냥 저 송판 문, 송판문거튼 그렇걸로 게 하는데, 도장이랑거슨 인제 방애 겨울로 방애 찌가꼬서나 쌀, 쌀거통거 머 곡씩 인제 알곡씩거통거 점부 거그다 느:노코, 때 되면 도장에 가서 인제 쪼금씩 내다가 바배 먹고 바배 먹고 그제. [방같이 만들고 문은 뭐 그냥 저 송판 문, 송판 문같은 그런 것으로 그 하는데, 도장이란 것은 이제 방아 겨울로 방아 찧어가지고서 쌀, 쌀같은 것 뭐 곡식 이제 알곡씩같은 것 전부 거기에다 넣어놓고, 때 되면 도장에 가서 이제 쪼금씩 내다가 밥해

먹고 밥해 먹고 그제.]

10604 # 알꼭씩 찌가꾸서 알꼭씩 머 머 이렇거 저렇거 여러가지 꺼 거거기다가, 도장에다 느꾸 멍는, 내서 멍는 디가 도장이요. [알곡식 쥘어가지고서 알곡식 뭐 뭐 이런것 저런것 여러가지 것 그 거기다가, 도장에다 넣고 먹는, 내서 먹는 데가 도장이요.]

10604 @ 도장이 중요헌데네 그먼? [도장이 중요한 데네 그러먼?]

10604 # 중해지요, 중해지요. [중하지요, 중하지요.]

10604 # 그래, 도장문, 딱 거시가고 자물통으로 딱 장, 사람웁쓰면 도장에 쌍 내고 그라자나. [그래, 도장문, 딱 거시기해가지고 자물통으로 딱 잠, 사람 없으면 도장에 쌍 내고 그러잖아.]

10604 # 엔나레는 ... [옛날에는...]

10604 # 배고픈 시저리라. [배고픈 시절이라.]

10604 # 그 도둑 도되기 일쓰요. 도장에 가서 녀 쌀 퍼가고 그랭기 인썰썰요. [그 도둑 도둑이 있어요. 도장에 가서 남 쌀 퍼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10604 # 인제 혼하든 아는디 호:간 그런 수가 일썤요. [이제 혼하지는 안는데, 흑간 그런 수가 있어요.]

10604 # 그렇개나, 도장무는 항상 자물통이 인썰서나, 인재: 그집 큰메느리, 큰메느리가 인재 만날 인재 바블 허능개나 큰메느리가 도장 열때는, 열때를 차고. [그러니까, 도장문은 항상 자물통이 있어서나, 이제 그 집 큰메느리, 큰메느리가 이제 매일 이제 밥을 하니까 큰메느리가 도장 열쇠는, 열쇠는 차고.]

10604 # 그집 안쭈이니 인재 '셔:마등가 큰메리등가, 인재 안 부형드러와서는 즈히도 인재 얼른 그러케 드글 드른 양바니 도장 열때를 가지고 인썰. [그 집 안쭈인이 이제 시어머니든가 큰메느리든가, 이제 안 부형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얼른 그렇게 득을 들은 양반이 도장 열쇠를 가지고 있어.]

10604 # 여그다 차고 땡겨 여그다. [여기다 차고 다녀 여기다.]

<재료에 의한 집 구분>

10605 @ 집에 종류는 아까 인자 그러케 지붕으로 구분허능거 말고요, 지블 벽까통거 진능 거시 호그로 진지븐 뭐라구래요? [집의 종류는 아까 이제 그렇게 지붕으로 구분하는 것 말고요, 집을 벽같은 것 짓는 것이 흙으로 진 집은 뭐라 그래요?]

10605 # 호기르 진응기? [흙으로 짓는 것?]

10605 @ 애. [예.]

10605 @ 아까 그러케 우리가 호그로 진 진지블 흑찌비라고? [아까 그렇게 우리가 흙으로 진 집을 흙집이라고?]

10605 # 흑뽕뽕로 흑찌비라고 레야지 흑집. [흑벽돌로 흙집이라 그래야지 흙집.]

10605 @ 그며는 여기 요런 ... [그러며는 여기 이런...]

10605 # 흑뽕뽕로 저가꼬. [흑벽돌로 지어가지고.]

10605 @ 애. [예.]

10605 # 그런 전 그런 집 일제. [그런 전 그런 집 있지.]

10605 @ 애. [예.]

10605 @ 요로케 인자 요로케 요로케 (# 애.) 나중에 인자 나와 나와서 요로케 시멘트로

만드려진거 그러케 징거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 예.) 나중에 이제 나와
나와서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 그렇게 진 것은?]

10605 # 아니. [아니.]

10605 # 흐그로 맨드는거는 흐걸 사머리 부루꾸 인짜너요 왜 우리 이? [흙으로 만드는 것
은 흙을 회삼물 불럭 있잖아요, 왜 우리 이?

10605 # 사무리 목, 벽 사무리. [회삼물 , 벽 회삼물.]

10605 @ 애애. [예예.]

10605 # 부루꾸 거 크기 왜 사머리보다 크자냐? [불럭 그 큰 것 왜 회삼물보다 크잖아?]

10605 @ 애. [예.]

10605 # 고 시그로 엔날 영낙시, 이 흐걸 착:착 이기가꼬요, 착착 이기가꼬, 이캐: 무신 저
으: 흑 벽돌 찡는기라고 이르게 '트릴, 들어가꼬 착착 찡거가꼬. [그 식으로 옛날 영
락없이, 이 흙을 착착 이겨가지고요. 착착 이겨가지고, 이렇게 무슨 저 으 흙 벽돌 찡
는 것이라고 이렇게 틀을, 들어가지고 착착 찡어가지고.]

10605 # 흐걸 착:착 이기가꼬, 고기다 이르게 탁:탁 다마가꼬, 탁 드러따나따 하문 야무자
나요. [흙을 착착 이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탁탁 담아가지고, 탁 들었다났다 하면
야무지잖아요.]

10605 # 고래서 트를 쪽: 빼구서 그러머는 영낙집시 벽돌, 벽돌거치 그러케가꾸 인재 고노
멀 종: 노쿠서 말리요 인재, 빼:씩 말려. [그래서 틀을 쪽 빼고서 그러면 영락없이 벽
돌, 벽돌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놈을 쪽 놓고서 말려요. 이제 바싹 말려.]

10605 # 빼:쌍 말리면 그노무 가따가 인재 우리 저: 거시기 왜 ... [바싹 말리면 그놈을 갖
다가 이제 우리 저 거시기 왜...]

10605 # 벽돌, 사무리 벽돌, 사무리 벽돌 이제 담 담 이캐 싹짜나요 왜? [벽돌, 회삼물 벽
돌, 회삼물 벽돌 이제 담 담 이렇게 싹잖아요 왜?]

10605 @ 애:. {애.}

10605 # 담싸디끼 이르게 인재, 그노무 한채 노코, 흐걸 또 이기가꼬 한채 노코, 또 노코
한채 노코, 다물 싸든 고로케해서 인재, 고 상: 고로케 싸능기 그거시 인재, 흑찌비지,
흑벽돌찡. [담 싹듯이 이렇게 이제, 그놈을 한 채 놓고, 흙을 또 이겨가지고 한 채 놓
고, 떠 놓고 한 채 놓고, 담을 싹듯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 그렇게 싸는 것이 그것
이 이제, 흙집이지, 흙벽돌집.]

10605 @ 흑벽돌찡? [흙벽돌집?]

10605 # 애. [예.]

10605 @ 사무리 그걸로 허는 지번요? [회삼물 그것으로 하는 집은요?]

10605 # 어? [어?]

10605 @ 사머리 그걸로 진 지번? [회삼물 그것으로 지은 집은?]

10605 # 사머리로 진 집또 인제. [회삼물로 지은 집도 있지.]

10605 @ 사머리 그:. [회삼물 그.]

10605 # 사머리 벽돌. [회삼물 벽돌.]

10605 @ 사머리 벽또리 ... [회삼물 벽돌이...]

10605 # 사머리 (달라요?) 복또리지, 사머리 벽또리 지비라구제 머. [회삼물 (@ 달라요?)
벽돌이지, 회삼물 벽돌 집이라고하지 뭐.]

10605 # 그 쿵걸로 지웅건 사머리 벽돌찡. [그 큰 것으로 지은 것은 회삼물 벽돌집.]

10605 @ 애. [예.]

10605 # 또 이제 사머리면서 쪼꼬막 쪼꼬마케 맨등거 인싸냐? [또 이제 회삼물이면서 조그맣게 만든 것 있잖아?]

10605 # 그건 사머리 부록, 저: 부록, 큰 지번 사머리 부루꾸집, 쪼까녕거만 허먼 사머리 벽돌집. [그것 회삼물 불럭, 저 불럭, 큰 집은 회삼물 불럭집, 작은 것만 하면 회삼물 벽돌집.]

10605 @ 애. [예.]

10605 @ 너와집, 돌로 돌가통거일로 진 너 너와찌비란 말도 인싸요? [너와집, 돌로 돌같은 것으로 진 너 너와집이란 말도 있어요?]

10605 # 너와집? [너와집?]

10605 @ 애. [예.]

10605 # 너와찌비라능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저 ... [너와집이라는 것은 아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저...]

10605 @ 그거 그거시구나 아: [그것 그것이구라 아.]

10605 # 사머리 참 저저 삼, 참나무. [회삼물 참 저저 삼, 참나무.]

10605 @ 참나무 그러케 징거시구나:. [참나무 그렇게 지은 것이구나.]

10605 # 참나무 저 꺾따기 그 베가꾸서나 이 위에 우에 비 암막게 우덜거지 하능건만 항기 그거보고 너와찌비라고. [삼나무 저 꺾테기 그 베어가지고서나 이 위에 위에 비안 맞게 우덜거지 하는 것만 하는 것이 한 것이 그것보고 너와집이라고.]

<연장>

10606 @ 그먼 저 집질때 쓰는 연장이 주로 뭘 인싸요? [그러면 저 집 질 때 쓰는 연장이 주로 뭘 있어요?]

10606 # '엔나레 우리 저: 엔날우리 쓸찌게 ... [옛날에 우리 저 옛날 우리 쓸 적에 ...]

10606 @ 요즘까지 해서 주러 어떤 연장? [요즘까지 해서 주로 어떤 연장?]

10606 # 우리: 엔날 연장언 큼 만치며. [우리 옛날 연장은 많지 뭐.]

10606 # 톱, 짜:구, 뜰, 대패, 또 큰짜구라고 인싸 큰짜구라고 킨짜구, 도치 그러치며. [톱, 자귀, 끌, 대패 또 큰자귀라고 있어 큰 자귀라고 큰 자귀라고 큰 자귀, 도끼 그렇지 뭐.]

10606 @ 이러케 이러케 때리는 거슨?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것은?]

10606 # 망치로 탕탕 망치, 망치. [망치로 탕탕 망치, 망치.]

10606 @ 물가통거 빼는 건요? [뭇같은 것 빼는 것은요?]

10606 # 건 '장도리, 장도리. [그것은 장도리, 장도리.]

10606 @ 그: 마냐게 구멍가튼거 푸는거슨 뭘 인싸? 구멍 구녕 푸는거슨? [그 만약에 구멍 같은 것은 구멍 뚫는 것은 뭇뭇이 있어요? 구멍 구멍 뚫는 것은?]

10606 # 끌, 끌 끌로 이르케 이케 막 이케 남 끌로 이르케 대구 때리오, 망치로 때려. [끌, 끌 뜰로 이렇게 이렇게 마가 이렇게 끌로 이렇게 대고 때리오, 망치로 때려.]

10606 # 그 자꾸 이러케 파냐. [그 자꾸 이렇게 파내야.]

10606 # 끌로 뜰벼요. [끌로 뚫어요.]

10606 @ 비싸게 ... [비싸게...]

10606 # 아 보드를 뜯는거 인제 보드도 인제, 보드. [아 보드로 뚫는 것 있지, 보드도 있지, 보드.]

10606 # 보드는 인재 개 기계 기계를 가차서, 이르게 이 막 돌리면 뽕뽕뽕 도라감서 뜯는 거 인제요 보드라고. [보드는 이제 거 기계 기계를 갖춰서, 이렇게 이 막 돌리면 뽕뽕뽕 돌아가면서 뚫는 것 있어요, 보드라고.]

10606 @ 종우가튼데, [종이같은데,]

10606 # 그저~이 엔:나레는 보드가 업썸썸요. 그기.이 네 [그전에 옛날에는 보드가 없었어요.]

10606 # 보도랑거또 이 중녀나왈째: [보도라는 것도 이 중년에 나왔지.]

10606 # 엔:날 우리 저: 선조때는 게, 저 보도가 업썸썸요, 보도가 업꼬 그냥 끌로 뜯제. [옛날 우리 저 선조 때는 그, 저 보도가 없었어요, 보도가 없고 그냥 끌로 뚫지.]

10606 @ 요조게 이러케 뽕조게가꼬 구멍 뜯는거슨? [이쪽에 이렇게 뽕쪽해가지고 구멍 뚫는 것은?]

10606 # 그기 보드 말잉감만. [그것이 보드 말인갑만.]

10606 @ 아니 그 돌링거 말고 그냥 그냥 뽕조게가꼬 어디를 푹: 뜯는거. [아니 그 돌리는 것 말고, 그냥 그냥 뽕조게가지고 어디를 푹 뚫는 것.]

10606 # 그냥 그 나무 나무를 그러케 뜯는거요? 나무덜? [그냥 그 나무 나무를 그렇게 뚫는 거요?]

10606 @ 종이가튼거또 이러케 매가꼬 뜯는거, 실 실 켄라고. [종이같은 것도 이렇게 매가지고 뚫는 것, 실 실 켄려고.]

10606 # 우리 나무로 엔날 집 나무집 진능거슨 그렇기 업넌디. [우리 나무로 옛날 집 나무집 짓는 것은 그런것이 없는데.]

10606 # 나무집 진능건, 엔나레 엔날부터 집진는 ... [나무집 짓는 것은, 옛날에 옛날부터 집 짓는...]

10606 @ 그다으메. [그다음에.]

10606 @ 그: 저 톱또요. [저 저 톱또요.]

10606 # 얘: [예,]

10606 @ 톱, 톱또 여러가지가 인제요? [톱, 톱도 여러가지가 있지요?]

10606 # 여가지 인제요. [여러가지 있지요.]

10606 @ 주로 어떻게? [주로 어떤것?]

10606 # 인자 큰 체, 큰 톱. [이제 큰 체, 큰 톱.]

10606 # 큰토번 인재 이가 굴구름 항거. [큰톱은 이제 이가 굽으스름 한 것.]

10606 # 이제 거:두라구야 거:두. [이제 거두라고 해 거두.]

10606 # 거 거걸루 켄 나무. [그 그걸로 큰 나무.]

10606 # 그라구 인재 또: 가를게, 이가 자장하고 가녕기 인는 토비 인제요 인재 잔톱. [그리고 이제 또 가늘게, 이가 자잘하고 가는 것이 있는 톱이 있어요. 이제 잔톱.]

10606 # 잔토비라고. [잔톱이라고.]

10606 @ 또 뚱고라머게 머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켄는거슨 무슨 톱? [또 둥그롭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켄는 것은 무슨 톱?]

10606 # 뚱고랑케 어터게. [둥그롭하게 어떻게.]

10606 @ 뚱고라머게 뭐 머 찰라야 되겄따 그러면 토부로 이러케 이러케 헤가꼬, 뽕: 둘레

서 찢른 그런 톱또 인썸자나요? [둥그롭하게 뭐 뭐 찢라야 되겠다 그러면 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헤가지고, 뽕 돌려서 자른 그런 톱도 있었잖아요?]

10606 # 엔:나렌 기 업썸는디, 시방언 시방언 몰라도. 엔나렌 거런 기 업썸썌요..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10606 @ 그: 그며는 도치나 이렇거 어따 가라요? [그 그러면 도끼나 이런 것은 어디다 갈아요?]

10606 # 엔 그 예: 수또기라고 거: 수또기라고 도치나 날 가는 그런 수뽀기 인썌요. [에 그 예 숫돌이라고 그 숫돌이라고 도끼나 낫 가는 그런 숫돌이 있어요.]



제2편 어 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나라기네요
20102	이삭	이삭; 이상모가지
20103	볍씨	썸나락
20104	못자리	모짜리; 모짜리를
20105	모판	모판
20106	쟁기	쟁기; 쟁기래도되고 홀칭이래도되고; 홀칭이
20107	보습	홀칭이나리여; 홀팅이날
20108	벗	홀칭이날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홀칭이여
20110	씨레	쓰:리; 쓰:리라구
20111	번지	번지; 번지라고이씨
20112	모내기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벽뎡이
20114	고무래	*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밀기; 밀기네
20114-2	고무래(재 용도)	곰배; 곰배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눔까래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밀기는당기는거고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꼭괭이; 꼭괭인디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맹이(+ 다); 호맹이로; 호메이날; 호미(+ 소)
20120	농기구	의장; 은장이지

20121	김	지심
20122	김매다	반맨다고; 반맨다는기지
20123	애벌 매다	아시매는거
20123-1	두벌 매다	두벌매는거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만도; 세벌매는거
20124	논두둑	갈개뚝; 논뚜렁; 논뚝
20125	밭둑	바뚜룽이지; 받뚜룽
20126	밭두둑	두룽; 망뚜룽
20127	밭고랑	고랑; 고랑이라고하지; 바꼬랑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u>타다/갈다/째다/파다</u>	고랑을타야지; 두룽타야지
20128-2	이랑밟기	*
20129	보리	버리로먹꼬사라는디
20129-1	가을보리	*
20129-2	봄보리	*
20130	보리쌀	버리쌀
20131	가을갈이	갈가리
20132	감부기	감비기
20133	두엄	거름
20134	거름	거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갈릴한다; 나락뻔다
20202	벧단	나락뻔
20202-1	벧단(한 줌정도)	*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
20202-3	벧단(한 아람정도)	묵뻔
20203	가리(積)	베까리
20204	가리다(積)	쟁인다
20205	벧가리	지뻔까리
20206	난가리	뻔까리
20207	타작	타작헌다
20208	벼훑이	훑테
20208-1	그네	훑테

20209	개상	개상
20209-1	자리개	사내키
20209-2	자리개질	개상질
20210	도리개	도로캐; 도리캐; 둘캐
20210-1	도리갯장부	장치; 도로캐짱치
20210-2	도리갯열	도로캐열; 도로캔열
20210-3	도리개꼭지	까꾸랭이
20211	벗짚	집
20211-0-1	-을	지비구
20211-0-2	-에	지비서
20212	새 째기	회기
20213	쭈정이	쭈정이
20214	티	티리
20215	까끄라기	꺼끄랭이
20216	풍구	불무기; 풍구
20217	원두막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새비
20219	흥년	승년
20220	머슴	머슴; 머심
20221	놉	놉
20221-0-1	-을	노브로
20221-1	(놉을) <u>사다/얼다/부리다</u>	노버드리간다
20222	폼앗이	푸마시
20223	폼샐	쌈폼; 폼쌈
20223-0-1	-으로	*

2.1.3. 방아 쪼기

20301	방아	방애찌고
20302	디딜방아	드들빵애잉가
20303	방앗공이	방애꼬
20304	방아확	확
20305	물레방아	물래방애
20306	연자방아	그건연자방애
20307	절구	학뚝

20308	절구통	도구통이고그건
20309	절굿공이	그건도고때; 도고때; 도구때 찢능거지머
20310	절구질	*
20311	겨	겹띠기
20312	보릿겨	보리겹띠기
20313	왕겨	왕기라고히야; 왕긴디
20314	등겨	곤딩기; 나락땡기; 보리땡기; 미미끼
20315	검불	까시더부리라구지
20316	겹질	기낭겹띠기라고하지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씩
20402	참쌀	참나라기참싸리여; 참나락; 참쌀
20403	멥쌀	멥쌀로하능기고; 멥싸른인제
20404	쌀보리	쌀버리
20405	조	수숙하고; 지장은
20406	차조	차조는
20407	메조	메조랑은
20408	좁쌀	스늑쌀; 좁쌀; 좁쌀도 되고
20409	작다	그보단 더 짜라 이기; 짜라
20410	조이삭	수숙모가지; 수늑모가지여; 수승모가지거터
20411	수수	쭈수; 쭈쭈네
20411-1	붉은색 수수	쭈수모가지고
20411-2	장목수수	장삼쭈수
20411-3	찰수수	찰쭈수
20411-4	메수수	메쭈수
20412	수수깡	쭈수때
20413	옥수수	옥쭈쭈; 옥쭈쭈네
20413-1	찰옥수수	찰강냉이; 찰옥쭈쭈라해도되고
20413-2	메옥수수	메강냉이
20414	귀리	*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이네
20417	콩깍지	콩깍때기

20418	메주	메주; 메주맨드능콩
20419	매달다	매따라놔
20420	띠우다	띠가지구; 띠워가지구
20421	곰팡이	곰팡이; 곰팡이피는거거치
20422	강낭콩	강낭콩이라고 하지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
20424-1	참깨	창괘루짜면찬지름
20424-2	들깨	들괘
20425	고소하다	꼬십꼬 ; 꼬십꼬조치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산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반나물
20502-2	나물(밭, 반찬)	*
20502-3	나물(들, 재료)	나물
20502-4	나물(들, 반찬)	*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
20503	푸성귀	*
20504	다듬다	따드마 놔따; 따드마서
20505	반찬	경거니; 반차니지머
20506	무	무수
20507	썰다	쓰러가지고; 요로케쓸고
20508	무청	무수이퍼리
20509	시래기	무수씨래기;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무수우거리
20511	장다리무	장다리를 내
20512	배추	배추
20513	고갱이	배추알
20514	오이	무뢰
20515	오이지	오이장아치; 외장아치지
20516	오이소박이	속빼기; 오이집치

20517	가지(茄子)	까지
20518	호박	이건 호바기네
20519	고구마	고고마네
20520	감자	감자
20520-1	잘다	잘다; 찰다구래찌
20521	우엉	우엉뿌링이; 웅 이퍼리
20522	파	대파; 큰파
20523	고추	고추; 푼꼬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부추; 소른; 술; 정구지 바가서; 정구지래짜나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상
20530	냉이	나승개; 냉이
20531	달래	달롱개
20532	도라지	도라지네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바비지
20602	찬밥	찬바비라구지
20602-1	더운밥	뜨신밥
20603	조밥	수숙빔
20604	누룽지	누룽지
20605	눌은밥	누름바비라고하지; 누름밥
20606	승냥	승냥물
20607	뜨물	뜸물
20608	김(蒸氣)	김:
20609	갱죽(羹粥)	씨래기죽; 진넙죽; 쿡죽
20610	싱겁다	싱거꼬

20611	국수	국씨 짜다 머거찌; 물국씨라가지
20612	칼국수	칼지비
20612-1	<u>기계국수/틀국수</u>	*
20613	견더기	짐치뀐다기를
20613-1	국물	궁물; 멸구기라쏘리도
20614	고명	우찌새; 우찌시
20615	꾸미	꺾미
20616	미역	떡;; 미영만당과따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수지비
20619	까니	끄닐 건니뽕따
20620	미음	미엄
20620-1	(미음을) <u>끓이다/쭈다/삶다</u>	미엄 다린다고 하지
20621	엿기름	엿찜금
20622	식혜(食醴)	단수래도잘고; 단수리요; 시키라고나오자나요; 시키라고머
20623	식해(食醢)	*
20624	달다(甘)	달지
20625	가루	가루
20625-0-1	-에	가루다 부찌
20625-0-2	-을	가률; 가루를노코
20625-0-3	-도	*
20626	밀가루	밀까루
20627	밀기울	밀찌울; 지우른지울대로
20628	미숫가루	미쏟까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20702	된장	텐장
20703	고춧가루	꼬치까리; 꼬치장담는디는
20704	고추장	꼬창: 담는거; 함바기라고
20705	소금	소고미로저리지
20706	김치	짐치
20707	김장	짐장

20708	깍두기	깍떼기
20709	나박김치	*
20710	담그다	담꾸; 안담짜나
20710-0-1	-고	*
20710-0-2	-어라	*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므려야; 버므린나
20713	버섯	버싯
20713-0-1	-이	버서슨; 버서시거등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녹뚜콩나물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로
20716-1	비지떡	비지떡
20717	달걀	계라니라구; 달걀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생핀
20721	빚다	생핀맨든다고하지
20722	흰떡	흰띠기라고해
20723	고물	콩고물
20724	팔죽	파죽
20725	새알심	새알수지비; 시알수지비
20726	백설기	흰슬기
20727	튀밥	티밥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마걸리
20730	소주	세주
20731	부침개	부칭개라케두 그저네능 적이라구 해씨유. 적. 적분능다구; 부칭개; 적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	-----	-----

20802	가마솔	가매솔; 가메솔; 가마솔
20802-0-1	-을	가매소시아니라; 소솔
20802-0-2	-에	발소티는; 소티다안칭거
20803	아궁이	부석; 부석크단마리지
20803-0-1	-이	*
20804	그을음	끌목; 끌미
20805	불쏘시개	불잘개
20806	연기	앵기
20806-1	내(煙氣)	넌내
20807	그을리다	끄실려따; 끄실리따; 끄실링거
20808	부지깽이	부주뎡이
20809	부삽	불삽
20810	냄다	시서; 매테서
20811	냄비	넌비
20812	그릇	거륵
20812-0-1	-을	*
20813	뚜껑	뛰껑
20814	주발 뚜껑	복끼뚱
20815	사발 뚜껑	뛰껑
20816	술뚜껑	소두방
20817	밥주걱	주벅
20818	숟가락	수까락; 수깅; 수지
20819	젓가락	제까락
20820	종지	깍쟁이; 꼬창깍쟁이; 종발; 종채기
20821	보시기	보새기; 술짚; 장물탕끼; 짐치대접
20822	뚝배기	투가리; 툇빼기가 투가리
20823	접시	*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함박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형군다; 형귀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꾸중물; 차신물
20831	찌꺼기	찌끄리기
20832	화로	접씨; 화리

20833	화룻불	화리뿔
20834	부젓가락	불찌까락
20834-0-1	-이	*
20834-1	불순가락	불쭈갈
20835	다리쇠	삼바리
20836	석쇠	적싸
20837	도시락	도시락; 변또
20838	바구니	도방구리도; 모코리; 보고리; 서랭이; 장대미 소쿠리
20839	뒤주	쌀괘 짝; 쌀귀 짝; 쌀뚝; 쌀뚜지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
20842	개다리소반	뚝고란상; 책쌍판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땡; 큰방
20902	벽	베룽빠기라고; 벽
20903	다락	다락
20904	벽장	벽짱
20905	감추다	감춘다고 그래야지
20906	흙	흙
20907	돌쩌귀	돌쪼구
20907-1	암짱	암놈; 암똥쩌구
20907-2	수짱	쑤돌쩌구; 쑤놈
20908	미단이	미다지
20909	여단이	방문이라고
20910	덧문	던문
20911	열다	열구드러가야지
20912	문고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대물통시기네; 자물통; 폭
20914	간히다	가친따고
20915	열쇠	열쇠

20916	잠그다	장과노치; 장과따고안해
20917	구멍	구녀글
20917-1	취구멍	취구녀
20918	찢다	찌저따고
20919	구들	구들짱
20920	흙받기	*
20921	흙손	흑쑤
20922	흙칼	흑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
20923	바르다	흑또가따발르고그라자나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그게똥중우라고보까; 되배지; 벽지
20926	도배	되배할라고
20927	구석	구녕 마가따; 구서키
20928	굽도리	*
20929	깨끗하다	깨끄다지
20930	문지방	문뚜방
20930-0-1	-에	문뚜땡이
20931	틈	트미
20932	가장자리	가이가
20933	가운데	가운데
20934	시렁	선반까래
20935	살강	살강
20936	선반	선바니라고
20937	서랍	빼다지; 서라비라고; 차단쓰라고
20938	경대	경대빼다진디
20939	거울	거우리자나유; 거울
20940	걸다	건다고; 걸자나
20941	호룽	호룽

2.3.2. 건물

21001	지붕	지병이라고
21001-0-1	-에	*

21002	기와	*
21003	기와집	재:빈가본디; 재 집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뿐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
21009	처마	지붕처마; 처매지
21010	오두막	오드막찌비께; 오막싸리
21011	초가집	집짹; 초가지비라고도
21012	이엉	영으로
21012-0-1	-에서	*
21013	용마름	용마라미라고; 용마람여피
21014	기스락	씨근새물
21015	낙숫물	지붕처매물
21015-1	기스락물	*
21016	사닥다리	새다리가짜나
21017	용마루	*
21018	토방	뜰팡; 뜰팡이서
21019	땃돌	신방뚝
21020	마루	마롱아녀
21020-0-1	-에	마롱이서마니먹지
21021	뿔마루	뿔마롱인느; 뿔마리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축찌뚝
21023-0-1	-을	축치또글
21024	굴뚝	굴뚝

2.3.3. 마당

21101	뜰	뜰뻥
21102	마당	한:데마당
21103	넓다	넌븐디
21103-0-1	-어서	넌버
21104	넓히다	넌핀다그래찌

21105	곶간	두지라그지
21106	외양간	소막지코; 오양간
21107	마구간	*
21108	광	광이라고하느디; 도장
21109	헛간	허간
21110	쓰레기	씨리개
21111	장독대	장광
21112	장독 뚜껑	도가지 뚜껑; 장쏘래
21113	변소	뒤간; 똥뚝; 변소간; 통시칸하고
21113-1	똥장군	웅기장구느; 장군
21114	울타리	홀따리
21115	담	다므락; 담
21115-0-1	-에	다므라기
21115-0-2	-도	다무락뚜
21116	사립문	쌈짜
21117	뒤결	웨:니; 똬
21117-0-1	-에	웨니서 놀먼
21118	바깥	바끼 나가놀지
21118-0-1	-에	바끼로 나가놀먼 인제
21119	모퉁이	모팅이로; 아람모팅이; 운모팅이다
21120	모서리	모랭이; 모실배기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
21202	윗마을	운말은
21203	이웃	이우지라고
21203-0-1	-이	우리이우지산다
21203-0-2	-에	이우지서왔다고
21204	마을가다	마실칸다고
21205	우물	*
21206	두레박	두롱박
21207	샘(泉)	공동삼; 공동쌌미; 공동씨암; 샤:미다요로케노코
21208	가(邊)	가시가아니지
21208-0-1	-을	*

21208-0-2 -에	*
21209 물지게	물찌젠디
21210 가게	가게래도하고; 즘:뽕이라구래찌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
21213 흥정	흥정한다고
21214 중매인(거간꾼)	귀가나라구; 흥정부치는사라미라고
21215 잔돈	거시름뜯주야지; 꼬맨다; 잔전
21216 에누리	에느리해줘
21217 거스름돈	*
21218 거스르다	거실러와; 거실러주는건
21219 꾸다(借)	꿔돌라고
21219-0-1 -어야	꿔돌라는거; 꺾서는 안댕겨
21220 구두쇠	구두쇠도; 쫌뿌생이
21221 맡기다	매끼노치
21222 나머지	나무지라고
21223 덤	*
21224 뭇	네목; 시산목
21224-0-1 -을	*
21225 빗	비시
21225-0-1 -을	비슬
21225-0-2 -에	비시 쫌려 몬쌀거따
21226 이자(利子)	벤진 질귀주는거
21227 심부름	심부름
21228 두름	한간
21228-1 축	주기지
21228-2 꽤	한주길티지
21228-3 접	한접
21228-4 씹	한쌈
21228-5 두름	한다발; 한 뭉텅이
21228-6 단/뭇(작은 묶음)	한다바리라고; 한 지미라고; 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한다바리라고
21228-8 툇	한툇
21228-9 모숨	한주머기라고
21229 켄레	향커리
21230 마지기	마지기라고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이백평
21231 꾸러미	줄루 나가데; 한 줄
21232 그루	메꾸루; 맨쭈
21233 포기	뢰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루; 자루나와썬; 자루루
21235-0-1 -을	광목짜루를 나오먼 인제
21235-0-2 -에	*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항개
21236-2 한-되	한되
21236-3 한-말	한말
21237 둘	두울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되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세엔
21238-1 세-개	시개
21238-2 세-되	스:되
21238-3 세-말	스:말
21239 넷	네
21239-1 네-개	니개
21239-2 네-되	느:되
21239-3 네-말	느말
21240 다섯	다서
21240-1 다섯-개	다서개
21240-2 다섯-되	다선되
21240-3 다섯-말	단말
21241 여섯	여서엔
21241-1 여섯-개	여서개
21241-2 여섯-되	여서되
21241-3 여섯-말	연말
21242 일곱	일고웁
21242-1 일곱-개	일고개
21242-2 일곱-되	일곱되
21242-3 일곱-말	일곰말

21243 여덟	여덟
21243-1 여덟-개	여덟개
21243-2 여덟-되	여덟되
21243-3 여덟-말	여덟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2 아홉-되	아홉되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되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개	스무개
21246-2 스무-되	스무되
21246-3 스무-말	스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른개
21247-2 서른-되	서른되
21247-3 서른-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흔개
21248-2 마흔-되	마흔되
21248-3 마흔-말	마흔말
21249 쉰	쉰
21249-1 쉰-개	쉰개
21249-2 쉰-되	쉰되
21249-3 쉰-말	쉰말
21250 예순	예순; 육십
21250-1 예순-개	예순개; 육십개
21250-2 예순-되	예순되; 육십되
21250-3 예순-말	예순말
21251 일흔	이른; 칠십
21251-1 일흔-개	이른개; 칠십개
21251-2 일흔-되	이른되
21251-3 일흔-말	이른말

21252 여든	여든; 팔십
21252-1 여든-개	여등개; 팔십개
21252-2 여든-되	여든되
21252-3 여든-말	여든말
21253 아흔	구십; 아흔
21253-1 아흔-개	구십개; 아흔개; 아흔개라고도
21253-2 아흔-되	아흔되
21253-3 아흔-말	아흔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 백개자너
21254-2 백-되	백되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되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두센
21257-1 두세-개	두시개
21257-2 두세-되	두스되
21257-3 두세-말	*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말
21259 서넛	너더넛; 서너너넛
21259-1 서너-개	서너너넛개
21259-2 서너-되	서너너넛되; 서너되
21259-3 서너-말	*
21260 네댓	너더넛
21260-1 네댓-개	너더넛개
21260-2 네댓-되	너더넛되
21260-3 네댓-말	너더넛말
21261 대여섯	다서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되

21261-3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21262-3 예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대여섯말

대일고비; 여닐고븐; 여닐고비라고; 여닐곱; 여서일곱

*

여서덜곱뵈

여선일곱말

일고여덜

일고여덜개

일곱여덜뵈

일곱여덜말

여덜아홉해가꼬

여덜아홉깨라고

*

여덜말아홉말

여나믄

여나무개라고

아홉열뵈; 여나무되라고

여남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치매

지리기

저고리; 저고리라는둥; 저구리

색똥저고리

두렁이

무늬; 무니라고

꼬장중의야; 소곤; 쏘고시라고

바지; 바지란둥; 쓰봉이지

두루마기; 두루매기

오시라고; 이보기; 이뵈기나

꾸꾸적꺄라; 꺄꺄꺄라

오꼬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정
21315	겉	겹띠기
21315-0-1	-에	꺼티라고
21315-0-2	-을	*
21316	홀웃	복쭈머니; 호둔
21317	겹웃	저보시지
21318	잠방이	*
21319	누더기	두디기오시라고
21320	거지	거지; 동냥아치
21321	구겉	동냥은; 마등가지지; 마디; 마등가질맨드르야
21322	조끼	췌끼
21323	내의	내복; 내복또
21324	껴입다	췌임는다고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이지
21327	호주머니	봉창이지; 쓰병봉챙이
21328	허리띠	각띠; 허리뺑; 혁띠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포; 도포라고는건; 한사미라든가
21331	삿갓	사깁
21331-0-1	-에	사까슬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사무
21334	유건	건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씨기는
21338	미투리	미트리
21338-1	(짚신을) <u>삼다/만들다/트다/겉다</u>	삼는디
21339	나막신	나무께
21340	설피	새도치기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지베
-------	----	-----

21401-1 명주실	명지실
21402 목화	명때; 모콰나무다; 명나문데
21402-1 목화다래	명따래; 모카얼마
21403 무명	명뵈
21403-1 무명실	명실
21404 씨아	이기 씨아시지
21405 자새	가락; 나트리여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명뵈짚다고; 명잔는다; 베짚다고; 뵈뵈는거;
	삼베짚다고
21408 길쌈	질싸만다지
21409 골무	골미네
21410 반질고리	반지끄르기; 반지끄룩
21411 가위	가새
21411-0-1 -을	*
21411-0-2 -에	가새에 손 뵈따고
21412 마르다(裁)	뵈뜬다고
21412-0-1 -고	*
21412-0-2 -어라	*
21413 형겅	홍겅떼기로; 홍급
21413-0-1 -을	소기다 홍급떼을대구; 홍그블대고하지
21413-0-2 -에	*
21414 바늘	*
21415 꿰다	*
21415-0-1 -고	뀌고 이따구 그라지
21415-0-2 -어라	뀌야 씨는디
21416 바느질	바느질해야근따
21417 재봉틀	자방침
21418 끈	끄내키; 뉘비이불
21419 노끈	노나끈
21420 참바	바쭈른 시산노
21421 매듭	매땡기
21421-1 (매듭을) <u>맷다/짚다/엮다/묶다</u>	*
21422 보자기	보재기지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솜; 이불솜

21425	포근하다	따습쨍; 뜨싹따고; 폭싸기니
21426	홀이불	흔니불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숨이불	숨니불
21428	누비이불	*
21429	베개	비개
21430	베갯잇	비개흔니불; 비갠니비라고
21430-0-1	-에	*
21431	목침	모치믄; 목침
21432	퇴침	퇴치미라고는; 퇴치믄
21433	방석	자부동
21434	담요	담뇨; 요대기
21435	빨래하다	빨다구찌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빵망이
21437	빨래터	빨래터지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림지리라고도
21440	인두	윤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따듬방망이
21442	다듬잇돌	따듬또기고
21443	다듬이질	다디미질하는거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슬날
21502	설	슬 명절
21503	설달 그믐날	슬딸 그믐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
21505-0-1	-는	*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이라고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내후년
21505-5 내후년	저내후년
21506 작은설	*
21507 웃	운
21507-0-1 -을	유슬
21507-0-2 -에	유시로 나 마자따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유까라기라고; 유짜기라고
21508-1 도	뛰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수
21508-5 모	모
21509 단동	수논는거지
21509-1 외동무니	*
21509-2 두동무니	*
21509-3 석동무니	*
21509-4 녀동무니	*
21509-5 막동	*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보름씩망이지; 초하루씩망
21511 추석	추석; 한가우
21512 망월	망우리
21513 쥐불놀이	해뿔노리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
21514-2 긴막대	*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아닌가
21516 호미씻이	강신명는다는
21517 팽과리	팽매기
21518 장구	장구
21519 걸두리	새
21520 무당	무탱이라고

21520-1	박수	범싸라고
21521	고수레	벙에
21521-1	고수레!	고시레
21522	점쟁이	점쟁이라고; 점쟁인찌똥
21523	상여(喪輿)	생이
21524	굴건	건; 굴근제보기라고
21525	제사	지사
21526	제기	지사끄르기라고
21527	귀신	귀신
21528	도깨비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빼	꼬뽕이
21602	굴레	굴리 짱거지; 배때끼끄니라고
21603	멍에	멍이
21604	길마	질마
21605	부리망	망
21606	구유	구시; 쇠구시
21607	작두	작두
21608	꼴	꼴; 꼴비러가는거지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쇠죽빠가지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끌다	끄시구가지
21613-0-1	-고	*
21614	바퀴	발통
21615	새끼(繩)	사내키; 새끼라고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지
21616	망태기	망태
21617	떡등구미	등테미
21618	거적	꺼적떼기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트리여

21620	돛자리	돛짜리; 자령계벼이건
21621	자리틀	자리치는 트리지
21621-1	(자리틀) <u>짜다/치다/만들다/결다</u>	자리친다고
21622	왕골	왕골꺾떠기
21623	삼태기	산태미
21623-1	쥘 삼태기	집쌈태미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삼태미
21624	멍석	턱씩; 멍석; 메빵석
21625	어레미	얼기미
21625-1	고운채	채
21625-2	굵은채	굵근채
21626	대장장이	대정
21627	대장간	대정까나라고; 승냥깁
21628	풀무	불무
21629	모루	쇠또기여 그기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칼쿠리
21632	집게	찌꺼
21633	장도리	장도리
21633-1	노루발	노리바리라고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블 가따대고
21635	도끼	도치짜루
21636	자루(柄)	자루는
21636-0-1	-을	자루를 부작꼬
21636-0-2	-에	도치짜루가
21637	갈고리	쇠까꾸랭이로
21638	췌기	밀기; 보죽
21639	송곳	송곤
21639-0-1	-에	송고슨
21640	뽕죽하다	날카와; 날캅찌; 뽕쪼가다
21641	숫돌	수뚝
21641-0-1	-에	수뚜기다 가러야지
21642	맷돌	매똥; 맷통
21642-1	수쇠	쑥췌
21642-1	암쇠	암췌라고

21643	지계	지계
21644	밭채	바소코리
21645	지계 작대기	작때기
21646	막대기	작때기
21647	몽둥이	몽딩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빈자리
21702	광주리	짱우리
21703	소쿠리	대나무소코리
21704	함지	함바근 똥고로마니
21705	풀비	풀뻘
21705-1	귀알	술거치
21706	독	도가지
21706-0-1	-에	*
21707	물독	물또가지라고; 수텅이라고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
21710	물둥이	물똥오
21711	따리	따바리
21712	웅기	웅기단지
21713	표주박	중고래기
21714	키(箕)	챙이
21715	떡살	떡쌀
21716	다석판	다석판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
21717-0-2	-에	시루에
21718	시룻밑	시루미설
21718-0-1	-에	시루미시
21719	시룻번	꼰짱판지라고; 선단지; 시루뻘; 장물판지
21720	부싯돌	부석돌
21720-0-1	-을	*
21721	부시	부석

21722	부싯깃	*
21723	담배	담배 멍는 사람들 보먼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설때
21726	담배통	담배꼭때; 담배꼭때기; 대꼭때기
21727	물부리	빨뿌리; 빨뿌리기
21728	담배쌈지	담배지갑; 부수쌈미
21729	부채	부채; 큰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루
21732	가락지	가락찌; 반지; 쌍가락찌; 쌍반지; 은반지
21733	비녀	비네; 은비네
21734	참빗	참빔
21734-0-1	-을	참비시네
21734-0-2	-에	썤카리비시; 썤카리비시네; 썤카리빔
21735	얼레빗	얼기빔
21736	세숫대야	대야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도토마리
21739	활대	철기썤
21740	잉앗대	잉애; 잉애때
21741	부티	부티
21742	도롱이	도렁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빼기	이마빡;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눈동자; 동자
21804	검은자위	꺼먹창
21805	흰자위	흰동자; 흰창
21806	눈꺼풀	눈떠불; 눈떠풀

21807	거적눈	*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라고
21809	속눈썹	눈썹; 앤눈썹
21809-0-1	-이	눈썹비라고; 속눈썹비
21810	눈두덩	*
21811	안경	앵경
21812	안경집	앵경집
21813	돋보기	돋뽀기; 뽀뽀기
21814	주름살	쭈금살
21814-0-1	-이	쭈금싸리 느러나지
21815	엷되다	애틀기도 빈다; 애틀다고; 애틀빈다; 어리비기도 한다; 어리비냐고; 어리빈다
21816	수염	시염
21817	구레나룻	구리시염; 굴리시염
21817-0-1	-을	*
21818	코	코; 콘날망
21818-0-1	-이	매코; 코뎡이 크다
21819	콧수염	코씨염
21820	코딱지	코따쟁이
21821	콧구멍	코꾸넉
21821-0-1	-을	코꾸녀기
21821-0-2	-에	코꾸녀기서
21822	콧물	콘물
21823	입술	입썰
21823-0-1	-에	입씨리; 입썰
21824	다물다	다무려; 오브리따; 오브리따고
21825	어금니	던니; 송곤니; 아곰니; 암니
21826	덧니	*
21827	회파람	회빠람
21828	침	침
21829	삼키다	생키지니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가래바타
21832	혀	세빠닥
21833	혓바늘	썰빠늘

21834	꿇불	귀뺨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거리
21836	귀지	귀뺨
21837	귀이개	귀휘비개
21838	소리	*
21839	엇듣다	얇뜨는거
21840	귀청	귀창
21841	귀밑	귀뺨; 귀문
21841-0-1	-을	귀뺨를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지미
21844	주근깨	검버선; 꺼무깨
21845	턱	테가리
21846	턱수염	섬:
21847	뺨	뺨
21847-1	불	보래기
21848	가름하다	짤쪽하니; 짤쪽하다
21849	보조개	삼판다
21850	머리카락	머리; 머리카락
21851	비듬	지게미
21852	기계충	기계뚝; 도장뽕
21853	정수리	장골배기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뽕쓸머리; 뽕썰머리
21856	가르마	가는배
21856-1	가르마 <u>타다/가르다/하다</u>	가는배 타는
21857	가마	가:매
21857-1	가마(鼎)	가매손
21857-2	가마(轎)	가매
21857-3	가마(질그릇)	옹기굴; 옹기꿀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니
21858	뒤통수	뒤꼭때기; 뒤통수
21859	뒗덜미	*
21860	목	*
21861	먹살	멕싸리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빠지
21902	밀치다	밀어부친따
21903	겨드랑	저드랑
21904	등	등까죽
21905	가슴	가심
21906	결리다	담절린다
21907	갈비뼈	갈비때
21908	허파	부아; 숨통
21909	쓸개	썰개
21910	콩팥	오줌뽀
21910-0-1	-에	*
21910-0-2	-을	*
21911	팔	팔; 팔뚝
21912	팔꿈치	팔꼬맨딩이; 팔꿈; 팔꿈오
21913	팔짱끼다	팔짱찐다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웁:손
21917	다르다	틀리다
21917-0-1	-아서	틀리지
21917-1	틀리다	틀리지
21918	왼손잡이	웁째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꼬락
21920	집게손가락	두째소까락
21921	가운데손가락	가운데송꼬락
21922	약손가락	시째송꼬락
21923	새끼손가락	생끼송꼬락
21924	생인손	생손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아구심도씨다; 아구심이 다
21927	손목	손마들가지; 홀목
21928	뺨	빼미지; 장뺨; 지뺨; 한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찌
21933	간지럼	간질밥; 간질밥메긴다
21934	잔허리	가는허리
21935	근육	*
21936	배꼽	배꼽
21937	목물	등메기

2.6.3. 하체

22001	복사빠	복송빠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냄새	내굼새
22006	고린내	꾸른내; 발꾸른내
22007	굳은살	뚝쌀; 모빠긴거
22008	장강이	장갱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회초리
22012	무릎	무르팍
22012-0-1 -을		무릅
22012-0-2 -에		무릅마디
22013	오금	오금쟁이
22014	엉덩이	응덩이
22015	궁둥이	궁덩이
22016	볼기	볼기 짹
22017	명	명; 명 들어따
22018	명울	망우리
22019	가랑이	가랭이
22020	사이	새이
22021	살	*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사타리
22023	가래툰	가래툰
22023-0-1	-을	가래토시
22024	허벅다리	허북파리
22025	넙적다리	넙적파리
22026	가부좌(跏趺坐)	양반다리; 양반파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u>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22102	기침	지침
22103	재채기	재채기
22104	사례	사례사례
22104-1	(사례)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사례 들린네
22105	딸꾹질	깔때기; 썰때기; 썰떠기
22106	트림	게트름
22107	곰보	곰보; 숭터
22108	천연두	손님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
22110-1	하루거리	도동눔; 초학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메누리심
22111	홍역	압씨기 뒤씨기; 홍진
22112	볼거리	항아리 손님
22113	땀띠	땀때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22115	버짐	버듬
22115-1	마른버짐	마른 버듬
22115-2	진버짐	진버듬
22115-3	도장 버짐	*
22116	문둥이	나비환자; 문당이
22116-1	문둥병	문당이뻥
22117	부스럼	봄보라치; 부슬목

22117-1	종기	부슬뚱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고름재피따; 꿩길라구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먼산바래기
22122	언청이	째보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당달봉사	당달봉사
22124	애꾸	*
22125	눈곱	눈꼽째기
22126	다래끼	다래키
22126-1	다래끼(눈 위쪽)	다래키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민다래키
22127	질름발이	쩌뚱바리
22128	곱사등이	곶사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반버버리
22131	병어리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잠충이
22133	줄리다	자올라서
22134	하품	하품
22135	줄음	줄린다
22135-0-1	-을	*
22135-0-2	-에	*
22136	잠꼬대	잠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입뜯
22201-0-1	-을	이뜨슬 시마게 한다; 입뜨슬
22202	갓난아이	깁난애기느; 떠개기
22203	어린아이	어리나라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나따고
22205	눅히다	니피노치
22206	계집아이	가시나네; 지지바네

22207	예쁘다	이쁘네
22208	사내아이	머스마
22209	아우	동생이라구; 동생이란말마니쓰지
22209-1	아우보다	동상바따고
22209-2	아우 타다	아수타니라고
22210	야위다	말라따고 하지; 야베진다
22211	쌍둥이	쌍똥이
22212	오줌	쇠벤본다; 오줌
22213	똥	대변본다; 똥얼
22214	기저귀	기주구
22215	뉘다(排便)	뉘일때는; 뉘임섬
22216	방귀	방구깁다고
22216-1	뀌다	*
22217	구린내	똥구른내도
22218	구리다	꾼내난다지; 독살마자; 시기나네
22219	포대기	포대기
22220	기지개	지지개
22220-1	기지개를 <u>켜다/하다/쓰다/펴다</u>	지지개 쓴다고
22221	거짓말	그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남부끄러서; 쟁피해서
22223	겉쟁이	겉쟁이쥬
22224	불쌍하다	땅따머끼; 불쌍하지
22225	죄암죄암	지암지암
22226	곤지곤지	지깅지깅
22227	따로따로	따루따루따루; 따루따루하쥬; 섬마섬마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재깁이해바라; 썰깁재깁
22230	부라부라	달장달장; 불무딱딱; 불무불무야; 지일까고질까고
22231	걸음마	거림마
22232	아장아장	따복따복;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너머가따허고; 자빠지따고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쩔치고; 너무배킨다고
22235	안기다	앵기따고
22236	바람개비	발랑개비
22237	호드기	회뜨기
22238	숨바꼭질	기신잡기; 숨끼잡끼

22239	소꿉놀이	반주깨; 반주깨살자
22240	사금파리	사금파리 쪼가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기때여니라든가; 방패여니라고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이라
22242	걸리다	갱기서
22243	고누	*
22244	땅뺏기	땅뺏사먹끼
22245	팽이	뽕이
22246	딱지치기	페따머끼
22247	구슬	마부리
22248	그네	권디
22248-1	그네를 <u>뛰다/타다/구르다</u>	권디떠구
22249	밑싹개	지부따깨
22250	굴렁쇠	도롱태지
22251	굴리다	둥구리지
22251-0-1	-고	둥구리고
22251-0-2	-어야	둥구리나가야
22252	자전거	자정구자나
22253	몽말	몽말태인다구지
22254	말타기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질
22256	썰매	씨르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u>지치다/타다</u>	씨리매 타자나
22256-2	송곳	*
22257	엄살	엄살도
22257-1	(엄살) <u>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u>	엄살편다고
22258	부아	부애가 나서; 우래가치민다

2.8. 친족

22301	아버지	애기아부지지머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아부지라고
22302	어머니	엄마라구라지
22302-1	어머니(호칭)	엄마; 어머니라고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04	할머니	할머이
22304-1	할머니(호칭)	할마이; 할머니
22305	남편	남페니라고; 실랭이라고; 영개미라고
22305-1	남편(호칭)	*
22306	아내	우리아내라고
22306-1	아내(호칭)	집싸라미라고
22307	형	성을
22307-1	형(호칭)	성니미라고; 형님
22308	아우	동생이라고
22308-1	아우(호칭)	남동생이라고; 동상; 여동생이라고
22309	누나	누:지; 누나
22309-1	누나(호칭)	누나누나; 누임; 성; 형님
22310	누이	*
22310-1	누이(호칭)	*
22311	자식	자석쩌미나
22312	말아들	마다들; 크나더리지
22313	막내	막내이
22314	오라버니	*
22314-1	오라버니(호칭)	오래비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오빠
22316	언니	언니고; 오라바이라고
22316-1	언니(호칭)	성이라고해써; 언니언니안해요; 형니미라고하지
22317	아비	애비
22317-1	아비(호칭)	애비
22318	어미	에미를
22318-1	어미(호칭)	영수 어메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자딸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사우 거깁는가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손녀; 외손자따리고
22324	꾸짖다	꾸질러서는
22324-0-1	-고	*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야되고; 나무랜단마리; 뭐라고해야되고
22325	충각	충가긴디; 충강몽달
22326	치녀	노크내기; 치녀라고; 크내기라고
22327	혼인	게론식; 게르나고; 대사
22327-1	혼인식	행니; 혼인식한다고
22328	혼인 잔치	대사지내능게; 대사치른다고
22329	장가가다	장개를가따; 장꺄가짜너요
22329-1	시집가다	*
22330	혼숫감	*
22331	함	하미
22332	겹사돈	겹싸돼지
22333	새색시	새댁; 새새댁
22333-1	새색시(호칭)	각시라고
22334	시아버지	시아바이를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분니미라고
22335	시아머니	시아멍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머이
22336	비위	비우렐
22337	아주버니	시아주바이
22337-1	아주버니(호칭)	시수기라고; 아주번님; 시아주바이라고
22338	서방님	시아주바이
22338-1	서방님(호칭)	시동생이라고
22339	도련님	대렌님; 시동상
22339-1	도련님(호칭)	데렌님
22340	형님	형니미쥬; 동시
22340-1	형님(호칭)	*
22341	시누이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아기씨라고; 애기씨랑께; 크내기라고; 애기씨라구
22341-2	아가씨	시동생이라구
22341-3	아가씨(호칭)	*
22342	올케	올키를
22342-1	올케(호칭)	자근올키

22343	매형	매부
22343-1	매형(호칭)	*
22344	매제	매지
22344-1	매제(호칭)	*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큰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두째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시째크나부지; 자근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크너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큰크너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두째크너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시째크너마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근아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망녕이자그마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추니라고
22351	아저씨	아자씨라고
22351-1	아저씨(호칭)	*
22352	아주머니	아주머이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주매라고
22353	조카	조카지
22354	조카딸	외하라부지; 조카딸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
22356	고모부	고무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22357	고종	고종사춘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22359	이모부	이모부고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중	이중사춘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추니라고 불루지
22362	외숙모	외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송모야
22363	외종	외사촌
22364	외할아버지	*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마
22366	장인	재인이라고
22366-1	장인(호칭)	쟁:이라고
22367	장모	장모
22367-1	장모(호칭)	장모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소나래처남; 소누처남
22369	처남댁	처나무덕
22369-1	처남댁(호칭)	*
22370	홀아비	호래비
22371	홀어미	과부; 호레미지
22372	계모	스:모
22372-1	계부	이부다부지
22373	아저씨	아자씨라고
22373-1	아저씨(호칭)	아자씨
22374	아주머니	아즈머이라고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즈마
22375	사나이	장정
22376	영감	영감님; 영감탱이
22376-1	할망구	할망
22377	나이	나이; 연시가
22377-0-1	-를	나이를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토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피기
22402	민물고기	민물짜기지
22403	피라미	피리; 피리새끼
22404	지느러미	날가지
22405	아가미	*
22406	창자	창사구
22407	송사리	송아리
22408	헤엄	험:치자나유
22409	메기	메기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꼬래미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홀챙이
22415	두꺼비	두피비
22416	거머리	꺼머리
22417	다슬기	올빙이; 고딩이라고하고; 도슬비는
22418	우렁이	올빙이
22419	고등	*
22420	달팽이	달팽이; 지범는달팽이
22421	새우	새비
22421-1	새우(민물 대)	*
22421-2	새우(민물 소)	새띠
22421-3	새우(바다 대)	왕새비라구테
22422-4	새우(바다 소)	새비라구테
22422	새우젓	새비절; 육저시랴
22422-0-1	-이	새비저시지
22423	가재	까재는; 까재장물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애지
22426	가오리	가오리라고

22427	가자미	*
22428	멸치	멸치
22429	명태	명태
22429-1	동태	동태라도
22429-2	황태	행태라고도
22429-3	노가리	*
22429-4	북어	말른 명태라고
22429-5	생태	생태
22430	조기	조구; 조귀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뱀쟁이
22433	낙시	낙쭈
22434	미끼	*
22435	낙싯대	낙쭈때
22436	얼레	자사
22437	조개	조개비새끼
22438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먼 벌거지여; 벌거지
22502	날벌레	날라다니는 짐성이라고; 날빨거지라고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똥파리; 왕파리
22504	쉬슬다	*
22505	가시	*
22506	진딧물	똥물; 진디무른
22506-1	(진딧물이) <u>끼다/얹다/생기다</u>	찌어
22507	잠자리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땅개비
22508-1	암컷	*
22508-2	수컷	쑥땅개비
22509	메뚜기	되뛰기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사마구땅개비; 사마구벌거지라고
22512	벌	꿀벌; 꿀빨거지
22512-1	(벌을) <u>치다/기르다/키우다</u>	꿀빨 메긴다고하지
22513	땅벌	땅빨
22514	나비	나부
22515	하루살이	하우사리
22516	풍뎡이	핀딩이
22517	모기	머구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거지
22521	반딧불	반대풀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방이
22524	구더기	귀더리가
22525	노래기	노내기
22526	그리마	거름자; 거무벌거지; 수수렁벌거지라고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거리
22530	진드기	진등개
22531	벼룩	베룩; 베룩빨거지
22532	이	이
22532-1	서캐	까랑니; 썩카리; 썩키깔강이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칭이
22534	귀뚜라미	귀뚜래미
22535	누에	뉘
22536	고치	꼬추; 뉘꼬추
22537	번데기	뻘디기
22538	지렁이	꼭쟁이
22539	회충(蛔蟲)	회여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방개; 버리방개; 쌀방개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추기라고; 짐성매긴다고
22602	암소	암소가; 황소
22603	송아지	*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네:미
22605	황소	*
22606	길들이다	질디리야지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위: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어디어디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어디어디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귀
22608	고기(肉)	소고귀: 돼지고기
22609	둘치	들때지라지; 들쏘가
22610	꼬리	꼬랭이; 꼬랭이곰탱이지; 꼬리지
22611	망아지	말새끼지뒸여
22612	당나귀	당나구는
22613	갈기	*
22614	돼지	대지라고
22614-1	멧돼지	멧돼지
22615	주둥이	주딩이가
22616	돼지 머리	돼이대가리
22617	돼지우리	돼지막
22617-1	오래오래	꿀꿀꿀꿀
22618	개(犬)	콩개는
22618-1	수개	썩개; 썩개
22618-2	암개	앙개
22619	강아지	강아지는
22620	염소	염생이
22621	고양이	괭이
22621-1	수고양이	썩괭이
22621-2	암고양이	암코양이앙괭이
22622	토끼	토펙이
22623	거위(鵞)	*

22624	암탉	암딱
22625	병아리	뺑아리
22626	모으다	모이라는; 모인다고
22627	수탉	장딱
22627-0-1	-이	장때기 울지
22628	벼슬(鷄冠)	베실
22629	부리	닥주당이
22630	모이	모시지
22630-0-1	-을	모시를
22630-1	모이다	모이야지; 모이자나
22631	닭털	닥터레기
22632	닭똥	닥똥; 달기똥이라지
22633	어리	닥통; 달기통; 뺑아리통
22634	닭장	닥짱
22635	둥우리	알란는통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진
22637-0-1	-을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랭이가
22702	살쾡이	살가지가; 쌀가지
22703	여우	여수
22704	원숭이	원생이
22705	사슴	사심
22706	노루	노루
22706-0-1	-이	*
22706-0-2	-를	*
22707	고슴도치	고신독
22708	두더지	두디기
22709	족제비	쪽찌비
22710	뱀	비앰인디; 바른
22711	도마뱀	도매뱀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모사	*
22714	생쥐	새앙쥐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꺼꾸루
22717	다람쥐	담:지가
22718	새(鳥)	날짐승; 새도
22719	꼬지	꼬랭이지; 새 꼬랭이
22720	솔개	*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지부
22723	두루미	황새
22724	소쩍새	소쩍새
22725	평	평
22726	장끼	장평; 장평이
22727	까투리	앙평이
22727-1	꺼병이	평새끼라고
22728	종달새	종도리새
22729	빠꾸기	뿌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벅새; 뜸비기
22732	올빼미	온빼미
22733	까치	간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착꾸
22735-0-1	-을	*
22736	올가미	올무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창꼴
22802	철쭉꽃	개꼴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맨두래미

22805	봉선화	봉숭개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가리
22808	꽃봉오리	꽃뽕오리
22809	시들다	시드러따고; 탄다
22810	질경이	절갱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절갱이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절갱이꼭
22811	빨기	빼빼
22812	비름	비:럼
22813	쇠비름	쇠비럼인 짜나
22814	썸바귀	썸나물
22815	고들빼기	꼬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썸나물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꼬들빼기 짐치라고; 썸나물 짐치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도동눔까시
22819	도꼬마리	도꼬마리
22820	억새	쌔때기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이끼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괭이넝쿨
22825	수세미	쭈쟁이
22826	덩굴	넝쿨
22827	덤불	덤부렁; 덤풀; 덩부렁이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불; 까시덩굴
22828	잔디	떼; 펴짱; 잔데기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소뽕굴
22903	관솔	관소까지; 관솔

22904	솔가리	갈쿠리; 깔쿠리; 깔쿠리나무; 깔퀴나무
22905	그러모으다	글거서; 모디킨다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돌개; 오돌개
22908	도토리	굴밤;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굴밤나무
22910	상수리	떡굴밤; 왕굴밤
22911	웃	온나무
22911-0-1	-으로	오시 올로먼; 오시라고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들강아지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둥구나무; 정지나무
22914	그림자	거름자; 음지; 음지진다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습; 지서 따고 하지
22915-0-1	-을	수비
22915-0-2	-에	수바라구
22916	시원하다	서:언하다
22917	찔레	찔루
22918	칙	칙; 칙떡녕쿨; 칭녕쿨
22918-0-1	-에	*
22919	가지(枝)	가쟁이; 가지; 나무까지
22920	끝	꼬터구리; 꼬턴머리; 꼬트리
22920-0-1	-이	꼬시라고
22920-0-2	-에	꼬시가 아자따
22920-0-3	-을	꼬슬; 꼬털
22921	삭정이	알치
22921-1	삭정이를 <u>따다/뺏다/하다</u>	알치판다
22922	나무	나무
22922-0-1	-을	나무를
22922-0-2	-에	나무까지가
22923	나무하다	나무하로간다
22924	그루터기	고지배기; 나무뿌링이; 등쿠레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쭈수뿌링이
22925	등걸	*
22926	장작	도치로 쪼개논 거; 장작
22927	꽤다	쪼갠다; 쪼개라

22928	부스러기	끄시레기; 찌끄리기; 찌끄리기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시지
22929-0-2	-을	수슬
22929-0-3	-에	수시다
22930	불잉걸	잉그룩; 잉그룩뿔
22931	쌈	쌈
22932	잎	이퍼리
22932-0-1	-을	이퍼리가
22932-1	잎사귀	*
22933	가랑잎	가랑잎
22934	뿌리	뿌링이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사과
23002	돌배	독배
23003	복숭아	복숭; 복숭나무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수
23006	고욤	괴염; 괴염나무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누
23012	모과	모개
23013	과일	과이른; 과일
23014	꼭지	꼭떼기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 송이고
23015-2	팥밤	쌔밤; 푼뻬
23015-3	알밤	알뻬
23015-4	쌍동밤	두틀배기; 쌍뻬

23016	보늬	빈드리; 빈들
23017	호두	추자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으름
23024	참외	차메; 차뽕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딸기
23025-4	딸기(들, 야생)	*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
23026	뱀딸기	배암딸
23027	마름(菱)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뽕때기
23102	기슭	빼딱; 산빼때기
23102-0-1	-에	산빼때기는
23103	골짜기	골짜기
23104	메아리	*
23105	고함	괘:
23105-1	(고함) <u>치다/지르다/하다</u>	괘질른다
23106	묘	되
23107	뿔자리	되짜리
23107-1	광중	*
23108	구덩이	구디기

23109	비탈	삐딱
23110	가파르다	*
23111	언덕	엉덕
23112	낭떠러지	낭가티; 낭끄탱이
23113	들(野)	들판
23113-0-1	-에	들판이가
23114	벌	들
23115	갈림길	갈래절; 갈림절; 삼갈래; 새절
23116	헤어지다	헤여지다
23117	바위	바우
23117-0-1	-을	바우를
23117-0-2	-에	바우이는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
23118-0-2	-에	*
23119	자갈	*
23120	모래	모새
23120-0-1	-를	모새파오니라
3121	진흙	진땅
23121-1	찰흙	지륙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거품; 물거품
23203	개운하다	깨운허다
23204	도랑	또랑물
23204-1	붓도랑	보뚜랑
23205	둑	뚝; 보
23206	잠기다	물드러따; 채지
23207	개울	개굴; 골짙물; 큰뚜랑물
23208	내(川)	내물; 낸물
23209	미역 감다	먹까머라
23210	말가숭이	빨가덩이
23211	목욕하다	*

23212	수채	해치; 해치꾸녕
23213	개골창	개골창
23214	시궁창	*
23215	웅덩이	붕당
23216	수렁	수궁
23217	늪	늪
23217-0-1	-에	느비빠저따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
23220	돛	*
23220-0-1	-에	*
23221	돛대	*
3222	돛배	*
23223	돛 줄	*
23224	돛 줄	*
23225	거루	중신
23226	상앗대	*
23227	개(펼)	*
23228	물	*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찌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복
23302	새벽밥	새복빤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빤
23305	점심	정:심; 점:심때; 점심빤
23306	저녁	저녁; 저녁빤; 저녁새때
23307	설빔하다	설푸시너머간다; 살푸:타다; 살푸대진다

23308	노을	*
23308-0-1	-을	*
23309	불그레하다	불구수름하다
23310	해거름	해그름
23311	땅거미	땅금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우가
23315	추위	추우가
23316	가을	가을, 갈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결:
23317-0-1	-에	겨:레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날:
23321	모레	모리
23322	글피	글폐
23323	그글피	그글폐
23324	어제	어지
23325	그저께	그저끼
23326	그그저께	그아래
23327	훗날	*
23328	하룻날	초하룬날
23329	이튿날	초이튿날
23330	사흘날	초사흔날
23331	나흘날	초나흔날
23332	닷셋날	초다쨌날
23333	엿셋날	초여쨌날
23334	이렛날	초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초아으렌날
23337	열흘날	초여를랄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홀	나홀
23342	닷새	다썸
23343	엿새	여썸
23344	이레	이리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반나잘
23349	그믐	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끼
23350	지금	시방
23351	아직	안직
23352	이제	시방머그따고
23353	이미	발써
23354	요즈음	요시는 잘 지넌나
23355	금방	인제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뵈
23401-0-1	-이	베시
23401-0-2	-을	*
23402	따스하다	따싹따
23403	아지랑이	애매미
23404	응달	음달, 음지가면
23405	양달	양지편, 양지, 양다리라하지
23406	비(雨)	비오자나
23407	가랑비	까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앙: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주개
23412	소나기	쏘내기
23413	갑자기	갑짜키

23414	홍수	수해당해따
23415	번개	번개뿔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벼락 때린다고
23418	무섭다	무습찌, 무습뜨라
23419	함박눈	함방누니쏘다진다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진티
23423	우박	누리
23424	고드름	고도름
23425	햇무리	해무니
23426	달무리	달무니
23427	둥글다	똥고로마니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별
23430	가물	가물
23431	마르다	말르고
23431-0-1	-어서	말라서조타
23432	위	웨:
23433	아래	미티
23434	왼쪽	웁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23436	걸	여피
23436-0-1	-에	여페
23437	회오리바람	소소리바람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제3편 음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가
31001-0-2 테(輪)-보다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태가
31002-0-2 태(胎)-보다	태보다
31003-0-1 떼(群)-이/가	떼가
31003-0-2 떼(群)-보다	떼보다
31004-0-1 때(時)-이/가	때가
31004-0-2 때(時)-보다	때보다
31005-0-1 틀(機)-이/가	트리
31005-0-2 틀(機)-보다	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터리
31006-0-2 털(毛)-보다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그리
31007-0-2 글(文)-보다	글보다
31008-0-1 걸(옷)-이/가	거리
31008-0-2 걸(옷)-보다	걸보다
31009-0-1 기(旗)-이/가	기가
31009-0-2 기(旗)-보다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귀가
31010-0-2 귀(耳)-보다	귀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시보다
31012-0-1 쉼(蠅卵)-이/가	췌가
31012-0-2 췌(蠅卵)-보다	췌보다
31013-0-1 쇠(鐵)-이/가	쇠가
31013-0-2 쇠(鐵)-보다	쇠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국이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국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노미
31015-0-2 왜국(倭國)-보다	왜넘보다; 왜놈보다
31016-0-1 쉬:다(休)-이/가	*
31016-0-2 쉬:다(休)-보다	*
31017-0-1 쇠:다(철을~)-이/가	*
31017-0-2 쇠:다(철을~)-보다	*
31018-0-1 베(布)-이/가	삼베가
31018-0-2 베(布)-보다	삼베보다
31019-0-1 배(船)-이/가	배가
31019-0-2 배(船)-보다	배보다
31020-0-1 배(腹)-이/가	배가
31020-0-2 배(腹)-보다	배보다
31021-0-1 (떡)메-이/가	메가
31021-0-2 (떡)메-보다	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매가
31022-0-2 매(鞭)-보다	매보다
31023-0-1 메:다(擔)-이/가	*
31023-0-2 메:다(擔)-보다	*
31024-0-1 매:다(繫)-이/가	*
31024-0-2 매:다(繫)-보다	*
31025-0-1 떼:다(分離)-이/가	*
31025-0-2 떼:다(分離)-보다	*
31026-0-1 때:다(炊)-이/가	*
31026-0-2 때:다(炊)-보다	*
31027-0-1 베:다(切斷)-이/가	*
31027-0-2 베:다(切斷)-보다	*
31028-0-1 배:다(孕胎)-이/가	*
31028-0-2 배:다(孕胎)-보다	*
31029-0-1 세:다(算)-이/가	*
31029-0-2 세:다(算)-보다	*
31030-0-1 새:다(漏泄)-이/가	*
31030-0-2 새:다(漏泄)-보다	*
31031-0-1 뒤(後)-이/가	뒤가
31031-0-2 뒤(後)-보다	뒤보다
31032-0-1 되(升)-이/가	되가
31032-0-2 되(升)-보다	되보다
31033-0-1 게:(蟹)-이/가	게가
31033-0-2 게:(蟹)-보다	게보다

31034-0-1 개:(犬)-이/가	개가
31034-0-2 개:(犬)-보다	개보다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여러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여러를
31036-0-1 물결(波)-이/가	물거리
31036-0-2 물결(波)-보다	물결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물거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의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의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의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호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호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호글; 계혹을 세워따
31039-0-1 규칙(規則)-이/가	*
31039-0-2 규칙(規則)-보다	규칙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
31040-0-1 휴일(休日)-이/가	휴이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일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휴이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교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이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웬일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웬이를
31044-0-1	궤:(작)(櫃)-이/가	귀째기
31044-0-2	궤:(작)(櫃)-보다	귀작보다
31044-0-3	궤:(작)(櫃)-을/를	귀작글
31045-0-1	왜란(倭亂)-이/가	왜나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왜난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왜나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헛때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헛때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헛때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이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원망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곤투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곤투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곤투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으노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으논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으노를
31050-0-1	무늬(紋)-이/가	무네가
31050-0-2	무늬(紋)-보다	무네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무네를
31051-0-1	왕(王)-이/가	왕이
31051-0-2	왕(王)-보다	왕보다
31051-0-3	왕(王)-을/를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과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자를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크다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이:리만타
31054-0-2 일:(事)-보다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
31055-0-2 매(鞭)-보다	매보다
31056-0-1 매:(驚)-이/가	매:가 쫓잡는다고려쵸
31056-0-2 매:(驚)-보다	매:보다
31057-0-1 밤(夜)-이/가	바미 캄까마다
31057-0-2 밤(夜)-보다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멍는 바미지
31058-0-2 밤:(栗)-보다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
31059-0-2 눈(眼)-보다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누:니
31060-0-2 눈:(雪)-보다	눈:보다
31061-0-1 말(馬)-이/가	*
31061-0-2 말(馬)-보다	타구댕이는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마리 업찌
31062-0-2 말(斗)-보다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마:리 만터라
31063-0-2 말:(言)-보다	말:보다 주머기 압썬다
31064-0-1 손(客)-이/가	소니미 와따; 소니와썬요
31064-0-2 손(客)-보다	손보다
31065-0-1 손(手)-이/가	소니애쁘다
31065-0-2 손(手)-보다	손보다
31066-0-1 손:(孫)-이/가	소:니업썬
31066-0-2 손:(孫)-보다	소님보다; 손:보다
31067-0-1 배(梨)-이/가	배가
31067-0-2 배(梨)-보다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배:가 질다
31068-0-2 배:(倍)-보다	배보다
31069-0-1 벌(罰)-이/가	버리
31069-0-2 벌(罰)-보다	벌보다
31070-0-1 벌:(蜂)-이/가	버:리썬썬요
31070-0-2 벌:(蜂)-보다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소리
31071-0-2 솔(松)-보다	솔보다
31072-0-1 솔:(刷)-이/가	뵤매는소리; 소리라구그래여; 주리
31072-0-2 솔:(刷)-보다	솔보다; 줄보다 크다
31073-0-1 줄(鉉)-이/가	주:리
31073-0-2 줄(鉉)-보다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도리
31074-0-2 줄:(연장)-보다	돌보다

31075-0-1 돌:(石)-이/가	*
31075-0-2 돌:(石)-보다	*
31076-0-1 담(牆)-이/가	다미놉따
31076-0-2 담(牆)-보다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담:려기 크다
31077-0-2 담:(膽)-보다	*
31078-0-1 들:(野)-이/가	드:리 넘따
31078-0-2 들:(野)-보다	들:보다
31079-0-1 달-(懸)-고	달고이떠라
31079-0-1 달-(懸)-더라	달더라
31080-0-1 달-(甘)-고	달고
31080-0-1 달-(甘)-더라	달더라
31081-0-1 달:-(熱)-고	*
31081-0-1 달:-(熱)-더라	*
31082-0-1 갈-(換)-고	갈고이떠라
31082-0-1 갈-(換)-더라	갈더라
31083-0-1 갈-(磨)-고	갈고; 갈고이따
31083-0-1 갈-(磨)-더라	갈더라
31084-0-1 갈:-(耕)-고	갈고
31084-0-1 갈:-(耕)-더라	갈다요; 갈드라
31085-0-1 걷-(收)-고	거두고이씨
31085-0-1 걷-(收)-더라	거떠라
31086-0-1 걷:-(步)-고	건는다
31086-0-1 걷:-(步)-더라	빨리거뜨라

31087-0-1	적-(書)-고	*
31087-0-1	적-(書)-더라	적떠라
31088-0-1	적:-(小)-고	*
31088-0-1	적:-(小)-더라	키가적더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닝깨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갈따
32002-0-1	흐르-(流)[ㅡ]-지	흘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고; 흘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흘르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흘르닝깨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흘런따
32003-0-1	오-(來)[ㅓ]-지	오지
32003-0-2	오-(來)[ㅓ]-고	오고이떠라
32003-0-3	오-(來)[ㅓ]-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
32004-0-1	듣-(聞)[ㄷ 변]-지	*
32004-0-2	듣-(聞)[ㄷ 변]-고	*
32004-0-3	듣-(聞)[ㄷ 변]-더라	*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

32005-0-1	많:- (多)[ㄴᄂ]-지	만치
32005-0-2	많:- (多)[ㄴᄂ]-고	만코
32005-0-3	많:- (多)[ㄴᄂ]-더라	만트라
32005-0-4	많:- (多)[ㄴᄂ]-으니까	마느니까
32005-0-5	많:- (多)[ㄴᄂ]-아/어(왔/었다)	마난는데

32006-0-1	말:- (任)[ㅌ]-지	말지
32006-0-2	말:- (任)[ㅌ]-고	만꼬
32006-0-3	말:- (任)[ㅌ]-더라	만드라
32006-0-4	말:- (任)[ㅌ]-으니까	마트닝께
32006-0-5	말:- (任)[ㅌ]-아/어(왔/었다)	마타뒤라

32007-0-1	알:- (知)[ㄹ]-지	알지
32007-0-2	알:- (知)[ㄹ]-고	알고
32007-0-3	알:- (知)[ㄹ]-더라	알드라
32007-0-4	알:- (知)[ㄹ]-으니까	아르닝께
32007-0-5	알:- (知)[ㄹ]-아/어(왔/었다)	아랄따

32008-0-1	감:- (閉眼)[ㄱ]-지	감:찌
32008-0-2	감:- (閉眼)[ㄱ]-고	감:꼬
32008-0-3	감:- (閉眼)[ㄱ]-더라	감:뜨라
32008-0-4	감:- (閉眼)[ㄱ]-으니까	가무닝께
32008-0-5	감:- (閉眼)[ㄱ]-아/어(왔/었다)	가말따

32009-0-1	벗:- (脫)[ㅍ]-지	벗찌
32009-0-2	벗:- (脫)[ㅍ]-고	벗꼬
32009-0-3	벗:- (脫)[ㅍ]-더라	벗뜨라
32009-0-4	벗:- (脫)[ㅍ]-으니까	버스닝께
32009-0-5	벗:- (脫)[ㅍ]-아/어(왔/었다)	버설따

32010-0-1	올:- (可)[ㅇ]-지	올치
32010-0-2	올:- (可)[ㅇ]-고	올코
32010-0-3	올:- (可)[ㅇ]-더라	올트라
32010-0-4	올:- (可)[ㅇ]-으니까	오르닝께
32010-0-5	올:- (可)[ㅇ]-아/어(왔/었다)	오랄따

32011-0-1	입-(着衣)[ㅂ]-지	입찌
32011-0-2	입-(着衣)[ㅂ]-고	입꼬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뜨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브닝깨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벌따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드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꾸닝깨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바뀐따

32013-0-1	덮-(覆)[ㅍ]-지	덮찌
32013-0-2	덮-(覆)[ㅍ]-고	덮꼬
32013-0-3	덮-(覆)[ㅍ]-더라	덮뜨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푸닝깨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펼따

32014-0-1	묻:-(問)[ㄷ 변]-지	묻찌
32014-0-2	묻:-(問)[ㄷ 변]-고	묻꼬
32014-0-3	묻:-(問)[ㄷ 변]-더라	묻뜨라
32014-0-4	묻:-(問)[ㄷ 변]-으니까	무루닝깨
32014-0-5	묻:-(問)[ㄷ 변]-아/어(왔/었다)	무ړ따

32015-0-1	낫:-(癒)[ㅅ 변]-지	낫찌
32015-0-2	낫:-(癒)[ㅅ 변]-고	낫꼬
32015-0-3	낫:-(癒)[ㅅ 변]-더라	낫뜨라
32015-0-4	낫:-(癒)[ㅅ 변]-으니까	나스닝깨
32015-0-5	낫:-(癒)[ㅅ 변]-아/어(왔/었다)	나살따

32016-0-1	닫-(閉)[ㄷ]-지	닫찌
32016-0-2	닫-(閉)[ㄷ]-고	*
32016-0-3	닫-(閉)[ㄷ]-더라	닫뜨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닝깨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달따

32017-0-1	쫓-(追)[ㅈ]-지	쫓찌
32017-0-2	쫓-(追)[ㅈ]-고	쫓꼬
32017-0-3	쫓-(追)[ㅈ]-더라	쫓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츠닝깨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찰따

32018-0-1	베:-(枕)[베]-지	비지
32018-0-2	베:-(枕)[베]-고	비고
32018-0-3	베:-(枕)[베]-더라	비드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비닝깨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별따

32019-0-1	깨:-(破)[깨]-지	깨지
32019-0-2	깨:-(破)[깨]-고	깨고
32019-0-3	깨:-(破)[깨]-더라	깨드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깨닝깨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깨절따

32020-0-1	펴-(伸)[ㅍ]-지	폐지; 피지
32020-0-2	펴-(伸)[ㅍ]-고	펴고; 피고
32020-0-3	펴-(伸)[ㅍ]-더라	펴드란디; 피드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피닝깨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펼뜨라

32021-0-1	박-(明)[ㅍ]-지	박찌
32021-0-2	박-(明)[ㅍ]-고	박꼬
32021-0-3	박-(明)[ㅍ]-더라	박뜨라
32021-0-4	박-(明)[ㅍ]-으니까	*
32021-0-5	박-(明)[ㅍ]-아/어(왔/었다)	발가따

32022-0-1	쌈:-(烹)[ㅍ]-지	쌈찌
32022-0-2	쌈:-(烹)[ㅍ]-고	쌈꼬
32022-0-3	쌈:-(烹)[ㅍ]-더라	쌈뜨라
32022-0-4	쌈:-(烹)[ㅍ]-으니까	쌀므니깨
32022-0-5	쌈:-(烹)[ㅍ]-아/어(왔/었다)	쌀마따

32023-0-1 읍-(吟)[ㄷ]-지 *

32023-0-2 읍-(吟)[ㄷ]-고 *

32023-0-3 읍-(吟)[ㄷ]-더라 *

32023-0-4 읍-(吟)[ㄷ]-으니까 *

32023-0-5 읍-(吟)[ㄷ]-아/어(왔/었다) *

32024-0-1 밟:-(踏)[ㄹ]-지 밟지

32024-0-2 밟:-(踏)[ㄹ]-고 바:꼬

32024-0-3 밟:-(踏)[ㄹ]-더라 밟뜨라

32024-0-4 밟:-(踏)[ㄹ]-으니까 밟브닝께

32024-0-5 밟:-(踏)[ㄹ]-아/어(왔/었다) 밟바따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드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닝께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해따

32026-0-1 맺-(結)[ㅈ]-지 쫘매지

32026-0-2 맺-(結)[ㅈ]-고 쫘매고

32026-0-3 맺-(結)[ㅈ]-더라 쫘매드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쫘매니께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쫘매따

32027-0-1 없:-(無)[ㅈㅅ]-지 업찌

32027-0-2 없:-(無)[ㅈㅅ]-고 업꼬

32027-0-3 없:-(無)[ㅈㅅ]-더라 업뜨라

32027-0-4 없:-(無)[ㅈㅅ]-으니까 업쓰닝께

32027-0-5 없:-(無)[ㅈㅅ]-아/어(왔/었다) 업따

32028-0-1 앉-(坐)[ㅈ]-지 안찌

32028-0-2 앉-(坐)[ㅈ]-고 안꼬

32028-0-3 앉-(坐)[ㅈ]-더라 안뜨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안즈닝께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안자따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드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비닝께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벼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32030-0-2	끄-(消)[ㅡ]-고	끄고
32030-0-3	끄-(消)[ㅡ]-더라	끄드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닝께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꼴따

32031-0-1	꺾-(折)[ㄷ]-지	꺾찌
32031-0-2	꺾-(折)[ㄷ]-고	꺾꼬
32031-0-3	꺾-(折)[ㄷ]-더라	꺾뜨라
32031-0-4	꺾-(折)[ㄷ]-으니까	꺾끄닝께
32031-0-5	꺾-(折)[ㄷ]-아/어(왔/었다)	꺾껴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32032-0-2	신:-(履)[ㄴ]-고	신꼬; 싱꼬
32032-0-3	신:-(履)[ㄴ]-더라	신뜨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는닝께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따

32033-0-1	보-(視)[ㅂ]-지	보지
32033-0-2	보-(視)[ㅂ]-고	보고
32033-0-3	보-(視)[ㅂ]-더라	보드라
32033-0-4	보-(視)[ㅂ]-으니까	보닝께
32033-0-5	보-(視)[ㅂ]-아/어(왔/었다)	바:따

32034-0-1	추-(舞)[ㅈ]-지	추지
32034-0-2	추-(舞)[ㅈ]-고	추고
32034-0-3	추-(舞)[ㅈ]-더라	추드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닝께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췌따

32035-0-1	피우-(吸煙)[ㅌ]-지	피우지; 피지
32035-0-2	피우-(吸煙)[ㅌ]-고	피고; 피우고
32035-0-3	피우-(吸煙)[ㅌ]-더라	피드라; 피우드라
32035-0-4	피우-(吸煙)[ㅌ]-으니까	피우닝께
32035-0-5	피우-(吸煙)[ㅌ]-아/어(왔/었다)	피워따

32036-0-1	서-(立)[ㅅ]-지	스지
32036-0-2	서-(立)[ㅅ]-고	스고
32036-0-3	서-(立)[ㅅ]-더라	스드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스닝께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섰따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드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닝께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결:따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이드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닝께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여:따

32039-0-1	아니-(否)[ㅣ]-지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니드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니닝께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녀따

32040-0-1	되-(升)[ㅌ]-지	되지
32040-0-2	되-(升)[ㅌ]-고	되고
32040-0-3	되-(升)[ㅌ]-더라	되드라
32040-0-4	되-(升)[ㅌ]-으니까	되닝께
32040-0-5	되-(升)[ㅌ]-아/어(왔/었다)	돼따

32041-0-1	있-(有)[ㅅ]-지	이:찌
32041-0-2	있-(有)[ㅅ]-고	이:꼬
32041-0-3	있-(有)[ㅅ]-더라	이뜨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이쓰닝께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이써따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트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닝께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놔따

32043-0-1	훑-(扱)[ㅈ]-지	훑찌
32043-0-2	훑-(扱)[ㅈ]-고	훑꼬
32043-0-3	훑-(扱)[ㅈ]-더라	훑뜨라
32043-0-4	훑-(扱)[ㅈ]-으니까	훑트닝께
32043-0-5	훑-(扱)[ㅈ]-아/어(왔/었다)	훑터따

32044-0-1	곰:-(麗)[ㅂ 변]-지	곰찌
32044-0-2	곰:-(麗)[ㅂ 변]-고	곰꼬
32044-0-3	곰:-(麗)[ㅂ 변]-더라	곰뜨라
32044-0-4	곰:-(麗)[ㅂ 변]-으니까	고:닝께
32044-0-5	곰:-(麗)[ㅂ 변]-아/어(왔/었다)	고왔따

32045-0-1	쥐:-(握)[ㄱ]-지	쥐지
32045-0-2	쥐:-(握)[ㄱ]-고	쥐고
32045-0-3	쥐:-(握)[ㄱ]-더라	쥐드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쥐닝께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좨다

32046-0-1	가-(去)[ㄱ]-지	가지
32046-0-2	가-(去)[ㄱ]-고	가고
32046-0-3	가-(去)[ㄱ]-더라	가드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가닝께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가따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먹뜨라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가꼬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타따
32050-0-1	얹-(淺)-지, -고, -더라	야참꼬
32050-0-2	얹-(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차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흩꼬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터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라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울어따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인다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고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얼어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꼬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넘어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설하닝께; 쉬워따; 쉽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해따고도 해요

32059-0-1	눅:-(馱)-지, -고, -더라	눅꼬
32059-0-2	눅:-(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어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지꼬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32061-0-1	밍:-(憎)-지, -고, -더라	미꼬
32061-0-2	밍:-(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놉꼬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꼬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꼬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따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지꼬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따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꼬꼬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코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따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따:고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끓코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너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찮코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찮나따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따
32073-0-1	뺨:- (澣)-지, -고, -더라	뺨꼬
32073-0-2	뺨:- (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뺨버따
32074-0-1	웁:- (遷)-지, -고, -더라	웁기코; 왕기코
32074-0-2	웁:- (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웁겨따; 왕기따고
32075-0-1	똥:- (貫)-지, -고, -더라	똥코
32075-0-2	똥:- (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똥러따
32076-0-1	꿔:- (跪)-지, -고, -더라	꿔코
32076-0-2	꿔:- (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따
32077-0-1	달:- (抗,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달코
32077-0-2	달:- (抗,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따
32078-0-1	달:- (煎, 솥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달코
32078-0-2	달:- (煎, 솥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장이 다라따고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코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따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지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코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썬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올르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쁠따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프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쏠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고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따고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물구 이썸라; 머물르구이썸라;
		머물지 말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물러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따등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마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고 이따; 전딤다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디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말르고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따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찌고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셔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썸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썸어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개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드리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드려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키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켜따
32097-0-1 췌:-(바람을)-지, -고, -더라	췌고
32097-0-2 췌:-(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다
32098-0-1 쇄-(老)-지, -고, -더라	쇠고
32098-0-2 쇄-(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쏟따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쉬고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희고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혀: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꼬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고; 불지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ړ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랏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닫꼬; 주건따

32107-0-1 걷:-(步)-지, -고, -더라	걷고일따
32107-0-2 걷:-(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릴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릴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졸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랄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고; 쓸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릴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꼬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말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멀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국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곶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겅따; 무겅꼬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일꼬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설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빔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설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꼬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머따; 까마타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코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넌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고:고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관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언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절따
32121-0-1	귀창:-(囨)-지, -고, -더라	귀찬고; 귀찬코
32121-0-2	귀창:-(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넨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박꼬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렘따; 발가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막뜨라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간따
32124-0-1	끓:-(膿)-지, -고, -더라	공꼬
32124-0-2	끓:-(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말따고; 공게따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굴그니께
32125-0-2	끓:-(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국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약꼬; 얇브니까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얇받다; 얇번따
32127-0-1	쫄:-(春)-지, -고, -더라	칼리고; 칼리닝께
32127-0-2	쫄:-(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깔린다구려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고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런따
32129-0-1	활:-(舐)-지, -고, -더라	할꼬; 할트니까
32129-0-2	활:-(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활타머거라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짤꼬; 짤부니까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짤롭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고; 놀래닝께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고; 자니까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다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다걸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루고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랄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판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커고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컬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고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꼰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고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맞추고이따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촬따
32140-0-1 데우-(煑)-지, -고, -더라	데우고
32140-0-2 데우-(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월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이:고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임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기따고도하고그랴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지달리고 일따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릴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고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고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뺨따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키고; 타고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켄따; 탈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고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되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고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얼따
32149-0-1 할퀴-(擻)-지, -고, -더라	글키미고
32149-0-2 할퀴-(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글깁따고그래
32150-0-1 눈:-(焦)-지, -고, -더라	눅:고
32150-0-2 눈:-(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렐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닫꼬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랠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마리고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려웁다; 마릴따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럽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따; 부끄러워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참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왈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깊꼬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펼따
32156-0-1	긔:-(劃)-지, -고, -더라	그:꼬
32156-0-2	긔:-(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서따; 그어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씨:꼬; 썬꼬 이따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서따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찌꼬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159-0-1	잡-(搔)-지, -고, -더라	각꼬; 각찌
32159-0-2	잡-(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꼬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머따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당꼬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마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치머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3216-0-1	끓-(𪓐)-지, -고, -더라	골꼬
3216-0-2	끓-(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따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꼬; 부수니까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부어따는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타니까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탈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말르고 일따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랄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고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쓸:따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프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펄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쁘고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쁠따
32170-0-1 쏘-(蜚, 벌이)-지, -고, -더라	쏘고
32170-0-2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고이따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얼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워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뵈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부시고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셔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고; 농구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눠따; 농가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긴다; 쇠긴다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겸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찌고; 찜구고; 찜군다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찜귀따
32178-0-1 뛰-(跳)-지, -고, -더라	뛰고
32178-0-2 뛰-(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따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고이고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열따
32180-0-1	여위-(羶)-지, -고, -더라	여비고
32180-0-2	여위-(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별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찌머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완따
32182-0-1	뀌:-(屍)-지, -고, -더라	뀌고
32182-0-2	뀌:-(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열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철따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실코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ړ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어: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덜따
32186-0-1	빻:-(粉碎)-지, -고, -더라	빻구고
32186-0-2	빻:-(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빻과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새 파라고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 파라따; 새 파래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달르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라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고 이따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펼따; 푸어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어따고 그러지 머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고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워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둬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코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겨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바치고 이따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쳐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너머어지고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져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끼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궈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당기고; 땡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계따; 땡긴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쳐따; 훔치고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질머지고; 질머질따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외고이따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기고이따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귄따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썩꼬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따고지머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런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고이따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불라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런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고이따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싱꼬이따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머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등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마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싸납따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나와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개볍따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벼웠따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절찌요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저서라; 잘 저얼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웠따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물르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렀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고 일따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웠따
32218-0-1 다리-(撻)-지, -고, -더라	다리고 일따
32218-0-2 다리-(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렸따
32219-0-1 후비-(窺, 귀를)-지, -고, -더라	휘비고 일따
32219-0-2 후비-(窺,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별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애리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렸따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고 일따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렸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고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렸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군다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겼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시고 일따; 뜨시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섯따; 뜨섯따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린다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렸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뉘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뉘별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구기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겔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고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별따; 비얼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쿤다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궤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고 일따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맬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맬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고 일따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얼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꼬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맬따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개롭따고허지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룬거지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고 일따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ړ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얼따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고 일따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찰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보지래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랴파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불르고 일파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랴파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루고 일파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랴파
32242-0-1	쫓:- (啄)-지, -고, -더라	쫓알파; 쫓꼬 일파; 두고 일파
32242-0-2	쫓:-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됴파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켜파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지리고 일파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려파; 지랴파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고 일파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져파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고일파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여파
32248-0-1	만지-(搯)-지, -고, -더라	만지고 일파
32248-0-2	만지-(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져파; 만쳐본다
32249-0-1	쫓:- (囓)-지, -고, -더라	쫓고 일파
32249-0-2	쫓:- (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쫓다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소늘 비틀고 일파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틀어파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독꼬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왁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씩꼬이따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벌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따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웁따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꼬일따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루고 일따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런따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런따; 주물르고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우고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웁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십꼬; 꼬십따; 꼬십찌 안타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셜는데; 꼬셜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고 일따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런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굴러가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궁구런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고 일따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랄따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늑꼬일따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거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코이따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랄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린다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랄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살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고 일따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월따
32267-0-1	부리지-(被折)-지, -고, -더라	뿌리지고 일따
32267-0-2	부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리절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고 일따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철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렐따
32270-0-1	무치-(和,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고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철따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조이고 일따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열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일따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랄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꼬이따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지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절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칠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저리고 일따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릴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고 일따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얼따
32278-0-1	줍:- (拾)-지, -고, -더라	주꼬일따
32278-0-2	줍:- (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설따; 주얼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뺨꼬 일따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산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기우리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우릴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깝따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따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윳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고 일따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찼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누러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런타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리고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릴따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두루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두런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투루드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트런파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오르다고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울런파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뜨다고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뜨덴파
32290-0-1 춥-(寒)-지, -고, -더라	츨꼬
32290-0-2 춥-(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츨월파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거꼬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겁파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밍근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해파; 밍근헨파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고 일파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완파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파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월파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알밋파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월파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스타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스대파; 비슷헨파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월파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까다롭파; 꺼까드럽파; 서럽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라완파; 서러월파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루얼따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쉽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쉬윰따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판판하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판판헐따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께까지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절따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냉기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겐따; 냉겐따가는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머띠리고 일따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띠레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구려띠리고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구려띠리따다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견준다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눠받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완따; 율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질르고 일따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러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갈치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첸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치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첸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저누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닐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겨누고 이따; 저누고 일따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날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개고 일따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궤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본받는다고 하지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질고 일따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렷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고 일따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런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에기고 일따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곶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거리고 일따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렷따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지끄리고; 지끼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려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니고 일따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닐따; 땡곶따; 땡기고 일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떨러트리코 일파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어트림파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깼다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깼파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더라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셔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속꼬 일파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삼파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타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알파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발가타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개서조타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끌고 다녀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림파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얹파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얹받파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하야타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에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글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32332-0-5 국(羹)-도	국또

32333-0-1 논(沓)-이/가	논이
32333-0-2 논(沓)-을/를	논을
32333-0-3 논(沓)-에(서)	논에
32333-0-4 논(沓)-으로	논으로
32333-0-5 논(沓)-도	논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를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쌀로
32334-0-5 쌀(米)-도	쌀도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를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으로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32336-0-3 집(家)-에(서)	지베
32336-0-4 집(家)-으로	지으로
32336-0-5 집(家)-도	집또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 무더따
32337-0-4 옷(衣)-으로	오으로
32337-0-5 옷(衣)-도	온또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32338-0-5 방(房)-도	방도

32339-0-1 낮(晝)-이/가	나시
32339-0-2 낮(晝)-을/를	나즐
32339-0-3 낮(晝)-에(서)	나데
32339-0-4 낮(晝)-으로	나스로
32339-0-5 낮(晝)-도	날또

32340-0-1 낮(顔)-이/가	나시
32340-0-2 낮(顔)-을/를	나슬
32340-0-3 낮(顔)-에(서)	나세
32340-0-4 낮(顔)-으로	나스로
32340-0-5 낮(顔)-도	날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
32341-0-2 부엌(廚)-을/를	부엌글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게
32341-0-4 부엌(廚)-으로	부어그로
32341-0-5 부엌(廚)-도	부엌또

32342-0-1 밭(田)-이/가	바시
32342-0-2 밭(田)-을/를	바슬; 바틀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으로	바트로
32342-0-5 밭(田)-도	받또 만코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플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프로
32343-0-5 앞(前)-도	압또

32344-0-1 녀(魂)-이/가	너기
32344-0-2 녀(魂)-을/를	너글
32344-0-3 녀(魂)-에(서)	너게
32344-0-4 녀(魂)-으로	너그로
32344-0-5 녀(魂)-도	넉또

32345-0-1 흙(土)-이/가

호기

32345-0-2 흙(土)-을/를

호글

32345-0-3 흙(土)-에(서)

호게

32345-0-4 흙(土)-으로

호그로

32345-0-5 흙(土)-도

혹또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 여덜비

32346-0-2 여덟(八)-을/를

여더를

32346-0-3 여덟(八)-에(서)

여더레

32346-0-4 여덟(八)-으로

여덜로

32346-0-5 여덟(八)-도

여덜또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도라와따; 돌시가 도라와씨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32347-0-4 돌(週歲)-으로

돌로

32347-0-5 돌(週歲)-도

돌도

32348-0-1 값(價)-이/가

가비 비싸지

32348-0-2 값(價)-을/를

가블

32348-0-3 값(價)-에(서)

가베

32348-0-4 값(價)-으로

가브로

32348-0-5 값(價)-도

갑또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글

32349-0-3 속:(內)-에(서)

소게

32349-0-4 속:(內)-으로

소그로

32349-0-5 속:(內)-도

속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만치

32350-0-2 돈:(錢)-을/를

도늘 주고사쥬

32350-0-3 돈:(錢)-에(서)

도네 죽꼬살지

32350-0-4 돈:(錢)-으로

도느루 사지

32350-0-5 돈:(錢)-도

돈도 만치

32351-0-1 발(足)-이/가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바리 크지
 바를
 바리서 냄새가 나
 발루 차고
 발도 커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지미
 저슬 먹꼬; 지물 끓어지지
 지메
 지미로
 짐도 마나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5 입(口)-도

이비 커
 이블 조심하야 되고
 이비서 냄새가 나
 이비로
 입또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5 낫(鎌)-도

나시 잘들러
 나슬 잘 가려야지
 나제소늘버
 나스로 비지
 난또이써

32355-0-1 강(江)-이/가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강이
 강을 차자가; 강을 차자가야지
 강이서 고기 잡고
 강으로
 강도 널버

32356-0-1 젓(乳)-이/가
 32356-0-2 젓(乳)-을/를
 32356-0-3 젓(乳)-에(서)
 32356-0-4 젓(乳)-으로
 32356-0-5 젓(乳)-도

저시 마나; 저지 마나
 *
 저시서 비린내가 나
 저스로
 젖또

32357-0-1 꽃(花)-이/가
 32357-0-2 꽃(花)-을/를
 32357-0-3 꽃(花)-에(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5 꽃(花)-도

꼬시 피고
 꼬를 따와요
 꼬시가 안찌
 꼬스로
 꼴또커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5 팥(赤豆)-도

파시 마나
 파슬 싹트야지
 파시다 소그물 너야지
 파스로
 팥또 이써

32359-0-1 옆(側)-이/가
 32359-0-2 옆(側)-을/를
 32359-0-3 옆(側)-에(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5 옆(側)-도

여피 간지러; 여피가
 여플
 여피 안저
 여피로 가
 엽또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5 샅(賃金)-도

싸기 마너; 싹시 마나
 싸걸 바다; 싸글 바다와찌
 싸게; 품싸게
 싸그로; 품싸그로
 싹또 마나

32361-0-1 닭(鷄)-이/가
 32361-0-2 닭(鷄)-을/를
 32361-0-3 닭(鷄)-에(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다기 마나
 다글 자바머거
 다게 모이를 줘
 다그로
 닥또 마너

32362-0-1 밖(外)-이/가
 32362-0-2 밖(外)-을/를
 32362-0-3 밖(外)-에(서)
 32362-0-4 밖(外)-으로
 32362-0-5 밖(外)-도

바끼; 바끼 어두워
 바께
 *
 *
 *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라고도 하고 그러네; 보니나라고도 하고
40101-0-1 내-가	내가 먹건따고 그라지 머
40101-0-2 내	내 물건이라고 그러지
40101-0-3 나-를	나를 만나러 와따고
40101-0-4 나-에게	나한테 이제; 나헌티 줘따
40101-0-5 나-와	나와 가치; 나하고; 나하고 가치 가따 소리를 마니 쓰지
40101-0-6 나-는	나는 안다고 하든가; 보니는 안다고라지요
40101-0-7 나-도	자네도 알고 나도 알고
40102 저/제-가	저 다녀완씀니다; 제가 간다고 그러지; 지가
40102-0-1 저-가	지가 그러케 햐씀니다 그래야지
40102-0-2 저-의	제 물건 임미다
40102-0-3 저-을/를	어머니 저를 데로고가썸씨요
40102-0-4 저-에게	어머니 저를 주세요; 저헌테 주세요
40102-0-5 저-와/과	저와 가치 가세요; 저하고 가치 가세요
40102-0-6 저-는	저는 국씨를 먹곶씀니다; 저는 바블 먹곶씀니다
40102-0-7 저-도	저두 바블 먹곶씀니다
40103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번님
40104 저희	저히 아번님
40105 너	너는
40105-0-1 -가	너 비짜루를 가져와라; 너 학꼬 양가냐; 니가 가지오라
40105-0-2 -의	네꺼여
40105-0-3 -을/를	너를; 너를 사과를 줄라고 현다.
40105-0-4 -에게	너헌티 주더라
40105-0-5 -와/과	너랑; 너하구 가고 싶다; 너하구 가치 싶다고
40105-0-6 -는	너는
40105-0-7 -도	너는; 너두 차칸이를 해라

40106	자네	김서방이면 김서방; 사우라고지 머; 자네라기도 하고
40107	당신	당시니 좀 가바;; 여보; 자네
40108	너희	느넬 아버지라고지; 자네 아버지
40109	개	개가 그래따구
40109-1	애	애가 앙그래써
40109-2	재	재가 그래써요
40110	자기	보닌; 자기 말만 올타고; 제 말만 올타고
40111	당신	당신 방이만; 하라버지 방에서만 주무세요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를 차차 온냐; 누구세요; 누구쇼; 누구여; 누구요; 바께 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누가 갱근
40112-0-2	누구-의	누구 도닌가 물루거써?
40112-0-3	누구-를	누구 주실라구 이러케
40112-0-4	누구-에게	누구에게 줄라고; 누구한티; 누구헌티
40112-0-5	누구-와	누구랑; 누구하고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보자기 쌍게 무어나
40113-0-1	무엇-이	뭇이케 불루가니 드런냐
40113-0-2	무슨	머하나라고; 무신일로 그러케
40113-0-3	무엇-을	뭇를; 뭇 머물래; 뭇하냐
40113-0-4	무엇-과	무어 비스다냐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너 워디 갈라고; 아이 어르신 어디 가실라고
40115	언제	언제 올라갈께요
40116	어느	지비 워뎀지비 마으메 드러?
40117	왜	뭇때미 그케 우냐; 왜 우러
40118	얼마나	월매나 걸리냐
40119	어떻게	요차미 오티게 지냐?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요거; 요기 내가; 이거라고도 쓰고
40121 그것	그거 쯔 나 주어; 그건 쯔 줘바
40122 저것	저거; 저긴는 거
40123 여기	자네 여기 점 파바
40124 거기	어이 자네 거기 점 파바
40125 저기	자네 저기 점 파바
40126 이리	어이 자네 이리 쯔 와바
40127 그리	그리 가봐
40128 저리	저리 가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물겨니 너무 다 비싸; 이 모자가 너무다 비싸
40202 -이/가	너는 코가 크다
40203 -을/를	코를 때릴따고그라지
40204 -을/를	무를 쯔 주야 거썬
40205 -에게/게	야 이 떡 저사람한테 줘
40206 -보고/더러	나한테 기분 나쁘게; 너 왜 나한테
40207 -보고/더러	너더러 해오래썬; 너보고 푸를 베오라기썬; 너한테; 누구보고
40208 -에	지비 갈라고 그란다 그라지
40209 -에	야 우리 요다으메 만나자야
40210 -에서	큰지비서 모신다
40211 -에서	서울썬 보자
40212 -에서	무주서 서울칼라먼; 무주서나; 우리 저 서면썬
40213 -으로	쌀로 맨들지
40214 -으로	지비로
40215 -으로	새끼루 목썬
40216 -으로	무주루 양가고 어디로 갈라고 그르나
40217 -와/과	외하고 수하고
40218 -와/과	나랑 가치가야; 나와 가치가야

40219. -보다	형보단
40220 -처럼	꽤지마냥 마니 찢떠라
40221 -만큼	나도 키가 너만침 커쓰면 조커써; 키가 너거치 커쓰면 조커써
40222 -만큼	먹을 만치만 가따 노코
40223 -아/야	날마둥; 봉남아
40224 -아/야	봉남이 이리 와
40225 -아/야	애 영수야 이리와; 영수 이리와
40226 -아/야	누님
40226-1 -예	누니미 좀 와요
40227 -아/야	하라버지라고 그라지 머
40227-1 -요	*
40228 -이랑	수리랑 고기랑 마니 머건써; 술도 먹꼬 고기도 먹꼬 국쭈도 먹꼬
40229 -커녕	마뉘보단 처뉘도 읍써; 마뉘커녕; 쌀커니

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머거도 담배는 안 피워
40231 -만	그 사라믄 딸만 이뻐하고; 아들만 예뻐하고
40232 -도	얼굴두 잘쌍겨서
40233 -마다	날마다; 해마둥
40234 -부터	오늘서버텀
40235 -까지	기한꺼지는; 내일꺼지는 끈내야 되아
40236 -조차	마실 물두 업써; 마실 물조차두 업써
40236-1 -할라	너할라 왜 이러나
40237 -이야/야	너야 그거 자라지마는
40238 -을랑	그런 소릴랑 하지 마라
40239 -이라도	가난배기래도; 부자라도
40240 -밖에	너배끼 업써; 너뿌니여
40241 -가지고	싸가지구서나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고 하더라
---------------	---------

40243 알았어-요 아라썬요

40244 했지-요? 해썬요?

4.3. 종결어미

1) 명령법

40301 -아라 안자; 안자라

40302 -게 양께; 여 와서 안자

40303 -으오 안자요

40304 -으십시오 빙장어르신 여 와서 안자요; 안자요; 안즈십시오

40305 -세요 빙장어른 여 와서 안즈세요; 안즈세요; 형님 이 와서 안즈세요

2) 청유법

40306 -자 가치 가자

40307 -세 가치 가; 가치 가세

40308 -으오 가치 가요

40309 -십시다 가치 가십시다; 가치 가요

40310 -세요 가치 가세요

3) 의문법

40311 -니 비가 오냐 아노냐

40312 -나 비가 오능가

40313 -오 비가 와요 아놔요

40314 -습니까 비가 와요?

40315 -나요 비가 와요?

40316 -니 워디 가냐

40317 -나 자네 워디 가

40318 -시오 형님 워디 가요

40319 -십니까	아번님 어디 가십니까; 아번님 워디 가세요; 아번님 워디 가요;
	어떤님 워디 가십니까
40320 -세요	어떤님 워디 가세요

4) 서술법

40321 -는다	바블 잘 멩는다
40322 -네	밥 잘 멩네
40323 -오	바블 잘 머거요; 밥 잘 머거요; 잘 멩네요
40324 -습니다	바블 잘 먹습니다; 철쭉가 바블 잘 머거요
40325 -네요	바블 잘 머거요
40326 -다	오시 자가
40327 -네	자네 이 오슬 자가; 자네 이븐 오시 좀 자가; 장네
40328 -소	자가요; 형님 이븐 오시 좀 작습니다
40329 -으십니다	작습니다
40330 -으세요	어먼니미 오시 좀 자가요; 오시 좀 자그십니다; 자가요; 작습니다

5) 반말

40331 -아	어디 아풍가 모미 앙종가?; 워디 아퍼
40332 -지	자네 꼭 병워네 가야 건는디 왜 앙가고 그라고 이써

6) ‘이다’의 종결어미

40333 -이다	내이리 생이리다
40334 -이니	내이리 생이리니; 니 생이리나
40335 -이네	생이리여
40336 -인가	생이링가
40337 -이오	생이리요
40338 -이오	내이리 형님 생이리오
40339 -입니다	아번님 내이리 생시니요
40340 -입니까	내이리 아번님 생이린가요; 내일이 아버님 생이리시지요;
	생이리십니까

40341 -이시지요	생시니지요
40342 -이시지요	어먼님 생시니요
40343 -이냐?	너 소네 들고 인능게 뭐냐
40344 -인가?	자네 소네 들고 인능거이 뭐여
40345 -이오?	소네 들고 인능게 뭐요
40346 -입니까?	소네 들고 인능게 그게 머세요; 소네 들고 인능게 머세요
40347 -인가요?	*
40348 -이야?	소네 들고 인능게 그게 뭐여
40349 -이어요?	소네 들고 인능게 뭐요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여그는 차가 공장히 만네요
40351 -습디다	만습니다; 서우리 간떠니 차가 공쟁히 마나요; 서울 가떠니 차가 만습디다; 차가 검나게 마나요; 차가 공장히 만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느집 돼지 바블 공장히 잘 멍능구나; 느 집 돼지가 공쟁히 바블 잘 먹뜨라; 느이 집 돼지는 바블 정말 잘 멍는다
40353 -는구먼/구먼	너네 집 소는 소주글 참 정말 잘 멍는다; 느이 집 소는 소주글 참 정말 잘 멍는다; 자네 소는 소주글 잘 머거; 잘 먹데
40354 -일세	참 자네 오랜나니여; 참 자네 오랜마닐세
40355 -으마	내일까지 내가 도늘 꼭 가플께; 내일까지 도늘 틀림업시 가플께; 내일까지 내가 꼭 도늘 가프마
40356 -음세	내일 돈 가플께; 도늘 꼭 가프마; 도늘 꼭 가플게
40357 -올라	도끼로 발뚱 찢라 조심하; 벨라 잘하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나는 항상 인제 바블 머꼬 티비를 보쥬
40402 -으면서	바블 머금서 텔레비를 테레비저를 동시게 가치 봐요; 밥 머금서나 밤 머금서 테리비 봄서 하지 뭐
40403 -어/-어서	추운데 이따가 따뜨단디 와서나
40404 -으니 /-으니까	따뜨단 방에 드러오닝께
40405 -관데	먼 이리가디; 먼니리썬서 이러케 마니 몰런나 사라미

40406 -다가	드레 갑따가
40407 -거든	그 사람 만내걸랑은
40408 -더라도	*
40409 -으려고	가치 나나머글라고; 그러케 할라고 마니 사지 머
40410 -도록	날 새드락; 날 새드락 공부를 해따; 밤 새도록; 빼가 빠지게 해도; 죽떠락 일만 해따
40411 -을수록	무거울쭈룩; 이글쭈룩 고개를 수구리고; 익어갈쭈룩
40412 -듯이	물 쓰드끼 한다; 물 쓰드단다; 물쓰드다
40413 -지	연속궁만 보지 따른건 안바

4.5. 주체 존대

40501 -셔	이리오셔; 이리와
40502 -셨소	가을추수 어지가니 다 끈나썩쇼; 가을추수 해 다 끈난능가; 끈나썩쇼?; 모내기 다 끈내썩쇼

4.6. 시제

40601 웃는다	야 참 애기가 잘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영금영금 잘 기간다
40603 크다	누니 크다; 야 그 아이 참 누니 크구나
40604 생일이다	내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비가 마니 내리고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아침 머거썩; 아침 잡살썩쇼
40607 왔었다	더규산 여 귀경 한번 와썩썩
40608 먹더라	주글 참 잘 먹더라야
40609 먹더냐	소주글 잘 먹더냐; 시방 도 죽 잘 멩냐
40610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내는 칭구고; 매일 하루 한 차례썩 만내고
40611 만난 친구	만내던 칭구고
40612 만났던 친구	만내똥 칭구다
40613 만날 친구	만날 칭구라고
40614 큰 아이	저 큰 칭구 좀 불러와
40615 크던 아이	큰똥 앤디

40616	켰던 아이	퀸편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나 이제 양켄따더니
40618	비가 오겠다	금방 비가 올꺼같따; 금방 올꺼까따고; 올겐 같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바바직 안 머견써; 바반머견써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아 나리 안 조아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야 그건 벨루 안 깨끗따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따	장가 안앙가써; 장가 앙 가써; 장개 아직 앙가써
40705	만나 보지 않았따/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안 만나바써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밥또 안먹꼬 쥬일 잠만자
40706-1	먹도 않고	*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나는 수를 몬머거; 머글썸 몰라
40708	맞잖소?/안 맞소?	내 마리 만썸

4.8. 피동과 사동

1) 사동

40801	살리다	목썸 살릴따; 살릴따
40802	늘리다	마니 늘릴따
40803	말리다1	고추를 마당에 너러서 말룬다; 말리우능거
40804	말리다2	싸:를 말린다; 싸를 말린다
40805	얼리다	냉동시레 너:서 얼퀸따
40806	녹이다	뜨건물 너서 녹퀸따; 뜬건 물로 녹퀸따
40807	신기다	아이 신바를 싱퀸따
40808	보이다	칭구에게 소늘 퍼서 별따
40809	알리다	알려줘따

40810	입히다	그 아이 오슬 이편따
40811	앉히다	의자에 안철따
40812	벗기다	그 아이 오슬 벗꼰따
40813	웃기다	우끼게 헐따
40814	썩히다	썩퀸나
40815	숨기다	숨건나
40816	굽기다	굽긴나; 궁긴나
40817	깨우다	왜 깨원나; 왜 두들기서 왜 깨원나
40818	돈우다	돈군다; 심지를 올린다

2) 피동

40819	잡히다	재필따
40820	깎이다	동네 나시 다 깎꼰따
40821	끼이다	문트메 끼여따
40822	떼이다	내가 도늘 다 문빠꼬 떼따
40823	채이다	*
40824	닫히다	탁 다철따
40825	들리다	안 들린다
40826	엎히다	어피지
40827	바뀌다	바뀌어따
40828	썩히다	썩핀다
40829	엎히다	언친거거터
40830	찍히다	찌킬뻔해써
40831	눌리다	눌려써
40832	실리다	실리서나 병워니로 가따
40833	꿇기다	꿇켜따
40834	굽히다	가시나무한테 글켜따

4.9. 보조용언

40901	싫다	야 너 생일선무를 뭘 받꼬집냐
40902	싫다	공부를 열씨미 하능가입더니 낸 또 향가지라고; 새로 사온 강아지가 바블 잘 먹떠니 시방은 잘 안명능게벼

40903 보다	잘 만능가 안만능가 한번 이버바요
40904 버리다	이 떠글 누가 다 머거버런네
40905 대다	매미가 하루정일 우리대드라
40906 -나/는가 보다	비가 올라능가비다; 올라능개비다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개비다고
40908 -나/는가 보다	바께 날씨가 갱장히 충개비네

4.10. 부사

41001 실컷	먹꼬지븐망큼 실컨 마니 머거라
41002 많이	마니 머거야 배가 부르지
41003 너무	자기 정도가 너무 넘께 머그면 해롭찌
41004 조금	조끔만 머거도 취하
41005 자주	수바글 마니 머거뜨니 화장시를 자주 가드라
41006 빨리	생각부단 빨리 와따
41007 얼른	얼릉 머거라
41008 기어코	기영코 간나
41009 가끔	가끔 멍는다
41010 먼저	너랑 먼저가; 먼저 가라거나 아피 가라거나; 아피가
41011 나중에	낭주니 준다 쏘리나 비슬비슬할상몰라 그거; 야 너 이자는 찬차니 바다; 이자는 찬차니 받꼬 원금만 시방 주께
41012 가득	가뜩 채워따
41013 몽땅	거기 인는 거슬 호딱 가조라고; 다 가좌라; 몽땅보다도 다 가좌라 쏘리를 더 마니 쓰지
41014 모조리	모조리 싹 읍새 버려따; 싹 배버려따; 전부 배버려따
41015 혼자	나 혼자만 нама씨
41016 항상	할리리 마나서 나는 늘 바쁘다; 할리리 마나서 나는 언제든지 바쁘다; 할리리 마나서 나는 항상 바쁘다
41017 똑똑히	똑또기 잘 바라; 잘 바라
41018 겨우	간신히 차마따고도 하고 제우 차마따고도 하고 그래요; 간신히 참아따; 제우 차마따; 제우 참아따
41019 늘	늘 잠만 잔다; 아이 우리 손자는 항상 김하고만 머거; 항상 잠만 잔다
41020 저절로	자연찌그로 나온다; 제절로 나온다
41021 자꾸	자꾸 나와
41022 설마	설마 나를 소길쩔 몰라씨

41023	하마트면	나는 하마트면 오도바이헌티 칠 뻔해써; 하마트면; 하마트면 오도바이헌티 다리를 칠 뻔해써
41024	함께	가치 여행을 가따; 나는 칭구하고 가치 여행을 가따; 우리 집 식꾸가 여행을 다 함께 가따; 우리는 바블 다 함께 머건따
41025	걸핏하면	걸뻔타드는 승지를 냉:께; 걸뻔타든 승지를 나
41026	공연히	그 사라몬 괴여니 아무거또 아닝걸 가꼬 트지블 자바
41027	그냥	그양 와써
41028	매우	검나게 쎄다고도 하고; 갱쟁이 셔; 공쟁히 시미 쎄다; 되게 비싸; 되게 쎄다고도 하고; 야 그 사라몬 씨미 되게 쎄다; 엄처게 쎄다고도 하고; 엄청이 비싸
41029	곧장	지비로 곧짱 와; 지비로 바로 와
41030	벌써	그 이를 엄차게 빨리 해따; 벌써 끈넌네; 엄차게 빨리 해따
41031	가장	유도키 박떠라; 제일 자란다; 칠성버리 제일 박따
41032	가만히	다른 데 가지 말고 지비서 가마니 이써
41033	미리	미리 대비해라
41034	이따금	가끔 차자온다; 가끔 한번씩 차자온다; 느께 차자온다고; 더디기 차자온다; 이따금 차자온다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여보	여보
41102	여보세요	아이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드러가세요 그라지머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라지머; 아 오늘 수고해써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아 자네 오랜마니네이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침 자시써요 아침 잡싸써요; 어르시니 나오시써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아 어르신 오랜마니시네요 그새 몸 건강히 잘 계시써요
41108	여기 있습니다	어써요 그라

41109 예
41110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2 내버려 뒀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예/ 예 그 마리 마자요
아 그렇게 아니요; 아니
암시랑토 아냐
내비뒀

개뿔도 마려 제 집 한칸도 업는 거뜨리;
개뿔도 아무거또 업는 거시 마려

2) 속담

41114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민꾸넉 빠진 도게 물 분는거나 똑가따고
바늘 도둑찌리 소도둑쥬 된다
부란때고 어트게 굴뚜게 연기 나라;
불 안 뎌 굴뚜게 썩기 나라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윤표 (연 세 대 학 교)

